

만  
운  
집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국역 출판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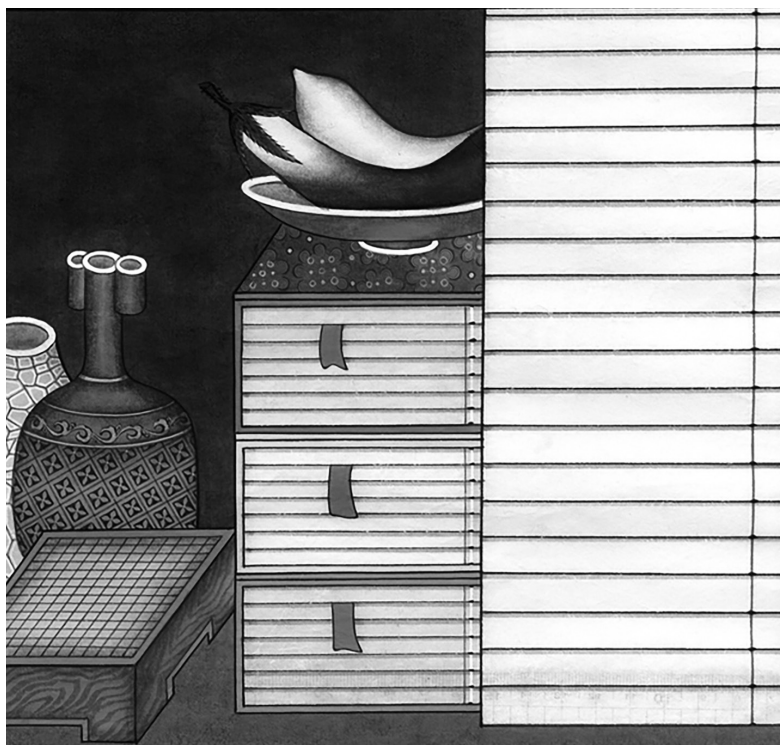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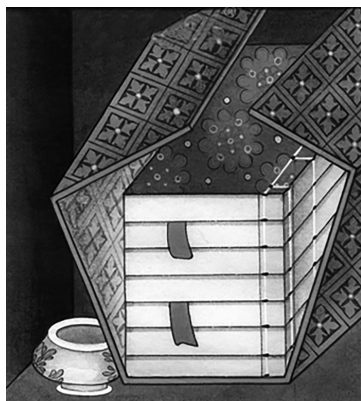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8

# 晩雲集

정충신 著  
鄭忠信

노병덕 譯  
盧炳德

호남한국학연구원  
韓國學研究院



##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만운집(晩雲集)》(奎 7169)으로 하였다.
2. 간단한 설명은 풀어서 번역하고, 역주(譯註)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인명과 지명, 고유 용어 등은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다.
4.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은 원문을 함께 적었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재인용 혹은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출처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 소주(小注)를 본문과 구별하는 데 쓴다.
  - : 원문의 빠진 글자를 표시한다.
  - ☒ : 원문의 불분명한 글자를 표시한다.

차례

일러두기 | 4

해제 | 15

국역 | 원문

서 序	37   359
구서 舊序	37   360

## 만운집 제1권

---

### 시 詩

선유 船遊	37   365
불암사에서 읊다 정사년 佛巖寺有吟 丁巳	38   365
죽은 첩의 거울에 쓰다 題亡妾鏡	39   365
부원수로서 의주에 도착하여 완성부원군 최명길의 편지를 받고 무진년 정월 以副元帥到灣上得見崔完城書 戊辰正月	40   365
안주에 주둔하며 새해를 축하하다 임신년 駐安州賀正 壬申	41   366

꿈속에 대군을 거느리고 오랑캐의 뜰을 소탕하다 夢中領大兵掃平虜庭	42   366
꿈속에 문숙공 윤관의 비석에 쓰다 夢題尹文肅碑	43   366
진눈깨비 2월 雨雪 二月	44   366
지겨운 비 6월 苦雨 六月	45   367
장난삼아 이질부에게 주다 11월 戲贈李質夫 十一月	46   367
당진에 유배되어 느낌이 있어 계유년 3월 謫唐津有感 癸酉三月	47   367
망일암에 피서하며 도사 이항의 방문에 사례하여 같은 해 6월 避暑望日菴 謝李都事杭來訪 同年六月	48   367
《노자》를 읽고 느낌이 있어 같은 달 讀老子有感 同月	49   368
망일암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登望日庵 北望	50   368
비 내린 후에 가을 7월 雨後逢秋 七月	51   368
남화경을 읽고 느낌이 있어 讀南華經有感	52   368
섬진강에서 읊다 10월 蟾江有吟 十月	53   369
입춘에 큰 눈이 내리다 갑술년 1월 立春大雪 甲戌正月	54   369
경상 좌병사로 부임할 때 왕게서 남관왕묘에 술을 내리심에 은혜에 감사하다 갑술년 11월 赴慶尙左兵營宣醞于南關王廟感恩 甲戌十一月	55   369
고참역에서 우후 원수신을 추억하며 古站憶元虞候守身	56   370
이성의 시중대를 유람하며 遊利城侍中臺	57   370
통군정에 올라 登統軍亭	58   370
안주의 토호 이창업이 찾아와 방백 민성징의 운을 보여 주며 화답을 청하기에 붓을 갈겨 주다 임신년 1월 安州土豪李昌業來示閔方伯聖徵韻要和走筆以贈 壬申正月	59   370

상사 민회안의 시에 차운하다 같은 달 次閑上舍希顏韻 同月	60   371
박천관의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 같은 해 7월 次博川館壁上韻 同年七月	62   371
칠보산 유람 遊七寶山	63   371
황도에 가는 주청 부사 오숙우를 전송하며 갑자년 7월 送奏請副使吳肅明赴皇都 甲子七月	64   372
의춘군 첩에 대한 만시 挽宜春君妾	65   372
어떤 이에 대한 만시 挽人	66   372
동지중추부사 윤간에 대한 만시 挽尹同知旰	67   372

## 만운집 제2권

---

### 소 疏

오랑캐 조정에 가는 사명을 받들고 명나라에 대한 주문과 모문룡의 진에 대한 이자를 청하는 상소 신유년 奉使虜庭請奏聞天朝移咨毛鎮疏 辛酉	71   375
평안 병사를 사양하는 상소 갑자년 8월 辭平安兵使疏 甲子八月	75   376
옥성부원군 장만에 대한 비방을 변론하는 상소 병인년 爲張玉城辨謗疏 丙寅	78   377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무진년 5월 辭副元帥疏 戊辰五月	82   378
부원수 및 비국 당상을 사양하는 상소 11월 辭副元帥及備局堂上疏 十一月	84   379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辭副元帥疏	86   380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경오년 9월 辭副元帥疏 庚午九月	87   381
평안 병사를 사양하는 상소 임신년 1월 辭平安兵使疏 壬申正月	89   381
체찰사와 연명으로 올린 상소 계유년 與體察聯名疏 癸酉	93   383
도총관 및 포도대장 직책을 교체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 갑술년 6월 乞遞摠管及捕盜大將疏 甲戌六月	98   384
경상 우병사 때에 서울로 생환하기를 청하는 상소 을해년 5월 慶尙道右兵使時 乞生還京師疏 乙亥五月	99   384

## 차 筭

군무를 논하는 차자 경오년 8월 論軍務筭 庚午八月	100   386
또 군무를 논하는 차자 신미년 6월 又論軍務筭 辛未六月	107   388
또 군무를 논하는 차자 8월 又論軍務筭 八月	112   390

## 만운집 제3권

---

### 서 書

임 유격에게 보내는 편지 무진년 1월 與任遊擊書 戊辰正月	117   395
황 독부 용에게 올리는 편지 신미년 11월 上黃督府 龍 書 辛未十一月	119   395



황 독부에게 올리는 편지 윤11월 上黃督府書 閏十一月	120   396
황 독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黃督府書	122   396
장 유격 괴 에게 보낸 편지 같은 달 與張遊擊 魁 書 同月	123   397
심 부총 세괴 에게 보내는 편지 與沈副摠 世魁 書	124   397
심 부총에게 보내는 편지 임신년 4월 與沈副摠書 壬申四月	126   398
심 총부에게 보내는 편지 與沈摠府書	127   398
심 부총에게 보내는 편지 정묘년 설날 與沈副摠書 丁卯元朝	130   399
심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9월 答沈摠府書 九月	131   399
강홍립에게 보내는 편지 3월 與姜弘立書 三月	132   400
최 완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崔完城書	134   400
최 완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崔完城書	137   401
최 완성에게 보내는 편지 與崔完城書	138   402
이 총부 완풍군 이서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摠府完豐書	140   402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2   403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3   403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5   404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6   404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7   404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148   404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149   405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151   406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3   407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5   407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6   408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7   408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8   408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59   409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60   409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61   409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62   410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64   410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165   411
평안 감사 김 시양 에게 답하는 편지 答平安監司金 時讓 書	167   412
정기옹에게 보내는 편지 與鄭畸翁書	169   412
빙에게 부치다 경오년 寄硯兒 庚午	170   413
빙에게 부치다 계유년 8월 寄硯兒 癸酉八月	171   413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 8월 寄硯兒 甲戌八月	172   413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 윤8월 寄硯兒 甲戌閏八月	173   414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 8월 寄硯兒 甲戌八月	174   414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 寄硯兒 乙亥	175   414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 寄硯兒 乙亥	176   415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 寄硯兒 乙亥	177   415

제문 祭文

옥성부원군 장만 공에 대한 제문 祭玉城府院君張公文 178 | 417

축문 祝文

서산의 별장 터 닦을 때의 축문 瑞山莊舍開基時祝 181 | 419

아마힐 국사 신에게 고하는 글 告阿摩詰國祀神文 183 | 419

만운집 부록1권

---

교서 教書

교서 教書 187 | 423

교서 教書 188 | 423

교서 教書 192 | 424

어제문 御祭文

인조대왕이 내린 제문 仁祖朝賜祭文 196 | 425

제문 祭文

충훈부에서 치제하는 글 忠勳府致祭文 199 | 426

연양군이 치제하는 글 延陽君致祭文 204 | 427

능천군이 치제하는 글 綾川君致祭文 210 | 428

## 만시 挽詩

최 완성 명길 崔完城 鳴吉	215   429
이 완풍 서 李完豐 曙	216   429
구 능성 평 具綾城 宏	217   429
장 신평 유 張新豐 維	218   430
이 연양 시백 李延陽 時白	220   430
이 지사 현영 李知事 顯英	222   430
김 우윤 대덕 金右尹 大德	224   431
유 사성 성증 兪司成 省曾	226   431
정 기옹 홍명 鄭畸翁 弘溟	227   432
정 참의 광성 鄭參議 廣成	228   432
정태화 鄭太和	229   432
나만갑 羅萬甲	231   433
신 찰방 이우 申察訪 易于	232   433

## 만운집 부록2권

---

### 세계 世系

만운 선생 세계 晚雲先生世系	235   437
-----------------	-----------

### 연보 年譜

만운 선생 연보 晚雲先生年譜	237   438
-----------------	-----------

## 만운집 부록3권

---

시장 諡狀

시장 諡狀 307 | 463

척록 摭錄

《해동명신록》의 대략 海東名臣錄略 330 | 471

백사가 순찰사 장만에게 보낸 편지의 대략  
白沙與張巡察晚書略 332 | 471

청흥군 비문의 대략 조경 靑興君碑文略 趙綱 333 | 472

〈파적론〉의 대략 하담 破賊論略 荷潭 334 | 472

월사가 섬진강 그림에 쓴 글 月沙書蟾江圖 336 | 473

《계곡만필》의 대략 谿谷謾筆略 338 | 473

판서 김휘가 들은 것을 기록한 것 金判書記聞 徽 339 | 474

월사가 섬진강 그림에 쓴 시 月沙題蟾江圖詩 340 | 474

〈격적가〉 백주 擊賊歌 白洲 341 | 474

천파의 사첩 天坡謝帖 342 | 475

천파가 생각을 부치다 天坡寄思 343 | 475

천파가 생각을 부치다 天坡寄思 344 | 475

천파가 작별하면서 주다 天坡贈別 345 | 475

백주가 이별할 때 주다 白洲贈別 346 | 476

현주가 작별하며 주다 玄洲贈別 347 | 476

기옹이 작별하며 주다 畸翁贈別 348 | 476

안현가 鞍峴歌

349 | 476

만운집 발 晚雲集跋

발 跋

353 | 478

발 跋

354 | 478

해제

구국(救國)의 간성(干城) 정충신(鄭忠信)의 《만운집(晚雲集)》

노병덕

## 1. 가계와 생애

### 1) 가계

정충신(鄭忠信, 1575~1636)의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晚雲), 봉호(封號)는 금남(錦南), 시호(諡號)는 충무(忠武)이다. 《금성정씨세보(錦城鄭氏世譜)》에 의하면 금성 정씨는 하동 정씨(河東鄭氏)에서 분관(分貫)하여 정성(鄭盛)을 시조로 삼는다.

3세조 정지(鄭地)는 공민왕 때 왜구(倭寇)를 평정할 방책을 왕에게 올려 전라도 안무사(全羅道按撫使)가 되고, 뒤에 다시 순천도 병마사(順天道兵馬使)가 되어 순천·낙안(樂安)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소탕하였다. 4세조 정경(鄭耕)은 문과에 급제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칠도관찰사(七道觀察使)를 지냈으며, 5세조 정종(鄭種)은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충청도 관찰사와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6세조 정서(鄭鋤)는 문과에 급제하여 함평 현감을 지냈으며, 7세조 정확(鄭穫)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과 무안 현감(務安縣監)을 지냈다.

정충신의 고조 정원종(鄭元宗)은 통훈대부이며, 증조 정천(鄭荐)은 음직으로 임피 현령을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

議)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정석주(鄭錫柱)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아버지 정륜(鄭倫)은 증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승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추증되고 금천군(錦川君)에 봉작되었다. 어머니 영천 이씨(永川李氏)는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인조(李仁祚)의 딸로,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 2) 생애

정충신은 1575년 12월 29일에 광주(光州)의 옛 향교동(鄕校洞 지금의 지산동)에서 태어나 1636년 5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북방에서 후금(後金)이 발호(跋扈)하여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 속에서 서북방을 방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략과 덕망을 겸비한 정충신은 인조반정 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묘호란을 전후하여 명분과 대의로 일관하는 조정 관료들에 맞서 현실적인 대응을 펼치는 등 국가와 백성들의 안위만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조부로부터 모두 사졸(士卒)로서 병영에 예속되었으며, 그 또한 광주에서 급사(給事)로 복무하였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에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이 왜적을 토벌한 상황을 의주의 행재소에 보고하려 할 때 정충신이 그 일을 자청하여 의주 행재소에 전하였다. 병조 판서 이항복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막하(幕下)에 두어 《좌전(左傳)》·《국어(國語)》·《사기(史記)》 등을 가르쳤는데, 마침 의주에서 과거에 응시하여 무과 병과(武科丙科)에 올랐다. 1618년 1월에 이항복이 유배되자 북청(北靑)의 적소(謫所)로 따라가 《북천일기(北



遷日記》를 지었고, 5월에 그가 졸하자 받들고 포천(抱川)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는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입었다.

1602년(선조35) 겨울에 주청부사(奏請副使) 장만(張晩)<sup>1</sup>을 수행하여 연경(燕京)을 다녀왔으며, 1607년 가을에는 함경 감사 장만을 따라 함경 감영으로 가서 부성(府城) 쌓는 일을 감독하였다. 1608년에 조산 만호(造山萬戶)가 되어 북로(北虜)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쇄환(刷還)해 왔다.

1614년(광해군6)에 조정의 혼란을 보고 은둔할 생각으로 광양(光陽)의 섬진강 서편에 집을 지었으나, 이듬해에 포이 만호(包伊萬戶)<sup>2</sup>에 제수되었다. 1617년에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의 군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621년 2월에 만포 첨사(滿浦僉使)가 되었다. 삼남(三南)에서 뽑혀 온 군사들이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콩죽을 쑤어 나눠 먹여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였다. 1622년 3월에 평안도 병마좌우후(平安道兵馬左虞候)가 되었다.

---

1 장만(張晩) : 1566~1629.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1589년(선조22)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91년에는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검열·전생시(典牲寺) 주부를 역임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여 진무(振武) 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옥성(玉城)부원군에 봉해졌다. 우찬성을 거쳐 다시 병조 판서가 되었으나, 1627년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부여(扶餘)에 유배되었다가 전공(前功)으로 용서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재력이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통진(通津)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낙서집》이 있다.

2 포이 만호(包伊萬戶)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다.

1623년(인조1) 3월에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여 공에게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을 이참(莅斬)<sup>3</sup>하도록 명하고 권영본부사(權領本府事)로 삼았으며, 강변의 여러 고을을 거쳐 안주목사 겸 방어사(安州牧使兼防禦使)로 이배(移拜)되었다.

1624년 1월 22일에 평안도 영변에서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으로 진격하자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의 휘하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서 2월 11일에 이괄을 경성(京城)의 안현(鞍峴)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3월에 조정에서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의 공신 호를 내리고 금남군(錦南君)으로 봉하였다. 8월에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영변 대도호부사가 되었다.

1627년 1월 13일 새벽에 청나라가 의주(義州)를 침범하자 비국(備局)의 주청으로 부원수가 되어 관서(關西)에 나가 지휘하였다.

1629년 4월에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이 되고, 5월에 오관산 기우제관(五冠山祈雨祭官)이 되어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왔다.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정사(呈辭)하여 체차되었다가 다시 도총관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1월에 자청하여 수군부원수(水軍副元帥)가 되어 8월에 파병(罷兵)하라는 유지(有旨)를 받고 서울로 돌아와 복명하였다.

1631년 3월에 상이 서쪽 교외에서 영칙(迎勅)<sup>4</sup>할 때 별운검(別雲劍)으로 배종(陪從)하고, 4월에 도총관이 되었다. 8월에 청천강을 건너가 강 서쪽 각읍 산성의 형세를 순심하고 숙천으로 돌아왔으며, 철산(鐵山)의 운암산성(雲巖山城)을 수축할 것을 청하였다. 11월에 가도(假

---

3 이참(莅斬) : 선전관(宣傳官)과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파견하여 죄수가 유배된 곳에서 참형(斬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칙(迎勅) : 임금 칙서(勅書)를 갖고 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島) 군병들이 난을 일으켰으므로 철산의 사포(蛇浦)에 진주(進住)했다가 윤11월 초에 안주로 돌아왔다.

1632년(인조10) 1월에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선천 방어사(宣川防禦使) 임경업(林慶業)<sup>5</sup>이 암암리에 선비들을 부추겨 정충신을 배척하는 소(疎)를 올리게 하였는데, 감사 민성휘(閔聖徽)가 득실을 밝혀 임경업이 심문을 당하게 되었다.

1633년 2월 2일에 체찰사 김시양(金時讓)이 안주에 이르고 그날 밤 비변사의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는데, 청나라 사신이 요구한 증폐(增幣)를 불허하고 사신을 보내 절교(絶交)를 알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정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체찰사와 논한 정충신은 7일에 김대건(金大乾)이 국서(國書)를 가지고 안주에 이르자 그의 행렬을 안주에 우선 억류하고 김시양과 함께 절교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임의로 사행(使行)을 억류한 죄를 청하여 당진(唐津)으로 유배되었다가 5월에 사면되었다.

1634년 1월에 서용(敍用)<sup>6</sup>하라는 특명이 내려 3월에 도총관이 되고, 6월에 포도대장이 되었으며, 7월에 내섬시 제조(內贍寺提調)가 되었다. 10월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이듬해 3월에 백사 이항복의 문집을 간행하여 세상에 반포하였다. 이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네 처의 편지를 보니, 굵고 앉아 날을 보낸다고 하더구나. 차목(差木)

---

5 임경업(林慶業) : 1594~1646.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다. 친명반청(親明反淸) 사상이 투철한 무장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하였으며,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명나라와 협력하여 청을 공격하려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시호가 충민(忠愍)이다.

6 서용(敍用) : 죄를 지어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3필을 보내니, 선아(善兒)가 배고파 보채는 데에 구완하도록 해라. 영중(營中)이 텅 비었고 백사 상공의 문집을 간행하느라 물력(物力)을 탕진하여 아버 된 도리를 할 수 없어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고관의 집안인데도 가족들이 굶주리는 형편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청렴한 관리였는지 알 수 있다.

1636년(인조14) 3월에 조정에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和親)을 단절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국가의 존망이 올해에 결판날 것이다.’ 하며 크게 탄식하였다. 이로부터 병세가 더욱 심하여 5월 4일 반송방(盤松坊) 집에서 졸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인조께서 “고굉(股肱)을 잃은 것처럼 심히 서글프다.” 하고, 해조(該曹)에 명하여 예장(禮葬)의 물건을 하나같이 횡간(橫看)<sup>7</sup>에 따라 즉시 제급(題給)<sup>8</sup>하도록 하였다. 또한 왕의 동옷(襦衣)과 도포(道袍) 각 한 벌을 내려 염습하게 하였다.

정충신은 백사 이항복을 사사(師事)하였으며, 백사 문하의 명사들과 두루 사귀어 장유(張維)·이연양(李延陽)·최명길(崔鳴吉)·정홍명(鄭弘溟)과 더욱 막역하였다. 《금판(金版)》·《육도(六弢)》와 제병가(諸兵家)의 부류를 본디 전문하였으나, 감석(甘石)·감여(堪輿)·복서(卜筮)·성명(星命)·예술(藝術)에 관한 서적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백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검(劍)을 버리고 책(冊)을 가까이한다면 일세(一世)의 고사(高士)들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

7 횡간(橫看) : 조선조의 재정세출표(財政歲出表)이다. 국고 지출 사무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1년 동안의 지출 명세서로, 세조(世祖) 때 완비되었다. 이것을 일람표로 만들어 궤지(鄣紙)에 횡(橫)으로 기재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횡간이라 한다.

8 제급(題給) : 관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증명서를 써 주는 것을 말한다.

하였으며,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은 그를 애도하는 글에 “청명한 기상은 태허(太虛)와 합하고, 단묘(端妙)한 자태는 화도(畵圖)에 머물러 있다. 청빈한 지조로 옷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좌마(左馬)<sup>9</sup>의 글로 홀로 옛사람을 좇았도다.”라고 하였다.

## 2. 문집의 편찬 및 간행

저자의 행적과 시문은 1684년(숙종10)경에 이선(李選)과 김만기(金萬基) 등에 의해서 수습, 정리되었다. 그리고 1732년(영조8)에 저자의 현손(玄孫)인 정도연(鄭道彦)이 원경하(元景夏)에게 서문을 받았다. 이 유고가 1759년에 곡성 현감 정문홍에 의해서 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초간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초간본의 대본으로 보이는 사본(寫本)이 규장각에 《금남유집(錦南遺集)》(奎6900)·《금남사적(錦南事蹟)》(奎7682) 등의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금남사적》에는 원경하의 서문이 들어 있다.

그 후 1894년(고종31)에 저자의 7대 방손(傍孫)인 정봉현(鄭鳳鉉)이 초간본을 증보(增補)하여 기우만(奇宇萬)의 도움으로 재편(再編)하고 기우만에게 서문을 받아 6권 2책의 활자본으로 중간(重刊)하였다. 이 중간본은 규장각(奎7169),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856),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69)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

9 좌마(左馬)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저자 좌구명(左丘明)과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을 말한다.

1894년에 활자로 간행된 중간본으로 규장각 소장본이다.

### 3.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原集 3권, 附錄 3권 습 2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1894년(고종31)에 기우만이 쓴 서문과 1732년(영조8)에 원경하가 쓴 구서(舊序)가 실려 있다. 이어서 원집목록(原集目錄)이 있다.

원집 권1에는 30제(題) 32수의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오언절구 1수, 칠언절구 20수, 칠언율시 3수, 오언율시 8수이며, 시체(詩體)와 연도의 구분이 없이 배열되어 있다. <적당진유감(謫唐津有感)>은 1633년(인조11) 3월에 당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로 59세 노신(老臣)의 충성심이 담겨 있으며, <선유(船遊)>·<독노자유감(讀老子有感)>·<독남화경유감(讀南華經有感)>은 격변하는 세상에 대한 힘오투와 비판 및 은거하려는 심정을 피력하였다. <우운(雨雲)>에서는 백성들의 안락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권2에는 소(疏) 11편과 차(筵)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봉사노정청주문천조이자모진소(奉使虜庭請奏聞天朝移咨毛鎮疏)>는 1621년(광해군13) 만포 첨사(滿浦僉事)로 있을 때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올린 것으로, 자신의 사행(使行)을 명나라 본국과 조선 국경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에게 미리 알려서 양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사평안병사소(辭平安兵使疏)>는 1624년 8월 평안도 병사에 제수

되었을 때 중병을 이유로 사양하는 글이다. <위장옥성변방소(爲張玉城辨謗疏)>는 1626년(인조4) 남이흥(南以興)과 연명으로 올린 상소로, 창녕 현감(昌寧縣監) 조직(趙稷)이 이괄의 난 당시 도원수(都元帥)였던 장만(張晩)의 처신을 비난하고 논공이 불공평하다는 상소를 올리자 이 상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사부원수소(辭副元帥疏)>는 1628년 5월에 병이 심해져 부원수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하는 글이다. <사원수급비국당상소(辭元帥及備局堂上疏)>는 1628년 11월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병이 재발하여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부원수와 비국 당상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여체찰연명소(與體察聯名疏)>는 1633년 체찰사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올린 것으로, 청나라에 절화(絶和)를 고하러 가는 사신 김대건(金大乾)을 의주에 억류(抑留)하고 후금과의 관계를 전쟁보다는 화의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논군무차(論軍務劄)>는 1630년 8월 광량(廣梁)에 있을 때 올린 것으로, 정묘호란 이후 북쪽 국경 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서술하면서 국경 수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우논군무차(又論軍務劄)>는 1631년 6월에 올린 것으로, 국경 지역의 수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우논군무차(又論軍務劄)>는 1631년 8월에 올린 것으로, 정묘호란 때 용만성(龍灣城)이 쉽게 적에게 함락되었던 경험에 근거해서 용만성이 수비 거점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글이다.

권3에는 서(書) 44편, 제문(祭文) 1편, 축문(祝文)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임유격서(與任遊擊書)>는 1628년 1월 명나라 유격(遊擊) 임세과(任世科)에게 보낸 편지이다. <상황독부서(上黃督府書)>는 1631년 11월 가도(假島)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황룡(黃龍)에게 보

낸 편지이다. <여장유격서(與張遊擊書)>는 1631년(인조9) 윤11월 명나라 유격 장괴(張魁)에게 보낸 편지이다. 근래에 명나라와 조선 병사들 사이에 헛소문이 많이 나돌아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던 차에 도독 황룡이 편지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더불어 가도의 상황을 자신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괴의 도움에 감사하고 가도의 변란이 잘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내용이다. <여심부총서(與沈副摠書)>는 1631년 반란자들에 의해 구금된 황룡을 구해 낸 심세괴의 충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육지로 내보낸 백여 명의 명나라 사람들을 빨리 가도로 다시 불러들일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여강홍립서(與姜弘立書)>는 1627년 금나라와 화의를 맺은 직후 강홍립(姜弘立)에게 보낸 편지이다. 하급 부대에서 약속을 어기고 노략질을 하므로 우리가 이에 대해 보복할 수도 있지만 맞대응하지 않겠다 하고, 강홍립에게 주선을 바라는 내용이다. <답최완성서(答崔完城書)>는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에게 금나라와의 긴장이 소강상태임을 알리고 군량이 부족한 아군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안주성을 중심으로 성문을 닫고 지키는 전술을 시행할 것임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답평안감사김서(答平安監司金書)>는 평안도 관찰사 김시양(金時讓)에게, 가도(柯島)에서 난을 일으킨 유홍치를 치는 작전 수행에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다. <여정기옹서(與鄭畸翁書)>는 정홍명(鄭弘溟)에게 병 때문에 직접 안부를 올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병이 조금 나으면 찾아가 만나겠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아울러 아들 정빙(鄭砮)에게 보내는 편지가 8통인데, 1635년에 보낸 편지는 아들이 휴가를 받아 올 줄 알았는데 못 오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섭섭하다는 것과 며느리가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도와주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제옥성부원군장공문(祭玉城府院君張公文)>은 1629년(인조7) 장만(張晩)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서산장사개기시축(瑞山庄舍開基時祝)>은 1633년 서산(瑞山)에 별장 터를 닦을 때의 축문이다. <고아마힐국사신문(告阿摩詰國祀神文)>은 1633년 별장을 지을 때 아마힐봉 국사신께 올리는 제문이다.

부록에는 앞에 목록이 있고, 권1에 교서(敎書) 3편·어제문(御製文) 1편·제문 3편·만시(挽詩) 13수, 권2에 세계(世系)·연보(年譜), 권3에 시장(諡狀)·척록(摭錄)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는 정충신을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책봉하는 교서, 1657년(효종8) 정충신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봉하는 교서, 본인과 부모·처자 등의 작위를 3등급 올려 주고 노비와 토지·물품 등을 하사하는 내용의 교서 등이다. 시장(諡狀)은 1684년(숙종10)에 김만기(金萬基)가 지은 것으로, 이 시장에 의하여 충무(忠武)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척록(摭錄)은 다른 사람의 저술에 나오는 저자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여 수록한 것이다.

권미(卷尾)에는 5대손 정문흥(鄭文興)이 쓴 초간본(初刊本) 발문(跋文)과 1894년(고종31)에 7대 방손(傍孫) 정봉현(鄭鳳鉉)이 쓴 중간본(重刊本)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 4. 문집의 사료적 가치

정충신이 활약한 17세기 초에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여 명나라와 다투는 혼란한 시기였다. 1621년(광해군13) 3월에 심양과 요양이 누르하치에 의해 함락되자 명나

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은 패잔병을 이끌고 압록강 주변의 진강을 점령하고, 그 후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椴島)에 명군과 난민 1만 명이 머물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 군량을 강요하며 식량을 징발하였는데, 때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에 상륙하여 약탈을 벌이기도 했다.

정충신은 적정(敵情)을 탐지하여 현명하게 견제하였으며, 명나라 장수의 무리한 요구도 잘 설득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본 문집의 <연보>, 소차(疏筭), 서(書)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연보>에서 인용한 저자의 일기나 장계의 내용은 군무를 수행하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후금과의 관계는 전쟁보다는 화의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장하였다. 명나라 유격(遊擊), 도독(都督), 부총(副摠) 등에 보낸 편지에서는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이해시키며 후금을 자극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명군과 우리 군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외교적인 활동이 잘 드러나 있다.

이같이 본 문집은 17세기 초의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관계와 국난기의 조선 조정의 대처 등을 이해하는 데 사료적 가치가 높다.

## 만운집 서 晩雲集序

일찍이 의심하기를 금남(錦南)이 평소에 있었더라도 금남의 때가 아니었다면 금남이 되지 못하였을까. 금남이 평소에 없었으나 하늘이 장차 대란을 내릴 때는 반드시 금남 같은 이를 내보내 난을 평정케 할까? 평소에 있었더라도 금남이 되지 못함은 시운(時運)이고, 평소에 없었더라도 기필코 금남을 내는 것도 시운이다. 시운이여! 내 다시 어찌 의심하겠는가.

선조(宣祖)·인조(仁祖) 연간에 국가에 전란이 많았던 것은 100년 동안 문(文)을 숭상하여 안일에 빠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송나라의 세경(世卿)<sup>1</sup>을 등용하고, 한나라의 제갈량(南陽)을 등용하여 비록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sup>2</sup> 같은 장수를 두었을지라도 장차 즐거들 사이에 늙어 죽었을 것이니, 하루아침에 경보(警報)가 있다면 편한 밥을 어찌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공이 처음에 광주(光州)의 급사(給事)로 발탁되어 당시에 등용되었다. 궁리가 장량(張良)<sup>3</sup>과 같고 계책이 진평(陳平)<sup>4</sup>과 같았으나 당시에

---

1 세경(世卿) : 중국 춘추 시대의 제도로, 대대로 경대부(卿大夫)를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 : 한 무제(漢武帝)의 무장(武將)으로서 흉노(匈奴) 정벌에 공이 컸다.

3 장량(張良) : 한(漢)나라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이다. 한 고조가 그에 대해서 “장막 속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 밖의

인망(人望)<sup>5</sup>이 가벼워 쓰지 않다가 일을 그르쳐 그의 말처럼 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비로소 중용하여 쓰자 효험이 있었다. 또한 한신(韓信)의 병권을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아는 소상국(蕭相國)<sup>6</sup>의 지혜가 있었다. 역적 이괄(李适)의 변란이 마침 이때 있어, 수레를 막는 버마 재비가 참새가 뒤에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듯 하였으므로, 장안(長安)의 사녀(士女)들이 한관(漢官)의 위의(威儀)와 중흥(中興)의 원공(元功)을 다시 보게 되었다.

공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안주(安州)에서 대죄하였으니,<sup>7</sup> 풍 대수(馮大樹)<sup>8</sup>를 또한 어찌 높다 하겠는가. 세상에 둘도 없는 공을 세운

---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자방보다 못하였다.〔夫運籌策帷帳之中，決勝於千里之外，吾不如子房。〕”라고 칭찬한 고사가 있다. 《史記 卷8 高祖 本紀》 자방(子房)은 장량의 자이다.

- 4 진평(陳平) : ?~기원전178.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이다. 고조(高祖)를 섬기면서 육출기계(六出奇計)의 공을 세워 곡역후에 봉해졌고, 혜제(惠帝) 때에는 좌승상이 되어 주발(周勃)과 여씨(呂氏) 일족을 죽임으로써 한나라 왕실 부흥에 공을 이루었다.
- 5 인망(人望) :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덕망을 말한다.
- 6 소상국(蕭相國) : 소하(蕭何, ?~B.C.193)로, 전한 고조 때의 재상이다.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한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한 나라 왕조 경영의 기초를 다졌다.
- 7 공이……대죄하니 : 조정에서 김대건(金大乾)을 사신으로 보내 청(淸)에서 요구하는 세폐(歲幣)를 거절하고 절교(絶交)하려 하자 사신을 안주(安州)에 머물게 하고 김시양과 함께 절교(絶交)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는데, 임의로 사행(使行)을 억류한 죄로 서울로 잡혀와 하옥(下獄)되었다가 당진(唐津)으로 유배된 일을 말한다.
- 8 풍 대수(馮大樹)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장군 풍이(馮異)를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동한기(東漢紀)>에 “편장군(偏將軍) 풍이는 위인이 겸손하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적과 접전(接戰)하지 않으면 부하들이 항상 제군(諸軍)의 뒤에 행군하도록 하였다. 전투가 끝나고 여러 장수를 논공행상(論功行賞)할 적마다 풍이는 항상 나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軍中)에서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 호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중에 인재가 없지는 않지만, 이 한 가지는 오직 공뿐이리라. 임진·정유년 간에 공로를 시기하던 대신들도 공에게는 술수를 쓰지 못하였으니, 실로 장한 일이다.

아, 공은 언제 독서를 하였관데, 지혜(明睿)로 살피는 바와 이목(眼耳)으로 스치는 바를 마음으로 환하게 통하였던가. 시문(詩文)·소차(疏筭)와 왕복 편지는 비록 전문대가(專門大家)라도 그를 앞서지 못할 것이니, 비로소 시대에 부응하여 나온 자로서 치각(齒角)<sup>9</sup>을 본디 아울러 타고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집(遺集)의 행간(行間)에서 독자들은 의당 저절로 알겠지만, 임기응변과 기모장책(奇謀長策)을 역시 이 책에 의탁하여 전하게 되었다.

아, 금수(禽獸)의 발자국이 중원(中原)에 교차함이어! 식자들이 근심한 지 오래이거늘, 공의 밝은 계책으로 응당 선견(先見)이 있으리니, 구천(九泉)에서 불러 한번 물어봤으면…….

유집(遺集)을 장차 중간(重刊)하려 정계로(鄭季老) 군이 일가의 뜻을 모아 그 서차(序次)를 묻고 책머리에 서문(序文)을 청하기에 속으로 느낀 바를 이처럼 간략하게 기록하고, 또한 고한다. 공이 만운(晩雲)이라 자호(自號)하고는 공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물러나 적송자<sup>10</sup>의

---

9 치각(齒角) : 여치거각(予齒去角)의 준말로, 세상사의 이치로 볼 때 양립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 56 <동중서전(董仲舒傳)>에 “하늘은 역시 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강한 이빨을 준 동물에게는 뿔을 주지 않고 날개를 달아 준 새에게는 두 다리만을 주었으니, 그 큰 것을 받은 동물은 다시 작은 것을 가질 수 없는 법이다.[夫天亦有所分予, 予之齒者去其角, 傅其翼者兩其足, 是所受大者, 不得取小也.]”라고 하였다.

10 적송자(赤松子) : 황초평(黃初平). 중국 후한(後漢) 때부터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 때의 신선으로, 15세 때 양(羊)을 먹이러 나갔다가 도사(道士)를 만나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로 들어가 40년간 도를 닦고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뜻을 좇고자 하였으니 작약함을 볼 수 있고, 공의 품은 생각으로 넉넉히 이것을 해낼 수 있었으나 난리의 화근을 없애지 못해 명을 청할 겨를이 없었을 뿐이다. 바라건대 만운으로 그 책을 명명하여 그의 뜻과 일을 밝히려 하노라.

갑오년(1894, 고종31) 중춘,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sup>11</sup> 삼가 서문을 쓰다.

---

11 기우만(奇宇萬) : 1846~1927. 근대의 학자·의병장으로,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 가학을 계승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으며, 1895년 이후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저항하였다.

## 만운집 구서 晩雲集舊序

나는 어려서부터 동국(東國)에 금남(錦南) 정충신(鄭忠信)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지난해 겨울 공의 후손 도연(道彦)이 공의 유고(遺稿)를 가져와 내게 서문을 부탁하기에 약간의 작품을 읽다가 내가 마침내 책을 덮고 탄식하며 “하늘이 공을 냈으니, 어찌 뜻이 없었으랴. 애석하다, 그의 심려원모(深慮遠謀)를 당세에 쓰지 아니함이여!” 하였다.

세상에 공을 아는 자들은 모두 갑자년(甲子年)의 공로<sup>1</sup>를 칭한다. 저 북산(北山)을 먼저 접거한 것은 공이 첫 번째 피한 기묘한 변법인데, 후인들은 지금껏 공이 국적(國賊)을 격파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공을 세운 것만을 칭하니, 아, 이 어찌 공을 아는 자라 하겠는가.

공이 서쪽 변방에 부월(斧鉞)을 받고 부원수가 되었을 당시 청나라가 세폐(歲幣)<sup>2</sup> 문제로 트집을 잡아 장차 동방을 삼킬 뜻을 두었는데, 조정은 그 꾀를 깨닫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 화친을 단절하려 하였다. 공이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화를 재촉하는 계책이다.”라고 상소하여 그 실계(失計)를 논하다가 마침내 이로써 죄를 얻었다.

병자년(1636, 인조14) 봄, 도성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라

---

1 갑자년(甲子年)의 공로 : 1624년(인조2) 2월, 서울 안현(鞍峴)에서 이괄(李适)의 반군(反軍)을 대파(大破)한 공로를 말한다.

2 세폐(歲幣) : 매년 10월 청(淸)으로 가는 사신이 공물(貢物)로 가지고 가는 무명이다.

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공이 말하기를, “왜적은 오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큰 걱정거리는 오직 청나라[女眞]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해 겨울에 과연 공의 말처럼 오랑캐가 대거 쳐들어와 노략질하였으니, 공의 적정(敵情)을 헤아림이 얼마나神通한가.

옛날 당 덕종(唐德宗)이 평량(平涼)에서 토번(吐蕃)과 맹약을 맺자 조정의 신하들이 다 축하하였는데, 태위(太衛) 이성(李晟)<sup>3</sup>이 홀로 말하기를, “화호(和好)는 반드시 성립되지 아니하고, 중국이 오랑캐에게 수모를 당할 것이다.” 하였다. 덕종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끝내 겁맹(劫盟)<sup>4</sup>에 이르렀다. 공이 화의(和議)를 주장하고, 이성은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니, 고금에 사람은 다를지라도 오랑캐의 실정을 꿰뚫어 국가를 위한 심려원모(深慮遠謀)는 공과 옛사람이 일찍이 다름이 없었다.

바야흐로 몽고와 청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있어 이윽고 틈을 탈 만한 기회를 얻었으나, 조정이 옥백(玉帛)<sup>5</sup>을 폐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난리를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이르기를, “북벌(北伐)하면 어부지리(漁父之利)<sup>6</sup>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듣는 이들이

3 이성(李晟) : 727~793. 중국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의 장군이다. 주자(朱泚)의 난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사도(司徒)가 되고, 봉 천(奉天)의 포위를 풀 공으로 서평왕(西平王)에 봉해졌다.

4 겁맹(劫盟) : 위협하여 맹약하게 함.

5 옥백(玉帛) : 옥과 비단으로 제후가 천자를 알현할 적에 예물로 바친다. 《춘추좌씨전》 애공(哀公) 7년조에 “우(禹) 임금이 도산(塗山)에서 제후(諸侯)를 집합시켰는데, 옥백을 가진 자가 만국이었다.”라고 하였다.

6 어부지리(漁父之利) : 바닷가에 큰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자, 지나가던 물총새가 이를 쪼아 먹으려 하였는데, 조개가 입을 닫는 바람에 주둥이를 빼지 못하고 서로 버티다가 어부에게 모두 잡혔다는 내용이다.



모두 미치광이로 여겼다. 내 감히 자신할 수는 없으나, 공이 나의 말을 듣는다면 기필코 기론(奇論)이 있으련만, 공이 이미 구천에서 돌아올 수 없음에야!

공의 위대한 공렬(功烈)은 영원히 불멸할 것이나, 내가 유독 칭하지 않는 것은 공의 공적이 칭할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밝고 통달한 식견을 내가 추사(追思)하여 깊이 사모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만 갑자년의 공만 알고, 계유년의 소(疏)를 알지 못하는데, 이에서 더욱 공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을 볼 수 있다.

주자(朱泚)의 난<sup>7</sup>에 하늘이 이 서평(李西平)-이성(李晟)-을 내지 않았던들, 당나라가 반드시 망했을 것이니, 장안(長安)을 수복한 그의 공은 천고에 진동하여 빛난다고 이를 만하다. 오늘 내가 평량(平涼)의 맹약에 대하여 개연히 깊이 탄식함은 덕종(德宗)이 이 서평의 계책을 쓰지 않아 당나라가 떨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의 심려원모(深慮遠謀)가 서평보다 더욱 뛰어났으나, 국가가 그의 말을 쓰지 아니하여 끝내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치욕이 있었으니, 변란이 발생하여 비록 그 사람을 생각한들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내가 공(功)을 칭하지 않은 것은 그의 말이 당세에 채용되지 못하여 매우 한스럽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지만 공이 오랑캐와 화의(和議)를 주장함은 우리에게 화를 초래하지 않고자 함이나, 공이 성하지맹(城下之盟)<sup>8</sup>을 보았다면 미련

---

7 주자(朱泚)의 난 : 783년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의 부대가 변진(藩鎮) 이희열(李希烈)의 도발을 진압하고 포상을 기대하며 돌아왔으나 푸대접을 받게 되자 불만이 폭발하여 덕종(德宗)을 몰아내고 주자(朱泚, 742~784)를 옹립하여 대진황제(大秦皇帝)라고 칭하였다. 주자는 이듬해에 국호를 한(漢)으로 정하고 한원천황(漢元天皇)이라 칭하였으나 1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되고 만다.

8 성하지맹(城下之盟) : 적군이 성 아래에 입하였을 때 압박을 받아 접수한 굴욕적인

없이 죽어 대의(大義)를 밝혔을 것이다. 화의로써 공을 의심한다면 공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만일 후인이 공의 글을 읽는다면 반드시 내가 오늘 논한 점에 인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책 뒤에 나의 말을 기록하여 세상에 정금남(鄭錦南)을 아는 자를 기다리노라.

승정(崇禎) 후 임자년(1732, 영조8) 늦겨울에 원성(原城) 원경하(元景夏)<sup>9</sup>가 서를 쓰다.

---

맹약을 말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桓公) 12년조에 “초(楚)나라가 교(絞)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성하지맹을 체결한 뒤에 돌아갔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 “성하맹(城下盟)은 제후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금나라와 굴욕적인 맹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9 원경하(元景夏) : 1698~1761, 자는 화백(華伯), 호는 창하(蒼霞)·비와(肥窩),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36년(영조12)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예문관 제학·봉상시 제조를 거쳐 이조 참판을 지냈다. 1745년에 부제학으로 호남의 전정(田政) 문란을 상소하였고, 호남 사정에 밝다 하여 호남 진진 개량사(湖南陳田改量使)에 임명되었다. 문집에 《창하집》이 있다.

---

만  
운  
집

---

제  
1  
권

---

詩  
시



## 시 詩

선유

船遊

일엽편주 사뿐히  
바람 따라 가고 머물도다  
덧없는 세상에 비할진댄  
안온하기 요순시대 같도다

一葉舟輕薄  
隨風任去留  
若將浮世比  
安穩似唐虞

불암사에서 읊다 정사년(1617, 광해군9)

佛巖寺有吟 丁巳

남녘 절 종소리에 날이 저무니  
잠잘 새 구름 거슬러 급히 날도다  
산중에 나 정인과 약속을 가져  
때로 창문 열고 동구를 보도다

南寺鍾鳴晝已曛  
宿禽飛急遡歸雲  
山中自有情人約  
時復開窓望洞門

---

1 불암사(佛巖寺)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집리 불암산에 있는 절이다.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로, 신라 경문왕(景文王) 때 지증국사(智證國師)가 창건하였다.

# 죽은 첩의 거울에 쓰다

題亡妾鏡

십 년 살림에 고생만 하였거니  
정의상 어이 부첩을 논하라  
한밤에 화들짝 불리도 소용없어  
눈물질까 차마 고란<sup>2</sup>을 못 본다오

十年白鼎備辛艱  
情意寧論婦妾間  
半夜驚魂招不得  
不堪和淚對孤鸞

---

2 고란(孤鸞) : 외로운 난새란 뜻으로, 옛날 계빈국왕(鬍賓國王)이 난새 한 마리를 얻고는 매우 사랑하였으나, 3년 동안이나 울지 않다가 어느 날 그에게 거울을 보여 주자 제 형체를 보고 매우 슬피 울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짝이 없거나 짝을 잃은 슬픔에 비유한다.

부원수로서 의주에 도착하여 완성부원군 최명길<sup>3</sup>의 편지를

받고 무진년(1628, 인조6) 정월

以副元帥到灣上得見崔完城書 戊辰正月

북소리에 다시 새봄이 오는데

鼓鞞聲裏又新春

누가 황룡새<sup>4</sup>의 사람 생각하라

誰念黃龍塞上人

의지할 이 평생에 최 학사 있어

賴有平生崔學士

해 거른 서찰이 강가에 이르도다

隔年書札到江濱

---

3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본관은 전주(全州).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고,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였으며, 전란 후 피폐한 정국 안정에 힘썼다. 영의정(領議政) 등을 지냈다.

4 황룡새(黃龍塞) : 또는 황룡부(黃龍府)라 부르며 길림성(吉林省) 농안현(農安縣)에 있다. 본래 발해(渤海)의 부여부(扶餘府)였는데 요(遼) 태조가 발해를 정벌하고 오다가 이곳에서 황룡(黃龍)을 만났다 하여 이렇게 이름을 고쳤다.



안주에 주둔하며 새해를 축하하다 임신년(1632, 인조10)

駐安州賀正 壬申

밤 딱딱이 재촉에 새벽빛 희미한데

하례 반열에 두세 관원뿐이로다

하늘 끝에 오늘 눈보라가 날리니

대궐의 취련에 한기 들까 하노라

宵柝催更曙色殘

賀班唯是兩三官

天涯此日風飛雪

猶念丹墀翠輦寒

꿈속에 대군을 거느리고 오랑캐의 뜰을 소탕하다

夢中領大兵掃平虜庭

바로 그때가 늦은 봄이었다. 꿈에서 깨어 기쁜 마음으로 절구 하나를 지어 길조를 기록하다.

비가 먼지 씻어 거리 마냥 푸른데

雨洗輕塵綠滿街

개신가 제창하며 만인이 화락도다

凱歌齊唱萬人諧

온 관원 축하 끝나 만세 부르고서

千官祝罷山呼慶

패옥을 울리며 옥계를 내려왔도다

環佩丁丁下玉階

## 꿈속에 문숙공 윤관<sup>5</sup>의 비석에 쓰다

夢題尹文肅碑

새들이 나는 곳에 천추의 묵은 자취	千秋陳跡鳥飛間
문숙공 헌 비석에 푸른 이끼 서렸도다	文肅殘碑碧蘚斑
가소롭다 옥문관의 반정원 <sup>6</sup> 이여	可笑玉門班定遠
고생이 얼마판데 생환을 청했던고	幾多辛苦乞生還

---

5 윤관(尹瓘) : ?~1111,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추밀원 지사로 재임하던 1104년(숙종9) 2월 동북면 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에 임명되어 여진 정벌의 임무를 맡았다. 이때는 화의하고 돌아왔고 이후 1107년(예종2) 대대적인 정벌로 여진의 주요 근거지인 구성(九城)을 탈환하여 이른바 '윤관의 구성'을 축조하였다. 구성은 함주(咸州), 영주(英州), 웅주(雄州), 복주(福州), 길주(吉州), 공험진(公嶮鎭), 승녕(崇寧), 통태(通泰), 진양(眞陽)이고, 이곳에 우리나라 남도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6 반정원(班定遠) : 동한(東漢) 때의 장수인 반초(班超)를 가리킨다. 반초는 서역(西域) 50여 국의 항복을 받고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반초가 서역을 다 평정한 뒤 스스로 오랫동안 이역(異域)에 있었다고 생각하고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신은 감히 주천군(酒泉郡)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서 옥문관(玉門關)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하였다. 《後漢書 卷77 班超列傳》

진눈깨비 2월

雨雪 二月

청명절 후 사흘 아침 비가 내리니  
말들 하길 올가을은 풍년이러나  
민 부장계 은근히 보고를 하여  
인력을 각자 밭에 가게 하리라

清明節後三朝雨  
爭道今秋大有年  
爲報慇懃民部長  
早教人力各歸田

지겨운 비 6월

苦雨 六月

비둘기 울면 비 갠다고 말들 하지만  
보이는 남녘 하늘 구름 아니 걷히도다  
만고의 청천이 이제는 이미 늙어  
사람 말 안 듣거늘 비둘기를 들으라

人言鳩喚雨將休  
極目南天雲未收  
萬古蒼天今已老  
弗聞人語況聞鳩

# 장난삼아 이질부<sup>7</sup>에게 주다 11월

戲贈李質夫 十一月

또 망루 나발 나그네 시름 더하는데	更樓吹角客愁繁
병상에 등불 잦아들고 밤빛 차도다	病榻殘燈夜色寒
이 처사의 한평생 누라서 알라	誰料平生李處士
맹상군 문하의 그 풍환 <sup>8</sup> 인 것을	薛公門下是馮驩

7 이질부(李質夫) : 이욱(李郁)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질부(質夫), 호는 팔계(八戒)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대동법 실시를 위하여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자 낭관이 되고, 1610년 봉산 군수가 되었다.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

8 맹상군(孟嘗君)…… 풍환(馮驩) : 풍환이 설공(薛公, 맹상군)의 식객(食客)이 되고 나서 한 해가 다 가도록 이렇다 할 재능을 보이지 않자, 맹상군은 그가 별다른 재능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설(薛) 땅으로 보내 부채(負債)를 받아오게 하였다. 풍환은 그곳에 가서 돈을 빌려 간 사람들에게 채권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갚을 수 있는 자는 기간을 정해 주고, 갚을 수 없는 자는 그 채권을 거두어 모두 태워 버리고 돌아왔다. 맹상군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 책망하자, 그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자는 기간을 정해 주어 갚도록 했거니와 갚을 수 없는 자는 비록 10년 동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자만 불어날 뿐이고 끝내 갚을 수 없을 터이니, 지금 쓸모없는 채권을 불에 태워 버림으로써 그곳 백성으로 하여금 군(君)의 은덕에 감복하도록 하였는데,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하니, 맹상군이 그의 손을 잡고 사과하였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당진에 유배<sup>9</sup>되어 느낌이 있어 계유년(1633, 인조11) 3월

謫唐津有感 癸酉三月

하해 같은 천은으로 목숨 보전하여	天恩如海得全命
당진성에 편관 <sup>10</sup> 하니 한성 근처로다	編管唐城近漢城
한밤중 밝은 달에 봄 기러기 북에 나니	半夜月明春雁北
임 그리워 슬픈 눈물 갓끈을 적시도다	戀君悲淚却沾纓

---

9 당진에 유배 : 조정에서 사신 김대건(金大乾)을 보내어 淸에서 요구하는 세폐(歲幣)를 거절하고 절교하려 하자, 사신(使臣)을 안주에 머물게 하고 체찰사(體察使)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절교의 부당함을 상소하다가, 임의로 사행(使行)을 억류한 죄로 서울로 잡혀와 하옥되었다가 당진으로 유배되었다.

10 편관(編管) : 송(宋)나라 때 형법의 하나로, 죄인의 얼굴에 자자(刺字)하지 않고 변방의 고을로 귀양을 보내, 그 고을의 수령이 편호(編戶)로서 관장하도록 함을 말한다.

망일암에 피서하며 도사 이항<sup>11</sup>의 방문에 사례하여 같은 해  
6월

避暑望日菴 謝李都事杭來訪 同年六月

유월 찌는 더위 대지가 타드는데	六月蒸炎大地焚
필마로 산문을 찾다니 대단하도다	多君匹馬訪山門
상 맞대고 종일 속된 말 없는데	連床盡日無塵語
매미 소리 온 숲을 들레 한스럽도다	却恨蟬聲一樹喧

---

11 이항(李杭) : 1612~1656.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제중, 호는 학포(學圃)이다.  
1645년(인조23) 문과에 급제하여 집의, 한림, 청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항은  
1656년(효종7) 8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노자》를 읽고 느낌이 있어 같은 달

讀老子有感 同月

도란 무위이거늘 어찌 명예에 두라

공 이루거든 장차 물러나야 하리라

백 년을 우왕좌왕 끝내 무슨 일

늦게야 괴정에서 꿈을 깨도다

道本無爲豈有名

可將身退待功成

百年擾擾終何事

晚向槐亭一夢驚

망일암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登望日庵 北望

번민을 달래고자 높은 누각에 올라

서편 하늘 바라보니 낙조가 흐르도다

산 너머 흰 구름, 구름 너머 물

장안을 볼 수 없어 시름 더하도다

欲爲排悶上危樓

望裏金天落照流

山外白雲雲外水

長安不見更添愁

비 내린 후에 가을 7월

雨後逢秋 七月

푸른 숲 매미 소리 객수를 더하는데

碧樹蟬聲擾客愁

비 온 후에 산색은 문득 초가을

雨餘山色忽新秋

봉래산 아득한 곳 창파 드넓은데

蓬萊渺渺蒼波闊

하늘 밖 종남산<sup>12</sup>에 한 점 시름이라

天外終南一點愁

---

12 종남산(終南山) :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서울에 있는 남산을 그리워 하며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글프다는 뜻이다.

# 남화경<sup>13</sup>을 읽고 느낌이 있어

讀南華經有感

재주 땀에 수고로움 늦게 알았거니  
삼기로 고요히 이 유파에 처하리라<sup>14</sup>  
우뚝 홀로 섬이 실로 내 일이건만  
뼈에 새긴 나라 은혜 어이할거나

技係勞形晚悟嗟  
三機靜處是流波  
巍然獨立眞吾事  
其奈君恩刻骨何

---

13 남화경(南華經) : 장주(莊周)가 지은 《장자(莊子)》의 이칭(異稱)으로, 《남화진경(南華眞經)》이라고도 한다.

14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三’ 자는 ‘天’ 자의 오기로 보이는바, 천기(天機)는 진고응(陳鼓應)은 ‘타고난 근기’라고 해석하였는데, 천기가 고요하면 흐르는 물처럼 잔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 섬진강에서 읊다 10월

蟾江有吟 十月

강루에 일없이 날로 술 드는데	日把江樓無事酒
어이하여 의대는 헐거워지르고	如何衣帶漸寬圍
장안은 북쪽으로 삼천리 길	長安北望三千里
가을 끝 호수 서편 기러기도 드무네	秋盡湖西雁亦稀

우 또

만 번 죽을 몸이 고향으로 돌아가니	萬死全骸歸故園
이 세상에 어이 임금 은혜에 답하라	今生何以答君恩
다리 서편 옛집에 상유는 늙어 가고	橋西舊宅桑榆晚
강물 북쪽 새마을에 귤유가 번성하네	水北新村橘柚繁
음미하며 책을 보니 고축의 한밤이요	有味檢書孤燭夜
무심결에 범을 쏘니 패릉의 언덕이라 <sup>15</sup>	無心射虎瀟陵原
딱하다 늙은 말 가을이라 나대며	只憐老驥逢秋動
변방 향하여 구유 아래 슬피 읊이여	櫪下悲鳴向塞門

15 무심결에……언덕이라 : 한(漢)나라의 명장(名將) 이광(李廣)이 북평 태수(北平太守)로 있을 적에 사냥을 나갔다가, 한밤중에 남전현(藍田縣) 남산(南山)에서 하얀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바위에 그대로 꽂혔다고 한다. 흉노(匈奴)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그 별로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패릉정(霸陵亭) 부근 남전의 남산에서 몇 년 동안 사냥하며 살았다고 한다. 《史記 卷109 李廣列傳》 여기서는 정충신 방귀전리된 자신의 처지를 이광에 비유한 것이다.

입춘에 큰 눈이 내리다 갑술년(1634, 인조12) 1월

立春大雪 甲戌正月

농가에서 해운 보니 좋은 징조 많아  
눈 온 후 천 마을엔 만 나무꽃이로다  
지난날 서편 정벌하던 늙은 대원수  
향 피우고 한가히 《남화경》을 읽도다

田家占歲瑞徵多  
雪後千村萬樹花  
舊日征西老大帥  
焚香閒坐讀南華

경상 좌병사로 부임할 때 왕께서 남관왕묘<sup>16</sup>에 술을  
내리심에 은혜에 감사하다 갑술년(1634, 인조12) 11월

赴慶尙左兵營宣醞于南關王廟感恩 甲戌十一月

남녘 들 눈 오는 날 궁중 술 향기로워  
가는 길에 영광이라 한잔 가득 들도다  
조아려 절하고서 감격의 눈물 훔치며  
일편단심 묵묵히 관왕묘에 맹세로다

南郊雪日內醞香  
行路榮看引滿長  
稽首拜天揮感淚  
丹心默自誓關王

---

16 남관왕묘(南關王廟) : 관우를 모신 사당으로, 남대문 밖 도저동(桃楮洞) 산기슭에 있다.

고참역에서 우후 원수신을 추억하며

古站憶元虞候守身

계북인<sup>17</sup>을 어이 멀리하랴  
강남 길 실로 아득하도다  
서로 갈려 겨우 몇 밤이건만  
돌아보니 이미 천산이로다  
이별의 한 가을 만나 절절하고  
외로운 마음 꿈속에 남았도다  
서늘한 바람 변방에 일어나니  
문득 병중의 얼굴 생각나도다

薊北人何遠  
江南路正漫  
相分纔數夕  
回望已千山  
別恨逢秋切  
危魂入夢殘  
涼風起玉塞  
却念病中顏

---

17 계북(薊北) : 계주(薊州) 북쪽 지역으로, 명나라 수도 연경(燕京)을 의미한다.



이성<sup>18</sup>의 시중대를 유람하며

遊利城侍中臺

시중대 명칭 언제부터가

臺號何年始

망망하여 찾을 길 없도다

茫茫不可求

백사장엔 솔밭 십 리

白沙松十里

창해에는 달빛 천추

滄海月千秋

눈엔 하늘 끝 경계 들어오고

目極天窮界

몸은 땅 끝머리에 노닐도다

身遊地盡頭

신선이 함부로 아니할 법한

神仙如不妄

바로 이곳은 하나의 단구<sup>19</sup>로다

便是一丹丘

---

18 이성(利城) : 함경남도 이원(利原) 지역의 옛 이름이다.

19 단구(丹丘) : 항상 밝은 땅으로, 선인(仙人)이 산다는 전설적인 지명이다.

## 통군정<sup>20</sup>에 올라

登統軍亭

날 저물어 산빛 어두워지고	日暮山光暝
성의 노래에 누각 그림자 변하도다	城歌閣影移
강물 차가워 용이 일찍 웅크리고	江寒龍蟄早
들판 넓어 학은 더디 돌아가도다	野闊鶴歸遲
계북의 소식 끊어지고	薊北音書斷
요양 <sup>21</sup> 의 나팔 슬프도다	遼陽鼓角悲
백 년 세월 눈물 흘리거니	百年惟涕淚
만사가 유독 위태함이어	萬事獨登危

---

20 통군정(統軍亭) :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 있는 조선시대 의주읍성의 북쪽 장대인 누정이다.

21 요양(遼陽) : 요령성(遼寧省)의 동북 지역으로 여진족과 만주족의 활동 무대였다. 1621년 후금의 누르하치가 심양(瀋陽)에서 요양으로 천도(遷都)한 후 요동성을 놔두고 동경성을 새로 쌓았다.

안주의 토호 이창업이 찾아와 방백 민성징<sup>22</sup>의 운을 보여  
주며 화답을 청하기에 붓을 갈겨 주다 임신년(1632, 인조10)  
1월

安州土豪李昌業來示閔方伯聖徵韻要和走筆以贈 壬申正月

들판 넓어 천 이랑 개척하고	野闢開千畝
강물 깊어 한 마을 감돌도다	江深護一村
사람 있어 작은 집을 짓고	有人成小築
객 없어도 맑은 술 대하도다	無客對淸樽
홀로 즐기며 도를 개의치 아니하고	獨樂非關道
많은 돈으로 문호를 도모하지 않도다	多錢不爲門
그대 뜻대로 하여 죽함 부럽거니	羨君隨意足
세상일을 기꺼이 논할 만하도다	世事尙堪論

22 민성징(閔聖徵) : 1582~164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사상(士尙), 호는 졸당(拙堂)·용졸(用拙)이다. 1630년(인조8) 평안도 감사가 되어 부체찰사를 겸했는데, 의주성을 수축하고 백마(白馬)·검산(劍山)·자모(慈母)의 3성도 수축하였다. 또한, 선사(宣沙)·광량(廣梁) 등지에도 진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등 관서 30여군의 변방 강화에 힘썼다. 1631년 가도(杆島)를 다스리는 데에도 역량을 발휘했으며, 다음 해에도 꾸준히 노력해 가도의 한장(漢將)도 무모한 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상사<sup>23</sup> 민희안의 시에 차운하다 같은 달

次閔上舍希顏韻 同月

나라 안에 견고한 보루가 없어	海內無堅壘
그대 지금 집안이 정처 없도다	君今不定家
사람 만나면 마음 다시 괴롭고	逢人心更苦
나그네 되어 길 또한 더디도다	爲客路還難
시는 당음이 성대하여 사랑스럽고	詩愛唐音盛
가락은 초곡이 많아 가련하도다	歌憐楚曲多
팬스레 두우에 뺨는 검광을 보았던가	空看射斗劍
어디에서 장화를 만날 수 있을런고 <sup>24</sup>	何處見張華

우 또

이른 봄 정서 장군 막부	春早征西幕
동풍 드니 눈물이 날 듯	東風入涕危
이 년간 나그네 된 날이오	二年爲客日
천 리에 임 그리는 때로다	千里戀君時
밤 보루에 화들짝 딱따기 소리 듣고	夜壘驚聞柝

23 상사(上舍) : 성균관 생원, 진사의 별칭이다.

24 팬스레……있을런고 : 《진서·장화전(張華傳)》에서 “북두와 견우성 사이에 항상 자줏빛 기운이 있었다. 이에 뇌환(雷煥)이 ‘이것은 보검의 정기가 하늘 위로 솟은 것으로 예장(豫章)의 풍성(豐城)입니다.’라고 했다. 장화가 즉시 뇌환을 풍성령(豐城令)에 보임했다. 뇌환이 풍성현에 도착하여 감옥의 터를 파서 하나의 돌 상자를 얻었는데, 그 속에 두 개의 검이 있었다. 하나는 용천검(龍泉劍)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검(太阿劍)이었다.”라고 했다.

관청 마당에 실컷 깃발을 보았도다  
서로 만나니 모두 다 백발  
각기 옛적 읊던 시 즐기도다

官場厭見旗  
相逢俱白首  
各喜舊吟詩

박천관의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 같은 해 7월

次博川館壁上韻 同年七月

오늘 아침에 장맛비 개니	積雨今朝霽
매미가 석양 숲에 울도다	蟬聲咽晚林
뜨락의 오동에 가을 기운 일찍 오고	庭梧秋氣早
장수의 장막에 나그네 시름 깊도다	牙帳客愁深
서쪽 고개에 봉화 처음 이르고	西嶺烽初至
남쪽 누각에 나팔 다시 불도다	南樓角更吟
조각구름은 무슨 심사이관데	片雲何意緒
아직도 갠다 흐렸다 장난인고	猶復弄晴陰

칠보산 유람

遊七寶山

천 바위 만 골짜기 층층이 푸르거니  
귀신의 도끼라야 깎을 수 있으리라  
혜초는 봄비를 지나서 향기롭고  
석봉은 하운과 다투어 솟았도다  
대는 새로이 호상으로 진기를 짙게 하고  
절은 오래전 개심하여 불등을 밝히도다  
우습도다 십 년 세월 전장의 나그네여  
선산에서 오늘 찌든 가슴을 씻으리라

千巖萬壑碧層層  
鬼斧神斤斲削能  
蕙草自經春雨馥  
石峯爭竝夏雲興  
臺新好象濃真氣  
寺古開心見佛燈  
可笑十年戎馬客  
仙山今日蕩塵膺

황도에 가는 주청 부사 오숙우<sup>25</sup>를 전송하며 갑자년(1624,  
인조2) 7월

送奏請副使吳肅明赴皇都 甲子七月

번봉 <sup>26</sup> 의 소식이 아득히 막히거늘	藩封消息隔天淵
전주를 사신의 현명함에 맡기도다	專奏須憑使價賢
오 계자 <sup>27</sup> 는 천 년 전에 일개 부절을 차고	一節千年吳季子
한 장건 <sup>28</sup> 은 팔월에 작은 뗏목을 탔도다	孤槎八月漢張騫
구름에 잠긴 학야에는 요상한 기운 짙고	雲沈鶴野氛陰重
바다에 접한 봉래산에 지는 해 걸렸도다	海接萊山暮景懸
이번 작별에 괴로움 견디기 어려운데	多難足堪傷此別
더구나 생사 앞에 쇠한 병을 겸함에라	況兼衰病死生前

25 오숙우(吳肅羽) : 원문에 奏請副使<오숙명(吳肅明)>이라고 돼 있는데, 《계곡집 (谿谷集)》 제6권 서(序) 중 <送謝恩兼奏請副使<吳肅羽>朝京師序>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인물사전》에 근거하여 <오숙우(吳肅羽)>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숙우(肅羽)는 오숙(吳翹, 1592~1634)의 자이며,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천파(天坡)이다. 문장이 간결명료하였고, 특히 기유시(紀遊詩)에 뛰어났다. 이조참판 겸 양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천파집》이 있다.

26 번봉(藩封) : 제후(諸侯). 명나라 때 종래의 성(省)을 왕(王)으로 봉하였는데 이를 말함. 여기서는 조선을 말함

27 오 계자(吳季子) :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계찰(季札)을 가리킨다. 계찰은 상국(上國)에 두루 조빙하면서 당시의 어진 사대부들과 사귀었으며, 노나라에 조빙하면서는 주나라의 음악을 보고 열국의 치란과 흥망을 알았다. 《史記 卷31 吳太伯世家》

28 장건(張騫) : 한 무제(漢武帝) 때의 문신이자 외교관으로, 뗏목을 타고 올라가 황하의 원류를 찾았으며, 서역으로 사신 가서 대원(大宛), 강거(康居), 월지(月氏), 대하(大夏) 등 여러 나라를 모두 한나라에 복속(服屬)시키고 그곳의 문물을 한나라에 소개하였다. 《漢書 卷61 張騫傳》



## 의춘군<sup>29</sup> 첩에 대한 만시

挽宜春君妾

군주 위해 남편 죽고 남편 위해 첩 죽어	夫死於君妾死夫
세상에 실로 없는 일가 전절이로다	一家全節世眞無
광릉의 남쪽에 쌍무덤 남아	廣陵南畔留雙塚
천고의 길손이 탄식하도다	千古行人起悵吁

---

29 의춘군(宜春君) : 남이흥(南以興, 1576~1627)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이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안주성(安州城)에서 후금의 3만여 군을 저지하며 용감히 싸웠으나 무기가 떨어져 성이 함락되었다. 이에 그는 “조정에서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군사를 훈련하고 기를 수 없게 하였는데 강한 적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죽는 것은 내 직분이나 다만 그것이 한이로다.” 하며 성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 죽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의춘부원군(宜春府院君)에 추봉되었다.

## 어떤 이에 대한 만시

挽人

인생이 죽을지언정 살려고 앓았으니  
말 듣고 놀란 가슴 말로 할 수 없도다  
정자의 관직 높아 모든 유학(幼學)의 장이니  
빈전에 와서 보니 모두 슬퍼하도다

人生有死無生可  
聞說驚心不說宜  
正字官高諸幼長  
到看榮處摠堪悲

## 동지중추부사 윤간에 대한 만시

挽尹同知吁

난리에 붕우들 사라지더니	離亂朋交盡
그대 지금 또한 황천길인가	君今又隔泉
백아의 거문고를 이제 끊었거늘 <sup>30</sup>	牙絃從此絕
진번의 걸상을 누굴 위해 매달고 <sup>31</sup>	陳榻爲誰懸
만해에서 삼추에 작별하고	蠻海三秋別
경루에서 한나절 자리했지	京樓半日筵
이에 생사 간에 이별하니	仍成生死訣
늙은 눈물 강가에 뿌리도다	老淚灑江邊

30 백아(伯牙)의……끊었거늘 : 춘추 시대 초나라의 거문고 명인인 백아가 자신의 거문고 음률을 알아주는 친구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른다. 여기서는 정충신이 자신을 알아주는 윤간의 죽음을 슬퍼하여 백아의 고사에 비유한 것이다.

31 진번(陳蕃)의……매달고 : 진번이 일찍이 예장 태수(豫章太守)가 되었는데, 그는 본디 빈객을 전혀 접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당대의 고사였던 서치(徐穉)가 찾아오면 특별히 걸상 하나를 내려서 그를 정중히 접대하고, 그가 떠난 뒤에는 다시 그 걸상을 걸어 두곤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53 徐穉列傳》 여기서는 충신을 알아주는 진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로 쓰였다.



---

만  
운  
집

---

제  
2  
권

---

筭차 疏소



## 소 疏

오랑캐 조정에 가는 사명을 받들고 명나라에 대한 주문과 모문룡의 진에 대한 이자<sup>1</sup>를 청하는 상소 신유년(1621, 광해군13)

奉使虜庭請奏聞天朝移咨毛鎮疏 辛酉

만포(滿浦)에 있을 때이다.

삼가 아뢰입니다. 오랑캐가 천명을 거역하여 연호(年號)를 참칭하고 이미 상국(上國)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동방을 향해 짓어대고자 혹은 사절이 서로 빙문(聘問)하기를 요구하고, 혹은 관문(關門)에 시장을 열기를 청하여 우리의 패합(捭闔)<sup>2</sup>을 시험하며 그 극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군사(天兵)가 군기를 상실하여 너무 멀리 물러나 있어 이미 명나라의 도움에 기댈 수 없고, 또한 엇어맬 계책을 쓸 수 없으니, 바로 무책(無策)에서 비롯한 것으로 성상의 염려 또한 여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 이자(移咨) : 자문(咨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자문은 중국과 왕래하던 외교문서의 하나로, 국왕의 명의로 연경(燕京)과 심양(瀋陽)의 각 부(各部)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과 동등한 관계에서 조호·통보·회답하던 문서이다.

2 패합(捭闔) : 전국 시대 종횡가(縱橫家)의 설로 여닫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항배(向背)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의 변변치 못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오랑캐 조정에 사신으로 삼으  
시니, 신은 오직 마땅히 명을 받들어 즉시 행하여 주야로 게을리 않고  
눈앞의 급무를 펼칠 따름입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백성더러  
알게 한 바 아니지만, 그러나 “배 짜는 과부가 실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한다.” 하니, 신 또한 어찌 구구한 견마  
(犬馬)의 정성이 없겠습니까?

그옥이 생각건대 천하의 일에는 말은 일치할지라도 반신반의(疑信)  
하며 같지 않음이 존재하니, 송부민(宋富民)이 담장을 쌓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번 신(臣)의 행렬은 이미 자객(刺客)이나 간인(姦人)이  
아니므로 이치상 자취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요동 천지 어느 곳에 어찌  
한들일지라도 명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 소식을 누설하여 모문룡(毛  
將)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모문룡이 우리 영토를 압박하고 있으면서 날로 하고자 하는  
바를 말은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야흐로 심합니다. 만약  
사설(辭說)을 꾸며 대어 명나라 조정의 청문(聽聞)에 잘못되면 마음을  
오로지 아니하고 시샘하는 자의 말만 듣고서, 기필코 지혜로운 자기  
자식이고 의심스러운 이웃 늙은이일망정, 증삼(曾參)의 모친이 복을  
세 번째 소식이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버리듯 할 것입니다.<sup>3</sup>

지금 신이 저쪽에 이르렀을 때 만약 국가의 위령(威靈)께서 오랑캐  
더러 능히 마음을 누그리고 듣게 한다면, 신이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

3 증삼(曾參)의……것입니다 : 아무리 헛소문이라도 계속 듣게 되면 믿게 된다는 말이  
다. 증자(曾子)와 동명이인인 증삼(曾參)이란 자가 살인을 했는데, 세 차례나 증삼이  
살인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모친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결국 길쌈하던 베틀의 복을  
던지고 내려와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戰國策 秦策》



명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인선린(親仁善隣)의 도리를 권면하여 혹은 격돌하고 혹은 달래며, 사설(辭說)을 낮췄다 올렸다 임기응변(臨機應變)하여 환심을 사도록 힘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리처럼 성내어 신의 몸에 횡포를 가하면 신은 더욱 충의(忠義)의 기개를 격하게 할 것입니다. 장차 명나라 조정에 대한 계책으로 하자면, 성상의 지성으로 사대(事大)하는 충정(忠貞)을 끝내 일월(日月)이 환히 떠오르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는 신이 작으나마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급히 '장차 신을 보내 정탐하겠다는 뜻'으로 한편으로는 명나라 조정에 부주(敷奏)하고, 한편으로는 모문룡에게 이계(移揭)하여 주십시오. 일을 모름지기 광명정대하게 터럭만큼도 후회 없이 하여 훗날 명나라 조정의 구설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 역시 묘당의 계획이 기필코 이에 벗어나지 않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그옥이 찬신(贊臣)에게서 유지(有旨)의 사의(事意)를 보니, 신에게 행회(行會)<sup>4</sup>하여 말씀하기를, “모장(毛將)이 만약 정충신이 들어간 일을 알면 혹 저지하여 사달을 일으킬까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에게 십분(十分) 기밀을 지켜 자취(形跡)를 숨기도록 하여 보낸다.”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속으로 의문이 없지 아니하여 감히 무릅쓰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군주께서 모장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필코 신에게 자취를 숨기도록 하여 보내려 한다면 신이 비록 만 번 주륙(誅戮)을 당할지라도 끝내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각 관아에 공문으로 보냄.

신은 옆드려 목을 늘이고 부월이 이르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 평안 병사를 사양하는 상소 갑자년(1624, 인조2) 8월

辭平安兵使疏 甲子八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전후로 성은을 입은 것이 천지간에 한량없어 자나 깨나 감격하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구사(驅使)<sup>5</sup>를 일임하심을 생각하여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을 다 바쳐 죽은 후에나 그치기로 하였습니다. 불행히 풍토가 맞지 않은 관계로 거듭 고질을 얻어 기혈(肌血)이 가무잡잡하므로 보는 이들이 가우똥합니다. 그러나 실낱같은 목숨일망정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감히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기를 청할 수 없어 단지 감사(監司)가 틈틈이 조치(調治)함에 따라 저절로 찾아들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감사 신(臣) 이상길(李尙吉)<sup>6</sup>이 이렇듯 신을 걱정하여 병상(病狀)을 상세히 아뢰어 더욱 천청(天聽)을 어지럽히니, 내의(內醫)를 보내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도록 하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더욱 감읍하여 동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슬방울만큼도 보답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황천으로 갈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절도사(節度使)에 제수하는 신명(新命)이 다시 신에게 미치니,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병 때문에 중책을 맡을 수 없음은 이미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5 구사(驅使) : 자유자재로 다루어 사용함.

6 이상길(李尙吉) : 1556~1637.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사우(士祐), 호는 동천(東川)이다. 광주 목사, 평안도 안주 목사, 호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평안 감사로 있을 때 가도(假島)에 웅거하던 모문룡(毛文龍)에게 군량을 보내어 구원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공조 판서 등을 역임한 다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평난호성정사진무 원종공신(平難扈聖靖社振武原從功臣)이 되었다.

그옥이 본도의 사세를 말하자면 이괄의 역란(逆亂)을 겪고 나서 인심은 갈라지고, 기상(氣像)이 쓸쓸하며, 군오(軍伍)는 형편없어 서로 통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난으로 인하여 수졸(戍卒)이 줄어들어 변방에 군사를 볼 수 없으며 오랑캐의 속셈을 알 수 없어 드러내 놓고 강의 얼음판을 엿보는 데에 뜻을 두어 대소(大小)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비록 지위와 명망이 평소에 드러나고 지모(智慮)가 뛰어난 자가 맡을지라도 역시 수습하고 정돈하여 강토를 보전하는 일에 근심이 없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臣)처럼 용렬하여 전혀 근사하지 못한 자임에야?

또한 신은 본래 한미한 출신인데, 중망(重望)을 뿌리치지 못하여 갑자기 부월(斧鉞)에 의지한다면 일군(一軍)이 모두 놀랄 터, 어떻게 군정(軍情)을 복종시켜 일도(一道)를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기품이 만 가지로 같지 않아 기능에 장단(長短)의 차이가 있고 국량(局量)에 대소(大小)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이 한편의 군사를 받고 대장의 절제(節制)에 따라 혹 기회를 틈타 출전하거나, 혹은 한 모퉁이를 굳게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방을 전권(全權)으로 제어하여 복채를 잡고 등단하여 삼군을 지휘함에 이르러서는 결코 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역(易)》에, “부승(負乘)<sup>7</sup>을 경계한다.” 하고, 《시(詩)》에, “걸맞지 않은 것을 풍자한다.” 하는데, 신이 어찌 감히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슬며시 무릅쓰고 차지하여 훗날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한 후에

---

7 부승(負乘) : 짐을 지고 갈 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수레를 타고 간다는 말로, 곧 소인이 군자의 자리에 있어 분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周易 解卦 六三》

그만두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대에 감읍하여 작은 정성이거나 다하고자 만분의 일이라도 부응할 바를 생각하였습시다만, 신의 명망과 능력으로 신이 제수 받은 바를 견주어 보건대, 이 책무가 시들해져 무거운 짐을 지고 험난한 곳을 지난다면 신은 비틀거리며 고꾸라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아는 자들 역시 이윽고 한심하게 여길 것입니다.

삼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天地父母)이니, 작은 정성을 굽어 살펴 급히 체직을 허락하여 신에게 대착혈지(代斲血指)<sup>8</sup>를 면하게 하신다면, 신은 마땅히 오히려 도내에 있으면서 잠시 한가한 곳에서 마음을 안정하여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살길을 얻게 되면 또한 마땅히 원융(元戎)의 막부(幕府)에 종사하며 그의 조용(調用)<sup>9</sup>을 기다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끝까지 보답하기를 꾀할 것입니다. 이는 신의 구구한 소원입니다. 신의 급박한 심정이 간절하여 무릅쓰고 위엄을 범하니, 두려움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상감께서 답하여 말하기를, “경(卿)은 재지(才智)가 있어 오랑캐의 두목이 비록 온다 해도 오히려 담소로 감당할 수 있거늘, 경은 의당 사양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

8 대착혈지(代斲血指) : ‘대착(代斲)’은 《노자(老子)》 74장에 “용렬한 목수가 훌륭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으면 손을 다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 [夫代大匠斲者 稀有不自傷其手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혈지(血指)’는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제유자후문(祭柳子厚文)>에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잘 깎지 못하여 손가락을 다쳐 피가 흐르고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뛰어난 장인은 도리어 소매 속에 손을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傍觀 縮手袖間]”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9 조용(調用) : 관리를 골라서 등용함.

옥성부원군 장만에 대한 비방을 변론하는 상소 병인년(1626, 인조4)

爲張玉城辨謗疏 丙寅

남이흥(南以興) 공과 연명으로 하였다.

삼가 아뢰옵니다. 신의 공은 미미한데 상이 컸습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법, 질병이 재앙이 되어 반신불수로 칩거하는 1년 동안 은사(恩賜)가 빈번하니, 크나큰 은혜에 감격하여 절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미 진하(陳賀)<sup>10</sup>와 문안의 반열에 한 번도 제신(諸臣)의 뒤를 따르지 못하기에 이르렀으니, 절로 여타의 일에 다시는 수행하는 인원의 숫자로 자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으로 누워 지내던 중에 창녕 현감 조직(趙稷)<sup>11</sup>이 봉진(封進)한 소(疏) 하나가 있다고 살며시 들었는데, 원소(原疏)가 비록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향간에 이미 대강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조목이 바로 체신(體臣) 장만(張晩)을 논하는 건이었습니다. 혹은, “장수의 몸으로 피하며 적을 입성(入城)하도록 놓아주었으니, 역적과 다름없다.” 하고, 혹은, “논공(論功)이 공평하지 못하여 장사(將士)들이 통탄한다.” 하고, 혹은, “벽제(碧蹄)에 물러난 것은 역시 적을 위하여 계속 후원하는 자와 같은 점이 있다.” 하고, 혹은, “노장(老將)이 의기를 떨쳐 앞장서 올라가지 않은 것은 국사를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

10 진하(陳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하례하는 의식의 통칭이다. 대개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 등을 올린다.

11 조직(趙稷) : 1575~1639. 본관은 순창(淳昌), 자는 여형(汝馨)이다. 음관으로 벼슬하여 사헌부 감찰, 공조 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하여 지적하기를 참담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습니다. 주장하는 뜻을 살피건대, 전적으로 수신(帥臣)<sup>12</sup>을 죄주려고 노장을 치켜올린 듯한데, 여탈(與奪)을 허황하게 하여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무망(誣罔)<sup>13</sup>에 빠진 것입니다.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변방 군영에서 역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나라의 정예(精銳)가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비록 원융(元戎)의 진(陣)에 남은 군사일지라도 몇천 명에 불과하여 중과(衆寡)와 강약(強弱)이 이미 현격하였습니다. 변고가 매우 창졸간이라 사람들이 매우 놀라 동요하는 가운데 바야흐로 출병하려는데, 어떤 이가 그날 직성(直星)이 칠살(七殺)을 범한 것으로써 병가(兵家)가 꺼리는 바라 하였습니다. 수신(帥臣)이 개연히 바로 잘라 말하기를, “군사란 명분이 바르면 사기가 왕성한 법이다. 어찌 부난(赴難)·응급(應急)에 방위를 택하여 행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며 장수들을 격려하였는데, 말이 간절하게 충성을 분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듣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출병 3일째에 황주에서 적을 만났습니다. 신(臣)이 형편없어 관군이 불리하였으나, 오히려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상당하였으므로 용서하여 그전처럼 군사를 통솔하여 남은 군사를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적의 뒤를 밟은 지 하루 만에 신은 바로 기린로(麒麟路)를 취하여 적의 뒤를 밟고, 장만이 평산로(平山路)를 취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sup>14</sup>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부원수(副元帥) 신(臣) 이수일(李守一)<sup>15</sup>

12 수신(帥臣)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3 무망(誣罔) : 임금을 속여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14 기각지세(掎角之勢) : 앞뒤에서 서로 호응하여 적을 몰아치는 기세를 말한다. 기

이 서흥(瑞興)에 주재하고 있었는데, 거느린 군사가 없으므로, 장만이 바로 부하 병사 1천여 명을 떼어 주어 함께 앞길로 진격하던 중 뜻밖에 마탄(馬灘)에서 진(陣)이 무너져 임진(臨津)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군사들이 속으로 두려워 깃발처럼 흔들렸는데, 수신(帥臣)이 더욱 충의를 분발하여 사졸을 격려하였습니다. 파주(坡州)로 가는 길에 제장(諸將)을 모아 군사(軍事)를 논하니, 신(臣) 남이흥(南以興) · 신 변흠(邊滄) · 신 신경원(申景瑗) · 신 유효걸(柳孝傑) · 신 김완(金完) · 신 충신(忠信)이 바로 군전(軍前)으로 달려가 함께 맹세를 받들었습니다. 그날 벌이 뜨기 전에 진격하여 안령(鞍嶺)을 점거하였는데, 수신 역시 따라서 진격하여 진(陣)의 후미에 있으면서 호령하기를 팔이 손가락 부리듯 하였습니다.

이튿날 적이 군사를 몰아 크게 출동하여 감히 왕사(王師)에 대항하므로 바야흐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원수 이수일 역시 고개 아래에서 진격하여 서쪽 지맥(支脈)에 진을 치고 군세(軍勢)를 도왔으며, 수신 장만(張晩)이 먼저 군관 신동(申東)을 보내 검을 지니고 진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사관(從事官) 신(臣) 김기종(金起宗)

---

(掎)는 사슴을 붙잡을 때 뒷다리를 잡는 일을 말하고, 각(角)은 뿔을 움켜쥘을 뜻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14년조의 글에 이르기를, “사슴을 잡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진(晉)나라 사람이 뿔을 쥐고 당기며, 여러 오랑캐가 뒷다리를 잡아 끄는 격이다.[如捕鹿 晉人角之 諸戎掎之]”라고 하였다.

- 15 이수일(李守一) : 1554~1632. 자는 계순(季純), 호는 은암(隱庵), 시호는 충무(忠武),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선조 때 선전관(宣傳官) · 밀양 부사(密陽府使) · 성주 목사(星州牧使) 등을 지냈고 광해군 때는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세 번 역임하면서 야인(野人)의 소굴을 소탕하고, 인조 때는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副元帥)로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 공신(振武功臣) 2등에 계림 부원군으로 봉해지고 형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을 보내 그 공(功)과 죄(罪)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다행히 종사(宗社)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마침내 적을 섬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일은 이쯤 하여 그치겠습니다. 진(陣)의 후미에 있으면서 호령하던 수신을 “벽제(碧蹄)에 물러나 누워 있었다” 하고, “일찍이 의기를 떨쳐 앞장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노장을 가리켜 견문을 각기 달리 하기를 호오(好惡)에 따르고 있습니다.

무릇 말이란 진실을 귀하게 여기는 법, 진실을 놔두고 어찌 칭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눈이 있는 바이니, 여러 말 할 것이 없이 신(臣)이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서 일군(一軍)의 일을 실제로 간여하였습니다. 외람되게도 우악하게 용서를 입어 죄를 놔두고 공신록에 기록됨에 공(功)은 두 번째 서열이고, 죄는 상장(上將) 장만에만 돌아왔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이름이 소장(疏章)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냥 침묵만 하겠습니까? 그 죄로 하자면 신이 의당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급히 신의 죄를 바루어 남의 구설에 오르는 것을 면하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신은 부복하여 황공스럽게 죄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상감께서 답하기를, “소(訴)를 보고 잘 알았다. 장수를 위하여 소원(訴冤)<sup>16</sup>함은 분의(分義)상 당연히 해야 할 바요, 무고를 당함에 변론코자 함은 인정상 그만둘 수 없는 바이다. 다만 진무(振武)의 공로는 조야(朝野)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이미 장만의 대공(大功)에 대하여 괴망(怪妄)하게 말하는 것을 깊이 살폈거늘,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구구히 따지기보다는 놔두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것만큼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때 소란을 피우는 것 역시 과람(過濫)한 것이니, 경들은 모두 안심하고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16 소원(訴冤) :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을 말한다.

##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무진년(1628, 인조6) 5월

辭副元帥疏 戊辰五月

삼가 아뢰옵니다. 신(臣)이 풍을 앓아 불편하여 감히 행역(行役)<sup>17</sup> 할 수 없음은 이미 성명(聖明)께서 살피신 바입니다. 변란을 듣던 날 신이 병든 몸으로 종군(從軍)하여 터럭만큼의 근력으로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단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지 다시 오늘이 있기를 도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국은(國恩)에 감읍하여 차라리 아침에 길을 떠나 저녁에 죽더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바다에 채워 작은 정성이나마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신이 질병으로 이제껏 실낱같은 목숨을 보전하여 오히려 항오(行伍) 사이에 있게 됨은 신이 몽매간에 기약하지 않던 바이며 오직 성은으로 내리신 바입니다. 신이 군사를 거느린 이래 한 번도 적의 머리를 베거나 포로를 잡아오지 못하여 간명(簡命)<sup>18</sup>을 크게 저버렸는데, 오랫동안 엄한 벌을 피함에 하늘의 재앙이 먼저 미친 것입니다. 초봄부터 앓던 숙환이 다시 더쳐 손발이 말라 들어 털썩 자리를 보전한 지 이미 3개월 가까이 됩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거듭 인사를 살필 수 없으며, 사람을 마주하여 말을 나누면 보는 자가 정색을 합니다.

휘하(麾下)에 공문을 주고받는 일[通關]과 교역을 허가하는 일[許市]이 있는데, 제도(諸道)가 이미 파(罷)하고, 다만 신이 붓짐 하나로 덩그렇게 변방에 있을 뿐, 역시 일삼을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17 행역(行役) : 관명(官命)에 좇아서 토목사업, 또는 국경을 지키는 일.

18 간명(簡命) : 인재를 특별히 선발하여 직무를 명함.

“사람이 궁하면 반본부시(反本復始)<sup>19</sup>하고, 질통(疾痛)으로 피곤이 심하면 기필코 천지부모(天地父母)에 호소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간당간당하여 조석(朝夕)으로 또한 까무러침에 감히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천지부모이니, 신의 병이 심하여 죽게 됨을 가련히 여기시고, 신에게 살아서 패수(溟水)를 건너 다시 경사(京師) 근처에서 의약으로 치료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나마 죽지 않게 되면 구구한 견마(犬馬)의 정성을 남은 인생에 더욱 다할 것입니다.

위대한 심정으로 절박하여 무릅쓰고 존엄을 범하게 되어 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상감께서 답하여 말하기를, “경(卿)의 상소를 보니, 병 때문에 상경하여 조리하기를 청하였다. 지금 우선 올라와 제때 치료하고 가을에 돌아가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선전관(宣傳官)을 파견하며 표신(標信)<sup>20</sup>과 밀부(密符)<sup>21</sup>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으니, 경은 유지(有旨)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19 반본부시(反本復始) : 근본으로 돌아가고 시초를 잊지 않는 것으로, 《禮記》〈禮器〉에 “禮는 근본을 돌이키고 옛 도를 닦아 그 처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禮也者 反本修古 不忘其初者也〕”라고 하였다.

20 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 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 문을 출입할 때 지니는 증표(證票)를 말한다.

21 밀부(密符) :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로, 유수(留守) · 감사(監司) · 병사(兵使) · 수사(水使) ·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었다.

## 부원수 및 비국 당상을 사양하는 상소 11월

辭副元帥及備局堂上疏 十一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난리 때 심부름한 인연으로 외람되게 군사를 담당하여 털끝만큼도 보답하지 못한 채 한갓 죄만 쌓았는데, 하늘 같은 성은으로 살아서 꺾문으로 들어오니, 자나 깨나 감읍하여 죽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돌아와 사정을 아뢰어 직명을 교체하여 주기를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오랑캐의 국서(國書)가 패만(悖慢)하고 변방 소식이 매우 어수선하였으므로 어려운 일을 사양한다고 의심할까 입을 다문 채 감히 못 하다가 오늘에야 다행히 일을 진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랑캐 또한 순종하여 변경은 경계가 급하지 않고, 또한 동방(冬防)<sup>22</sup>을 거두었으니, 오늘의 계책은 단지 곡식을 운반하여 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산채(山砦)를 손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랑캐를 읊아매는 글로 노여움을 격발하지 말고 백성을 쉬게 하며, 선비를 양성하여 때를 기다려 움직일 따름입니다.

불탄 뒤끝을 수습하여 강역(疆域)을 신중히 보전함에 이르러서는 특히 본도(本道)가 할 일인데, 신(臣)이 원수(元帥)이면서 그 군살만 보고 사체(事體)를 헤아렸으니, 마땅히 과직을 운허하여 다음에 있을 군사(軍事)는 모름지기 그 사람과 의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이 비국 당상(備局堂上) 자리를 주재님

---

22 동방(冬防) : 겨울철의 치안 방비.

게 차지하고 있어 지극히 외람된 일인데, 부원수(副元帥)의 명칭으로 더불어 변방의 계책을 듣고 애면글면 참여한 지 이윽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장군의 위세가 썰렁하여 문득 겨울이 깊었음을 느낍니다. 신이 앓던 고질이 다시 심하여 팔다리가 마비되어 마음대로 안 되며, 병이 가슴에 영기고 정신이 황홀하여 배 바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때로 저도 모르게 혼절하고 땅에 엎어져, 종종 위태하여 현저하게 다시 풍을 맞을 조짐이 있어 문 앞 출입에 지척(咫尺)도 오히려 어려우니, 평상의 공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天地父母)이니, 신(臣)의 위태하고 간곡한 심정을 굽어살피 신의 비국 당상 및 부원수 직명을 교체하여 삼동(三冬)에 조용히 누워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종(始終) 은혜로 잠시 죽지 않아 훗날 이리저리 부러지면 견마(犬馬)의 작은 정성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신의 병이 심하다는 핑계로 무릅쓰고 존엄을 범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상감께서 답하여 말하기를, “상소를 살펴 경의 간곡한 심정을 잘 알았다. 변방 소식이 비록 뜸하다고는 하나, 이때 원수의 직임을 교체함은 결단코 불가하다. 의당 사양 말고 직무를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辭副元帥疏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외람되게 원수[元戎]를 맡기에는 천만 근사하지 않기에 거듭 작은 정성을 진술하여 직명을 교체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화한 교지(教旨)를 받들고는, 성유(聖諭)가 간곡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애먼글면 직명만 띠고 있는 지 또한 반년 남짓 이르렀습니다.

그윽이 생각하니, 신은 창졸간의 사신에 단기(單騎)로 명을 받았습니니다. 서울에 돌아와서는 역시 일개 나그네로, 깃발을 세우고 막부(幕府)를 열어 변방의 계책을 구획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교체되어야 하나 교체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서울에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불행하여 변방에 일이 있으면 또한 책무상 군사(軍士)로서 신은 명을 받으면 즉시 행하여 사생결단 풀잎 같은 작은 정성이나마 다할 따름입니다.

지금 변방에는 군사가 이미 철수하고 나라에는 문 앞의 원수가 없는 데도 오랫동안 헛된 직함만 띠게 되니, 마침 흉도들에 빌미가 될 만합니다. 하늘 같은 성은으로 비록 용서하여 문책하지 않았으나, 신의 마음은 역시 매우 불안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天地父母)이니, 신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피 부원수의 직임을 교체하도록 허락하여 공사(公私) 간에 온전케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위급한 심정 간절하여 세 번이나 성상의 위엄을 무릅쓰니, 신은 너무도 황송하고 두려워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상감께서 답하기를, “소(疏)를 살피 경(卿)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았다. 나의 뜻을 이미 밝혔으니, 경은 고사(固辭)하지 말라.” 하였다.-

## 부원수를 사양하는 상소 경오년(1630, 인조8) 9월

辭副元帥疏 庚午九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유흥치(劉興治)가 신에게 답한 바를 보니, 흥패(凶悖)한 말이 많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석도(席島)·추도(椒島) 두 섬의 사건 같은 것은 이미 하상진(夏尙進)·진래(陳瑛) 등이 함께 섬에 들어가 있어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창성(昌城)의 살사(殺死),<sup>23</sup> 의주(義州)의 발아(撥兒 과발꾼), 안주(安州)의 익선(溺船 배를 빠뜨린 일), 순천(順天)의 구수(拘囚 잡아 가둔 일)와 같은 것은 변명을 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하여 원망하며 독심을 품은 자들이 죄를 묻고 반적(叛賊)을 토벌하기를 오롯이 자임할 터인데, 하나의 큰일입니다. 신은 이미 저들과 원수가 되어 형세상 서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신은 군문에 종사할지언정 기필코 서울에서 이력저럭하는 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 변방에 일이 있으면 직책은 전구(前驅)를 담당하여 채찍을 잡고 달려가 원망하는 자들과 걱정을 함께할 것이니, 화가 기필코 신의 몸에 먼저 미칠 것입니다.

신이 그의 회답(回書)을 보니, 글을 올려 목숨을 구걸하는 듯하였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대, ‘흥치(興治)가 직(職)을 받았다고 하는 한 구절은 십분(十分)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여우 같고 귀신같이 정황을 헤아리기 어렵고, 또한 의심스러운 자취를 말로 하기 곤란하여 그냥 침묵하며

---

23 창성(昌城)의 살사(殺死) :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 창성 부사(昌城府使) 김시약(金時若)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오랑캐들이 속히 항복하라고 협박했으나 굴하지 않자 새끼줄로 두 손바닥을 꿰어 묶어 끌고 다니면서 다그쳤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죽었으며, 그의 두 아들도 따라 죽었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명나라 유격장군(遊擊將軍) 이견(李見)이 가져온 계사(揭辭)에 신(臣)의 이름이 또 불거져 낭자하니, 그가 일찍이 신에 대한 원한을 잠시도 잊지 않았음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도암(任道庵)이 등주(登州)에서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만약 윤허[準請]를 받아 온다면, 홍치의 기상이 더욱 기고만장(氣高萬丈)할 것입니다. 신이 이때에는 더욱 용납되기 어려울 것인바,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급박한 정황을 굽어살피 신의 부원수 임무를 교체하도록 허락하여 공사 간에 온전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하소서.-상감께서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저쪽이 비록 원한을 품었다 하나, 결단코 이로 인하여 사직하여 체차(遞差)함은 불가하다. 또한 염려할 일이 아니니, 안심하고 임무를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평안 병사를 사양하는 상소 임신년(1632, 인조10) 1월

辭平安兵使疏 壬申正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6월에 냉수를 마시고 한겨울에 추위에 노출된 데다 더욱이 안주(安州)의 풍토에 재차 상하여 병세가 깊어 파방(罷防)<sup>24</sup>하지 않았으나, 숙녕(肅寧)으로 물러나 하루 동안 치료하였습니다. 신이 병으로 누워 있던 중에 그옥이 저보(邸報)<sup>25</sup>를 보다가 신을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삼는다는 정목(政目)<sup>26</sup>을 보고 속으로 놀라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배명(拜命)의 영광을 생각건대, 일이 있으면 바로 행하였던 것은 신의 재기(才氣)와 역량(力量)이 털끝만 큼이라도 감당할 만한 바가 있어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이 지극한 은총을 받음이 천지간에 한량없어, 살아서 보답할 길이 없어, 도중에 쓰러져 한번 군주의 명령에 죽은 이후에나 그만두려 하였을 뿐입니다.

지나해 출사(出師)할 적에 안주(安州)에 입수(入守)하기를 청하였으나 성교(聖敎)로 불허하시고, 유림(柳琳)더러 대신하도록 해사(該司)가 또한 그를 수의(首擬)<sup>27</sup>로 조치하여, 성상의 뜻으로 오히려 아껴

24 파방(罷防) : 방어를 파하여서 풀.

25 저보(邸報) : 경저(京邸)에서 조정의 중요 시책 등을 적어 각 고을에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각 고을은 서울에 경저리(京邸吏)라는 아전을 상주시키고 고을의 중요한 현안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저리가 고을에 띄우는 연락서나 보고서를 이른다.

26 정목(政目) : 관원(官員)의 임명 또는 해임(解任) 등의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킨다.

27 수의(首擬) : 수망(首望)으로 주의(注擬)함. 관원을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능호

주셨습니다. 신은 더욱 스스로 감읍하여 그옥이 다행히 여겨 속으로 생각하기를, “안주는 내게 상오(傷鰲)의 땅인데, 성상이 계셔 내가 토질(土疾)에 지레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하고, 사람 대하기를 기꺼이 파하여 문득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뜻밖에 이번에 절도사의 신명(新命)이 마침내 신의 몸에 미치니, 신은 성상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수토(水土) 간에 죽을지언정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이 한번 함부로 만성(灣城)의 역(役)을 논하고부터 본도에서 크게 배척당하여 어떤 이는 청북(淸北)을 갈라서 버린다 여기고, 어떤 이는 검산(劍山)의 공을 시기한다 여겨 못상소가 거듭 일어나 의론이 처절하였습니다. 6월에 죽은 박인검(朴仁儉)이 오히려 9월의 상소에 올라 있었으니, 이는 귀신 역시 암암리에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신의 하찮은 한 몸이 또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청서(淸西)의 열읍(列邑)에 각기 산성을 쌓아 유민(遺民)을 보호해야 함을 본래 신이 깨닫고 경오년(1630, 인조8) 8월의 차자(筭子)에 이미 소견을 진술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삼가 성감(聖鑑)<sup>28</sup>에는 이미 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이 일찍이 봉소(封疏)<sup>29</sup>로 진정하여 면적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신이 분수 밖의 은총을 생각건대, 신의

---

(陵號)·전호(殿號) 등을 정할 때 함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임금에게 주의하는데, 가장 함당하게 여겨 첫머리에 적은 것을 수망(首望), 그다음은 차망(次望), 그다음은 말망(末望)이라 한다. 임금이 이 세 망 중에서 뜻에 맞는 데에 낙점(落點)하여 결정한다.

28 성감(聖鑑) :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임금의 감식(鑑識).

29 봉소(封疏) : 밀봉한 상소문.

몸에 우악(優渥)할 뿐만 아니라, 신의 미거한 자식이 외람되게 과거(科擧)에 올랐습니다. 신의 집이 빈한한 것과 원정(遠征)을 곡진하게 염려하시고 내수사(內需司)의 재물을 하사하여 고이기에 이르니, 부자가 서로 붙들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죽더라도 바를 몰라 오직 몸을 부취 바다를 메우고 목을 베어 하늘에 채우기로 기약하였습니다.

지금 통신사가 요동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고, 이어 가도(假島)의 난이 있어 서로(西路)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이 같은데도 신이 이때 기꺼이 물러나지 않고 치롱(癡聾)으로 세월을 보내니, 다시는 염치를 스스로 비유할 수 없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지 또한 이미 오래입니다. 뜻이 흐리멍덩(氷泮解嚴)하여 심히 긴장하는 정황이 없어 혹 바람을 두어 은소(恩召)를 내릴지라도 마음이 토우(土牛)<sup>30</sup> 같아 만 번 쳐도 끄떡 않은 채 오늘의 고루함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하루아침에 직책을 본도 병마사로 옮긴다면, 그간의 형편이 부원수처럼 일이 있으면 오고 일이 없으면 돌아가 거짓 명성을 가진 소생(疏生)<sup>31</sup>들로부터 서로 간여 받지 않던 것과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두꺼운 낫으로 남들이 비웃고 욕할지라도 따른다면 스스로 위풍(威風)을 상실하여 군심(軍心)을 태만케 할 것이며, 끝내 일을 그르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절절이

30 토우(土牛) : 흙 소. 입춘이 되면 흙으로 소를 만들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선농관(先農官)이 이 소를 때리면서 농부가 밭갈이하는 시늉을 보인다. 《몽화록(夢華錄)》에 “입춘 5일 전에 흙으로 소와 농부와 쟁기 등의 농기구를 일체 만들어 사대문(四大門) 밖에 세워 둔다. 입춘일 여명(黎明)에 유사(有司)가 단(壇)을 만들어 제사 지내고, 선농관의 관리가 각각 비단 채찍을 들고 둘러서서 소를 채찍질한다. 이는 농경을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31 소생(疏生) : 상소를 쓰는 선비.

편치 못한 점이 비단 한들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이니 신의 급박하고 난감한 정상을 굽어살피 특별히 신에 대한 절도사의 명을 도로 거두어 공사(公私) 간에 온전케 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위급한 심정 간절하고 절박하여 말을 재단할 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안주(安州)의 사무를 생각하면 하루가 오히려 급합니다. 신이 하지(下旨)를 기다릴 겨를이 없어 우선 소(疏)를 올리니, 더욱 두렵고 외람될 뿐입니다.

## 체찰사와 연명으로 올린 상소 계유년(1633, 인조11)

與體察聯名疏 癸酉

체찰사(體察使) 김시양(金時讓)<sup>32</sup> 공이 지은 것이다.

삼가 아뢰입니다. 신(臣)들은 모두 하찮은 자들로 문밖에 대죄(待罪)합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무사는 싸움을 말할 뿐, 화(和)라는 글자를 혀에 올려 놀리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방 사태가 급하여 국가의 안위가 순간에 관계된 때에 가슴에 품은 소회를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서 우리 성명(聖明)을 저버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작은 견해를 아뢰니, 성명께서 굽어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그옥이 생각건대, 오랑캐 추장 누르하치(奴兒哈赤)의 공갈하는 언사가 비록 극히 흉패합니다만, 그 뜻이 전적으로 소정(所定)의 숫자에 맞게 취하고자 함에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는 교만한 오랑캐의 평상적 태도로 한후(漢后)<sup>33</sup>나 당종(唐宗)<sup>34</sup>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배를 빌려 주고 군사를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

32 김시양(金時讓) : 1581~1643.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시언(時言), 자는 자중(子中), 호는 하담(荷潭),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1605년(선조3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되어 벼슬을 시작하였다. 1626(인조4)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1627년에 평안도 관찰사 겸 체찰부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 뒤 한성 판윤을 거쳐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1636년 청백리에 뽑혀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나 안질(眼疾)로 사직하고 향리인 충주로 내려가 여생을 마쳤다. 저서에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하담집》, 《부계기문(涪溪記聞)》 등이 있다.

33 한후(漢后) : 미상(未詳).

34 당종(唐宗) : 미상(未詳).

이러한 말을 베풀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사양하고 쉬운 것을 취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득연(申得淵)<sup>35</sup>의 말처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 숫자를 준칙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며 예단을 유치(留置)하고, 다음에 갖추어 오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죄를 성토(聲討)하여 절화(絶和 화의를 단절함)하는 것은 성패(成敗)를 헤아리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차라리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지언정 신(臣) 등은 감히 의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짐짓 절화의 뜻을 보여 저들더러 두려워 따르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한다면, 오랑캐가 비록 인의(仁義)는 부족하지만, 흉교(兪狡)가 남음이 있거늘, 어찌 이 말을 하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움직여 나라를 도모하는 방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이러한 위험한 계책을 행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책은 일개 장수가 사용할 기계(奇計)로 양쪽 진(陣)이 교전할 때나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량(西糧)<sup>36</sup>과 두회(頭會)<sup>37</sup>를 살펴 헤아려 보니, 2만 군사가 반년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랑캐가 소리치며 맹약을 어기고 올 듯 말 듯 하다가 우리 군사가 태만해지고 양식이 바닥날 즈음에 비로소

35 신득연(申得淵) : 1585~164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정오(靜吾), 호는 현포(玄圃)이다. 1610년(광해군2)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정언·형조 정랑·도승지·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회답사(回答使)로 후금(後金)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세자시강원 빈객으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36 서량(西糧) : 광해군 14년(1622)에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後金)을 치기 위하여 가도(槎島)에 주둔하고 군량을 강요하자,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결세(結稅) 외에 징수하던 쌀을 말한다. 모문룡이 철수한 뒤에도 황해도 지방에서는 계속 거두다가 인조 24년(1646)에 폐하였다. 당량(唐糧), 모량(毛糧), 별수미(別收米)라고도 한다.

37 두회(頭會) : 사람의 머릿수를 헤아려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온다면 어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가 소란하여 농부가 호미를 버리고 주사(舟師) 또한 동요하면 먹을 것이 없어 저절로 무너지는 환란이 기필코 이르는 바가 있을 것이며, 적이 오면 잡아 죽일지라도 국세(國勢)는 이로부터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기(氣)가 약한 사람이 힘껏 서로 싸워 설령 단번에 이길지라도 원기가 나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치의 상도(常道)이거늘, 더군다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자임에야?

신(臣) 시양(時讓)의 전날 차자(筓子)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뜻으로 적이 기필코 올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넉넉한 양식과 달리는 말은 실로 적(敵)이 탐내는 것으로 불행히 그들이 접근해 온다면 신 등은 그옥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확대하기를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면 어찌 적을 부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손무(孫武)<sup>38</sup>의 말에, “백전백승(百戰百勝)은 계획상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요, 군(軍)을 온전히 하는 것이 다음이다.”라고 하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유념할 바 아니겠습니까? 이는 신 등이 부월(斧鉞)을 받고 밖에 있으면서 적을 두려워하여 한갓 겁내는 말이 아닙니다. 무릇 천하의 일이란 뜻을 통쾌하게 하면 기필코 후회가 있는 법, 다른 일은 후회할 수 있을지라도 이 일만은 후회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대건(金大乾)이 지닌 국서(國書)를 대략 그 말을 고쳐 말을 잘 다듬고, 황금처럼 토산이 아닌 것 외에는 우선 그들의 뜻을 좇아 그

38 손무(孫武) : 춘추 시대 제(齊)나라 병법가이다. 병법으로 오(吳)나라 왕 합려(闔閭)에게 쓰이기를 구하니, 합려가 장수로 삼아 이름이 당시 제후들 사이에 드러났다. 《손자병법》 13편을 지었다. 《史記 卷66 孫子列傳》

답한 바를 시험해 보고 끊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의 뜻이 실로 절화(絶和)에서 나왔다면 대건의 행차 또한 기필코 이렇듯 급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遼)와 송(宋)의 형세에 송은 중(重)하고 요는 가벼웠지만, 오히려 송이 증폐(增幣)의 거조(舉措)를 두었습니다. 한기(韓琦)·부필(富弼)<sup>39</sup> 등이 사신을 보내 보빙(報聘)<sup>40</sup>하도록 전적으로 논의를 주동하여 국가가 이에 힘입어 평안케 되었으니, 후세에 그르다 앓거늘, 하물며 오늘의 일임에야?

우선 이해(利害)로써 말하자면 1년간 용병(用兵)하는 비용이 어찌 수년의 예단(禮單)에 이를 뿐이겠습니까? 신득연(申得淵)<sup>41</sup>이 나온 후로 이쪽 길의 백성들이 도처(到處)에 호소하여, 식구를 헤아려 출포(出布)를 자원하여 1만 필의 숫자를 채웠으니, 민심의 소재 또한 슬퍼할 만합니다. 신 등이 우선 김대건을 용만에 머물게 하고, 조정의 처분을

39 한기(韓琦)·부필(富弼) : 모두 북송(北宋) 때의 명재상이다. 한기(1008~1075)는 자는 치규(稚圭), 시호는 충헌, 상주(相州) 사람이다. 약관의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가우(嘉祐) 연간에 정승에 제수되었다.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덕량(德量)과 문장(文章), 정사(政事)와 공업(功業)에 있어서 송나라 제일의 정승으로 일컬어진다. 부필(1004~1083)은 한국공(韓國公)에 봉해졌으므로 한공이라 한다.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가 언국(彦國)이며, 학문에 독실하였고 도량이 컸다. 거란에 사신으로 가서 의기를 드높였으며, 문언박(文彦博)과 나란히 재상이 되어 세상에서는 '부문(富文)'이라고 칭하였다.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가 다시 한국공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宋史 卷313 富弼列傳》

40 보빙(報聘) : 다른 나라의 방문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외국을 방문하는 일이다.

41 신득연(申得淵) : 1585~164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정오(靜吾), 호는 현포(玄圃)이다. 1610년(광해군2)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정언·형조·정랑·도승지·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회답사(回答使)로 후금(後金)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세자시강원 빈객으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643년에 그의 생질 이계(李桂)가 명(明)나라와 밀무역한 것을 알고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기다립니다. 만약 신 등의 소견(所見)이 허망하여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킬 수 없더라도 3월 초하루 개시(開市) 전까지 보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례상 의주(義州)의 소역(小譯)더러 회답사(回答使)가 들어간다는 뜻을 오랑캐에게 먼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실로 사신을 마음대로 억류한 죄가 만 번 죽어도 합당함을 알기에 석고복지(席藁伏地)하여 삼가 부월(斧鉞)을 기다립니다. 신 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도총관 및 포도대장 직책을 교체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  
갑술년(1634, 인조12) 6월

乞遞摠管及捕盜大將疏 甲戌六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이달 28일 대궐에 있던 중에 갑자기 담궐(痰厥)<sup>42</sup>로 인하여 두통을 앓는 데다 또한 아울러 더위를 먹어 증세가 매우 중하여,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인사불성이 되어 날로 심한 상태입니다.

조사(詔使)<sup>43</sup>가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어 잇따라 거동이 있는데, 신의 병세가 하루 이틀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 신은 절실히 고민입니다. 신이 겸(兼)한 총관(摠管) 및 포도대장(捕盜大將)의 직임에 대하여 아울러 교체를 허락하여 온전히 치료하도록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병세가 심각하여 무릅쓰고 전하의 존엄을 범하니,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당할 수 없습니다.

---

42 담궐(痰厥) : 가래[痰]가 심하고 기운은 막히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다가 인사불성에 이르기도 하는 병증.

43 조사(詔使) : 중국에서 오던 사신으로, 천자의 조칙(詔勅)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이르던 말이다.

## 경상 우병사 때에 서울로 생환하기를 청하는 상소

을해년(1635, 인조13) 5월

慶尙道右兵使時 乞生還京師疏 乙亥五月

판관(判官)이 대신 지은 것이다.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4월부터 전에 앓던 증상이 도졌는데, 처음에는 담결(痰厥)로 인한 두통이러니 생각하였고, 또한 기혈(氣血)이 함께 허한 후에 발병하여 일찍이 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위중한 형세가 하루하루 더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기를 바라며 감히 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일에 이르러 담화(痰火)가 더욱 성하여 가슴이 막혀 울렁거리고 멍하며, 심신이 혼란하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잘 못하고, 물건을 보아도 그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병석에 쓰러져 종일 누워 지내는데, 호흡이 막혀 조석(朝夕)을 보장할 수 없어 단지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귀신일 뿐입니다. 신(臣)이 한번 죽는 것을 한가하게 생각할 수 없고, 군정(軍政)은 중요한 일인데, 또한 매우 허술하여 신은 더욱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이시니, 죽음을 앞둔 신을 어여삐 살피시고 신의 직을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신이 혹 중도에 잘못되지 않으면 서울로 생환하여 의약으로 효험을 보게 되면 보답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병이 이미 대단한 지경에 이르러 사장(辭章)을 대필하게 하니, 이미 정성을 잃어 성상을 감동케 할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식이 없어 급박하고 지극한 정황에 연유하였음을 성상께서 혹 통촉하실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 차 筭

군무를 논하는 차자 경오년(1630, 인조8) 8월

論軍務筭 庚午八月

광량(廣梁)에 있을 때이다.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변변치 못한 몸으로 부월(斧鉞)을 차지한 지 이제껏 4년인데, 전후로 군명(君命)을 옥되게 하여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은들 어찌 감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분을 돌아보고 분수를 생각건대, 책무가 막중하여 늘 한결같은 생각으로 홀연히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묘(丁卯)의 변에 오랑캐가 감히 깊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맹약(盟約)을 받고 물러간 것은 우리의 병력이 그들의 목숨을 제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광적인 누르하치의 뜻이 태양을 쏘는 데에만 있어, 실로 고라니를 쫓는 개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듯 하여 우리의 기미(羈縻)를 뺏다가 도리어 우리가 견제(牽制)하였을 뿐입니다.

저들이 이미 방자하게 교만을 부려 황성(皇城)을 화들짝 놀라게 하였지만, 발끈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방패와 창, 크고 작은 도끼를 홀연히 산해관(山海關)에 버리고 갑병(甲兵)을 거두어 돌아가니, 흉모(凶謀)의 소재를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적

으로 무리 지어 살며 하루의 계획도 없어, 만일 잔여 기병(騎兵)을 수습하지 못하면 관문에 다시 기세를 부려 기필코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遼河) 동편은 남은 해를 편히 보낼 것이니, 이는 실로 말을 잃은 집이 외양간을 고칠 때입니다.

한 번 변이 나고부터 소간(宵旰)<sup>44</sup>의 근심으로 대궐의 음식을 모두 줄여 사치에 뜻을 끊고 수성(修省)<sup>45</sup>에 고심하시니, 하늘이 묵묵히 감동하여 동방을 굽어살피 해마다 풍년이 들고, 서쪽의 방비[戍]가 이윽고 소생하였습니다. 사리에 비추어 정선(征繕)<sup>46</sup>을 거리낌 없이 하여 뜻밖의 사태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한결같이 망설이며 무마하기를 일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난날 바닷길 따라 조경(朝京)<sup>47</sup>하고부터 노 젓는 군사를 갖추기가 어려워 급급해합니다. 또한 모장(毛將)이 동강(東江)에 진(鎭)을 개설한 것을 일컬어, “해방(海防)<sup>48</sup>에 걱정이 없어졌다.” 하여 선사(宣沙)·노강(老江)·광량(廣梁) 같은 모든 진(鎭)을 아울러 철퇴(撤罷)하고 일대의 해문(海門)에 대한 출입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초도(椒島)·석도(席島) 두 섬은 오래전에 한인(漢人)들의 차지가 되어 마구가 이미

44 소간(宵旰) :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야 늦게 저녁을 먹는다.[宵衣旰食]”라는 말의 준말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의미한다.

45 수성(修省) :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군왕이 자신을 반성하여 근신(謹慎)하고 덕을 닦는 것이다.

46 정선(征繕) : 원수를 갚기 위해 충실히 노력한다는 말이다. 정(征)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선(繕)은 병기(兵器)를 수리하는 것이다. 춘추 시대 진후(晉侯)가 진(秦)나라의 포로가 되자 진(晉)나라의 여생(呂甥)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고 무기를 수선하는 일을 꺼리지 않은 고사에서 나왔다. 《春秋左氏傳 僖公15年》

47 조경(朝京) : 북경에 조회하러 감.

48 해방(海防) : 바다를 방비하는 것.

비고 선재(船材) 또한 바닥났습니다. 만약 해진(海鎭)을 그대로 존치하였던들 어찌 멋대로 해를 끼치기에 이르러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광랑 1진(一鎭)은 서쪽으로 바깥 바다를 향하고 동쪽으로 패수(溟水)와 접하여 하나의 태극 형세 지형인데, 본진의 수군을 이속(移屬)하여 염영소(鹽營所)의 일꾼이 된 자 또한 수백여 명을 밀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곽과 공해(公廩)가 완전히 여전하므로, 이때 복설(復設)한다면 공역(功役)<sup>49</sup>에 한 푼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상 방어에 근심이 없을 것이니, 단지 오늘날 그러할 뿐만이 아닙니다.

조만간 가도(柯島)의 한인(漢人)이 철수하여 돌아가면 남아 있는 장정과 도망병이 여러 섬으로 흩어져 훗날 연해의 근심이 기필코 전날 해랑도(海浪島)의 환란<sup>50</sup>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초도·석도 두 섬은 큰 바다 가운데에 끼어 백령도와 형세가 멀리 이어졌습니다. 석도는 샘물이 달고 땅이 비옥하여 실로 사람이 살만 하고, 허사도(許沙島) 1보(一堡)<sup>51</sup>는 해안 안쪽에 치우쳐 있어 적을 막기에는 매우 아닙니다. 석도에 성(城)을 옮겨 승호(陞號)하여 인재를 뽑아 유민(流民)을 널리 모집하도록 허락하고, 세금을 면제하여 개간하도록 하나같이 당초에

---

49 공역(功役) :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부역.

50 해랑도(海浪島)의 환란 : 해랑도는 조선의 국경과 청(淸)나라 사이 금주위(金州衛)의 동남쪽 바다에 있던 섬으로 조선 사람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거주하는 일이 생기자, 성종은 국경을 넘어가서 이곳에 거주하는 자를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하였고, 연산군은 초무사(招撫使) 전립(田霖)을 파견하여 도망가 살고 있던 자 101명을 찾아왔다. 《成宗實錄 23年 8月 10日, 24年 1月 29日》《燕山君日記 4年 12月 11日, 6年 3月 20日·6月 28日·7月 9日》

51 보(堡) : 조선 시대 국경 지역의 요충지에 설치한 작은 요새.

백령도(白翎島)에 하듯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이 이 섬을 보고 제일의 피병지(避兵地)로 여겨 반드시 기꺼이 달려올 것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유민들이 한 차례 병화를 겪고 나서 놀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마치 매달린 깃발처럼 필력여 모두 각자 산성을 쌓아 부모 처자의 처소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정경이 서글프고 그 바람이 지극합니다. 용강(龍岡)의 다미(多米)에 삼화(三和)가 합동하여 쌓고, 함종(咸從)의 응암(鷹巖)에 증산(甌山)이 합동하여 쌓도록 한다면 또한 하나의 형승지(形勝地)-요새(要塞)-가 될 것입니다. 영유(永柔)의 어과(魚波)에 숙천(肅川)이 합동으로 쌓고, 자산(慈山)의 자모(慈母) · 순천(順川) · 운산(殷山)이 합동으로 수비하고, 영변(寧邊)의 약산(藥山) · 박천(博川) · 희천(熙川)이 합동으로 수비하며, 창성(昌城)의 청산(靑山) · 운산(雲山) · 삭주(朔州)가 합동으로 수비하며, 가산(嘉山)의 효성(曉城) · 구성(龜城)이 합동으로 수비하며, 정주(定州)의 자성(慈聖)에 곽산(郭山)이 합동으로 쌓고, 선천(宣川)의 검산(劍山)에 철산(鐵山)이 합동으로 쌓고, 의주(義州)의 백마(白馬)에 용천(龍川)이 합동으로 쌓아 수비하도록 하면 실로 오랑캐를 무찌르기에 형세가 모두 기이하고 절묘할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나가서 경작하고, 일이 있으면 입보(入保)<sup>52</sup>하며, 1,000리를 청야(淸野)하여 사방에 약탈할 것이 없게 하면 감히 마음대로 깊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역(役)을 일으켜 민심을 따르도록 하면 공(功)이 갑절만

52 입보(入保) :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변란 등을 피하여 성이나 보(堡)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아닐 것입니다.

안주(安州) 한 성은 서문(西門)의 한 도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경원(申景瑗)이 마음과 힘을 기울여 크게 개축한 덕분에 우뚝하여 범하기 어렵습니다. 동성(東城) 밖은 봉수(烽燧)가 누르고 있어 꺼릴 만하니, 60보(步) 밖으로 형세대로 일으켜 쌓아 나성(羅城)을 만들어 장대(將臺)를 높이 세우고 무고(武庫)를 곁들여 설치하여 대장이 그곳에서 호령하면 실로 목을 조르고 덜미를 잡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난리에 만신창이가 된 나머지 부역에서 두 끼를 마련하기에도 어려워 문득 판관(判官)을 혁파함에 절도대장(節度大將)이 호차(胡差)를 응접하기에 분주하여 위명(威名)을 크게 손상하니, 사체(事體)로 생각하면 역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불행히 앞으로 변이 있어 절도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한다면 본성(本城)을 담당할 인재가 없게 됩니다. 객장(客將)이 난리에 들어와 수비한다면 어찌 창졸간에 민심을 복종시켜 죽기로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나 저나 판관을 더욱 마땅히 돌이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영변(寧邊)은 200년 전에 개부(開府)<sup>53</sup>한 곳으로 인민이 많고 성지(城池)가 넓기는 일도(一道)에 으뜸이며, 바로 안주(安州)와 마주하여 실로 순치(脣齒)의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망이 절도사와 비등한 자를 택하여 본직(本任)에 제수하고 북도(北道)의 회령(會寧)에 대한 구례(舊例)와 같이 하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해도에 이르러서는 은율(殷栗)의 구월(九月), 재령(載寧)의 장수(長壽), 해주(海州)의 수양(首陽), 서흥(瑞興)의 고읍(古邑), 평산(平

---

53 개부(開府) : 관부(官府)를 설치하여 관리를 둠.



山)의 동성(東城)은 이미 완벽을 이루어 실로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본도(本道) 병사(兵使) 신경인(申景禔)<sup>54</sup>과 오랫동안 같은 진(陣)에 처했는데, 말이 본성(本城)에 미치면 번번이 거듭 찡그리며 뜻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대개 본성(本城)의 성곽이 차례로 무너져 동북 양쪽으로 부스러진 성(城)이 매우 심하고, 밖으로 포루(砲樓)가 없어 개미처럼 붙어 공격해 오는 환란을 제어하기 곤란합니다. 신의 주체념은 생각으로는 다행히 옮겨올은 급한 정보가 없을 듯하니, 우선 안주·황주 두 성의 동방(冬防)을 정지하여 공력(功力)을 헤아리고 물자를 헤아려 삼태기와 삽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봄에 해가 길어지면 오영(五營)의 군사로 일시에 부역(赴役)하면 불과 2개월이면 끝날 것이며, 안주에 이르러서는 공력이 2분(二分) 남짓 경감될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상장(上將) 1명에게 명하여 중화·황주 사이에 개부(開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권(重權)을 부여하여 마음을 다하여 다스리게 하되 관서(關西)와 해서(海西)를 놔두고 오로지 오랑캐에 대한 방어를 일삼게 하면 6도(六道)가 평온하여 백성들이 고기를 잡고 나무하기를 즐길 것입니다. 어찌 변방의 봉수(烽燧)가 한 번 오를 때마다 팔도(八道)가 모두 소란스레 피난 짐을 지고 메고 서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다고 하겠습니까?<sup>55</sup>

54 신경인(申景禔) : 1590~1643.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정(子精)이다. 인조반정에 공로를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책훈(策勳)되고 동성군(東城君)에 책봉되었다. 《西溪集 卷14 東城君申公墓表》

55 어찌……하겠습니까 : 원문에 豈不逾於邊烽一舉……를 《芝湖集》 卷之十一 〈錦南君鄭公行狀〉 중 豈不愈於邊烽一舉에 따라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같이 큰 계책을 안배함은 신이 감히 논의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배 짜는 과부가 복실이 끊어질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周)나  
라가 망할까 걱정한다고 하니, 신 또한 어찌 구구한 견마(犬馬)의 정성  
으로 이에 감히 무릅쓰고 주제님은 소견이나마 아뢰지 않겠습니까?  
황공하고 떨리는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  
감께서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차자에 아뢰는 건은 실로 소견이 있으므로,  
묘당에서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또 군무를 논하는 차자 신미년(1631, 인조9) 6월

又論軍務筭 辛未六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듣건대, “강한 나라는 지모(智謀)를 다두고, 약한 나라는 생존을 도모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는 자기의 처소를 편케 하고, 위태한 곳을 밟는 자는 지팡이를 야물게 짚는다.” 하였습니 다. 그옥이 요즈음 형세를 생각건대, 실로 생존을 도모하고 지팡이를 야물게 짚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오랑캐가 요수(遼水) 가를 한번 차지하면서부터 앞마당을 문득 마주하여 마음 닿는 곳이 있으면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이르니, 청천강 서쪽과 패수(溟水) 남쪽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기에 진(秦)·위(魏)의 위태함 같을 뿐만이 아니라 병란 후에 관서(關西)·해서(海西)의 탕잔(蕩殘)이 이미 심하여 군사를 크게 일으켜 둔수(屯守)<sup>56</sup>하려 논의한들 고을에 비축한 양식이 없어 향도(饑道) 군량 운반 길을 이을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냥 고식적으로 하여 오늘날 고요함에 이른 것은 계책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이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우선 동방으로 시험한 후에 서쪽으로 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실로 연(燕)나라 사람 모용한(慕容翰)의 이른바 서쪽으로 향하려거든 반드시 먼저 고려(高麗)에 사달을 내어 뒷일을 논한다고 함이 이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교만 방자하게 명나라를 침범하여 오히려 크게 떨치지 못하였지만, 이리의 마음을 아직도 뉘우치지 아니하니,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남목(南牧)<sup>57</sup>을

56 둔수(屯守) : 주둔하여 수비함.

잇고 역수(易水)<sup>58</sup>를 엿보겠습니까?

오늘날 1만여 병력으로 압록강을 몰래 건너와 가도(柯島)를 습격하겠다고 떠벌리며 우리에게 배를 빌려 달라 표명하면서도 한 발짝도 대정강(大定江)<sup>59</sup>을 건너지 않고 민선(民船)을 약탈하여 철산 서쪽 해안에 모아 정박하니, 이 어찌 진실로 가도를 절단하는 데에 뜻이 있다 하겠습니까. 군사를 서쪽으로 하고자 하면서 우리 동쪽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황 도독(黃都督)-황룡(黃龍)-이 이때 적을 배고 포로를 잡아 바쳐 뜻을 굳혀 동강에 체류하려는 계책을 실행한다면 이로부터 서도(西道) 백성들 또한 병란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미루어 보면 오랑캐가 맹약을 어기고 아직도 한쪽 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조정이 지금 또 삼남(三南)의 군사를 크게 징발하여 육로로 속속 들여보내 여러 성의 외원(外援)으로 삼을 것이라 하는데, 군사가 도착하기 전에 오랑캐는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관서(關西)와 해서(海西)가 흑심하게 병화를 겪어 고을에서 양식을 구경할 수 없는 데, 만약 군사가 이른다면 향도(餉道)를 어떻게 잇겠습니까? 또한 이 오랑캐들을 생각건대, 철기(鐵騎)로 언덕에 의지하여 야전(野戰)에 뛰어들어옵니다. 비록 수만의 원병(援兵)이 있다 한들, 또한 무슨 수로 원야(原野)에서 교전하며, 싸운 이후에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

57 남목(南牧) : 남쪽으로 내려와서 말을 먹여 기른다는 뜻으로, 북방 민족이 중국을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58 역수(易水) : 중국 하북성(河北省)에 있는 물 이름이다.

59 대정강(大定江) : 박천강(博川江) 또는 대령강(大寧江)이라고도 한다. 박천군의 서쪽 15리쯤에 흐른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박천군》

마땅히 농성(籠城)하여 지키며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신안(新安) 정기(程驥)가 일찍이 구변의(九邊議)에 말하기를, “오랑캐가 사마선(篩也先)을 불태운 후로 더욱 중국을 경시하여 왕왕 깊이 침입하기를 풍우(風雨)처럼 몰아쳐 걸핏하면 수만 명이다. 우리가 험고(險固)에 기대 영채(營寨)를 걸속하고, 충돌하여 요란스럽게 앓는 것은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함부로 당당하게 일전(一戰)을 하겠는가?”라고 하니, 이 말은 오랑캐를 막는 좋은 계책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근래에 원 도수(袁都帥)<sup>60</sup>-원숭환(袁崇煥)-는 한 시대의 영묘(英妙)한 자질로 영원성(寧遠城)을 굳게 지키며 누차 오랑캐의 침략을 꺾었으며, 그들이 물러가자 군사를 경계하여 성을 나가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관문(關門)에서 중무장 병사들이 앞서서 영원성 주위를 관망하다가, 또한 감히 조금이라도 발이 비끗하여 한 발짝이라도 관문을 벗어나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 지피지기(知彼知己)하여 능하지 못한 바를 강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수많은 정병(精兵)으로도 오히려 외원(外援)으로 삼을 수 없거늘, 더군다나 우리가 피곤한 군사 수천으로 감히 성을 둘러싼 위급을 해결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중병(重兵)을 배치하여 굳게 지키고, 정기(精騎)를 뽑아 외원으로 함은 비록 이것이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나, 우리의 형세로 헤아린다면 단지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치부되어 그간에 큰 이익이 없을 것

60 원 도수(袁都帥) : 원숭환(袁崇煥, 1584~1630)이다. 명나라의 관료이자 명장으로, 자는 원소(元素)이다.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북경을 향해 진격해 오던 후금의 누르하치를 영원성 전투에서 막아내고 이후 홍타이지의 공격도 막아내었다. 1622년부터 병부 직방사 주사를 지내다가 산해관 총병을 맡았으나 억울하게 처형당하였다.

입니다.

신의 주제넘은 생각으로는 삼남(三南)의 군사를 징발하여 매년 각 도에서 단지 2,500명, 경기·강원 아울러 2,500명, 함경남도 및 순영(巡營)을 아울러 2,500명을 징발하여 오번(五番)으로 편성하고, 경영(京營)의 군사 500명을 더하여 합계 3,000명으로 매년 3월 1일을 기하여 안주(安州)에 입수(入守)-들어가 수비함-하고, 동짓달 1일이면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경계가 있건 없건 논할 것 없이 해마다 상도(常道)로 하면, 5년에 한 번 수비하는 것이니 역시 제도(諸島)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과 봄 4개월은 본도 군사 7,000을 전적으로 쓰고 감영병(監營兵) 2,000을 더하여 9,000으로 숫자를 맞추면 병사(兵使)의 수하(手下)에 또한 약간의 군사가 있으므로 동방(冬防)에 족할 것이니, 군사가 적은 것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주(安州)·황주(黃州) 양성(兩城)을 힘을 다하여 굳게 지켜 양도(兩道)의 유민을 아울러 입보(入保)<sup>61</sup>하도록 허용하고, 산성(山城) 1,000리를 청야(淸野)<sup>62</sup>하여 대비하는 것이 먼저 이길 수 없게 하여 적이 이끄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삼남의 대병(大兵)이 아직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중지하여 단지 2,500명을 징발하여 들여와 안주를 지키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

61 입보(入保) :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적이 침입해 오면 성(城)이나 보(堡)에 들어가 피하던 일을 말한다. 평안도나 함길도의 경우, 가을과 겨울이 되면 으레 백성들을 입보하도록 하였다.

62 청야(淸野) : 적병이 쳐들어올 때 쓰는 전술로, 백성과 재물을 모두 성안으로 모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 버려서, 적병이 와도 거처할 집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곤란을 겪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천(淸川)·대정(大定) 두 강 사이 20여 리 지점에 양전(良田) 수천 경(頃)이 있는데, 본래 옥토라고 합니다. 2,000명의 정부(丁夫)를 사용하여 5, 6일 일을 하면 제언(堤堰)을 크게 쌓을 수 있고, 해마다 만곡(萬斛)의 곡식을 얻을 만합니다. 안주(安州)의 군사가 일이 있으면 들어가 수비하고, 일이 없으면 나가 경작해야 할 것이니, 역시 옛사람의 또한 수비하고 또한 경작한다고 한 데에서 나온 뜻입니다. 따라서 신을 안주를 벗어나지 말게 하여 수응(酬應)에 전념하도록 맡기신다면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금(金)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언어와 안색을 살펴보니 겉으로는 비록 양순하였으나, 속으로는 매우 섭섭한 뜻이 있었으며, 그들의 바람이 차관(差官)을 들여보내는 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더불어 맹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으니, 견양(犬羊)인들 어찌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역시 묘당에 명하여 뜻을 다하여 강구(講究)하되, 문무(文武)를 논할 것 없이 말 잘하는 선비를 정밀하게 선발하여 화급히 들여보내 이해(利害)를 개진하여 이리의 노여움을 종식하는 것 역시 권도(權道)에서 나온 병화(兵火)를 늦추는 방도입니다.

신은 일개 미천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은우(恩遇)를 입어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한 채 한갓 해바라기의 작은 마음으로 위란(危亂)의 즘음에 명을 받음에 구구한 견마의 정성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심정을 다 아뢰니 역시 매우 주재냅니다.

## 또 군무를 논하는 차자 8월

又論軍務筭 八月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용렬하여 지식이 없고 견문이 어두운데, 함부로 만성(灣城)에 대한 입수(入守)의 어려움을 논하여 본도(本道)로부터 크게 배척당하였으며, 신을 공격하는 상소가 팔을 걷어붙이며 일어났습니다. 신은 응당 입 다물고 혀를 묶어 감히 다시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외람되이 부원수의 직을 맡아 명을 받고 변방에 나왔으니, 사체(事體)가 국외(局外)의 방관자와는 같지 않거늘, 또한 어찌 각기 그 뜻을 말하는 것을 해롭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본도가 반드시 만성(灣城)을 수복하고자 함은 실로 변방을 공고히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집안의 아랫목을 편케 하는 지극한 뜻으로 사리의 당연함이 무엇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사세(事勢)로 생각건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비단 한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꾀함은 무리에 달려 있고, 결단은 혼자에 달려 있으니, 오직 성명(聖明)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

그옥이 생각건대, 축조하는 일을 경영하는 자가 반드시 먼저 고려할 일은 “재물을 용도에 따라 분배하고[分財用], 널빤지와 기둥을 다듬고[平板幹], 삼태기와 공이를 헤아리고[稱畚鍤], 흙의 양을 헤아리고[程土物], 기지를 측정하고[略基址], 식량을 준비하고[具糗糧], 유사를 배정하고[度有司], 완공 날짜를 명하여[量功命日]<sup>63)</sup>” 생업에 지장 없이

63 완공 날짜를 명하고 : 원문의 ‘量功名日’을 《춘추좌씨전》에 의거하여 ‘量功命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3)》魯宣公 上 十一年, 癸亥 [傳]令尹蒍艾獵城沂할새 使封人慮事하야 以授司徒하다 量功命日하고 分財用하고 平板幹하고 稱畚築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위애렵(蒹艾獵)<sup>64</sup>이 기(沂) 땅에 성을 축조하기를 이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견해로 경솔하게 역(役)을 일으키면 끝내 한 삼태기의 부족으로 허다한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

하고 程土物하고 議遠邇하고 略基趾하고 具饌糧하고 度有司하니 事三旬而成하여 不愆于素하다.

64 위애렵(蒹艾獵) : 초(楚)나라 영윤(令尹) 위애렵 즉 손숙오(孫叔敖)가 기(沂)에 성을 쌓을 적에, “30일 만에 공사를 마쳐 처음 계획한 날짜를 어기지 않았다.[事三旬而成 不愆于素]”라고 한 말이 《춘추좌씨전》 선공(宣公) 11년에 나온다.



---

만  
운  
집

---

제  
3  
권

---

祝 축  
文 문

祭 제  
文 문

書 서



## 서 書

임 유격에게 보내는 편지 무진년(1628, 인조6) 1월

與任遊擊書 戊辰正月

근래에 오랑캐 사신이 국경을 통과함에 경계하도록 대전(臺前)에 급보(急報)하니, “거느리고 피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하(臺下)의 병정들이 스스로 조심성 없이 길을 마구 달리다가 오랑캐 군사와 맞닥뜨려 자신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5인의 목숨이 거둬 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대인의 병사 고주근(孤駐近)이 죽으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여 화(禍)의 단서를 불렀으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과군(寡君)께서, 내가 선봉(顏行)을 잘 호위하지 못하였다 하여, 나명(拿命)-체포령-을 이미 내림에 금부도사(禁府都事)가 조석으로 당도할 것이므로 이에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심(腹心)이 언뜻 보니, 오랑캐 기병(騎兵) 두 사람이 나는 듯 번개처럼 달려 압록강을 넘어갔다 하는데, 그 속내를 생각건대, 혹시 군사를 불러 호위하여 돌아가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지난봄 사포(蛇浦)의 변은 날을 꼬아 기약할 수 있었으니, 솔개가 치려 할 적에는 먼저 날개를 거두며, 못의 고기가 뛰려 할 적에는 반드시 비늘을 잠기는 법입니다. 아, 대인 역시 병가(兵家)의 기계(奇

計)를 알면서 어찌 거두어 돌아가 섬에 종적을 감추어 봄별 좋고 물이 불거든 기회를 보아 움직이려 아니하십니까? 사포의 땅은 궁벽하고 바다의 물은 얼어 오히려 지척(咫尺)이라도 대병을 모아 돕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환란은 단지 운대(雲臺)가 위급(危急)할 뿐만이 아닙니다. 지자(智者)는 드러나기 전에 보고 기미를 일어나기 전에 보는 법, 재앙이 반드시 미칠 것이니, 대인께서는 허술하게 듣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성주(地主)가 되어 의리가 남들과는 다르기에 그옥이 대인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 황독부 용에게 올리는 편지 신미년(1631, 인조9) 11월

上黃督府 龍 書 辛未十一月

가도(柯島)의 변란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여 바다 건너 선봉(顏行)이 놀라기에 이르렀지만, 소식이 긴가민가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군주의 명을 받들고 철산(鐵山)을 진무(鎭撫)하러 온 것은<sup>1</sup> 노야(老爺)를 위한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울분이 사무쳐 가슴이 미어질 듯하였는데, 다행히 하늘이 화를 누우쳐 홍복(鴻福)을 오히려 내리심에 난이 금방 안정되어 계극(槩戟)<sup>2</sup>이 전과 같으니, 어찌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패(信牌)<sup>3</sup>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급히 재촉하시니, 이에 이르러 어찌 감히 잠시라도 지체하겠습니까. 삼가 신패의 뜻으로 향신(餉臣)<sup>4</sup>에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 특사(專使)에게 위로와 하례의 뜻을 전하도록 하고, 또한 군대의 소동이 있는 끝이라 희뢰(飢隸)가 부족할까 염려하여 삼가 쌀 10포대를 1일분 땀값과 물값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1 제가……것은 : 인조 8년(1630) 4월 19일에 가도(柯島)의 독부 도사(督府都司) 유흥치(劉興治)가 난을 일으켜 부총병 진계성(陳繼盛)과 흠차 통판(欽差通判) 유응학(柳應鶴) 등을 살해하고 스스로 무리를 거느렸다. 이에 대해 인조는 이해 8월 5일에 총융사 이서(李曙)와 부원수 정충신(鄭忠臣)에게 하유하여 유흥치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2 계극(槩戟) : 적후색 비단으로 짠 나무창으로, 고대에 관리가 쓰던 의장의 일종이다. 출행할 때는 맨 앞의 병사가 이 창을 들고 전도(前導)가 되며, 임소에 당도한 뒤에는 문정(門庭)에 세워 놓는다.

3 신패(信牌) : 목판으로 △ 모양의 패를 만들어 패면(牌面)에 처리할 사무를 적고, 관리의 이름을 서압(署押)하여 증빙의 신표로 삼는다.

4 향신(餉臣) : 군량미에 관한 일, 또는 군량 운송을 담당하는 관원이다.

## 황 독부에게 올리는 편지 윤11월

上黃督府書 閏十一月

얼음길이 한번 막힘에 인편이 아직도 지체되어 전후에 있었던 편지를 모두 보지 못한 채 부끄럽게도 풍모를 다시 우리르게 되니, 더욱 황송할 뿐입니다.<sup>5</sup> 그옥이 생각건대, 노야(老爺)께서 동강(東江)을 견제하여 군비를 거듭 새롭게 하며, 대소 절차를 응당 같은 시각으로 하시리라 여깁니다.

이 오랑캐들이 아주 교활하게 많은 꾀로 반드시 양국을 교란하여 어부지리(漁父之利)<sup>6</sup>를 노리려 함은 노야의 생각에도 익숙하리라 여깁니다. 소방(小邦)의 힘이 약하여 이미 저들과 강호(講好)하여 때로 신사(信使)의 왕래가 있음을 노야도 알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오랑캐 사신이 경내에 들어와 우리의 허실을 엿보므로 의당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며, 미끼를 베풀어 야심(戒心)을 열게 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철산(鐵山)의 당보(塘報)<sup>7</sup>를 보니, “섬에 있는 말 떼를 산읍(山邑)으로 내다 방목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물과 건초의 어려움이 있어서이겠지만, 지금 이목(耳目)이 많은데, 만에 하나

5 더욱 황송할 뿐입니다 : 원문의 ‘徒僧兢懼’는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역자가 ‘徒增兢懼’로 고쳐 번역하였다.

6 어부지리(漁父之利) :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말로 ‘바닷가에 큰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자, 지나가던 물총새가 이를 쪼아 먹으려 하였는데, 조개가 입을 닫는 바람에 주둥이를 빼지 못하고 서로 버티다가 어부에게 모두 잡혔다.’라는 내용이다.

7 당보(塘報) : 척후(斥候)하는 군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정과 형편을 살펴 당보기(塘報旗)를 가지고 알리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는 전령이 알려 온 내용이란 뜻으로 쓰였다.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 양국의 틈이 벌어진다면 노야(老爺)께서 약국(弱國)의 보존을 꾀하는 뜻에 또한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노야께서 특별히 이를 유념하여 말 때를 거두어 돌이켜 변경의 걱정을 면하게 한다면 어찌 서쪽 백성의 다행일 뿐이겠습니까. 또한 좋은 말을 아끼게 될 것이니, 간절한 바람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 황 독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黃督府書

비천한 저를 멀리 아니하고 곡진하게 문유(問遺)<sup>8</sup>를 내리시니, 글을 올리며 등가(登嘉)함에 감격과 두려움이 깊습니다.

우리 군주께서 부릴 사람이 부족하여 제가 감히 군령에 간여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에서 군사를 수고롭게 하면서도 위난(危難)을 지척(咫尺)에서 구제하지 못하여 오히려 죄려(罪戾)에 대한 걱정을 억누를 수 없거늘 감히 칭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전전공공할 뿐입니다.

노아께서 택수(澤水)에 쇠뇌를 숨기고 날개를 떨쳐 흉도들을 제거하여 다시 옛 법도를 회복하신다면 이는 실로 성천자(聖天子)께서 가상히 여기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비록 제가 간절한 마음을 나열한들 또한 무엇 하겠습니까.

다만 도적이 장막에 든 것을 생각건대, 역시 한위공(韓魏公)<sup>9</sup>이 경계하지 않던 바입니다. 한 조각 고도(孤島)에 더군다나 반복이 많음에야! 바라건대 노아께서는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더하여 코 골며 조는 자를 다시는 탐(榻) 밖에 용납하지 말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정황이 막부(幕府)에 관계됨에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히 복심(腹心)을 펼치니, 또한 주체넘은 줄을 압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8 문유(問遺) : 안부를 묻고 물건을 선사함.

9 한위공(韓魏公) : 한기(韓琦, 1008~1075)로, 중국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부터 신종(神宗) 때의 재상이다. 인종 때 재상에 올라 십여 년간 국정에 참여하여 치적을 쌓았으나, 신종 때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 실시와 거란(契丹)에 대한 영토 할양에 적극 반대하며 관직에서 물러났다.

## 장 유격 궤에게 보낸 편지 같은 달

與張遊擊 魁 書 同月

근래 여기저기에서 떠도는 말이 백 가지로 나오니, 증삼(曾參) 어머니의 지혜로도 어려워 복을 내던질 것입니다.<sup>10</sup> 요컨대, 행종(行從)<sup>11</sup>으로서 철산(鐵山)에 이르러 차례로 허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천심(天心)이 화를 뉘우침에 독부(督府) 노야의 주선(周旋)과 절제(節制)가 여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인(大人)처럼 일찍이 충심을 품은 자가 위기에 힘을 다하여 대처하였기 때문이니, 기뻐하며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들고 가도(槓島)의 정세를 한결 자세히 접하게 되어 훌륭한 마음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삼가 보내주신 뜻으로 국왕께 아뢰게 되니, 대인의 은혜가 역시 대단합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

10 증삼(曾參)……것입니다 : 증삼이 비(費) 땅에 거주할 때 그곳에 살던 동명인(同名人)이 살인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증삼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세 번을 계속 들고서는 마침내 찢고 있던 베들의 복을 내던지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는 고사(古事)가 있다. 이는 참조하는 말을 믿게 되는 일을 두고 이르는 것임. 《戰國策 曾參殺人條》

11 행종(行從) : 직위가 높은 사람을 시종(侍從)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심 부총<sup>12</sup> 세괴 에게 보내는 편지

與沈副摠 世魁 書

가도(柯島)의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독수(督帥)를 폐치(廢置)하는 변란이 있어 비록 소방(小邦)이지만, 군신(君臣) 상하가 속상하고 골치 아파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노대인(老大人)께서 한결같은 충의(忠義)로 시퍼런 칼날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분난(紛難)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던들, 독부(督府) 대노야(大老爺)의 경각에 달린 목숨을 어찌 오늘에 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폐하고 죽이는 것은 서로 한 치의 사이인데, 누가 일컬어 작은 고도(孤島)가 필경 우리의 소굴이 될 것이라 하던가요? 대인의 중후함으로써도 기필코 하루도 편히 침식(寢食)할 수 없어 위태롭기가 마치 얼음을 밟은 것 같았겠습니까.

근래 육지에 나온 한인(漢人)들이 모두 말하기를 굳이 사양합니다만, 가도의 군사가 불일간에 육지로 나와 소방(小邦)을 엿볼 것이라고 한 번 전해오고 두 번 전해왔습니다. 시호(市虎)의 참소<sup>13</sup>를 세 번 거듭 하자 비록 증자(曾子)의 모친이라도 북(杼)을 내던지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긴가민가하여 바로 선천(宣川)·철산(鐵山) 사이로 내려와 허실을 시험하여 살폈는데, 이는 모두 귀도(貴島) 사람

---

12 심 부총(沈副摠) : 심세괴(沈世魁, ?~1637)로, 명나라 관료인 부총병(副總兵)을 지냈으나, 청나라 군대에 패하여 죽었다.

13 시호(市虎) : 계속 반복되면 사실처럼 믿게 되는 유언비어를 말한다. 저갯거리에는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세 번 정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모두 그렇게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戰國策 魏策2》

들이 마음대로 전과하여 원근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육지로 나온 한인(漢人)을 모두 거두어 섬으로 돌려 보내 피차 서로 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잠시 안정을 취하도록 섬사람들을 경계하여 조선 백성을 진무(鎭撫)함만 못할 것입니다만, 대인 역시 이에 뜻이 있는지……. 노장께서 평소 충심을 지닌 분이 아니라면 감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바람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유기(劉旗) 아래 만만 도부(都付)하여 구두로 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가 이만 줄입니다.

심 부총에게 보내는 편지 임신년(1632, 인조10) 4월

與沈副摠書 壬申四月

소식이 이르러 열여 봄에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니, 제가 어찌 회포가 있겠습니까? 대인의 보살핌이 거듭 이에 이르니, 되레 더욱 부끄럽습니다. 대인께서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도중(島衆)의 궁핍을 구제한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서글피 정색하게 합니다.

우리 군주께서 섬의 위급을 걱정하여 이미 날마다 군량을 보냈습니다만, 이 어찌 학철(涸轍)<sup>14</sup>의 위급을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방(小邦)의 천조(天朝)를 위한 염려는 역시 이미 극진하였습니다.

장 수재(張秀才)<sup>15</sup>-장명(張明)-의 전기(傳記)를 대하고 옛 친구의 수염과 눈썹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서글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득 돌아갈 인편이 너무 바빠 글씨가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고아한 도량으로 만복을 누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

14 학철(涸轍) :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에 남은 물로, 곧 죽을 처지를 비유한다.

15 장 수재(張秀才) : 장재(張載, 1020~1077)를 가리킨다. 중국 송(宋)나라의 유학자로,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橫渠)이다. 송나라의 이학(理學)을 창시한 오현(五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의 스승이기도 하다.

## 심 총부에게 보내는 편지

與沈摠府書

비천한 처지를 보살피 날로 새롭게 아니해 주셨던들 제가 어찌 태부(台府)로부터 골육과 같은 대우를 받아 이에 이르도록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통의 편지를 받들 때마다 문득 분수가 천한 것을 잊고 애연한 정이 울컥합니다.

근래 안주(安州)의 변에 대하여 비록 하문(下問)이 없더라도 본래 한번 시말(始末)을 진술하여 분명히 밝혀 유감이 없게 하려 하였는데, 더군다나 하문을 받들고 감히 일일이 아니하겠습니까? 무릇 사적으로 우리 사람이 선입관을 주장함은 세간의 상정인데, 다만 태부(台府)께서는 월등하게 인간의 사사로움을 벗어나 질언거색(疾言遽色)<sup>16</sup>하지 아니하여 명성의 차이가 분명 합당하였습니다.

김 도사(金都司<sup>17</sup>)가 먼저 평안 감사(布政)에게 묻고, 또한 평안 병사(摠兵)에게 물었는데, 저는 그 일에 임하여 신중하고 자세한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십여 년 동안 동강(東江)에 주둔하며 조선과 중국의 정세를 두루 터득한 바로써 우리 백성더러 더욱 찬양하며 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욕이 그날 일을 생각건대, 관향(管餉)<sup>18</sup>이 아직 접견하지도 않았

16 질언거색(疾言遽色) : 빨리 말을 하고 당황하며 안색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17 도사(都司) : 요동 도사(遼東都司). 명(明)나라 때 요동성의 군정을 관장하던 관청(官廳)이며, 정식으로는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라고 한다.

18 관향(管餉) : 국가의 비상시에 군량으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던 양곡으로, 1623년(인조1)에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 지방에 군량을 비축하고, 관향사(管餉使)를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뒤에 이 관향곡은 황해도

는데, 호 유부(胡遊府)가 성 밖에서 값을 논하므로 불응하였습니다. 유부가 잠시 방 밖으로 나가 자기의 가인(家人) 4인을 시켜 관향을 밀실에 가두고 먼저 철사로 목을 묶어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관향이 그들의 겁박에 분격하여 죽기로 맹세하고 불응하자 또한 목에 밧줄을 묶고 새끼줄을 더하며 생사 간에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여 관향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일에 겨를이 없어 본래 군사에 관한 정사(政事)에는 간여하지 않던 신 총병(申摠兵)이 본성(本城) 주인으로서 결영(結纒)<sup>19</sup>하고 구하는 데에 급하여 병졸을 움직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원용(元戎)으로서 오로지 맹약을 주관하거늘, 역시 어찌 총병에 대하여 간여하였겠습니까?

제가 향사(餉使)의 위급을 듣고 먼저 명첩(名帖)<sup>20</sup>을 갖추어 한 사람의 소역(小譯)을 호 유부(胡遊府)에 보내 그 사건이 이렇듯 부당함을 말하였으나, 예(禮)를 앞세우고 난(難)을 뒤로하였습니다. 다소의 병정이 향사의 집을 포위하여 활을 당기고 살을 쏘아 우리 사람을 물리쳐 소식을 통할 수 없게 하고, 끝내 칼로 우리 사람을 상하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한인(漢人)이 먼저 무기를 쓴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

와 평안도 지방에만 치중하게 되어 1636년(인조14)에 이르러서는 평안도 감사가 관향사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곡(還穀)으로 쓰기도 하였다.

19 결영(結纒) :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 의연한 자세를 말한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전쟁터에서 창을 맞고 치명상을 당했을 때 “군자는 죽을 때에도 갓끈을 풀지 않는 법이다.” 하고는 갓끈을 다시 매고[結纒] 죽었던 교사가 있다. 《春秋左傳 哀公 15年》

20 명첩(名帖) : 성명(姓名)이나 주소(住所) · 근무처(勤務處) · 신분(身分) 등을 적은 종이쪽이다.



이르러 병졸이 아니고는 포위병의 위급을 해소하여 삼시간에 관향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안주(安州)의 약속에 정한 대로 대(臺)에 올라 방포(放砲)하고 대원을 소집하는 나팔(喇叭)을 불자 병마가 석대(釋臺) 아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이 급하여 가호(家戶)마다 불러 명할 수 없어 옛 약속에 따라 명하자 과연 기졸(騎卒)이 일제히 이르렀으므로, 바로 백여 인을 선발하도록 하여 포위병이 있는 곳으로 보내 향사를 구한 것입니다.

천총(千總) 이봉춘(李逢春)의 일에 이르러서는 호 유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sup>21</sup>을 정돈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면서 그가 거느린 가정(家丁) 중에 옥석(玉石)을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을 역시 풀어주고 말을 주어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은 단지 이것으로 털끝만큼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이 천총이 사실을 분명하게 태부(台府)에 고하지 아니하여 피차간에 시비를 어지럽게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날의 일로 논죄하자면 오직 저 한 사람이 해당할 것이니, 태부께서는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

21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 : 인부와 말의 준비를 맡은 차사원(差使員)을 말한다.

## 심 부총에게 보내는 편지 정묘년(1627, 인조5) 설날

與沈副摠書 丁卯元朝

옛 한 접시에 문득 설날(三朝)인 줄 알고 근심스레 변방의 곡조를 들으며 춘반(春盤)<sup>22</sup>을 바라볼 뿐이니, 나그네 회포가 서로 같으리라 여깁니다. 다행히 천지에 해가 바뀌어 새로운 경사가 봄을 따르니, 황궁(北闕)의 공(貢)에 응하나이다. 만국의 먼 변방이 이미 아득한 구봉(舊封)으로서 소소(簫韶)<sup>23</sup>를 아홉 번 아룀에 모든 오랑캐가 너울너울 춤추나이다.

저와 태부(台府)는 오직 태평한 나머지 거울 속에 흰머리만 늘었나이다. 삼가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 애오라지 하의(賀儀)를 표하나이다.

---

22 춘반(春盤) :立春(立春)에 각종 나물과 떡과 과일 등을 소반 위에 차려 놓고 먹던 고대 풍속의 일종이다.

23 소소(簫韶) : 《서경》익직(益稷)에 “순 임금의 창작한 음악인 소소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듣고 찾아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 하였다. 소소는 우(虞)나라 순(舜) 임금의 음악 이름이다.

## 심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9월

答沈摠府書 九月

나라에 내간(內艱)이 있어, 군조모(君祖母)께서 세상을 버리심에, 통박(痛迫)한 신료가 하절(賀節)에 겨를이 없던 차에 안부가 먼저 이르러 진귀한 선물이 놓이니, 기풍(光塵)과 성덕(盛德)을 연모함이 더욱 깊나이다.

이에 생각건대, 강북(江北)이 크게 가물고 오랑캐 군사가 새로 무너져 어느덧 가을이 다하였습니다. 동방(冬防)에 관한 정령(政令)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태부(台府)의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겠나이다. 뜻이 같은 걱정거리에 있으니, 좋은 충고 바라나이다.

## 강홍립<sup>24</sup>에게 보내는 편지 3월

與姜弘立書 三月

금나라 제장(諸將)이 이미 함께 맹세하여 화의(和議)를 맺어 하늘에 고하고 물러나니, 조정에서 진병(鎭兵)의 제장(諸將)에게 당부하여 금나라 군사를 만나거든 서로 죽이지 말도록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사를 이끌고 후방에 있으면서 이윽고 신계(新溪) 지방에서 푸른 깃발의 금나라 군사를 만났으나 일찍이 교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나라 군사가 소와 말을 약탈하므로 우리 사람이 금의 진중(陣中)으로 달려 들어가 은으로 장식한 백마 한 필을 빼앗아 돌아왔습니다. 바로 역관(譯官)을 차출하여 그 진(陣)으로 돌려보내자 금나라 장수가 기꺼이 사례하여 바로 말 두 필을 역관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역관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맹호(盟好)를 굳게 지킨 것을 이에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해도 해변 고을에 금나라 군사를 들여보내 멋대로 살육하고 약탈하니, 그 백마를 잡아 하늘에 맹세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감(令監)께서 화의를 담당하여 말로 수만(數萬) 금나라 군사를 물러나게 하니, 온 나라의 대소 생령(生靈) 누구인들 덕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

24 강홍립(姜弘立) : 1560~1627. 1597년(선조30) 알성 문과에 급제하였다. 후금(後金)이 세력을 확장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청해 왔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의 군과 합류하였으나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투항하였다. 이듬해 조선 포로들은 석방되어 돌아왔으나 김경서와 함께 계속 억류되었다가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도(先導)로서 입국하여 화의를 주선하였다. 그 후 역신(逆臣)으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하였다가 사후에 복관(復官)되었다.

까. 바로 후에 금나라 군사가 주장(主將)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살육  
과 약탈이 이 지경에 이르니, 우리가 어찌 크게 하면 크게 갚고, 좋게  
하면 좋게 갚을 줄을 모르겠습니까. 하늘이 위에 계시거늘 맹세의 먹물  
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사람이 비록 우리를 저버렸으나, 우리가 어찌  
사람을 저버리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잘 말씀하여 다소의 잡혀간 사람들을 아울러 쇄환(刷  
還)<sup>25</sup>하여 하늘에 맹세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신다면 급난(急難) 가  
운데 한층 나라를 위하는 단심(丹心)을 보게 될 것이니, 천만 번 간절  
히 바라고 바라며 삼가 이만 줄입니다.

---

25 쇄환(刷還) :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이 원 거주지를 이탈하였을 때, 이들을 찾아  
원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한다.

## 최 완성<sup>26</sup>에게 답하는 편지

答崔完城書

봄이 변방 관문에 돌아와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던 차에 삼가 파발(擺撥) 편에 편지를 받드니, 이는 신년 소식이라 더욱 놀랍기도 하고 위안도 됩니다.

충신(忠信)이 3년 동안 창을 베개 삼음에 묵은 병이 더욱 심합니다. 근래에 정신이 온통 소진되어 눈앞의 일이 오히려 다시 아득한데, 더군다나 적정(敵情)의 은밀한 곳 같은 것임에야? 움직이려 하면 실로 그들이 기필코 올지 알 수 없고, 조용할라 하면 중외(中外)가 도로에 이고 지고 소란하여, 봉사가 무리가 모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망연하여 이리저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 오랑캐들이 만 리 밖에서 군사를 고생시키다 크게 피곤하여 돌아가니, 범궤(犯關)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이웃과 막힌 서달(西撻)<sup>27</sup>은 요동(遼左)의 황량한 곳으로 본래 포목을 생산할 수 없습니

---

26 완성(完城)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을 말한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 또는 창랑(滄浪)이다. 이항복(李恒福)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5년(선조38)에 생원시에서 장원하고, 그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고,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에서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영의정으로서 각종 제도 개혁에 기여하였으며,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였다. 양명학(陽明學)에도 조예가 있었다. 문집으로 《지천집》과 《지천주차(遲川奏劄)》가 있다. 척화 일색의 조정에서 홀로 강화론을 주장하여 당시는 물론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우는 후세 사대부들의 비난을 받았다.

27 서달(西撻) : 만주(滿州)의 송화강(松花江) 중상류에 살던 여진족으로, 사납고 군사력이 강하여 서쪽 변경에서 자주 소요를 일으켰다. 청대에 와서는 강희제(康熙帝) 때부터 이들과 병란이 잦아지자, 군사 40만이 늘 변방에 주둔하며 회유책과 강경책을 반복하였다.

다. 식량은 스스로 도모할지라도 의복은 부득불 우리나라에 의지하여야 하는데, 아마 기고차아(其庫叉兒)가 논한 세폐(歲幣)를 기준(基準) 삼아 소호(所胡)가 온 것 같습니다. 은연중 밀고 당기기를 골똘히 하며 살며시 흉측한 뜻을 보였는데, 그 뜻이 오로지 세폐의 증가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들이 변방에 던진 글에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여 '사람을 보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회답사(回答使)<sup>28</sup>가 침수(淸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미 그 예물이 소호가 논하던 바와 같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필코 구실을 빚어 우리를 침범하려면 하필 그 물건을 정지시키고 사신더러 홀로 가도록 청하였겠습니까? 이에 그 뜻 또한 하나의 작은 변화입니다. 다만 그들의 뜻이 매우 성한 것을 생각건대, 회답을 정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오고 나서 이후에 반드시 한 차례 왕복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 부정공(富鄭公)<sup>29</sup> 같은 사자(使者)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친의 도리로 말하자면, 남왜(南倭)와 북적(北狄)이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호가 논하던 것이 왜국에 주는 것의 절반 같은 것이겠습니까. 대감이 힘을 기울인 것이 거의 어그러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적정(敵情)은 알기 어렵더라도 오직 당연히 방비를 갖추어 대기할

28 회답사(回答使) : 교린(交隣)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국서를 보내왔을 때 그에 회답하는 국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신을 말한다.

29 부정공(富鄭公) : 부필(富弼, 1004~1083)을 가리킨다. 중국 송(宋)나라의 명재상으로, 자는 언국(彦國)이다. 인종(仁宗) 때 무재(武才)로 천거되었다. 1042년에 지제고(知制誥)가 되어 거란으로 사신을 가서 영토를 할양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대신 세폐(歲幣)를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것을 우리가 어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위급에 닥쳐 많은 군사를 청하려 한다면 군사는 공기를 마시고 노을을 먹는 자들이 아니므로 반드시 식량을 안주에서 구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비축한 바를 다해도 단지 1만 군사 3개월 식량에 불과하고, 청서(淸西)의 각 성채(城砦)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수백 군사의 3개월 식량에도 부족합니다. 바야흐로 출무군(出武軍)이 분방(分防)<sup>30</sup>하면 모든 성이 다투어 보고하여 양식을 청할 터인데, 향신(餉臣)<sup>31</sup>이 과연 소상국(蕭相國)<sup>32</sup>의 수단이 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에 생각을 기울여 궁리하여 단지 3천 군사를 청하여 안주(安州)를 둔수(屯守)할 계획으로 하였는데, 우리의 사력(事力)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주에 이르러서는 비록 다른 군사를 더하지 않더라도 본도(本道) 군졸과 합동 수비하여 나작굴서(羅雀掘鼠)<sup>33</sup>의 위급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게 지켜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린 것입니다. 영상(領相) 대노야(大老爺)께서 이를 다시 언급할 수 있으면 이 보고를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0 분방(分防) : 분번입방(分番入防)의 준말로, 수군(水軍)에 편성된 군사가 평소 육지에 있다가 차례로 해방(海防)의役に 복무하는 일을 말한다.

31 향신(餉臣) : 군량미에 관한 일, 또는 군량 운송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32 소상국(蕭相國) : 한(漢)나라 때의 승상(丞相) 소하(蕭何)를 이른다. 한(漢)과 초(楚)가 싸울 때 관중을 수리하여 많은 백성을 모여들게 하였고, 또 군사와 군량이 떨어질 때마다 관중에서 배로 실어 충당하여 그 싸움에 이기게 했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33 나작굴서(羅雀掘鼠) : 양식이 떨어져 그물을 쳐서 새를 잡고 쥐구멍을 파서 쥐를 잡아먹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42》



## 최 완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崔完城書

전날 자식 놈 오는 편에 삼가 편지를 받들고, 오늘 선전관(宣傳官) 편에 또한 편지를 받들었습니다. 해상의 소식을 알 수 없던 차에 날을 걸러 회답이 오니, 한 번 열어 음미하고 두 번 열어 음미함에 지극한 감격과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간 수로(水路)와 육로(陸路)에 관한 논의가 이처럼 여러 갈래로 나왔는데, 병으로 혼미한 사람이 한 번도 적당한 견해를 내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받든 유지(有旨)<sup>34</sup> 내 사의(事意)가 지금 도중(島中)의 소견과 차이가 있어 부득불 말씀을 갖추어 계품(啓稟)<sup>35</sup>하니, 언어가 비록 어두우나 저의 뜻을 대감께서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이 어찌 저의 평생 속마음이겠습니까?

말로에 위기가 머리카락 하나 용납할 틈이 없는데, 조정에서는 오히려 또한 팔짱을 끼고 멀리 곤외(關外)<sup>36</sup>에 책임을 물으니, 그 또한 속상함이어! 그러나 삼가 재배하고 감수하겠습니다. 이번 회계(回啓)<sup>37</sup>에 대감이 한마디 하여 구원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34 유지(有旨) : 임금의 분부에 따라 승지(承旨)의 명의로 내리는 임금의 명령서이다. 이 문서의 마지막에 유지(有旨 위와 같은 분부가 있었다는 뜻)라는 두 자가 쓰인다.

35 계품(啓稟) :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내용을 아뢰는 일을 말한다.

36 곤외(關外) : 병마(兵馬)를 책임 맡은 장군의 다른 이름을 말한다. 곤외는 성밖 혹은 변방, 지방을 뜻한다.

37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 최 완성에게 보내는 편지

與崔完城書

전에 올린 편지를 펼쳐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군관한테 회답을 받아 보고 답서를 다시 보니, 그 뜻이 과연 세폐(歲幣)<sup>38</sup>를 증가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필코 동쪽을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2폐(一年二幣)를 이윅고 내려 한 번으로 한 것은 그들의 바라는 뜻이 매우 급한 까닭이며, 오히려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강가에서 전송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잡혀간 부녀들을 놓아주며 암암리에 그들의 숨은 뜻을 흘려 마치 우리에게 하듯 하니, 그들의 뜻이 증폐(增幣)에 오롯이 함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대감도 그것을 그웁이 알고 계시겠지요? 그 <회답일기초(回答日記草)>를 보면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로 오랑캐와 강화하기는 오히려 곤란하여 비록 부정공(富鄭公)<sup>39</sup>의 영묘한 책략으로도 겨우 증폐(增幣)를 득하여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1만 필의 포(布)를 50만 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사력(事力)과 기세(氣勢)를 헤아린 것입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이 누르하치를 당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약한 팔목을 기꺼이 펼치는 것은 오이를 쭈그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한가한 것이니, 대감께서는 흰소리에 대꾸

38 세폐(歲幣) : 매년 음력 10월에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을 말한다.

39 부정공(富鄭公) : 부필(富弼, 1004~1083)을 가리킨다.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진 북송(北宋)의 부필(富弼)을 가리킨다. 중국 송(宋)나라의 명재상으로, 1042년에 지제고가 되어 거란으로 사신을 가서 영토를 할양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대신 세폐를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찍이 어려움을 극력 미봉하려 하면서 오히려 돼지 발톱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행태를 면하지 못하여 순우곤(淳于髡)<sup>40</sup>의 갓끈을 끊어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날 소호(所胡)가 안주(安州)를 지나갈 적에 희뢰(餼牢)를 극히 풍성하게 한 것은 하나같이 만성(滿城)의 군용(軍容)을 은밀하게 보인 것으로 이 또한 왕덕(王德)의 위대함을 변방에 보인 것입니다. 그 적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우리 쪽에서 격돌함은 역시 계책을 득한 것이 아닌데, 대감께서 시종일관 뜻을 굳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불살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0 순우곤(淳于髡) :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 때 초(楚)나라가 대군(大軍)을 징발하여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 위왕이 순우곤한테 금(金) 100근(斤), 거마(車馬) 10사(駟)를 가지고 조(趙)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하므로, 순우곤이 너무 적은 예물(禮物)로 큰 혜택을 청하는 것을 가소롭게 여겨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으니, 갓끈이 몽땅 끊어졌다고 한다.

## 이 총부 완풍군 이서<sup>41</sup>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摠府完豐書

지난날 노산제변(盧山制邊)에 관하여 글을 올려 여연부(閔延府)에 모집하여 들었습니다. 삼가 하서를 누누이 받들고 적을 요리하는 데에 암암리에 일치함을 느껴 번쩍 가슴이 열렸습니다.

철산(鐵山) 가는 길에 먼저 육병(陸兵)을 배치하는 건은 평안 감사의 견해 역시 이와 같아 연락이 오갈 것도 없을 따름이니, 삼가 다행이라 여깁니다. 다만 그의 뜻이 기필코 육지로 나오는 것을 모두 제한하려 하는데, 한인(漢人)들이 일도 없이 군기(軍機)를 쥐고 흔드니, 이 일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신은 오늘 해주(海州)로 갔다가 내일 장연(長淵)의 조리포 선소(助里浦船所)로 가서 기호(畿湖)의 여러 선박이 장산(長山)을 통과하면 안악(安岳)의 선박 집결처로 달려갈 계획입니다. 이로부터 배에 올라 곧바로 평안도 삼화(三和)에 이르러 감사를 만나 진병(進兵)에 관한 일절(一節)을 상의하여 관서(關西)의 선박을 먼저 출발시켜 북쪽 길의 후속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병(大兵)이 길을 나누어 일진(一陣)은 섬의 남쪽 감군아문(監軍衙門) 앞으로 향하고, 일진은 사포(蛇浦) 앞으로 향하도록 정할 계획입니다. 육로의 군사를 안주(安

---

41 이서(李曙) : 1580~1637. 인조반정 때 세운 공로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1628년(인조6) 형조 판서를 거쳐 1632년에는 특별으로 공조 판서가 되어 각처에 산성을 수축하여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영제조(御營提調)로 왕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가 이듬해 정월에 적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가운데 군중에서 죽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州)에 모두 주둔시키고, 감사(監司)와 약속하여 주사(舟師)가 삼화에 도착하는 때를 기다려 육병(陸兵)이 용만·철산 길을 끊어 대적하기로 하겠습니까. 사또께서도 이러한 뜻으로 평안 감사와 비밀리에 상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뱃길에 비를 무릅써 구질(舊疾)이 다시 발작하여, 안개 속에 있는 것같이 정신이 황황하여 글에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유여온(柳汝溫)<sup>42</sup>이 시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해주와 연평 사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경포(京砲)<sup>43</sup>를 아울러 재촉하여 안악의 주사처(舟師處)로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별조(別條)의 답에 있습니다.

---

42 유림(柳琳) : 1581~164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여온(汝溫),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603년(선조36) 무과에 급제, 병자호란 때 평안 병사로 있으면서 강원도 김화(金化)에 나가 싸워 청병(淸兵)을 물리쳤다. 뒤에 임경업(林慶業)과 함께 원병장(援兵將)으로 청나라에 갔으나 명나라와의 싸움을 피하고 귀국하였다. 통제사(統制使)와 총융사(摠戎使) 등을 지냈고,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藥泉集 卷 17 統制使柳公神道碑銘》

43 경포(京砲) : 중앙의 각 군영(軍營)에 속한 포수(砲手)로,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어제 다시 올린 답서를 이미 등철(登徹)<sup>44</sup>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맛비가 세찬 이곳에서 배에 가득한 주졸(舟卒)이 시름 속에 날을 보내니 고민입니다.

그 오랑캐 사신 행렬을 헤아려 보건대, 또한 반드시 정주(定州)와 선천(宣川) 사이에 지체할 터인데, 북녘의 보고를 전혀 들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출병 시기를 늦출 계획을 어제 이옥고 역(驛)에서 하였던지요?

이미 부합한 징험을 받들었으니, 반드시 사또께서 치계(馳啓)하였다고 영(令)을 전한 이후에 하관(下官) 또한 치계하려 합니다. 상황이 마침 이 같은 때를 만나 점점 지체하기에 이르니, 답답한 심정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몸소 분부를 듣고자 영리한 소교(小校)를 택하여 막부(幕府)로 달려가 문후하게 하니, 일일이 하시(下示)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44 등철(登徹) : 상주문(上奏文)을 임금에게 올린다는 말이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總府書

어제와 오늘 편지를 올리고 보고를 올렸는데, 아마 아직 등철(登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유흥치가 섬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만, 장대추(張大秋)<sup>45</sup>가 길에서 주위들은 데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배를 띄웠는지에 대한 섬의 정확한 보고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흥치가 방금 섬으로 돌아왔다면, 놀랍고 의아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필코 입지가 확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사나흘 지체하였으나, 또한 유두 물(流頭雨)을 지나 18, 9일 사이에 돛을 올리고자 결정하였습니다만, 사또의 뜻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늦다 싶으면 16일에 배를 띄울 계획인데, 다만 6, 7일이 모두 칠살(七殺)<sup>46</sup>을 범하므로 이것이 꺼려집니다.

이곳에서 배가 전진할 길을 이윅고 도형(圖形)으로 올렸으니, 이미 들여다가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광량(廣梁)은 조금 멀므로 노강(老

---

45 장대추(張大秋) : 생졸년 미상. 조선 중기 외교관이다. 요동 지역에서 후금의 진출을 막던 명나라 장군 모문룡(毛文龍)이 패퇴한 후 조선의 영토에 들어와 가도(假島)에 진을 치고 명과 조선의 병력을 합심하여 후금에 대적하였다. 이때 모문룡과 조선의 외교적 연락책으로 활약하였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이후에도 모문룡이 조선 국왕과 합심하여 후금을 격퇴할 계획을 모의할 때 장대추가 중간에서 연락을 맡았다. 1628년 이후 모문룡이 명의 난민을 조선으로 끌어들여 국내를 어지럽히고,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화친했음에도 모문룡이 조선에 있음을 들어 계속 위해를 가하는 등 이로운 것이 없자 조정에서 모문룡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때에도 장대추를 연락책으로 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46 칠살 : 앞의 주 참조.

江)으로 전진할 계획인데, 다만 가도 근처라 기밀이 지나치게 드러날  
까 염려됩니다.

용골대(龍骨大)<sup>47</sup>가 강을 지나가기를 부득불 기다려야 하는데, 사또  
께서는 어찌 여기실는지?

---

47 용골대(龍骨大) : 용호(龍胡). 청 태종 홍타이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과 청을  
오가며 끊임없이 양국의 외교를 조율했으며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조선  
조정을 주물렀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總府書

오늘 아침 이윅고 편지 올립니다. 유지(有旨)가 같은 내용으로 도착하였는데, 사또께서 어떻게 치계(馳啓)하였는지 알 수 없어 바야흐로 매우 답답합니다. 저의 뜻이 치보(馳報) 가운데에 있으니, 가부를 한마디로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摠府書

어제 회의에서 승산(勝算)을 어떻게 정했는지 종일 바라보다가 눈이 시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호남의 선박이 무사히 엿저녁에 도착함에 군용(軍容)이 한층 씩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섬에서 군사가 지쳐 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간 별일 없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새벽 사이에 하시(下示)가 기필코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總府書

지난밤 해시(亥時)에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받들고 도착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또에게도 역시 똑같이 왔으리라 여깁니다. 이는 특별히 비망기(備忘記)<sup>48</sup>에서 나온 것으로 성상(聖上)의 뜻이 오로지 유흥치가 섬에 돌아왔는지에 있으나 묘연하여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사또께서 늘 군사가 지쳐 감을 염려하여 탄식하는 것과 실로 부합합니다만,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사또께서 한번 나아가신 후로 오가는 한인(漢人)의 이목을 더욱이 가리기 어려우니,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비가 퍼부으려 하니, 온통 배에 관한 생각으로 타는 가슴 견딜 수 없습니다.

---

48 비망기(備忘記) : 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이다.

## 총부에게 올리는 편지

上總府書

고통스러운 서리(暑痢)-더위로 인한 설사병- 증세가 극히 중하여 쓰러지  
듯 자리를 보전한 지 지금 이미 십여 일에 문후(問候) 또한 막혀 병  
중의 회포를 더합니다. 요즘 사또의 치질(痔疾) 상태는 어떠한지요.  
삼가 그립고 그립습니다. 군중(軍中)에 돌림병이 크게 일어 사망이  
날로 이어지니, 쓰라린 심정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에 관한 정탐(偵探)은 나 접반(羅接伴)의 치계(馳啓) 가운데 지계  
미에 불과하고, 별로 신기한 소식이 없어 오가며 들락날락 그곳의 하는  
바를 엿보고 싶을 뿐입니다. 최응천(崔應天)의 말을 자세히 듣건대,  
“북봉(北峯) 화약고에 저장한 것이 다른 곳에 비해 더욱 많습니다. 고  
지기가 몰래 훔쳐 팔고자 하길래 가격을 논하니, 1백 근 값이 은(銀)  
17냥인데, 은자(銀子)를 많이 보내면 반값에 사 올 수 있을 듯하고,  
그 나머지를 아울러 그 사람이 불태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  
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조정이 바야흐로 저들과 매매를 금하는데,  
또한 경솔하게 범하기 어려우니, 사또께서 어떻게든 이 계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천교(賤校)를 보내 문후 올립니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삼가 18일 이경(二更)에 쓰신 편지를 받들고, 사또께서 등불을 마주 하고 잠들지 못한 채 근심으로 밤을 잊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깨우쳐 주심이 간절하여 골육보다 나아 한 글자 한 마디가 사람을 뺏속까지 감동케 하시니, 고금(古今)의 장상(將相) 중에 어찌 이렇게 하고도 일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까?

기호(畿湖)의 선박이 어제 이윅고 장산곶을 돌아 오늘 늦게 약속한 곳에 이를 것 같은데, 하루를 기다리는데 사람 애간장을 타게 합니다. 장자도(獐子島) 진병(進兵) 건에 대한 분부를 받들고 환히 깨달았으니, 비로소 충신이 사또에 미칠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장자도(獐子島)에 이르거나 녹도(鹿島)에 이르거든 그 적이 가는 대로 놔둘 뿐이니, 사람이 깨우쳐 환기(喚起)하기를 실로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련히 초도와 석도 두 섬에서 무릎을 굽히고 삼가 재배할 일을 생각 하며 일일이 명에 따라 그간에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하(夏)·진(陳) 두 장수에게 사생취의(捨生取義)<sup>49</sup>하게 하면 감격하여 보답할 자들인데, 충신은 역시 지모(智謀)가 부족하니, 우습습니다.

철산에서 보고하기를, “13일에 유홍치[劉賊]가 서쪽으로 향하였다.” 라고 하는데, 평안 감사에게 보낸 이 접반(李接伴)의 사서(私書)에는

---

49 사생취의(捨生取義) :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따른다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이다. 원문의 ‘捨在取義’를 문맥이 통하지 아니하여 ‘捨生取義’로 고쳐 번역하였다.

“16일에 출발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13일에 서쪽으로 향하였다 함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사또께서 이미 청천(晴川)에 이르러 섬의 정세를 탐지한 것을 기필코 비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남의 15척 선박이 이윽고 25일로 교동(喬桐)에 기약하였으니, 이 선박의 진퇴는 묘산(妙算)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명을 받들고 변방에 나온 자가 논계(論啓)<sup>50</sup>할 만한 바는 아닙니다만, 사또께서는 우선 천천히 가도의 정세를 조금 관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견해가 매번 사또에 못 미치니, 오직 높은 식견으로 참작하여 처리하느냐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격문(檄文) 초안을 아울러 베껴 올리니, 섬에 들어간 후에 처치하실 일입니다. 저의 생각은 사또의 추구(芻狗)<sup>51</sup>와 같은 것에 불과하여 그간에 혹은 정(正)으로 혹은 패(霸)로 기미를 따라 응할 따름이니, 별록(別錄)을 논할 바이겠습니까?

이번 가도의 일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사또의 견해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방략이 불과 이 같을 뿐이라, 다시 별지(別紙)에 대한 답을 부험(符驗)하지 않고 삼가 금낭(錦囊)<sup>52</sup>에 넣어 둘 뿐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더욱 괴로워 대필하여 이만 줄입니다.

---

50 논계(論啓) :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뢰는 것을 말한다.

51 추구(芻狗) : 풀로 개처럼 만든 허수아비로, 고대의 제사에 이것을 만들어 사용한 다음 제사가 끝나면 곧 버렸으므로 다시는 필요 없는 물건을 가리킨다.

52 금낭(錦囊) :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로, 주로 시고(詩稿)나 중요한 문서를 넣는 주머니이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방금 송화(松和) 길에서 천교(賤校)가 돌아옴에 따라 삼가 15일 식사 후에 쓰신 편지를 받들었는데, 행간마다 글자마다 신묘한 생각이라 저도 모르게 위안이 되고 후련하였습니다.

관서(關西)의 주사(舟師) 10척은 과연 영성한 것 같습니다. 삼화(三和)의 약속 장소로 도착한 후에 분부하신 대로 다시 다른 선박을 붙여 대략 섬 북쪽 양로(兩路)의 복병(伏兵)을 이루는 데에 쓰겠습니다.

이번 계책에 진무성(陳武晟)<sup>53</sup>이 비록 주사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개 늙은 사공으로 복병으로 쓰기에는 마땅치 않을 듯합니다. 기필코 이완(李浣)<sup>54</sup>을 쓰고 싶은데, 뜻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장수가 일없는 곳에 쓰여 속이 상합니다만, 천하의 일이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본도 주사는 병사(兵使)가 매우 상세하게 요리하고, 상도(上道)에

---

53 진무성(陳武晟) : 1566~?. 본관은 여양(驪陽), 자는 사규(士規), 호는 송계(松溪)이다. 임진왜란 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李舜臣) 휘하의 군관으로 있으면서 그해 6월 당포해전(唐浦海戰)에서부터 공을 세우고 용명을 날렸다. 선무 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으며, 34세가 되던 1599년(선조32)에 비로소 무과에 급제하고, 유원진 첨사(柔遠鎭僉使)·경흥 부사·통제영 우후(統制營虞候)·구성 군수에 임명되었다. 이조 관서에 추증되고, 고흥의 용강사(龍岡祠)에 제향되었다.

54 이완(李浣) : 1602~1674.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효종 때의 무신으로 효종의 북벌정책을 도와 국방 및 군대 정비에 기여하였다. 훈련대장·형조 판서 등을 거쳐 현종 때에 우의정까지 올랐다. 시호는 정의(貞翼)이다.

서 온 선박은 장연의 조리포(助里浦)에 암암리에 감추고, 하도(下道)의 선박은 안악(安岳)에 암암리에 감추게 하여 그 선박들의 도회처(都會處)를 은율의 광암(廣巖)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곳에 들인 후에 선박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 개편하겠습니다. 관서의 도회처를 이미 삼화의 광량(廣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조견(趙堅)은 충신(忠信)의 군영에서 기른 자입니다. 노자를 후하게 주어 광량으로 보내 충신이 데리고 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천만 번 간절히 바랍니다.

철산·곽산에 하륙(下陸)하였다는 첩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유흥치의 진퇴는 끝내 장자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와 호서(湖西)의 선박이 오늘 안개가 걷히고 바람도 찾아들어 제때 회곶(回串)에 이르면 군전(軍前)에 이를 것이며, 또한 추도에서 출발한 40척 선박 역시 응당 며칠 지나면 도착할 것입니다.

기필코 일에 앞서 행할 계책은 역시 추도 밖으로 지레 나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적이 멀리서 바라보고 달아나도록 하고, 잠시 지체하였다가 저쪽 배〔彼船〕<sup>55</sup>가 오거든 먼저 닦아챌 후에 대군을 나아가게 하는 것도 혹 하나의 계책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천 리가 지척이니,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바야흐로 말 위에서 이를 쓰느라 이만 줄입니다.

---

55 저쪽 배 : 원문의 '波船'은 문맥이 통하지 아니하여 '彼船'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근심이 많아 잠을 이룰 수 없어 등불을 마주한 채 삼경(三更)에 이르러 문득 사또의 편지를 받들고 일시에 시름을 놓을 수 있었으며, 섬안의 일 또한 대강 알았으니, 삼가 다행입니다.

경기도 선박이 오늘 저녁 모두 도착하고, 공청도(公淸道) 선박은 제가 탈 선박 외에는 한 척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마 어제 회곶(回串)에 아직 미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충신(忠信)이 탈 선박이 이미 도착하였으니, 호남 선박을 기다리지 않고 내일 새벽 밀물에 배를 띄워 먼저 광량(廣梁)으로 갈 계획입니다. 뱃길을 지체한 것은 선박 수리 때문이 아닙니다. 파손된 2척 선박은 모두 등산(登山)에 버리고, 공청도의 1척 선박은 당일에 개조하였는데, 하늘이 순풍을 빌려 주지 않아 지체한 것입니다. 물을 걱정하고 다시 바람을 걱정하는 <장간행(長干行)><sup>56</sup> 가락에 대하여, 이곳에 이르러 더욱 참다운 경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량에 이르러 받은 편지에 더욱 편안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숙천(肅川)더러 형정(刑政)을 느슨히 한 책임을 묻게 한 것은 옛사람의 기계(奇計)와 같아 더욱 사또의 다소의 기관(機關)<sup>57</sup>을 볼 수 있어 매

56 장간행(長干行) : 옛 악부(樂府)의 잡곡가사(雜曲歌辭)의 곡 이름이다. 장간은 남경(南京) 남쪽의 장강(長江)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진(晉)나라 좌사(左思)의 <오도부(吳都賦)> 주(註)에 “건업(建業) 남쪽 5리 지점에 산언덕이 있고, 그 사이의 평지에 이민(吏民)이 혼거하는데, 이곳을 장간(長干)이라고 한다.” 하였다. <장간곡(長干曲)>이라고도 하는데, 가사 내용은 주로 장강 근처에 사는 부녀자들의 생활 감정을 읊었다.

우 기뻐합니다. 쌍도에서 양식을 빼앗는 일은 근사할 것 같습니다.

---

57 기관(機關) : 계모(計謀) 또는 심기(心機)이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 答摠府書

어제오늘 잇달아 초이튿날 작성한 편지를 받들었습니다. 용골대(龍骨臺)<sup>58</sup>가 돌아간들 어찌 별다른 트집이야 생기겠습니까? 그가 욕심을 채워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용만(龍灣)에 이르러 며칠간 지체하여 머물면서 섬 안의 일을 살피고, 용만을 떠났다는 첩보를 받고 조금 있다가 곧바로 쳐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지체하여 머물면 하루의 물자를 허비하는 것이니, 사또께서 졸속(拙速)<sup>59</sup>으로 하고자 함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초도(椒島)<sup>60</sup> 앞바다는 조수가 알아 물이 빠지면 바위섬이 드러날 터인데, 8일이 바로 상현(上弦)이니,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 7일이 기회이므로 초승에 지연하였다가 하나같이 전령(傳令)하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7일에 배를 띄워 덕도(德島)에서 바람을 기다릴 요량이며, 섬에 도착하고 나서 본부 별장(本府別將) 이경정(李慶禎)이 거느린 군인을 육로로 보내는 일은 마땅히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거듭 감기를 앓아 대필로 하여 두서가 없었습니다.

---

58 용골대(龍骨臺) : 청나라 장수로 1636년(인조14) 2월에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 황제의 존호를 쓰고, 군사의 의(義)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도망하여 돌아갔으며, 그해 12월에 마부대(馬夫大)와 함께 1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본명은 영고이대(英固爾岱)이다.

59 졸속(拙速) : 《손자병법》에서 '조금 어설피더라도 빨리 공격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60 초도(椒島) :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 속하는 섬이다. 동경 124°50', 북위 38°32'에 위치하며, 면적 32.56km<sup>2</sup>, 해안선 길이 47km이다. 육지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고, 육지와 초도 사이의 해협을 초도수도(椒島水道)라 한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하루에 거듭 편지를 받으니 감회와 기쁨 금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변보(邊報)에서 피차의 사정을 손바닥 보듯 자세히 알았습니다.

7일에 배를 띄워 덕도에서 바람을 기다리기로 하였습시다만, 하늘이 순풍을 빌려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닷길이 아득히 멀어 군무를 받드는 데에 여의치 못할까 고민입니다. 병세가 오히려 더하여 이만 줄입니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편지를 받들 때마다 문득 속이 후련함을 느낍니다. 편지에, “용골대가 갑자기 청천강을 건넌 것은 그가 죄수들의 은밀한 말에서 동정을 살피고,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전적으로 저들에게 겁박을 피할까 걱정할 것 같기는 한데, 용만(龍灣)에 이르러 반드시 기준대로 욕구를 충족해야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용만에서 머물기를 길게 할지 짧게 할지 역시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또의 소견이 이미 이에 미치니, 계획에 실책이 없으리라 마디마디에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7, 8일이 상현(上弦)인데, 가도 앞바다에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나 이 누선(樓船)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까 바야흐로 걱정됩니다. 10일 후 밀물이 일어난 후로 물리면 용선(用船)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용만의 기미를 알아 요모조모 모두 흠결이 없게 하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27일 올린 장계에 대한 회하(回下)<sup>61</sup>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감히 일각이라도 지체하여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영유(永柔)<sup>62</sup>에서 떠날 날을 또한 미리 알려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61 회하(回下) : 임금이 신하가 올린 안건에 대하여 다시 살펴서 답변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62 영유(永柔) : 평양(平壤)의 서북쪽에 있는 고을이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은 서해와 접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永柔縣》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삼가 4일 해시(亥時 오후 9시~11시)에 쓰신 편지를 받들었습니다. “섬에 배를 대는 일을 이미 조정에 아뢰었으니, 7일에 배를 띄우는 것은 정지하여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어제 편지 가운데 뜻이었습니다. 기필코 탈 만한 기회가 있다면 어찌 중남(仲男)<sup>63</sup>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오직 사또께서 용만(龍灣)의 기미[事機]와 흥치(興治)의 소식을 자세히 탐색하여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소(疏)를 지어 보여 주시니, 감사하고 기뻐 오늘 비로소 대죄할 따름입니다. 사또께서 본고(本稿)를 보내주지 않았던들 눈먼 소경(盲瞽)을 면치 못하였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다만 장계 초안 가운데 ‘바로 해수에게 분부한다.[直爲分付於海帥]’라고 운운한 대목에 대하여 사또의 주된 의견을 자세히 밝히지 아니하여 매우 답답합니다.

---

63 중남(仲男) : 박중남(朴仲男)은 원래 조선 함경도 종성(鍾城)의 토민(土民)이었다가 청(淸)나라에 투항한 인물이다. 《국역 인조실록》 6년 3월 5일 기사에 “용골대(龍骨大)와 박중남 두 오랑캐가 굳이 개시(開市)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였으며, 1629년(인조7)에는 청나라 인사들과 함께 사신으로 나와 시장을 열고 교역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였고, 1630년 10월 13일의 기사에는 “금나라에서 보낸 아지호(阿之戶)·동남명(東南明)·김돌시(金疇屎) 등이 추신사(秋信使)로 왔다. 동남명은 우리나라 북도(北道) 토병(土兵) 박중남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지난밤에 답서를 썼는데, 새벽을 지나 또한 봉함하여 전한 각각의 보고를 받들고 삼가 기뻐합니다.

유오(劉五)가 그 흥치(興治)입니까? 장대추(張大秋)의 고목(告目)<sup>64</sup>에 이미 말하기를, “섬으로 돌아왔다.” 하였는데, 소만량(蘇萬良)은 오히려 이르기를, “여순(旅順)에 있다.” 하니, 어느 것이 믿을 만한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sup>65</sup>

철산 군수더러 약간의 술과 안주를 지니고 이른바 유오의 선박으로 가서 보고 말을 둘러대어 “군(君)의 귀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주(地主)의 의리를 닦아 차차 진부(眞否)를 시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또께서 이미 처리하여 더할 나위 없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신 보고를 삼가 돌려보냅니다.

---

64 고목(告目) : 각 관청의 서리(書吏)나 지방 관아의 향리(鄉吏) 같은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게 공적인 일을 보고하거나 문안(問安)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양식의 문서이다.

65 어느……없습니다 : 원문의 ‘未如何者爲信報耶’를 문맥에 맞게 ‘未知何者爲信報耶’로 고쳐 번역하였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삼가 6일에 쓰신 편지를 받들었습니다. 삼가 진병(進兵)하는 일을 생각건대, 청나라 사신 중남(仲男)이 돌아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박난영(朴蘭英)<sup>66</sup>이 평산(平山)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을 함께 하기를 청하였다 합니다. 그간에 조정(朝廷)의 조치 역시 반드시 도착할 것이니, 또한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사또께서 진퇴를 헤아리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

66 박난영(朴蘭英) : ?~1636. 선조 때 먼천 군수(沔川郡守)·중군(中軍) 등을 거쳐, 1619년(광해군11)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후금(後金) 정벌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길잡이로 함께 들어왔다가 석방된 뒤, 회답관(回答官)·선위사(宣慰使)·선유사(宣諭使)·추신사(秋信使)·춘신사(春信使) 등으로 여러 차례 심양(瀋陽)을 내왕하며 후금을 회유하는 데 힘썼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 答摠府書

저의 심부름꾼이 밤에 돌아옴에 삼가 답서를 받들었습니다. 종이 가득 누누이 군영(軍營)의 통쾌한 이야기 아닌 것이 없어 사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용골대가 이미 봉황성(鳳凰城)을 지났다면 이로부터 진병(進兵)할 것이지, 어찌 중남(仲男)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충신(忠信)이 생각하는바 역시 사또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치계(馳啓)하여 정탈(定奪)<sup>67</sup>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왕복하는 사이에 절로 지체되어 여러 날 지났습니다. 유두(流頭)는 비가 내리는 날인데, 하늘 역시 활짝 개어 실로 바람을 빌리기에 좋습니다. 사또와 저 두 사람에 있어 헤아린 바가 서로 들어맞으니, 문구를 만들어 치계(馳啓)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두 일찍이 왕복한 바를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

67 정탈(定奪) :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을 말한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摠府書

방금 7일에 보내신 답서를 받들었습니다. 삼가 행간에서 기체(氣體) 만복(萬福) 하심을 살피고, 삼가 대죄(待罪)하는 일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소(原疏)가 비록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미 보내주신 등초(騰草)를 보았으니, 어찌 감히 하루라도 태평스럽게 할 뿐이겠습니까? 부득불 대략 말씀드려 대죄하겠습니다. ‘수치를 품고 치욕을 참는다[抱羞忍恥]’는 말이 있는데, 충신은 도량(度量) 중에 미치지 못할 것이 많으니,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평안 감사의 보고 가운데, “박난영(朴蘭英)이 거느린 호역(胡譯) 김봉산(金奉山)이 고한바, ‘한인(漢人)을 붙들자 하였는데,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지금 섬을 치려고 하는 것은 필생(必生)의 대사(大事)이기 때문이다’라고 운운하였다.” 등의 말은 그 머리와 꼬리가 두루몽술한데, 이는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음 인편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 날 밤 광풍대우(狂風大雨)에 다행히 배가 무사하니, 이는 모두 사또께서 지성으로 걱정하신 결과로 다행입니다. 음산한 구름이 아직도 험하여 비가 그치려 하지 않으니, 유두(流頭) 안에 갓 날을 보지 못할까 매우 걱정입니다. 방금 황해 감사의 보고를 보니, “호남(湖南) 선박이 4일에 말도(末島)에서 바람을 땀는데, 오후에 바람이 거슬러 아직 연평도를 지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니, 이 선박을 돌이켜 정박하는 것 역시 쉽게 기약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8,700명의 원역(員役)과 군병을 지탱할 식량이 단지 이달 그름에

지급하면 없습니다. 모름지기 때에 맞춰 운송하여 도착할 것이 있어야 7월까지 이어 갈 것인데, 관향사(管餉使)<sup>68</sup>가 잡혀가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 일마다 불행이라 한없이 걱정입니다.

---

68 관향사(管餉使) : 평안도의 군량을 관리하는 관직이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答總府書

편지가 오고 가며 백 리가 지척(咫尺)이니, 어슴푸레 창 너머로 웃음 소리를 듣는 것 같아 한층 그윽한 회포를 더합니다.

비국 공문이 어제 늦게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또의 장계 가운데 회하(回下)<sup>69</sup>이었으므로 총신이 도부첩(到付牒)<sup>70</sup>만 보냈습니다.

배가 전진할 곳은 노강(老江)뿐인데, 가도와 약간 가까워 기밀이 지나치게 드러날 것이라고 어제 계초(啓草)에 생각한 바를 대강 진술 하였습니다만, 보고서 초안에 기필코 이미 등철(登徹)<sup>71</sup>하셨겠지요?

과병(罷兵)이라는 두 글자는 사또께서 시사(時事)에 대한 감분(憾憤)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호남 선박이 며칠 내로 회곶(回串)에 당도 할 터인데, 정지를 아뢰고 싶어도 이미 할 수 없으니, 우선 또한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조소(趙疏 조경(趙綱)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보건대,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단지 우리 성명(聖明)이니, 후환을 어찌 염려하겠습니까?

진병(進兵)할 바닷길과 저쪽에 이르러 영채(營寨) 세울 곳을 그림으로 한 건에 올려 대전(台前)으로 보내 열람케 하였으니, 헤아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69 회하(回下) : 임금이 신하가 올린 안건에 대하여 다시 살펴서 답변을 내리는 일이다.

70 도부첩(到付牒) : 공문(公文)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이다.

71 등철(登徹) : 상주문(上奏文)을 임금에게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총부에게 답하는 편지

### 答摠府書

하루에 두 번이나 편지를 받들고 뵈는 것처럼 기뻐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가도(柯島)를 요리하려는 사또의 계책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국(備局)의 공문이 이와 같으니, 지금의 계책은 우선 또한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신(忠信)의 전날 장계 가운데, “바탕이 이미 없어졌으니, 영근(郢斤)<sup>72</sup>을 시행할 곳이 없어졌다.” 한 것은 이것입니다.

용골대가 봉성(鳳城)을 지나갔다고 운운한 것은 용만(龍灣)에서 첩보를 얻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용만을 떠나 이튿날이면 기필코 봉성(鳳城)을 지나가 그 자취가 조금 멀어져 가도의 무리와 서로 연결 지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 말한 것입니다.

가도의 떠도는 녀들이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철산(鐵山)에서 양식을 취할 엄두를 못 낼 것이나, 사변(事變)은 무상(無常)하다고 하신 사또의 생각 역시 매우 간간하십니다.

암암리에 일대(一隊)의 보졸(步卒)을 보내는 것, 입보(入保)<sup>73</sup>하여 검산성(劍山城) 꼭대기를 점거하여 멀리 가도의 선박이 오는 것을 살

72 영근(郢斤) : 영(郢) 지방 사람의 자귀질이란 뜻으로, 《장자(莊子)》〈서무귀(徐無鬼)〉에 “영인(郢人)이 장석(匠石)의 솜씨를 철저히 믿어 자신의 코끝에다 마치 파리 날개만 한 흙을 바르고는 장석을 시켜 그 흙을 깎아내게 하였는데, 과연 장석이 바람 소리가 휘휘 나도록 자귀를 휘둘러 깎는데도 흙만 깨끗이 다 깎이고 코는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서 나왔다. 보통 다른 사람의 시문을 잘 고치는 감식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솜씨 좋은 장인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73 입보(入保) : 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곳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성안으로 들여보내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피 덮을 설치하는 것, 철창(鐵倉)에 입수(入守 들어가 수비함)하는 것 또한 하나의 계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창(敖倉)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옛사람이 또한 이미 시험하였습니다.

계초(啓草)를 자세히 살펴보니, 논한 바가 절절이 이치에 맞아 예리한 칼날과 날랜 살촉이 틈을 바로 관통하는 것 같아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굽히게 하였습니다. 다만 호남의 주사(舟師)가 머지않아 광량(廣梁)에 도착할 터인데, 이후의 진퇴를 또한 어찌해야 할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추탁(推托) 두 글자를 논하자면 충신 자신이 의심하여 보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서(下書)에 답을 하며 뜻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쏟아낸 한 점 붉은 정성인데, 오히려 대전(台前)의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절협(節俠)<sup>74</sup>이 아니기 망정이지 전광(田光)<sup>75</sup> 같은 입장이라면 기필코 이미 자결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알려지기 쉽지 않고, 사람을 아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 바라리요. 저의 대감에 대한 평소 마음에 아직도 한 꺼풀이 있어 서로 막혀 교제에 실로 어려웠다니, 우습습니다.

이원(李院)이 보고한 바에, “유흥치(劉興治)가 모 총병(茅摠兵)의 진(陣)에 있다.’ 운운한 것을 유지경(柳持敬)이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다.” 하니, 대면보고 즉시 하시(下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절협(節俠) : 절조(節操)를 가진 협객을 말한다.

75 전광(田光) : 중국의 전국 시대 사람이다. 연(燕)의 태자 단(丹)이 진(秦)의 왕을 죽이려고 그에게 부탁했지만, 그는 늙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대신 형가(荊軻)를 추천했다. 그런데 태자가 그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남에게 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결했다. 《史記 卷 86 刺客列傳》

## 평안 감사 김<sup>76</sup> 시양 에게 답하는 편지

答平安監司金 時讓 書

어제 주사(舟師)를 독려하여 보내고 연안(延安)으로 와서 묵었습니다. 삼가 대감의 편지를 받드니, 뱃는 것처럼 기쁨이 컸습니다. 가도(椴島)의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한번 섬으로 들어간 후로는 서쪽 소식을 아득히 접하기 어려워 절실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녘의 선박이 비록 왔다고는 하나 본도의 해졸(海卒)만큼 길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이완(李浣)·진무성(陳武晟) 등으로 본도의 주사를 영솔하여 안용진(安戎鎭) 사이에 있다가 대군이 삼화(三和)에 도착하거든 먼저 출발하여 장자도(獐子島) 길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육병(陸兵)을 해안에 배치하여 주사가 바다에 나오기를 기다려 포를 쏘아 대며 함성을 질러 수륙병진(水陸竝進)의 형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총부께서 기필코 몸소 청천강을 건너야 할까요? 본도 병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이곳의 적이 본래 누르하치의 밀계를 받아 그 뜻이 단지 섬을 점거하여 우리의 등주(登州)로 통하는 길을 끊는 데에 있으므로, 유흥치(劉興治)는 기필코 오랑캐 속으로 도망하지 않

---

76 평안 감사 김(平安監司金) : 김시양(金時讓, 1581~1643)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중(子仲), 호는 하담(荷潭), 초명은 시언(時言)이다.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으로 활약했으며, 1627년(인조5)에 평안도 관찰사, 1631년에 병조 판서에 올라 팔도 도원수와 사도 도체찰사를 겸했다. 그러나 척화(斥和)를 주장하다 영월(寧越)에 유배되었다. 그 뒤 풀려나 강화 유수,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1636년에 청백리에 뽑혔다.

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병(大兵)이 일거에 섬으로 들어간 후에 유흥치(劉興治)가 퇴각하여 장자도를 점거한다면 이는 천조(天朝)의 지역이라 진병(進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진퇴가 극히 어려울 터인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군사가 삼화에 도착한 날 모름지기 노고를 잊고 잠시 들러 일을 논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본도 병선을 배치하는 일은 막연히 들은 것이 없으니, 선병(船兵)과 기계(器械)의 다소를 일일이 암암리에 기록하여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오늘 해주로 갔다가 내일 장연 선소(船所)의 도회(都會)에 도착하여 나의 선박이 장산을 통과하면 되짚어 안악의 도회(都會)로 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삼화로 갈 생각입니다. 본도의 사정을 이어서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정기옹<sup>77</sup>에게 보내는 편지

與鄭崎翁書

강변으로 한 걸음 내려서면 표연히 세상 밖 정취가 있으므로 부러워 마을을 사이에 두고 바라볼 뿐이라네. 조석으로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나, 오히려 송라(松蘿)와 토사(菟絲)가 있어 의지한다네. 문득 이에 금서(琴書)를 조금 멀리하니, 암연히 회포가 없을 수 없다네. 조금 있다 병이 우선하면 바로 달려가 만날 수 있을 것이네. 우선 이만 줄이네.

---

77 정기옹(鄭崎翁) : 정홍명(鄭弘溟, 1582~1650)으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子容), 호는 기암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넷째 아들로 송익필(宋翼弼)과 김장생(金長生)에게 배웠다. 병조 참지·대사성·김제 군수·이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1626년(인조4)에는 김류(金鑾)의 종사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병자호란 때에는 전라 의병장으로서 공주까지 올라왔으나 전쟁이 끝나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제학을 지냈다. 《기암집》·《기옹만필(崎翁漫筆)》 등의 저술이 있다.

## 빙에게 부치다 경오년(1630, 인조8)

寄硯兒 庚午

부원수(副元帥)로서 광량(廣梁)에 주둔하였다. 그때 빙이 병영(兵營)에 갔다가 병으로 머물렀다.

네가 떠나고 나서 지금 10여 일이 지났구나. 처음에는 기필코 병화를 입어 정황상 끌려가 쉽게 돌아올 수 없으려니 여겼다. 지금 이미 여러 날이 지났으니 반드시 편지를 보내올 것인데, 또한 소식이 없어 온갖 생각이 다 들어 급히 유 만호(柳萬戶)를 보내 너의 소식을 묻는다.

과거(科擧)가 이윽고 다음 달 28일 판가름 난다고 들었다. 귀경(歸京) 또한 급하지만, 모름지기 와서 아버가 조석으로 문에 기대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만 즐인다.

빙에게 부치다 계유년(1633, 인조11) 8월

寄硯兒 癸酉八月

가을비가 범람하여 집 짓는 계획 또한 차질이 날 것 같다. 국남(國男)이 서찰을 전하였다. 이는 작별 후의 소식이라 몹시 위안이 되고 기뻐다.

집을 떠난 지 14년 만에 비로소 돌아오니, 고향 산의 묘목(墓木)이 이미 가지가 늘어졌더구나. 잡초 우거진 새 무덤에 만사를 제치고 목 놓아 통곡하고, 집에 이르러 2일간 무덤 아래에 와서 머물렀다. 그때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으니, 차마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녘의 농사가 매우 염려된다. 민간에 또한 탄식하는 소리가 없으랴만, 집에 돌아오니 오히려 나그네라 역시 편히 잠들 뿐이다.

다음 달 초에 두류(頭流)의 청학동(靑鶴洞)에 가려고 한다. 단풍이 막 한창이고 은어가 아직 싱싱하니, 석문에서 실컷 노닐고 섬진강 옛집에 이를 것이다. 22일은 제삿날이고, 그믐께 죽곡(竹谷)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무남(武男)이 창평(昌平)에서 직접 현신(現身)하므로 용서하여 보내니, 네가 잘 봐주고 꾸짖거나 씩씩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석(支石) 질녀들이 방금 벽적하게 와서 희비가 교차한 나머지 말이 매우 두서가 없었다. 이만 줄인다.

##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1634, 인조12) 8월

寄硯兒 甲戌八月

공이 총부(摠府)에 입직(入直)하였다. 그때 빙이 함경 감사의 군관으로서 하직하고 떠났다.

계암(繼巖)이 와서 너의 분전(分田)<sup>78</sup>하기 이전 소식을 전해 주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네 처가 어제 이경(二更 오후 9시~11시)부터 산기(産氣)를 시작하여 밤을 새우고 아침나절까지 번거롭게 괴로워하며 극히 난산(難産)의 기색이 있었으니, 이때 걱정이 어떠하였겠느냐? 오늘 아침 사시(巳時)에 별 탈 없이 생남(生男)하였다. 낳자마자 모양이 몇 달 된 아이처럼 극히 장대하였는데, 이러한 까닭에 난산한 것이다. 이는 일가의 큰 경사라 너의 어려움을 겪는 행색을 생각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안심하여 잘 가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여가에 기쁨이 지극한 나머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이를 쓰느라 갖추지 못하여 말이 매우 두서가 없었다. 이만 줄인다.

---

78 분전(分田) : 장정(壯丁)으로서 당연히 받는 전지(田地)를 말한다.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1634, 인조12) 윤8월

寄碣兒 甲戌閏八月

가는 길에 별 탈 없었느냐? 네 처가 29일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에 무사히 해산하여 아들을 얻고, 너 또한 제직(除職)<sup>79</sup>되니, 실로 올라올은 우리 일가의 복이 됨을 알 수 있으니, 경사에다 경사이다.

다만 순상(巡相)<sup>80</sup>이 바로 보내주실지 모르겠다만, 돌아가도록 허락 하거든 역시 도중에 조용히 빠져나올 것이며, 종이나 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만 줄인다.

---

79 제직(除職) : 실직(實職)을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80 순상(巡相) : 조선 시대에 도(道) 안의 군무를 관장하는 벼슬로 순찰사(巡察使)라고도 한다.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하는 까닭에 관찰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빙에게 부치다 갑술년(1634, 인조12) 8월

寄硯兒 甲戌八月

떠날 무렵에 바빠 한마디도 없이 보내 이것이 매우 걸린다. 네가 다시는 술을 가까이 앓겠다고 말한 대로 한다면 염려할 것 없겠다. 모름지기 뜻을 굳게 하여 변치 말고 술잔을 더욱 경계하여 늙은 아비에게 염려를 끼치지 말도록 하여라.

무릇 방백(方伯)의 명한 바에 관해서는 또한 고집하지 말고, 혹 대단히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조용히 부드러운 안색으로 논변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변방 멀리 객지에 너는 병치레가 많으니, 심분 조심하여 여색(女色)을 가까이 앓는 것이 또한 좋을 것이다. 노복(奴僕)을 모름지기 아껴 잘 대하도록 하여라. 영흥(永興)과 덕원(德源)으로 보내는 서찰은 가지고 가느냐? 변방은 일찍 추워지는데, 잘 가거라.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1635, 인조13)

寄硯兒 乙亥

어제 네가 이번 14일에 보낸 편지를 받아 보고, 숙의(淑儀)를 간택하여 들이는 일을 알고 나서 민망스럽고 창황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또한 네가 내려오지 못할까 걱정되어 더욱 고민스럽다.

산소(山所)의 석물(石物)은 다음 달 12일로 택일하였다. 네가 오면 일을 살피게 하려고 고대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니 모두 허사가 되어 한스럽다.

네 처의 편지를 보니, “끓고 앉아 날을 보낸다.” 하더구나. 차목(差木) 3필을 보내니, 선아(善兒)가 배고파 보채는 데에 구원하도록 해라. 영중(營中) 역시 비어 있는 데다 또한 백사 상공(白沙相公)의 문집을 간행함으로 인하여 물력(物力)이 이미 탕진되어 영중(營中)도 십분 어려움이 심할 뿐이다. 또한 사용(私用)에는 일척(一尺)도 빈틈이 없어야 하고, 역시 근장(近贓)과 관계되거늘, 어찌 억지로 범할 수 있겠느냐. 너의 온 집안 식구가 끓고 앉아 있는데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앓아서 생각하면 역시 사람의 아버 된 도리를 할 수 없어 한스럽다마는 어찌하겠느냐?

내 병의 대세가 비록 오랜 고통 속에 차도가 있기는 하나 원기가 크게 무너져 평상으로 회복이 매우 더디니, 늘그막의 일이 가련하다. 네 누이가 어제부터 다시 크게 앓아 조금도 살릴 방도가 없으니, 가슴이 매우 답답하다.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1635, 인조13)

寄硯兒 乙亥

초하루에 쓴 편지를 보고 좋은 상태를 알아 마음이 놓인다. 나는 애초에 감기인 줄 모르고 평소 앓던 담결(痰厥)이러니 여겨 치료하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러 지금껏 쾌차하지 못한 채 골골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병을 알았으므로 방도로 치료하면 절로 점차 차도를 볼 것이니, 다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례(大禮)가 이윽고 정해졌으니, 너는 결단코 경솔하게 출발해서 는 안 되고 모름지기 지나간 후에 조용히 오는 것이 좋겠다.

대곡(大谷)의 석물(石物) 또한 이미 완성하였다. 다만 표석(表石)은 필수적으로 곡성으로 가져다가 만들어야 하므로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김 판서택의 약재를 보내니, 모름지기 직접 바치고 답서를 받아 보내도록 하여라.

네 누이는 시방 죽지 않았을 뿐이다. 꽃감 1접 · 과메기 4두름을 보낸다.

이 병사(李兵使)의 부물(賻物)을 발송하려다가 네 편지가 오거든 모름지기 공주(公州)로 바로 보내려고 정지하였다.



빙에게 부치다 을해년(1635, 인조13)

寄硯兒 乙亥

어제 정월 19일에 보낸 편지를 받아 보고, 선아(善兒)의 좋은 소식을 잘 알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매우 기뻐다. 나는 지난달 초부터 전증(前症)을 다시 앓는데, 지난해 정월에 앓던 증상과 똑같다. 이는 그 담현(痰眩)<sup>81</sup>으로 바야흐로 자리에 누워 고통스럽구나.

네가 아버지를 보러 오는 일은 반드시 능행(陵幸)을 지난 후에 마땅히 조용히 진주(晉州) 지방으로 병든 아버지를 뵈러 간다고 정사(呈辭)<sup>82</sup>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고 공함(推考公緘)을 이제껏 받아 보지 못했다마는, 어찌 사헌부에 가서 물어 속히 처리하지 않느냐?

네 누이가 와서 이곳 성(城)의 노비 집에 있는데, 병세가 완연하여 살릴 길이 없으니 가련하다. 석물 일은 상대곡(上大谷)에 있는 정해남(鄭海男)의 집 뒤편 돌의 품질이 극히 좋아 그곳에서 만들었는데, 운반해 오기에도 매우 편하였다.

근래에 온통 다사하니 근간에 다시 쓰겠다. 이만 줄인다.

81 담현(痰眩) : 담(痰)으로 인하여 현훈(眩暈) 즉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증이다.

82 정사(呈辭) :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두거나 말미를 받기 위하여 청원서를 내는 일을 말한다.

## 제문 祭文

### 옥성부원군 장만 공에 대한 제문

祭玉城府院君張公文

숭정(崇禎) 2년 기사(1629, 인조7) 4월 일에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이 삼가 맑은 술잔과 포과(脯果)로써 경건하게 고 옥성부원군 장공의 영전에 제를 올리나이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난리를 일으킬 적에는 반드시 영웅 준걸의 선비를 내어 병란을 탕평하여 종사(宗社)의 위험을 안정시켰도다. 공이 탄생할 때 이미 북두의 꿈에 응하였고, 포의를 벗고 조정에 나아가면서부터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도다. 번곤(藩閫)<sup>83</sup>으로 나가 진무하여 이르는 곳마다 은혜를 남겨 양호(兩湖)와 서북에 비석이 귀부(龜趺)에 얹혔도다. 갑자년에 이르러 대란을 평정하여<sup>84</sup> 종묘를 다시 회복하니 어찌 조짐에 응하여 앞선 자가 아니라. 세상을 덮는 훈명(勳名)에 이르러선 사관이 이미 붓끝에 실었거니 소자가 감히 만에 하나라도 칭할 만한 것이 아니로다.

생각건대 저(정충신)는 임인년 천자께 조회할 적부터 특별 대우를

---

83 번곤(藩閫) : 감사 · 병사 · 수사(水使)의 총칭이다

84 갑자년에……평정하여 :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원수(都元帥)로서 각지의 관군과 의병을 모집해 이를 진압하였다.

받았도다. 북역(北役) 서정(西征)에 채찍과 고삐를 잡고 주선하기 이십 년간 하루도 단월(壇越) 아래를 벗어난 적 없었으니, 공의 평생 출처와 입심(立心)과 행사(行事)를 이는 자는 나만 한 사람 없으리이다. 안으로 효제(孝弟)와 돈목(敦睦)을 미루고 밖으로 장리(將吏)와 사졸(士卒)을 다독여 아꼈도다. 대우를 반드시 정성과 믿음으로 하며, 똑같이 보아 차별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공의 지기(知己)라 일컫도다. 시대가 아직도 어려워 외환이 바야흐로 심하거늘 사람이 모두 촉망(屬望)하며 공에 의지하여 장성(長城)처럼 여겼도다. 하늘이 돌아보지 아니하여 한번 앓아 일어나지 못하니, 아 애통하도다.

부음이 전해지던 날 언덕에서 조상하고, 거리에서 곡하며, 행인들도 슬퍼하였도다. 모두 장공이 일어나지 못함에 나라를 장차 어이하라 하였으니, 현인이 죽어 나라가 병드는 아픔을 볼 수 있었도다. 못사람의 지극한 정이나 내가 오가며 호곡함에 이르기까지 일개 양담(羊曇)<sup>85</sup> 일 뿐만이 아니로다. 내가 성 서편에 집을 구하여 사시는 곳과 이웃하였도다. 일을 만나 어려우면 반드시 서로 묻고, 거마와 땀감, 물을 반드시 서로 도왔도다. 은근하고 간곡하여 가족이나 부자처럼 한밤에도 왕래하며 속내를 기울여 토론하고 말이 시사(時事)에 미치면 반드시 개연히 탄식했도다. 정성스레 세상 걱정하고 일편단심 임금을 사랑하여 말이 끝나면 실컷 다시 하였도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닭이 우는

85 양담(羊曇) : 진(晉)나라 사람으로, 사안(謝安)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사안이 죽자 음악을 멀리하면서 서주(西州)로 가는 길은 통행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 술에 만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면서 서주의 문까지 오게 되자, 비감에 젖어 말채찍으로 문짝을 두드리면서 “생전에 살던 화려한 집 있는데, 영락하여 산언덕으로 돌아갔구나.[生存華屋處 零落歸山丘]”라는 조식(曹植)의 시를 읊고는 통곡하며 떠나갔다. 《晉書 卷79 羊曇列傳》

줄 몰랐고, 좌할 때면 늘 “인생이 족하자면 어느 때에 족하라, 덜 늙어 한가함이 바로 한가함이로다.[人生待足何時足 未老得閑方是閑]”라는 구절을 읊었도다. 이어 “더군다나 나는 벼슬 이뤘 이름났거늘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이하라.” 하고, 이윽고 이호에 여생 마칠 곳 삼아 올봄에 결단코 돌아가려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변방의 우환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돌아가길 청하기는 이르다고 말렸도다. 어이 알았으랴, 하늘이 돕지 않아 급작스레 오늘을 보게 될 줄을.

아, 애통하도다. 어둡지 않은 자 혼령이니 아실런가? 이로부터 음성과 용모 이득한데 어느 계제에 덕을 갚으랴. 문에 들어 당에 올라 가르침 들을 길 없도다. 돌아보니, 슬픔 더하고 눈물이 절로 눈가에 어리도다. 한잔 술로 하직하니, 황천길 멀도다. 곡에 슬픔을 쏟으나 곡은 소리를 못 이루도다. 아, 애통하도다. 흠향하소서.

## 축문 祝文

### 서산의 별장 터 닦을 때의 축문

瑞山莊舍開基時祝

유 승정(崇禎) 6년 세차(歲次) 계유(1633, 인조11) 모월 모일에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을 대신하여 아들 빙(碁)이 목욕재계하고 정결한 정성으로 삼가 막걸리와 포혜(脯醢)로써 감히 지곡면 아마힐 봉 아래 향매리(香埋里)의 토지를 담당한 신령께 고하나이다.

충신(忠信)이 함부로 변경의 정세를 아뢰고 거듭 하늘의 노여움에 저촉되어 옥에 갇혀 화를 측량할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혜가 하늘 같아 오히려 훈로를 기억하여 목숨을 보전하여 방귀전리(放歸田里)<sup>86</sup> 하였나이다. 부족한 이 몸을 생각건대, 못난 사람이 부월을 차지하여, 위로는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도와 강토를 편하게 하지 못했고, 아래로는 자취를 감추고 퇴직을 청하여 우민의 분수를 지키지 못한 채 헛된 명예에 분주하여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였나이다. 천도는 가득 함 싫어하고 넘침을 꺼리거늘 어두워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재앙이 없었겠나이가. 지나간 것은 그만이거니와 머잖아 돌이키고 지나치

---

86 방귀전리 : 유배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형벌로, 벼슬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내쫓는 것을 말한다.

면 뉘우쳐 장차 그칠 줄 앎이 합당하거늘, 감히 생을 마칠 터전을 피하지 앎고 만년을 보낼 수 있겠나이까. 본 지역에 다행히 은사전 몇 뼤기가 있어 이는 말년에 낚시하고 나무할 만한 곳이나이다. 우리 인생 또한 유한하기에 길일을 점지하여 오늘 아침 비로소 띠풀을 베게 되었나이다. 산에는 좋은 재목이 많고 바다에는 귀한 고기가 넉넉하며 땅은 후미지고 마을은 깊어 세속 먼지 이르지 아니하며 샘물은 달고 땅은 기름지며 물은 푸르고 모래는 깨끗하니, 한 언덕 호산(湖山)이, 어찌 신명이 비장(秘藏)하여, 내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겠나이까. 이제 부터 신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여 세시(歲時)와 복랍(伏臘)에 말술로 서로 즐기고 여기에서 노래하며 영원한 복리(福利)를 신의 허다한 은택에 기대겠나이다. 제물은 비록 박할지라도 오직 정성으로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 아마힐 국사 신에게 고하는 글

告阿摩詰國祀神文

유(維) 승정(崇禎) 6년 세차(歲次) 계유(1633, 인조11) 월일에 금남군(錦南君) 정충신이 삼가 동료 이엽(李葉)을 시켜 감히 아마힐(阿摩詰)의 국사신(國祀神)께 고하나이다.

내가 죄를 얻었다가 방귀전리(放歸田里)되어 문을 나서 갈 곳 없던 차에 다행히 은사전 몇 뼤 가진 것이 신사(神祀) 아래에 있었나이다. 날을 점지하여 오늘 아침 비로소 띠풀을 베어 힘닿는 데까지 집 두어 칸 엮어 몸 깃들 곳으로 삼겠나이다. 신명께서는 매우 신령하시니, 바라옵건대 묵묵히 도와주소서. 빈번(蘋蘩)과 초지(苜蓿)를 신명께 올릴 만하고 한잔 술과 향반(香飯)에는 정성이 넉넉하니 흠향하소서.





만  
운  
집

부  
록  
1  
권

교  
서  
教  
書

어  
제  
문  
御  
祭  
文

제  
문  
祭  
文

만  
시  
挽  
詩



## 교서 教書

교서

教書

정충신에게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의 칭호(稱號)를 내리고 상(賞)을 더하노라.

## 교서

### 敎書

천계(天啓) 갑자년(1624년, 인조2)<sup>1</sup>에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지고, 7월에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진질(進秩)되었다.

왕은 이르노라. 북산의 승리를 근거하건대 실로 적개(敵愾)의 충성에 힘입었고, 대수(大樹)<sup>2</sup>의 공이 있어 크게 승자(陞資)의 전례를 거행하노라. 영광스럽게 총명(寵命)에 응하여 길이 그대 마음 굳게 할지르다.

경이야말로 산서(山西)<sup>3</sup>에 장재(將材)이며 호우(湖右)에 인영(人英)이로다. 임진년부터 뜻을 관직에 두고, 일찍이 군사에 종사하여 몸은 온통 담력으로 30년 동안 왕실에 노고를 바치고 이천 석(二千石)<sup>4</sup>으로 웅주(雄州)를 다스렸도다.

접때 역적이 흉계를 부릴 때를 만났으니, 국운이 비괘(否卦)<sup>5</sup>를 만난

---

1 갑자년 : 저본에는 '정유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보>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2 대수(大樹) : 자신의 전공(戰功)을 자랑하지 않는 장군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인 풍이(馮異)는 광무제(光武帝)를 섬겨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사람됨이 겸양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할 즈음이면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발표하지 않고 큰 나무 아래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으므로 대수장군이라는 별칭이 있게 되었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3 산서(山西) : 한(漢)나라 때에 산둥(山東)에서는 정승이 많이 나오고, 산서에서는 장수가 많이 나왔다.

4 이천 석(二千石) : 군(郡)의 장관인 태수(太守)이다. 한(漢)나라 때 군(郡) 태수의 연봉이 이천 석이었던 데서 뒤에 지방 수령을 일컫게 되었다.

5 비괘(否卦) : 《주역》에서 <비괘>는 하늘과 땅이 교류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천지의 운수가 꼭 막힌 때를 말한다.

때문이다. 변란이 어양(漁陽)<sup>6</sup>의 창졸(倉卒)에서 일어나 지혜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형세는 황지(潢池)의 농병(弄兵)<sup>7</sup>과 달리 악이 이미 넘쳤도다. 그 위세를 보고 절로 무너져 애당초 하북(河北)에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나, 책략을 결단하여 앞으로 달렸으니, 다행히 군중(軍中)에 범중엄(范仲淹)<sup>8</sup>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제장(諸將)이 이겼다 하나, 실은 한번 북을 울림에 먼저 올라갔기 때문이다. 실로 안령(鞍嶺)<sup>9</sup>에서 예리한 칼끝을 꺾지 아니하였던들 어찌 형장에 목을 매달아 환호가 금강에 비등하였겠는가? 하루가 못 되어 돌아와 변두의 예를 마쳐 칠묘(七廟)가 거둬 편케 되었도다.

평소 무리 중에 뛰어난 줄을 알았더니, 과연 나라를 따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도다. 어느 시대인들 적신(賊臣)이 없으랴만, 이자는 심한 자라 그대 아니었던들 사람들 모두 잘못되어 역시 위태했으리라.

태상기(太常旗)로 원공(元功)을 포상하고, 의당 이품(二品)으로 품계를 더하여 금장(金章)과 자수(紫綬)로 맹부(盟府)<sup>10</sup>의 자리에 특별

6 어양(漁陽) : 어양부(漁陽府)를 말한다. 중국 하북성(河北省) 밀운현(密雲縣)에 있는 지명으로 당 현종(唐玄宗) 때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7 황지(潢池)의 농병(弄兵) : 《한서(漢書)》〈공수전(龔遂傳)〉에,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둑질하기를 마치 어린애들이 못 속에서 병기(兵器)를 희롱하듯이 했다.’라고 하였다.

8 범중엄(范仲淹) : 989~1052. 송(宋)나라 때의 명재상이다. 자는 희문(希文),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하였다. 자세한 행적은 《송사》 권314 〈범중엄열전(范仲淹列傳)〉에 보인다.

9 안령(鞍嶺) : 길마재(무악재)를 말하며,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켰을 때 정충신(鄭忠臣) 등이 반란군을 대파한 곳이다

10 맹부(盟府) : 맹약서를 보관하던 부고(府庫)인 사맹부(司盟府)를 말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5년조 기사 참조.

히 용우(隆遇)하고, 옥절(玉節)<sup>11</sup>과 웅번(熊幡)<sup>12</sup>으로 서관(西關)을 맡겨 또한 중하게 하노라. 반열은 비록 예리(曳履)<sup>13</sup>에 도약하였지만, 직임(職任)이 어찌 부절(符節)을 치는 데에 해가 되랴. 이에 경을 정헌대부(正憲大夫)<sup>14</sup>에 가자(加資)하고 직임은 전과 같이 하노라.

아, 명수(名數)<sup>15</sup>를 가한 바는 훈로(勳勞)에 답함이로다. 모름지기 생각할 것은 부귀는 지키기 어렵고, 두려워할 것은 녹위(祿位)가 더욱 높아짐이니라. 치수(淄水)와 민수(澠水)에 치달아<sup>16</sup> 창을 베개 삼던 때의 뜻 변치 말고, 여곽(藜藿)-명아주와 콩잎-을 호위하며<sup>17</sup> 산에 있을 때의 위엄을 더욱 떨칠지로다. 이에 교시하노니, 의당 잘 알리라

- 
- 11 옥절(玉節) : 지방관으로 나갈 때 지니고 가는 옥으로 만든 부절(符節)을 말한다. 《주례(周禮)》〈지관사도(地官司徒)〉에 “방국을 지키는 자는 옥절을 사용하고, 도비를 지키는 자는 각절을 사용한다.[守邦國者用玉節, 守都鄙者用角節.]”라고 하였다.
  - 12 웅번(熊幡) : 웅식주번(熊軾朱幡)의 준말로 곰 모양의 수레 앞턱 가로나무와 붉은 깃발을 가리키는데, 한나라 이후에는 지방 장관인 자사(刺史)의 행차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에서 전이되어 지방관을 ‘웅번’이라고 하였다.
  - 13 예리(曳履) : 명옥예리(鳴玉曳履)의 준말로, 패옥을 울리고 비단으로 만든 신을 끌고 걷는 것을 말한다. 관직이 높고 녹이 후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 14 정헌대부(正憲大夫) : 정이품(正二品) 문무관(文武官)의 품계이다.
  - 15 명수(名數) : 관등(官等)의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에 이르는 등수(等數)를 이른다. 여기서는 공신(功臣)의 등급을 달리 나눔을 뜻한다.
  - 16 치수(淄水)와 민수(澠水)에 치달아 : 《자치통감(資治通鑑)》 1권 〈주기(周紀)〉에 노중련(魯仲連)이 전단에게 이르기를, “지금 장군은 황금 띠를 두르고서 치수와 민수 사이를 치달아서 사는 즐거움이 있다.[今將軍黃金橫帶而騁乎淄澠之間 有生之樂]”라고 하였다.
  - 17 여곽(藜藿)을 호위하며 :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전사(前史)에 ‘맹수가 산림에 있으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여곽을 뜯지 못하고, 곧은 신하가 조정에 있으면 간사한 자가 음모를 꾸미지 못한다.[猛獸處山林 藜藿爲之不採 直臣立朝廷 奸邪爲之寢謀]’ 하였으니, 이것이 짐이 공들에게 바라는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貞觀政要 卷6 杜讒》

생각하노라.-4월에 병으로 회맹제(會盟祭)에 참여하지 못함에 단지 반축(頒軸)한  
것이다.-

## 교서

### 敎書

왕은 이르노라. 역적이 기강을 범함에 누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냈던가. 충신이 능력을 떨쳐 왕이 분개하는 상대를 보고 대적하여 이미 노고가 드러났거든, 어찌 하사[錫]를 가하지 아니하라. 경(卿)의 호방한 담력이 무지개에 서리고, 강직한 성정은 철(鐵)을 씹었도다.

위 장군(衛將軍)<sup>18</sup>이 문호를 세움은 기필코 특권이 그 밑천이고, 조사아(祖士雅)<sup>19</sup>가 나라를 도움은 어릴 때부터 자처한 것이로다. 옛적 임진난에 실로 소년의 나이로 근왕(勤王)에 응모하니, 마침내 선무(宣武)에 책공(策功)하였도다.

덤불에 변화의 묘를 부리며 확연히 벼락치고 바람에 날려도 칼날을 기구한 길에 부딪히며 밤에는 가고 낮에 엎드리기 얼마였던가? 뛰어난 재능이 이미 반착(盤錯)<sup>20</sup> 가운데 판별되어 상대한 명성을 비로소 천하

---

18 위 장군(衛將軍)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장군 위청(衛青)을 가리킨다. 어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노비 취급을 받으며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무제의 후궁이 된 누이의 덕으로 벼슬한 뒤 일곱 번 흉노를 쳐서 번번이 대공을 세워 위엄을 외지에까지 크게 떨쳤다. 대장군이 되고 대사마에 올랐고 뒤에 장평후(長平侯)에 봉해졌다.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 《漢書 卷55 衛青霍去病傳》

19 조사아(祖士雅) : 진(晉)나라 때의 명장인 조적(祖逖)을 가리킨다. 사아(士雅)는 그의 자이다. 일찍이 조적은 오랑캐인 석록(石勒)을 무찌르고 황하 이남의 땅을 수복하였다. 황폐해진 땅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조적 자신은 검소하게 지내면서 사적인 재산을 불리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면하고 감독하였다. 또 전쟁 중에 수습되지 못해 말라 버린 유골을 거두어 장례를 지냈다. 그러자 그곳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은 이미 늙었는데도 다시 부모를 얻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라고 말하였다. 《晉書 卷62 祖逖列傳》

20 반착(盤錯) : 반근착절(盤根錯節)의 준말로, 뿌리와 가지가 뒤엉킨 것처럼 상황이



에 떨치고, 이로부터 몸을 굽히고 글을 읽어 세상에 드문 지기(知己)들을 실감케 하였도다. 충신(忠臣)은 오랑캐 땅에서도 행할 만하거늘 감히 자신에 대한 노고를 꺼렸겠는가? 병략(鈐略)을 이미 가슴에 통하여 공명(功名)의 기회를 만났도다. 정영(精英)하게 산악의 빼어난 기운을 부여받아 호걸로 사직을 위하여 태어났도다.

역적이 거병함에 참담한 병화가 궁궐을 핏박하여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가듯 하거늘 누가 감히 칼끝을 당하였던가? 다행히 범 같은 신하에 힘입어 끝내 헌첩(獻捷)<sup>21</sup>을 바쳤도다. 국사(國事)가 위태롭기 터럭에 매달린 것 같았으나,<sup>22</sup> 충성이 하늘에 통하여 척검(尺劍)을 펼쳐 휘두르니 일월성신이 정색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니 사졸(士卒)이 분발하여 죽음을 무릅썼도다.

위대한 희세(稀世)의 공이여! 일찍이 아침나절이 채 안 걸렸도다. 이에 이품(二品)의 반열에 작위를 내리고, 못사람 가운데 인재로 발탁하노라. 선왕 대에 선발되었고, 장차 대용(大用)에 필요하여 안찰사(連帥)를 맡겨 높이니, 어찌 빼어난 공로에 걸맞다 하라만 오늘날 숨은 근심이 깊음을 돌아보건대, 적이 평정된 후에 높이겠노라.

은연히 산에 있을 때의 형세여! 응당 오랑캐의 수레를 꺾고, 확연히

---

복잡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보통 걸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후한(後漢)의 우후(虞詡)가 “반근착절의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면, 칼이 예리한지 무딘지 분간할 수가 없으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공을 세울 기회이다.[不遇盤根錯節，無以別利器，此乃吾立功之秋.]”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 《通鑑節要 卷19 後漢和帝》

21 헌첩(獻捷) :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포로(捕虜)를 바쳐 조상의 영묘(靈廟)에 성공을 고함.

22 국사(國事)가……같았으나 : 원문의 ‘國事稟乎如髮’을 《蒼石先生文集》 卷之四 〈教鄭忠信書〉에 의거 ‘國事凜乎如髮’로 고쳐 번역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이여! 죽히 사기(士氣)를 떨칠지로다. 응당 아직 이루지 못한 사업에 힘쓰고, 더욱 국가에 부담 없기를 생각할지로다. 따라서 큰 공훈에 절제(節制)하면 등위(等威)<sup>23</sup>가 이에 우뚝하리로다.

기린각(麒麟閣)에 빛나는 도화(圖畫)로 광총(光寵)을 더욱 빛내 이번 전공을 논하는 날 공로에 보답하는 상법(常法)을 보이노라. 이에 진무공신일등(振武功臣一等)에 책훈(策勳)하여 도형(圖形)을 후세에 전하고, 삼품계(三品階)를 초과하여 작위를 내리며, 그 부모처자에게도 삼품계를 초과하여 작위를 내리노라. 적장자가 세습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면(赦免)이 영원토록 미치게 하노라.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삼품계를 높여 주도록 하노라. 따라서 호위병〔伴尙〕 10인, 노비 13구(口), 관노비〔丘史〕 7명, 전(田) 150결(結), 은 50냥, 옷감〔表裏〕 1단과 내구마(內廐馬) 1필을 내리니 받는 것이 마땅하리로다.

아, 공렬(功烈)에 감히 포양(褒揚)<sup>24</sup>을 잊으랴. 이윽고 종정(鐘鼎)<sup>25</sup>에 새기도록 하였으니, 녹위(祿位)로 교만과 사치를 기하지 말고 산하(山河)의 맹세를 지킬지로다. 군신(君臣)의 경회(慶會)<sup>26</sup>란 심히 어려우니, 상하가 은의(恩義)로 함께 힘쓰도록<sup>27</sup> 환하게 크게 호령하여 신

23 등위(等威) :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는 위(威儀)를 말한다.

24 포양(褒揚) : 칭찬하여 장려하는 것이다.

25 종정(鐘鼎) : 나라의 상징인 종(鍾)과 정(鼎)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의 사적을 새겨서 길이 전함.

26 경회(慶會) : 풍운경회(風雲慶會)를 줄인 말로,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의 만남을 의미한다. 《주역》〈건괘(乾卦) 문언(文言)〉의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風從虎。〕”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7 군신의……힘쓰도록 : 원문 ‘惟君臣慶會之甚庶 上下恩義之共勉’을 李垓 선생의 《蒼

하들에게 두루 보이노라. 그래 이에 교시하노니, 의당 잘 알리라 여기  
노라.

---

石先生文集卷之四》教書〈教鄭忠信書〉의 ‘惟君臣慶會之甚難 庶上下恩義之共勉’에  
의거하여 고쳐 번역하였다.

## 어제문 御祭文

### 인조대왕이 내린 제문

仁祖朝賜祭文

유(維) 숭정(崇禎) 세차(歲次) 병자(1636, 인조14) 6월 일에 국왕이  
신하 예조 좌랑 임담(林潭)<sup>28</sup>을 보내 금남군 정충신의 영전에 유제  
(諭祭)<sup>29</sup>하노라.

영령이여	惟靈
호반의 영걸이요	介冑之英
간성의 자질이로다	干城之器
몸보다 담력이 크고	身不及膽
지혜로 일을 잘 처리하여	智能了事
어진 재상에게 인정받고	受知賢相
변방에 자취 드러났도다	發跡邊鄙

28 임담(林潭) : 1596~1652.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계숙(載叔), 호는 청요(淸曜)·청구(淸癯)이다. 1616년(광해군8) 증광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5년(인조13) 증광 문과에 입격하였다. 이조 판서와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29 유제(諭祭) : 국왕이 하사하는 제사를 가리킨다.

과인이 즉위하여	屬予嗣服
얼신 <sup>30</sup> 이 거병하거늘	擊臣稱兵
경이 당시 비장으로서	卿時佐幕
군사를 거느리고 종군하여	率旅從征
흉도를 소탕하여	掃蕩凶徒
공로가 사직에 있었도다	功在社稷
서쪽 관문 다스릴 적	分關西門
방비를 튼튼히 하여	克壯鎖鑰
앞뒤로 십 년간	首尾十年
좋은 곳든 한 절조로	夷險一節
요량에 노심초사	籌畫勞心
풍토 때문에 병났도다	水土成疾
때로 곤경을 만났으나	間遭顛沛
충의는 더욱 굳었도다	忠義彌堅
남녘에 부월 받아	授鉞炎方
묵은 병을 못 고쳐	昔疾未痊
나라가 불행하여	邦家不幸
거목이 문득 꺾이니	大樹遽折
단청은 적막하고	丹青寂寞
백우선 떨어지도다	白羽零落
돌이켜 훈공 생각하니	撫念勳庸

30 얼신(孽臣) : 국가를 불행하게 하는 간사한 신하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이괄(李适)을 가리킨다.

과인의 가슴 아리도다  
변방 근심 은은하니  
장군 생각 더하도다  
어둡지 않은 자 신이여  
옛 법을 흠차하노라

予懷惻怛  
邊虞比殷  
轉切思良  
不昧者神  
欽此舊章

## 제문 祭文

### 충훈부에서 치제하는 글

忠勳府致祭文

유(維) 송정(崇禎) 9년 병자(1636, 인조14) 6월 일에 충훈부(忠勳府)에서 삼가 맑은 술과 안주를 올려 경건히 금남군(錦南君) 정공(鄭公)의 영전에 제를 올리나이다.

영령이시여

惟靈

산하가 수려한 기를 기르고

山河毓秀

별자리가 정기를 내렸도다

辰宿降精

명장의 후예로서

名將之裔

그 명성 지켰도다

克遵厥聲

나라가 비운 만나

屬當否運

왜적이 날뛰거늘

島夷猖狂

소년에 강개하여

弱齡慷慨

의리를 떨쳐 왕을 도왔도다

奮義勤王

어진 정승에게 인정받아

受知賢相

국사로서 대했도다

待以國士

말발굽 손질하여

翦拂霜蹄

일거에 천리로다	一舉千里
변방에 수레를 몰아	發軔邊堡
방백의 진에 막료요	佐幕節鎮
금나라에 변설하여	聘辯虜庭
명성 더욱 떨쳤도다	英聲益振
국운 다시 번창함에	邦運再昌
일은 많고 급했도다	事多蒼黃
실로 참된 마음으로	允藉忠膽
변방에 위엄을 떨쳤도다	威振邊疆
역적이 난 일으켜	逆孽猖亂
뱀독 몰래 뿜으며	虺毒潛吹
거짓말로 속이거늘	訛言誑誘
사람 모두 긴가민가	衆情咸疑
공은 기미에 밝았도다	公獨炳幾
일편단심 죽을 각오	誓死不貳
원수부에 몸을 던져	投身帥幕
평소의 뜻을 밝히고서	以明素志
소매 떨쳐 적 쫓았도다	奮袂趕賊
사졸의 선봉이 되어	爲士卒先
중과는 비록 달랐으나	衆寡雖殊
충절을 더욱 굳게	厲節采堅
책략을 결단하여 진병하였도다	決策進兵
뜻밖의 병비 <sup>31</sup> 여	兵賊不意
공의 용맹 아니었던들	非公之勇



누가 이를 주관하여	疇克辦此
원흉을 갈겼으랴	芟夷大愾
서울을 수복하여	收復神京
종사 다시 평안하니	宗社再寧
분모 <sup>32</sup> 하고 땅을 갈라	分茅裂土
판서 반열에 응우하며	八座秩隆
단서철권 <sup>33</sup> 으로	丹書鐵券
원공 표창하였도다	以獎元功
상감을 도와 도모하여	贊謀帷幄
은총을 최고로 입었도다	最被恩榮
호부를 세 번 차고	三佩虎符
병영을 거듭 열었도다	再闢柳營
간성을 맡겼거니	干城之託
홀로 제일이로다	獨爲第一
진중에서 공로를 쌓아	積勞行間
만년에 고질을 앓았도다	晚嬰痼疾
걱정하신 상감께서	憂軫九重
문유 <sup>34</sup> 를 서로 잊고	問遺相望

31 병비 : 전직 군인으로 구성된 비적(匪賊)이다.

32 분모(分茅) : 토지(土地)를 분할하여 공신(功臣)에게 줄 때 의식적인 절차로 하얀 띠풀(白茅) 속에다 질흙을 붙여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토지와 권력을 나누어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33 단서철권(丹書鐵券) : 쇠조각에 지워지지 않게 주서(朱書)하여 공신에게 주어 대대로 죄를 면하게 하던 증명서이다.

34 문유(問遺) : 문안하고 선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내의가 와 보살피니	內醫臨視
약물이 참 좋았도다	藥物甚良
행여 효험 보게 되면	庶見良已
다시 원수를 맡으련만	再膺闕鉞
어이 운수가 좋지 못해	云胡不淑
문득 오늘에 이르렀는고	遽至今日
호진 <sup>35</sup> 을 쓸지 못했는데	胡塵未掃
거목이 먼저 시들도다	大樹先秋
영령은 어디로 가시는고	英靈何許
황천길 멀다는데	泉路孔脩
청명한 기국이니	清明之器
태허 <sup>36</sup> 와 합하리라	合於太虛
단아하고 신묘한 자태	端妙之姿
그림 속에 남았도다	留在畫圖
빙벽 <sup>37</sup> 의 절조여	氷檠之操
옷은 몸 못 가렸도다	衣不掩身
좌마 <sup>38</sup> 의 문장으로	左馬之文
홀로 옛사람 좇았도다	獨追古人

35 호진(胡塵) : 호인(胡人)의 병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래 먼지를 말한다.

36 태허(太虛) : 참으로 도를 아는 자가 노니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37 빙벽(氷檠) : 얼음과 황벽나무라는 뜻으로, 춥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38 좌마(左馬)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저자 좌구명(左丘明)과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을 말한다.

영원한 것 이름이요	不死者名
어려운 것 천명이라	難謀者天
은졸 <sup>39</sup> 에 의전 융숭하여	典隆隱卒
은혜가 구천에 미치도다	恩及重泉
해산 아득한 곳으로	海山迢迢
상여가 막 출발하니	靈車將發
의리 중한 동맹이라	義重同盟
슬픔 한층 더하도다	倍增切怛
유명 간에 영결하며	幽明永訣
제를 올려 글 베푸니	設祭陳詞
영령이여 아신다면	靈若有知
이에 이르시옵소서	庶幾格斯
아 흠향하소서	嗚呼尙饗

---

39 은졸(隱卒)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관직을 추증한다든지 시호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逸周書》

## 연양군<sup>40</sup>이 치제하는 글

延陽君致祭文

유(維) 승정(崇禎) 9년 세차 병자(1636, 인조14) 6월 일에 연양군 이시백이 삼가 술과 과일로 망우(亡友) 금남군 정공의 영전에 제를 올리나이다.

영령이시여	惟靈
충의의 자태	忠義之姿
정강의 자질	精剛之質
격앙되고 강개함	激昂慷慨
실로 타고났도다	實自天出
지난날 임진 간에	昔歲壬辰
동방이 불운하여	東方不祿
왜구가 요량 없이	海寇匪茹
팔도를 짓밟음에	蹂躪八域
왕께서 피란하니	鸞輿草莽
사직에 몇 집이던가	社稷幾屋
공이 당시 남녘에 있어	公時在南
나이 비로소 십육 세	年始十六
탄식하며 감회에 젖어	咄咄長懷

40 연양군(延陽君) : 이시백(李時白, 1581~1660), 조선 인조 때부터 현종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아들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고, 이조 판서·영의정 등을 지냈다.

서편 향하여 곡했도다	望西而哭
남아가 이러한 때에	男兒此時
군주의 옥됨에 죽기로	當死主辱
스스로 군전에 나아가	自出軍前
나라에 바치고자 의병에 응했도다	募義許國
어찌 그저 즐길쏜가	寧夷之樂
병이 급함을 생각할 뿐	惟病之急
천 리 길에 장계 품고	千里懷書
혹은 가다가 엎드리며	或行而伏
험한 관문 헤쳐가기	跋涉艱關
무릇 어느 세월인고	凡幾日月
행재소에 명 전할 적	行朝致命
공의 머리 더벅머리	公髮惟束
선왕께서 공을 보고	先王見公
부르튼 발 걱정이라	慙公繭足
얼마 후 관무재 <sup>41</sup> 에	俄觀武材
또한 대첩 거뒀도다	亦獲大捷
삼경을 이미 수복하여	三京旣收
종묘가 다시 돌아오니	宗祧復復

---

41 관무재(觀武才) : 특별한 어명이 있을 때 행하는 무과 시험이다. 초시와 복시 두 가지가 있는데, 초시는 2품 이상의 문무관 2명, 복시는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보내어 시험 보였으며, 복시에는 반드시 임금이 친림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면 즉시 각 지방의 수령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거나 그 품계를 높여 주었다. 《經國大典 兵典 觀武才》

공이 왕을 수행하여	公隨翠華
서울로 돌아왔도다	言返于洛
사람 모두 공을 일러	人皆謂公
중히 발탁되리라더니	當受重擢
정호에서 활과 검을	鼎湖弓劍
어느 날 문득 버리심에 <sup>42</sup>	忽遺一夕
한때 불운을 만났으나	遭時陽九
명이 박하진 않았도다	非命之薄
좋은 시대 만나	逮際清時
거듭 위촉되어	重被委屬
안주의 성에	安市之城
방어사 되었도다	□分虎竹
이듬해 갑자년에	明年甲子
이팔이 난 일으켜	變生肘腋
대가가 남으로 피하여	大駕南巡
종사가 급급하였도다	宗社汲汲
공이 마침내 군사 끌고	公遂率兵
원수 막하에 속하였도다	來屬帥幕
장공이 공을 얻어	張公得公
한 적수를 만난 듯하여	如得一敵

42 정호(鼎湖)에서……버리심에 : 황제(黃帝)가 용(龍)을 타고 하늘에 오른 곳을 정호라고 하며, 황제가 하늘을 오를 때 활(弓)을 떨어뜨렸고, 그 장사 지낸 교산(橋山)에서는 빈 관(棺)에 칼(劍)만 있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선조(宣祖) 임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뜻한다.

창과 방패와 만 깃발로	千戈萬旂
이에 선봉을 맡겼도다	乃當前局
자취 재고 뒤를 밟아	逼蹤躡後
성북까지 추격하여	追迫城北
몸을 떨쳐 호령하여	挺身大駝
무악재를 점거했도다	鞍嶺之據
북쪽에서 작전하니	師期直北
저 역적을 용서하라	彼孽寧恤
한바탕 포성 진동함에	一響砲聲
추한 무리가 구름 걷히듯	醜類雲撤
끝까지 크게 쫓아	終然大逐
명련과 이팔 섬멸하여	戮璉殲适
드디어 종묘사직 <sup>43</sup> 을	遂令宗國
반석처럼 편케 했도다	奠安盤石
공에게 뜻이 있는 줄 알았거니	知公有志
끝내 공업을 이루었도다	竟成功業
이정 <sup>44</sup> 에 공훈을 새기고	銘勳彝鼎
기린각에 초상을 그렸도다	畫像麟閣
빛나고 열렬한 정충이여	炳烈精忠
누가 자취를 나란히 하라	孰與齊躡
이 사람이 평생토록	不佞平生

43 종묘사직 : 원문의 '宗國'은 말이 통하지 않아 '宗社'로 고쳐 종묘사직으로 번역하였다.

44 이정(彝鼎) : 종묘(宗廟)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로, 이(彝)는 술잔이고 정(鼎)은 솥이다. 옛날에는 큰 공을 세우면 그 일을 잔이나 솥에 새겨 길이 나타내었다.

공의 덕을 흠모했도다	慕公之德
처음 공을 만나기는	厥初逢公
우리 선생 댁이로다	我先生宅
공 또한 나를 아껴	公亦愛我
의지했다 말하리라	謂可相託
삼십 하고 남은 해를	三十餘年
정이 깊고 친밀하여	情深契密
남들 말은 형제라 하나	人言弟兄
내 마음엔 골육이로다	我心骨肉
행여 서로 지켜 줄까	庶幾相保
난관 함께하였도다	共赴緩急
어찌 알았으랴 고향에	豈料瞽盲
이수가 병 일으킬 줄을 <sup>45</sup>	二豎構疾
하늘이 안 남겨 놓고	皇天不憐
이리 속히 앗아가는고	奪我斯速
아 저 푸른 하늘이여	吁嗟彼蒼
나의 한 어이 다하랴	我恨何極

45 고향(膏肓)에……줄을 : 원문의 '고맹(瞽盲)'은 문맥이 통하지 않아 '고황'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춘추 시대 진 경공(晉景公)이 병이 들어 진(秦)나라의 이름난 의원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경공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병이 두 아이(二豎)로 변하더니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오는 용한 의원에게 다칠지 모르니, 황(盲)의 위와 고(膏)의 아래에 숨어 있자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경공이 막 도착한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이미 고향에 들어 있어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경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春秋左氏傳 成公 10年》 고향은 심장과 횡격막(橫膈膜) 사이로 여기에 병이 나면 치료가 어렵다 하여 난치병, 또는 불치병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서쪽 관문에 틈 있거늘	西關有罅
뉘라서 빗장 치며	誰作鎖鑰
남녘에 걱정이 많거늘	南徼多虞
뉘라서 계책 세울거나	孰爲籌畫
공적으로 공을 생각건대	以公思公
사적으로 울적할 뿐 아니로다	不獨私愴
호서의 우측	湖西之右
해산의 기슭	海山之麓
몇 길 높은 봉분이	數仞高岡
공의 유택이로다	乃公幽室
공이 이제 떠나가니	公今去矣
공은 언제 오시려오	公返何日
초장 <sup>46</sup> 한 잔을 올리며	椒漿一杯
이 한 폭에 슬픔을 쏟도다	哀此片幅
공의 영전에 곡하며	來哭公筵
이에 영결을 고하니	茲焉永訣
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흠향하소서	尙饗

46 초장(椒漿) : 산초로 담근 술로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썼다. 당나라 시인이 상산사호(商山四皓)의 사당에 제사 지내며 지은 시에, “초장 한 잔을 드리다.”는 구절이 있다.

## 능천군<sup>47</sup>이 치제하는 글

綾川君致祭文

유(維) 승정(崇禎) 9년 세차(歲次) 병자(1636, 인조14) 6월 일에 능천군 구인후가 감히 금남군 정공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영령이시여	惟靈
쌍어의 간기이며	雙魚間氣
구리의 진정이로다 <sup>48</sup>	九鯉眞精
신묘함은 황석 <sup>49</sup> 에게 전해 받고	神傳黃石
상서로움은 해와 별에 응하였도다	瑞應日星
몸은 칠 척 남짓이나	身餘七尺
가슴엔 만 가지 책략	胸藏萬甲
발길이 항오에 섞이고	迹混行間
세상은 과하 <sup>50</sup> 라 멸시했도다	世侮勝下

47 능천군(綾川君) : 구인후(具仁厚, 1578~1658)이다.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국왕을 호위한 공으로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고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책록되고, 벼슬은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48 쌍어(雙魚)의……진정이로다 : ‘雙魚’와 ‘九鯉’의 전거(典據)를 찾지 못하였다.

49 황석(黃石) : 《삼략(三略)》을 지은 황석공(黃石公)을 말한다. 장량(張良)이 진시황(秦始皇)을 저격하였다가 실패하고 이교(圯橋) 밑에 숨어 있는데, 어떤 노인이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읽으면 왕자(王者)의 사부가 될 것이고 그 뒤 10년이 되면 흥성할 것이다. 13년 뒤에 그대가 제북(濟北)에서 나를 만날 것인데, 곡성산(穀城山) 밑에 있는 황석이 바로 나다.” 하였다. 13년 뒤에 장량이 한 고조를 따라 제북을 지나다가 과연 곡성산 밑에 있는 황석을 보고 가져다가 사당을 지어 놓고 제사 지냈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소하 <sup>51</sup> 가 유독 기특히 여겨	蕭何獨奇
크게 비싼 값 매졌도다	長以高價
북쪽 관문 서쪽 변방	北關西塞
여러 고을 담당하니	專轄數州
참매가 덩불을 스치고	蒼鷹掃苛
백마는 투레질하였도다	白馬興謳
중흥한 지 이듬해에	重興翌載
이팔이 난을 선동하여	孽臣扇亂
악이 심하기 큰 독사요	惡極長蛇
피가 흥하긴 걸 임금 개로다	謀凶傑犬
감히 역도를 거느리고	敢率不逞
효경 <sup>52</sup> 이 대궐을 범하니	梟獍犯闕
국사는 허둥대고	國事蒼黃
종묘가 엎어졌도다	廟貌顛倒
험한 길의 행색이여	三巴行色

50 과하(胯下) : 가랑이 밑이라는 뜻으로, 한나라 개국 공신으로서 삼걸(三傑)의 하나인 한신을 비유한 말인데, 그가 회음(淮陰) 땅에서 한 청년의 가랑이 밑을 엉금엉금 기어서 태연히 빠져나온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천한 신분의 정충신을 말하는 것 같다.

51 소하(蕭何) : 폐현(沛縣) 사람으로 유방(劉邦)을 도와 한(漢)나라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항우(項羽)와의 전쟁 때 군대와 식량을 확보하고 제공하여 일등 공신이 되었다. 선정을 베풀었으나 만년에 한 고조의 의심을 받아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사기(史記)》 53권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참조. 여기서는 정충신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백사 이항복을 가리킨 듯하다.

52 효경(梟獍) : 효(梟)는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 종류의 새이고, 경(獍)은 파경(破獍)이라는 호랑이 종류의 맹수로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어가가 초초했도다	翠華草草
그 당시에 우리 공이	維時我公
원수부에 예속하여	屬隸帥府
몸을 던져 홀로 맞서	挺身獨當
흉한 무리 섬멸했도다	卒殲凶醜
요사한 기운 말끔히 씻어	豁妖澄袪
금악에서 어가를 맞아	迎鑾錦岳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再造邦家
일개 충용의 덕이로다	一介忠勇
업적을 기상 <sup>53</sup> 에 기록하고	樹績旂常
공명을 이징 <sup>54</sup> 에 새겼으니	銘功彝鼎
세상에 혁혁한 훈명	赫世勳名
누가 공보다 나으랴	孰出公右
아 나와 동병상련하며	嗟余同病
정분이 평소에 있어	分義有素
사생으로 맹세하고	許以死生
또한 사돈 맺었으니	又結婚媾
양가의 교분이여	兩家交契
쇠도 끊을지로다	其利斷金

53 기상(旂常) : 기(旂)는 교룡(交龍)을 그린 깃발이고, 상(常)은 일월(日月)을 그린 깃발인데, 옛날 국가에 훈공이 있는 신하의 이름을 이 깃발에 기록하여 그 공적을 기렸다.

54 이징(彝鼎) : 종묘(宗廟)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로, 이(彝)는 술항아리이고 징(鼎)은 솥이다. 옛날에는 큰 공을 세우면 그 일을 제기에 새겨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다.

한평생 좋건 곳건	夷險平生
공정 <sup>55</sup> 일심이로다	共貞一心
어이 알았으랴 우리 공이	豈料我公
필경 이런 병 있을 줄을	竟有斯疾
실로 하늘이 내신 덕이니	實天生德
아픈들 약이야 없으랴만	雖痛勿藥
신음한 지 오래되어	鬪蟻沈綿
일어날 수 없었도다	終至不起
하늘이 왜 안 남겨 두고	天胡不憐
이리 속히 앓아가는고	速奪如此
금성탕지 <sup>56</sup> 를 잃었으니	金湯已失
방비를 뉘게 맡길거나	鎖鑰誰寄
공과 함께 조석으로	期公朝暮
남녘에 깃발 세우고	樹節南紀
폐관에서 서로 만나	相逢弊館
하룻밤을 이어 가며	繼以一夕
옥당의 금궤 <sup>57</sup> 에서	玉堂金匱
병략의 가르침 청하였도다	請教兵略
누가 오늘을 기약했으랴	誰期此日

55 공정(共貞) : 함께 바르게 한다는 말로, 《서경 낙고편(洛誥篇)》을 보면,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바르게 하자.” 한 말이 있다.

56 금성탕지(金城湯池) : 쇠로 만든 철옹성과 필필 끓는 물로 채워진 해자(垓子)라는 뜻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지를 말하는바, 여기서는 錦南君을 말한다.

57 금궤(金匱) : 국가의 비서(秘書)를 간직한 궤이다.

붉은 만장이 먼저 날릴 줄	丹旄先飛
눈물 훔치며 상여줄 맞으니	掩淚迎紼
꿈이던가 생시던가	夢耶非耶
인생이 이에 이르러	人生到此
천도를 어이 논하랴	天道寧論
나라에서 홀전 <sup>58</sup> 이 있어	國有恤典
영예로운 제사 향기롭도다	寵祀芳芬
변변찮은 것 헤아리지 못하고	不諒菲薄
감히 서글픈 혼령 위로하니	敢慰哀魂
영령이 계신다면	不昧者存
와서 흠향하소서	庶幾來歆
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흠향하소서	尙饗

---

58 홀전(恤典) : 관리들이 죽었을 때에 나라에서 철조(輓朝)를 하거나, 장례 비용의 일부를 대 주는 일이나, 또는 그 밖의 사제(賜祭)·배향(配享)·추봉(追封)·수비(樹碑)·입방(立坊)·건사(建祠) 따위를 해 주는 일을 말한다.

## 만시 挽詩

최 완성<sup>59</sup> 명길

崔完城 鳴吉

고려 부원수의 가문 명성 무궁커니	麗朝副帥家聲遠
당대의 큰 공로에 은전이 새롭도다	當代元功寵典新
나이 아직 굳세어 묘략에 의지커늘	年紀尙強憑妙略
흉노를 못 멸한 채 이 사람 잃었도다	凶奴未滅失斯人
어포로 수의하여 성은이 후하건만	御袍爲襪君恩重
곡식을 쌓지 않아 후손은 가난하도다	擔石無儲後嗣貧
천고의 정신은 응당 영원하려니와	千古精神應不泯
안봉이 우뚝 가을 하늘에 솟았도다	鞍峯突兀插秋旻

---

59 최 완성(崔完城)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1586~1647)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고,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며 전란 후 피폐한 정국 안정에 힘썼다. 영의정(領議政) 등을 지냈다.

이 완풍<sup>60</sup> 서

李完豐 曙

강호에 영준한 호걸이 나와	湖海英豪出
큰 공으로 사직을 지켰도다	鴻功社稷存
설산에 세 번이나 중임을 맡고	雪山三掌重
기린각에 한 몸이 존귀하도다	麟閣一身尊
임금의 은총에 애영이 지극하고	君寵哀榮極
가문의 명성에 후사가 성하도다	家聲後嗣蕃
쓸쓸히 벗님네를 생각하니	淒涼朋舊意
어디서 혼백을 불러 불거나	何處可招魂

---

60 이 완풍(李完豐) : 이서(李曙, 1580~1637)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이자 목사 이경록(李慶祿)의 아들이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 때 김류(金瑬), 이귀(李貴) 등과 함께 공을 세워 호조 판서가 되고 정국 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에 봉해졌다.



구 능성<sup>61</sup> 굉

具綾城 宏

아 그대와 의기가 상통하더니	嗟君意氣堪傾許
곤곤 풍진에 백발이 쇠혔도다	袞袞風埃白髮侵
용마 간에 공명은 유사의 행로이고	戎馬功名儒士行
사생 간에 충효는 장부의 마음이라	死生忠孝丈夫心
위대한 몸 쓸쓸히 황천에 묻히고	長身寂寞埋泉壤
지난 자취 아련히 고금에 멀도다	往跡微茫隔古今
날 저무는 강남에 방초 푸르거니	日暮江南芳草綠
자고새 우는 데 물과 구름 깊도다	鷓鴣聲裏水雲深

---

61 구 능성(具綾城) : 구굉(具宏, 1577~1642)으로,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인보(仁甫), 호는 군산(群山)이며,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오라비이다. 1608년(선조41)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 등을 지내다가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으며, 각 조의 판서와 오위도총부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장 신평 유

張新豐 維

서석이 빼어난 영기를 내러	瑞石鍾靈秀
영재가 무리 중에 나왔도다	英才出等夷
높은 나무에 옮겨 굳센 깃 닦고	遷喬刷勁翮
천리마에 붙어 앞질러 달렸도다	附驥軼高馳
홀로 병법의 비밀을 터득함에	獨達韜鈴祕
모두 작달막한 자태를 칭했도다	皆稱短少姿
일찍이 외국에 사신 가니	曾充絕域使
먼 데 사람이 알아봤도다	贏得遠人知
큰 도적이 궁궐을 엿보고	大盜窺丹極
살별이 섬돌에 떨어졌도다	妖星隕玉墀
공이 흉한 무리를 소탕하여	公能掃醜孽
한번 싸워 도성을 수복했도다	一戰復京師
대려의 훈맹 <sup>62</sup> 이 중하거니	帶礪勳盟重
깃발과 명망 실로 부합하도다	旌旄望實宜
은혜 깊고자 국공진취 <sup>63</sup> 기하더니	酬恩期盡瘁
병들어 홀연히 멀리 하직하도다	嬰疾遽長辭

62 대려(帶礪)의 훈맹 : 황하가 허리띠처럼 좁아지고 태산이 솟듯처럼 작게 되도록 공신의 집안을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는 맹세로, 산려하대(山礪河帶)의 준말이다.

63 국공진취(鞠躬盡瘁) : 마음과 몸을 다 바쳐 나라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뜻한다. 제갈량의 <후출사표(後出師表)>에 “신은 몸과 마음을 나라에 다 바쳐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臣鞠躬盡瘁 死而後已]”라는 말이 나온다.

적막한 곳에 보검을 감추고  
쓸쓸하게 거목이 시들도다  
흉노를 언제나 멸할런가  
정상<sup>64</sup>을 만인이 생각하도다  
무덤은 기련<sup>65</sup>과 나란히 하고  
이름은 한간<sup>66</sup>에 전하리로다  
모르겠도다 기린각에  
누가 이어 도사를 쓸런가

寂寞清霜閣  
蕭條大樹萎  
凶奴幾日滅  
精爽萬人思  
塚與祈連竝  
名應汗簡垂  
不知麟閣上  
誰繼卽圖詞

---

64 정상(精爽) : 만물에 근원을 이루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말한다.

65 기련(祈連) : 기련산(祈連山), 중국 감숙성(甘肅省)과 청해성(青海省) 경계에 있는 해발고도 고산(高山)이다. 기산(祈山) 또는 천산(天山)이라고도 한다.

66 한간(汗簡) : 옛날 종이가 없었던 시대에는 문서를 쓰기 위하여 푸른 대를 불에 구워 진을 뺀 땀조각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한청(汗靑)' 또는 '한간'이라고 한다. 전하여 문서, 서적, 또는 역사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 이 연양<sup>67</sup> 시백

李延陽 時白

옛적 나의 금남 친구여	昔我錦南友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는가	今朝逝安適
소년 시절 붓을 던지고 <sup>68</sup> 뜻하여	妙年投筆志
이름이 끝내 기린각에 빛났도다	名終耀麟閣
지위는 부원수에 올랐건만	位躋元戎亞
가업은 되레 빈한하였도다	家業轉薄落
준마로 넘치는 재능을 펴니	騏驎展餘才
하늘이 속히 앗는 것 같도다	如向天奪速
예장이 우악함 알겠거니	賜葬知異渥
겉에서 엄할 옷 내렸도다	斂衣自宸極

67 이 연양(李延陽) : 이시백(李時白, 1581~1660)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돈시(敦詩), 호는 조암(鈞巖),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아버지는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이며, 성혼(成渾)·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1636년(인조14) 병조 참판으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하였는데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서성장(西城將)으로 성을 수비했다. 병조 판서·한성 판윤 등을 거쳐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이 되었다.

68 붓을 던지고 : 종군(從軍)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반초(班超)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항상 남에게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붓을 내던지면서 말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이라도 본받아서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붓과 벼루 사이에서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大丈夫無它志略, 猶當效傅介子 張騫, 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事筆研間乎?]”라고 하더니, 뒷날 과연 절부(節符)를 쥐고 서역(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조정의 명에 애면글면 공손히  
부리는 바에 잇달아 좃았도다  
절절히 초려를 바라보는 회포여  
그리워 지난 일 생각할 뿐이로다  
이제 돌이켜도 방불하지 않고  
필묵의 자취만 남았도다  
아득한 저 서산 무덤길이여  
서글피 한바탕 길게 곡하도다  
이 통곡 어이 사적인 정 때문이라  
오랑캐가 바야흐로 틈을 엿보도다

睚勉恭朝命  
行行從所役  
徒切望廬懷  
依依想所歷  
今還無髣髴  
唯餘翰墨跡  
邈彼瑞陵路  
哀哀一長哭  
此哭豈獨私  
西羯方埃隙

## 이 지사<sup>69</sup> 현영

李知事 顯英

한신이 한번 소 상국 <sup>70</sup> 만나	淮陰一遇蕭相國
천하에 둘도 없는 선비를 알았도다	始知天下無雙士
상투 틀고부터 군문에 발탁되니	自從結髮擢行伍
날쌔고 영명하기 누가 이 같으랴	精悍英明誰得似
남쪽으로 부산 서쪽으로 오랑개	南走釜山西虜窟
가슴 속에 적의 정세 환하였도다	敵情了了方寸裏
촌뜨기 미친 역적이 흉계를 꾸며	無何狂賊稔凶計
안주성의 늙은 자사 질리게 하니	辟易安戎老刺史
천리를 지키다가 기회를 잃자	相持千里失期會
왕께서 창황히 한강을 건넜도다	翠華蒼黃渡漢水
묘책으로 북산 고지 먼저 차지해	妙算先據北山高
흉도를 굽어보니 개미 떼 같았도다	俯視凶徒如穴蟻

69 이 지사(李知事) : 이현영(李顯英, 1573~1642)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경(重卿), 호는 창곡(蒼谷)·쌍산(雙山)이다. 광해군 때 교동 현감(喬桐縣監)으로 있던 중 이이첨(李爾瞻)으로부터 그곳에 유배 중인 임해군(臨海君)의 암살을 종용 받았으나 불응하다가 투옥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양근(楊根)에서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군사와 싸웠으며, 이후 청음과 함께 심양(瀋陽)에 가서 한 달 동안 감금되었다가 돌아오던 중 평양에서 죽었다.

70 소 상국(蕭相國) : 한 고조(漢高祖)의 정승 소하(蕭何)이다. 패현(沛縣) 사람으로 유방(劉邦)을 도와 한(漢)나라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항우(項羽)와의 전쟁 때 군대와 식량을 확보하고 제공하여 일등 공신이 되었다. 선정을 베풀었으나 만년에 한 고조의 의심을 받아 불우한 생활을 보내다가 병으로 죽었다. 《사기(史記)》 53권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참조.

아침나절 못 가 나쁜 기운 소탕하니  
 원릉의 기쁜 기색 반공에 붙었도다  
 천지를 정돈함은 누구의 힘이던가  
 큰 공적 사양하니 성대한 일이로다  
 산하에 맹세하고 퇴곡<sup>71</sup>을 받들어  
 흥은에 보답하려 죽기를 기했도다  
 흉노를 못 멸한 채 명장을 잃었으니  
 연연<sup>72</sup>에 비석 새겨 탄식할 뿐이로다  
 칙서로 송종<sup>73</sup>하여 비단 도포 새로우니  
 지하의 충혼이여 골수에 새기리라  
 변방의 북소리가 가을을 경계한들  
 구천이 아득한데 어떻게 일어나라

掃清氛祲不崇朝  
 園陵喜氣半天紫  
 整頓乾坤是誰力  
 克讓元功亦盛事  
 山河盟罷膺推轂  
 報答鴻私期一死  
 凶奴未滅失名將  
 勒石燕然嗟已矣  
 紫泥崇終錦袍新  
 地下忠魂應刻髓  
 塞上鼙鼓倘警秋  
 九原茫茫寧可起

71 퇴곡(推轂) : 수레의 살을 미는 것으로, 옛날 임금의 장수를 보낼 때 스스로 수레를 밀어주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72 연연(燕然) : 산 이름이다. 후한(後漢) 두헌(竇憲)이 국경을 자주 침입하던 흉노족을 크게 무찌르고 연연산(燕然山)에 올라 그 공을 비석에 새겼는데, 반고(班固)가 그 명(銘)을 지었다. 《後漢書 卷23 竇融列傳 竇憲》

73 송종(崇終) : 죽은 사람을 높인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임금이 치제(致祭)하거나 시호(諡號)를 정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김 우윤<sup>74</sup> 대덕

金右尹 大德

자고로 영웅이 어이 씨가 있을쏘냐	自古英雄寧有種
둘도 없는 국사로서 떨쳤음을 알도다	從知國士擅無雙
팔로 부원수를 다뤄 우러르거늘	爭瞻八路副元帥
삼군의 대장기를 홀로 안았도다	獨擁三軍大將幢
보루에서 요기를 없애리라 맹세하고	郊壘誓令妖祲豁
사장에서 좌현 <sup>75</sup> 의 항복 받으려 하였도다	沙場擬見左賢降
아 한 번의 병 울분으로 인함이여	堪嗟一疾緣憂憤
산하에 기를 떨쳐 장한 나라 이를 텐데	氣作山河壯我邦

간기 <sup>76</sup> 로 당당하게 무리 중에 확 뛰어나	間氣堂堂獨出群
-------------------------------------	---------

---

74 김 우윤(金右尹) : 김대덕(金大德, 1577~1639)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득지(得之), 호는 소봉(蘇峰)·이안당(易安堂)이다. 승문원 정자·예관 검열·충청도 도사·서산 군수·한성부 좌윤·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폐모론에 극력 반대하다가 삭직(削職) 당하였다. 인조반정 후 사간이 되었고, 그 후 형조 참판에 이르렀다.

75 좌현(左賢) : 좌현과 우현(右賢)은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흉노족의 선우 아래에 있는 최고위직이다. 한 무제 원수(元狩) 4년(기원전119)에 표기장군(驃騎將軍) 광거병(霍去病)이 수십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대군(代郡)으로 나가 좌현왕과 접전을 벌인 끝에 7만여 명의 적을 죽인 다음, 낭거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漢書 卷6 武帝本紀》

76 간기(間氣) : 세상에 드문 영결의 기운을 뜻한다. 예전 중국에서는 5백 년에 한 사람씩 큰 성인(聖人)이 난다고 하였다. 5백 년간의 정기(精氣)가 모여서 한 성인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간기는 5백 년간의 간(間)과 정기라는 기(氣)를 합한 것으로 성어(成語)가 되어 있다.



일찍이 원수 따라 흉한 기운 쓸었도다	曾隨元帥掃凶氛
황석 <sup>77</sup> 에게 책을 받아 큰 계책 지니고	書傳黃石持長算
운대 <sup>78</sup> 에 형상이 늙은 큰 공훈 세움이라	形入雲臺樹大勳
십 년간 창과 방패 전벌에 수고롭고	十載干戈勞戰伐
일신은 남북으로 충성을 다했도다	一身南北盡忠勤
흉노를 못 멸한 채 영웅이 떠나가니	凶奴未滅英雄逝
기련산 <sup>79</sup> 본뜬 형상 서너 척 봉분이라	謾像祈連數尺墳

시와 예에 깊고 밝다 풍문을 들었더니	敦詩說禮久聞風
빼어난 자태 한번 보고 마음 위로됐도다	一見英姿慰我衷
완대 경구로 진정을 꾀하고	緩帶輕裘惟鎮靜
단심 백발은 정충일 뿐이로다	丹心白髮只精忠
회포는 늦도록 허리춤 검에 맡기고	襟期晚托腰間劍
소식은 때로 기러기한테 들었도다	音信時憑塞上鴻
우정으로 말하건대 진되는 다르지만	交道敢言趨舍異
흉보에 나도 모르게 슬픔이 한없도다	承凶不覺慟無窮

77 황석(黃石) : 진(秦)나라 말기의 은사, 병법가이다.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에 따르면, 장량(張良)에게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하여 장량은 그것을 읽고 한(漢) 고조(高祖)의 천하 평정(平定)을 도왔다고 전하며, 후세에 그가 지었다는 《소서(素書)》와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이 전해진다.

78 운대(雲臺) : 후한 명제(明帝) 때 등우(鄧禹) 등 전대(前代)의 명장 28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걸어 놓고 추모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이다.

79 기련산(祈連山)……봉분이라 : 장군의 묘를 말한다. 한(漢) 나라의 광거병(霍去病)이 흉노(匈奴)가 천산(天山)이라고 부르는 기련산까지 진출했었는데, 그가 죽자 황제가 애도하면서 그의 봉분을 기련산의 모양을 본떠 만들도록 했으므로, 이후 장군의 무덤을 기련총(祁連塚)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史記 卷111》

유 사성<sup>80</sup> 성증

俞司成 省曾

당당한 기상은 이목을 솟게 하고	堂堂意氣聳人看
문무를 겸한 재능 약관부터로다	文武全才自弱冠
위북의 명성은 관할을 넓히고	渭北聲名推管轄
안서의 풍망은 등단을 도왔도다	安西風望屬登壇
기린각에 초상 그려 공 비할 데 없고	繪形麟閣功無比
산해관에 책략 펼쳐 힘을 다했도다	展略榆關力已殫
바라보니 이내가 바닷가에 말장고	佇見煙塵清海徼
들리거니 나라는 울타리 잃었다오	忽聞邦國失屏翰
군왕은 탄식하고 삼군이 울먹이며	君王歎息三軍泣
부곡이 처량하게 거목이 시들도다	部曲淒涼大樹殘
의리의 동갑내기 집불 <sup>81</sup> 을 어겨	義忝同庚愆執紼
옥성에서 돌아보며 눈물 하염없도다	玉城回首淚洑瀾

80 유 사성(俞司成) : 유성증(俞省曾, 1576~1649)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자수(子修), 호는 우곡(愚谷)·요곡(拗谷)이다. 벼슬은 동부승지(同副承旨)·강원 관찰사(江原觀察使)·예조 참의(禮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81 집불(執紼) : 장례를 지낼 때 절친한 조객(弔客)들이 손수 상여끈을 잡아끌며 돕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례에 참여하여 장송(葬送)하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장례를 도울 때는 반드시 상여끈을 잡는다.[助葬, 必執紼]”라고 하였다.

정 기옹<sup>82</sup> 홍명

鄭崎翁 弘溟

태어나서 사방을 경륜할 뜻 가졌더니	墮地桑蓬志四方
등단하여 계극 <sup>83</sup> 으로 군사를 거느렸도다	登壇槩戟領戎行
충성으로 소매 떨쳐 사직을 안정하고	孤忠奮袂能安社
만년에는 병을 앓아 자리에 누웠도다	暮境沈痾久在床
기린각 초상화에 상쾌함 넉넉하고	麟閣畫圖餘颯爽
용양 <sup>84</sup> 옛 언덕에 황량함을 보도다	龍驤墟壘望荒涼
평생 허여하기 공만 한 이 드물거니	平生許與如公少
속으로 긴 슬픔 엮어 짧은 시 쓰도다	暗結長悲寫短章

82 정 기옹(鄭崎翁) : 정홍명(鄭弘溟, 1592~1650)으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子容), 호는 기암(崎庵)·삼치(三癡),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넷째 아들로 송익필(宋翼弼)과 김장생(金長生)에게 배웠다. 병조 참지·대사성·김제 군수·이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1626년(인조4)에는 김류(金瑬)의 종사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병자호란 때에는 전라 의병장으로서 공주까지 올라왔으나 전쟁이 끝나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제학을 지냈다. 《기암집》·《기옹만필(崎翁漫筆)》 등의 저술이 있다.

83 계극(槩戟) : 적흑색 비단으로 짠 나무창으로, 고대에 관리가 쓰던 의장의 일종이다. 출행할 때 맨 앞의 병사가 이 창을 들고 전도(前導)가 되며, 임소(任所)에 당도한 뒤에는 문정(門庭)에다 세워 둔다.

84 용양(龍驤) : 서진(西晉)의 용양장군(龍驤將軍) 왕준(王濬)이 수군을 이끌고 오(吳)나라를 정벌하여 금릉(金陵)을 함락시킨 고사가 있다. 《晉書 卷42 王濬列傳》 여기서서는 가도의 유흥치를 정벌하기 위하여 정충신이 부원수가 되어 수군을 지휘하던 곳을 말한 것 같다.

## 정 참의<sup>85</sup> 광성

鄭參議 廣成

생각건대 임진년에 난리를 만나	憶昔壬辰看亂離
유년에 분문 <sup>86</sup> 하여 기특함 날렸도다	幼年奔問效揚奇
시에 깊고 <sup>87</sup> 예에 밝아 원수에 걸맞고	敦詩說禮堪元帥
적을 쳐서 나라 회복 성은을 입었도다	平賊收京荷聖私
서변에서 창을 베고 몸은 반쯤 늙고	西塞枕戈身半老
남주에서 띠 늦추자 병이 막 급했도다	南州緩帶病初危
평생의 백우선 <sup>88</sup> 이 이제 떨어지니	平生白羽今零落
누 알라 동갑내기의 한없는 슬픔을	誰識同庚不盡悲

85 정 참의(鄭參議) : 정광성(鄭廣成, 1576~1654)으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수백(壽伯), 호는 제곡(濟谷)이다. 선조 때에는 삼사의 현직(顯職)을 역임하였으며, 인조 때 남양 부사(南陽府使), 경기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향리에 물러가 있었다. 효종 때에는 형조 판서를 지냈다.

86 분문(奔問) : 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서 문후(問候)하는 것을 말한다. 주(周)나라 양왕(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나라 시골 마을인 범(汜)에 머물면서 노(魯)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께서 도성 밖의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관수에게 문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天子蒙塵于外 敢不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僖公 24年》

87 시에 깊고 : 원문의 ‘敦詩’는 문맥이 통하지 아니하여, 역자가 ‘敦詩’로 고쳐 번역하였다.

88 백우선(白羽扇) : 백조(白鳥)의 깃으로 만든 부채로, 고대(古代)에 주장(主將)이 군중(軍中)에서 작전(作戰)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였다.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이 사마의(司馬懿)와 대전(對戰)할 때 소거(素車)를 타고 갈건(葛巾)을 쓴 채 백우선을 손에 쥐고 삼군(三軍)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蜀中廣記 卷68》

## 정태화<sup>89</sup>

鄭太和

소년에 충용으로 초야에서 일어나	早年忠勇起蓬蒿
만년에 은총으로 절모 <sup>90</sup> 를 안았도다	晚歲恩榮擁節旄
묘책 내어 사직 받쳐 일찍이 의지하고	曾賴出奇扶社稷
난에 임해 영호 잃어 함께 탄식하도다	共嗟臨亂失英豪
처량한 초상화는 기린각을 비추고	悲涼畫照麒麟閣
적막한 가슴에 호표도 <sup>91</sup> 를 간직도다	寂寞胸藏虎豹韜
천 년 해동에 이름 닳지 아니하고	千載海東名不朽
빛나는 청사에 공훈을 기록하도다	炳然青史記勳勞

한번 만나 망년교 <sup>92</sup> 로 날 아니 버리고서	一見忘年不我遺
물과 같은 친교로 귀히 서로 알았도다	結交如水貴相知
서새에 싸움 임해 서찰을 전하였고	臨戎西塞傳書札

89 정태화(鄭太和) : 1602~1673. 인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래(東萊)로, 효종(孝宗)의 부마인 정재륜(鄭載崙)의 생부. 뛰어난 문재(文才)와 바른 처신으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고, 영의정(領議政) 재임 시 예송(禮訟) 논쟁, 대동법(大同法) 시행 등의 국무를 처결하였다.

90 절모(節旄) : 임금이 사신에게 주는 깃발을 말한다. 한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19년 만에 돌아올 때, 절모가 너덜너덜했다고 한다. 《漢書 卷54 蘇建傳 蘇武》

91 호표도(虎豹韜) :姜태공(姜太公)의 육도(六韜)·삼략(三略) 중에 호도(虎韜)·표도(豹韜)가 있다.

92 망년교(忘年交) : 친구는 대개 나이를 따져서 친해지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를 묻지 아니하고 친해지는 수가 있으니 그것을 망년교라 한다.

남주에 분곤<sup>93</sup>할 적 이별 서글웠도다  
서울에서 또 만날 적 반가운 날이었고  
베개 곁에 마주할 적 고명한 시절이라  
삼경 내리는 비에 호서 길 혼미한데  
곡하고 만장 보내며 홀로 슬퍼하도다

分闕南州惜別離  
洛下更逢青眼日  
枕邊唯對白眉時  
三更積雨迷湖路  
哭送丹旌獨抱悲

---

93 분곤(分闕) : 장수(將帥)가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으로 나가서 군무(軍務)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장수를 뜻한다.

## 나만갑<sup>94</sup>

羅萬甲

정승 <sup>95</sup> 의 문하에서 일찍이 인정받아	相國之門早受知
마침내 불세출의 큰 공을 세웠도다	終教不世樹勳奇
한평생 원개 <sup>96</sup> 의 춘추 성벽이요	平生元凱春秋癖
다부진 사공의 단소한 자태로다	精悍司空短小姿
서남에 정절로 변방을 안정할새	旌節西南邊塞靜
존몰에 애영으로 성은을 내리도다	哀榮存沒聖恩垂
서산의 송백을 인근에 길렀다가	富城松柏長隣近
훗날 지하에서 증유를 기하리라	他日從遊地下期

---

94 나만갑(羅萬甲) : 1592~1642.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몽뢰(夢賚), 호는 구포(鷗浦)이다. 1613년(광해군5)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유폐(西宮幽閉) 사건이 일어나자 낙향하였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 후 다시 출사하였는데, 이때 노서(老西)인 김류(金瑬)가 북인(北人)인 남이공(南以恭)을 추천 등용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강동 현감(江東縣監)으로 좌천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왕을 모시고 강화(江華)로 피난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과 강화(講和) 후 무고(誣告)로 남해에 유배되었다. 1639년 유배에서 풀려나 영주(榮州)에서 죽었다. 저서에 《병자록(丙子錄)》, 《구포집(鷗浦集)》이 있다.

95 정승 :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선생을 가리킨다.

96 원개(元凱) : 진(晉)나라 두예(杜預, 222~284)로, 자가 원개이다. 진 무제(晉武帝) 때의 명장으로 진남대장군(鎮南大將軍)이 되어 오(吳)를 쳐서 평정하였으며, 학문에 조예가 깊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매우 좋아하여 《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 및 《춘추장력(春秋長歷)》을 지었다. 《晉書 卷34 杜預列傳》

## 신 찰방<sup>97</sup> 이우

申察訪 易于

밝은 시대의 부원수어	昭代副元帥
영명한 자질 무신에 으뜸이라	英才冠武臣
공로를 사직에 바치거늘	勳勞輸社稷
풍채를 기린각에 그렸도다	神彩畫麒麟
이역에 화친을 끊음에	異域和親絕
중원에 전쟁 잦았도다	中原戰伐頻
장성이 홀연히 무너지니	長城忽有圯
대궐에 슬픔이 맺히도다	哀悼結重宸
지난해 송정에서 만났는데	去年松亭會
문득 일장춘몽이라 놀랍도다	遽然一夢驚
화각에는 훈신의 명함 남아 있고	勳名在畫閣
장성에서 남은 성가귀를 쓸도다	遺堞掃長城
빗줄기 속에 장군수 어둑하고	雨暗將軍樹
하늘 아래 세류영 적막하도다	天空細柳營
평생의 눈물을 몇 번이나 움켜	平生數掬淚
강물 위 붉은 명정에 뿌리도다	江上灑丹旌

97 신 찰방(申察訪) : 신이우(申易于, 1576~?)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장(子長) 또는 자구(子久), 호는 도촌(道村)이다. 신광필(申光弼)의 아들로, 1612년(광해군4) 증광시에 합격했다. 이안눌(李安訥), 정충신(鄭忠信) 등과 교유하였다.



---

만  
운  
집

---

부  
록  
2  
권

---

年 世  
譜 系  
보 계



## 세계 世系

### 만운 선생 세계

晚雲先生世系

9대조(九代祖) 지(地).-고려의 명장으로 삼도절제체찰사(三道節制體察使)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8대조(八代祖) 경(耕).-본조(本朝)에 과거에 올라 자헌대부(資憲大夫) 행 칠도감사(行七道監司)이다.-

7대조(七代祖) 종(種).-문과에 올라 통정대부(通政大夫) 제주 목사(濟州牧使) · 참판(參判)에 이르렀으며, 원종 일등 공신(原從一等功臣)이며, 시호는 양양(良讓)이다.-

6대조(六代祖) 서(鋤).-문과에 올라 통정대부 한림(翰林)으로서, 고을로 가기를 청하여 함평 현감이 되어 부모 봉양에 성효(誠孝)를 다하였다.-

5대조(五代祖) 획(穫).-통정대부 무안 현감(務安縣監)을 지냈다.-

5대조비(五代祖妣) 광산 김씨(光山金氏)는 강계 부사(江界府使) 호

(溟)의 딸이다.

고조 원종(元宗).-문과에 올라 통훈대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다.-

고조비(高祖妣) 신평 송씨(新平宋氏)는 지평(持平) 석구(碩耆)의 딸이다.

증조 천(荐).-통정대부(贈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행 통훈대부 임피 현령을 지냈다.-

증조비(曾祖妣) 나주 오씨(羅州吳氏)는 증 숙부인(贈淑夫人)이다.

조부 석주(錫柱).-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이다.-

조비(祖妣) 광산 김씨(光山金氏)는 증 가선대부(贈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하정(夏鼎)의 딸이다.

아버지 윤(倫).-증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금천군(錦川君)이다.-

어머니 영천 이씨(永川李氏)는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으로, 어모 장군(禦侮將軍) 인조(仁祚)의 딸이다.

## 연보 年譜

### 만운 선생 연보

晚雲先生年譜

증 승정대부(贈崇政大夫) 판돈녕부사 겸 판의금부사(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 행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行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오위도총부 도총관 겸 팔도부원수(五衛都摠府都摠管兼八道副元帥) 금남군(錦南君) 시(諡) 충무(忠武) 정충신(鄭忠信) 공의 자(字)는 가행(可行), 자호(自號)는 만운(晚雲)이다. 참판공으로부터 공까지 3세(三世)가 정병(正兵)<sup>1</sup>으로서 병영의 진무(鎭撫)가 되었으며, 다시 본주(本州)의 지인(知印)<sup>2</sup>이 되었다.

만력(萬曆) 3년 을해년(1575, 선조8) 1세.

· 12월 29일 자시(子時 밤 11시~오전 1시)에 공이 광주의 옛 향교동에서 태어났다. -병자년(1576) 입춘(立春)이 을해년(1575) 12월 27일에 들었으므로 나이를 병자생으로 행세하였다. - 자라서는 작은 키에 다부진 기질로 눈은 반짝이는 별 같았다.

1 정병(正兵) : 군에 입대하여 정규군으로서 복무하는 자로, 정군(正軍)을 말함.

2 지인(知印) : 지방관의 관인(官印)을 보관하고 날인(捺印)하는 일을 맡던 토관직(土官職)을 말한다.

· 공이 어려서 병영(兵營)에 입번(入番)하여 일찍이 노기(老妓)의 집에 묵었다. 어느 날 노기가 병사(兵使)의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게 하였다. 공이 물리치며 먹지 않고 말하기를, “대장부가 마땅히 스스로 병사가 되어 진수성찬을 먹을 것이거늘, 어찌 남의 턱 아래 물건을 먹겠는가?” 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 18세.

· 당시에 왜구가 대거 침입하였다. 원수(元帥) 권율(權慄)이 광주 목사(光州牧使)로서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게 되었다. 공이 정탐을 자청하여 몇 사람을 거느리고 갔는데, 왜군이 이미 진(陣)을 거두어 떠나가고 엮어진 독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공이 그 속을 의심하여 활을 당겨 맞히자 과연 병든 왜군 한 사람이 있어 화살을 맞고 고꾸라지므로 마침내 목을 베어 돌아오니, 사람들이 기특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 권공이 사람을 모집하여 본도의 왜적 토벌에 관한 사정을 행조(行朝)<sup>3</sup>에 보고하려 하였다. 그때 왜적이 팔도의 길을 가득 메워 길을 통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응모하는 자가 없었다. 공이 홀로 몸을 던져 가기를 청하여 낮에는 엮드리고 밤에는 행하여 수천 리를 걷고 건너 비로소 의주(龍灣)에 이르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상공(相公)이 불러 말을 나눠 보고는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마침내 막하(幕下)에 머물게 하여 《좌전(左傳)》·《국어(國

3 행조(行朝) : 임금이 파천(播遷)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을 가리키며, 행재소(行在所)라고도 한다. 당시 선조(宣祖)는 용만(龍灣), 즉 의주(義州)에 피난해 있었다.

語)》·《사기(史記)》 등을 가르치니, 총명함이 뛰어나 보았다 하면 문득 외우므로 백사가 매우 칭찬하였다.

- 선조(宣祖)의 명으로 의주에서 과거를 베풀어 본도(本道) 및 호종(扈從)하는 여러 신하를 위로하였는데, 공이 무과 병과(武科丙科)에 올랐다. 선조가 어느 날 이 상공에게 일컬어 말씀하기를, “정 아무개의 재주를 경의 말을 통하여 들었으니, 후일에 경이 데려오라.” 하였다. 이 상공이 마침내 공과 함께 입대하자 선조가 장유(獎諭)하며, “나이가 아직 어리다. 조금 장성하면 크게 등용할 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 23세

- 공이 부모상을 당하였다. 3년간 죽을 마셔 거의 실명(失明)할 지경에 이르렀다.

임인년(1602, 선조35) 28세

- 겨울에 주청부사(奏請副使) 장만(張晩) 공을 수행하여 연경(燕京)에 갔다.

정미년(1607, 선조40) 33세

- 가을에 함경 감사 장만 공을 따라 함흥의 막하(幕下)에 이르러 부성(府城) 쌓는 일을 감독하였다.

무신년(1608, 선조41) 34세

- 겨울에 조산 만호(造山萬戶)에 제수되어 이듬해 정월 6일 부임하

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1) 35세

- 11월 25일에 불하진 첨사(甫乙下鎭僉使)에 승차하여 30일에 부임하였다가 임자년 6월에 임기가 차서 체직되었다.

갑인년(1614, 광해군6) 40세

- 조정의 혼란을 보고 세상을 피할 뜻을 두어 광양(光陽)의 섬진강 서편에 집을 지었다.

을묘년(1615, 광해군7) 41세

- 포이 만호(包伊萬戶)에 제수되었다.

정사년(1617, 광해군9) 43세

- 통신사 군관으로 일본에 갔다. 그때 추탄(楸灘) 오 상국(吳相國)-오 윤겸(吳允謙)-이 상사(上使)가 되어, 공을 포이(包伊)<sup>4</sup>로부터 불러, 데리고 가기를 계청(啓請)하였다.-5월에 서울을 떠나 7월에 배를 타고 갔다가 11월에 서울로 돌아왔다.-
- 당시 소인배들이 광해(光海)를 충동질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하였다. 허균(許筠)·김개(金闔)·백대형(白大珩) 등이 선달그믐 나례(儼禮)<sup>5</sup>를 틈타 대사를 거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공이 능천

---

4 포이(包伊) : 포이포(包伊浦)는 조선 후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다.

5 나례(儼禮) : 음력 선달 그믐날 민가와 궁중에서 악귀를 쫓던 의식으로, 고려 정종(靖



(綾川) 구인후(具仁厚) · 청흥(靑興) 이중로(李重老)와 함께 밤에 3적(三賊)을 죽여 화근을 없애기로 하였으나, 마침 허균이 있지 아니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며 돌아왔다. 얼마 후에 허균 등의 모의가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무오년(1618, 광해군10) 44세

- 정월에 북청(北靑) 적소(謫所)로 백사 이 상공을 따라갔다. 5월에 이 상공이 졸(卒)하므로 공이 치상(治喪)하여 관을 모시고 포천(抱川)으로 돌아와 8월에 상을 치르고 심상삼년(心喪三年)<sup>6</sup> 복을 입었다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경신년(1620, 광해군12) 46세

- 정월에 부장[編裨]으로서 체찰사 장만 공을 따라 관서(關西)로 갔다.
- 2월에 조정에서 장차 공을 오랑캐를 정탐하도록 보내는 건을 경략

---

宗) 때 처음 시작되었다. 선달의 대나(大儺)는 광화문(光化門) · 흥인문(興仁門) · 숭례문(崇禮門) · 돈의문(敦義門) · 숙정문(肅靖門)에서 행하는데, 대체적인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관상감(觀象監) 관원이 나자(儺者)를 거느리고 새벽에 근정문(勤政門) 밖에 나가면 승지가 역귀를 쫓을 것을 계청한다. 왕의 율허가 떨어지면 관원이 나자를 인도하여 내정(內庭)으로 들어가서 서로 창화(唱和)하며 사방에다 대고 부르짖는다. 마치면 북을 치고 떠들면서 광화문으로 나온다. 사문(四門)의 성곽 밖에 이르면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미리 수탉과 술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자가 문을 나오려고 하면 문 가운데에 신(神)의 자리를 펴고 희생(犧牲)의 가슴을 갈라서 신의 자리 서쪽에 제사를 지낸다. 끝나면 닭과 축문을 땅에 묻고 예가 끝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는 기생 · 악공의 춤과 노래를 곁들인 오락으로 변하였다. 《高麗史 卷64 禮志 季冬大儺儀》《林下筆記 卷16 文獻指掌編 儺禮》

6 심상삼년(心喪三年) : 상복(喪服)을 입지는 않으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3년 동안 상인(喪人)처럼 근신하는 것이다.

(經略)<sup>7</sup>에게 자문(咨文)<sup>8</sup>으로 통지하고, 또한 체부(體府)<sup>9</sup>에 유지(有旨)를 내려 공에게 미리 채비하도록 하였다.

· 4월 24에 체찰사를 따라 송도(松都)로 돌아왔다.

· 11월에 창주 첨사(昌洲僉使)에 제수되어 당상(堂上)으로 승차하였다.

신유년(1621, 광해군13) 47세

· 2월에 만포 첨사에 제수되었다. 그때 삼남(三南)에서 편입된 방군(防軍)이 풍토와 맞지 않아 돌립병이 극심하여 강변에 출막(出幕)<sup>10</sup>한 자가 거의 1백여 인에 이르렀다. 공이 성안의 술을 대대적으로 구하여 강변에 늘어놓고 콩죽을 쑤어 각각 그들의 막사에 자신이 친히 임하여 먹였다. 모두 열이 내려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었으므로 본진(本鎭)의 기로(耆老)들이 지금도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삼남 사람들도 모두 덕을 칭송하였다.

· 조정의 명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오랑캐 조정에 갈 즈음, 상소하여 주문(奏聞)하도록 청하였다.-10월 19일에 오랑캐 소굴에서 돌이켜 의주의 압록강을 건너 용천(龍川)에 이르러 부총병(副總兵) 모문룡(毛文龍)을 입견(入見)하고 적정(敵情)을 알렸다.-

---

7 경략(經略) : 명(明)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보내면서 경략 조선 군무(經畧朝鮮軍務)라는 직(職)을 두어서 군사를 통솔하였다.

8 자문(咨文) : 조선 시대에 중국과 조회(照會) · 통보 · 교섭 등을 목적으로 왕래하던 외교 문서이다.

9 체부(體府) : 체찰사(體察使)가 군무(軍務)를 보는 관아이다. 체찰사는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그 지방에 가서 군무를 총찰(總察)하던 임시 벼슬이다.

10 출막(出幕) :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따로 장막(帳幕)을 치고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술년(1622, 광해군14) 48세

- 3월에 평안도 병마 좌우후(平安道兵馬左虞侯)에 제수되었다.-행 부사(行副司猛)으로서 제수된 것이다.-

계해년(1623, 인조1) 49세

- 3월에 공이 용만에 있었다. 그때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여 공에게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을 이참(莅斬)<sup>11</sup>하도록 명하고, 권영본부사(權領本府事)로 삼았다.
- 4월에 황조(皇朝)의 역 참장(易參將)을 접대하고 군병을 점검하였다. 조정에서 천장(天將)과 금인(金人) 양쪽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임기책응(臨機策應)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금강산 아래로 가서 역 참장을 만났는데, 행장이 처량하고 군병은 피곤하여 보기에 또한 측은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탕봉(湯鳳)에 순초(巡哨)<sup>12</sup>하는 적이 그 수가 많지 않으니, 요즈음 군사를 빌려 습격하여 취하려 합니다.”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근래에 간신이 나라를 맡아 백성을 거꾸로 매달린 형국이다가 새로 회복한 초기이니, 필수적으로 백성을 쉬도록 하여 연병(練兵)하여야 합니다. 우선 기다려 내년쯤에 천조(天朝)의 대병과 협동하여 금나라 소굴을 쓸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천균(千鈞)의 노(弩)를 가지고 한 마리 생쥐를 도모하여 쏘겠습니까? 허한 듯 실하고 실한 듯 허한 것이 병가(兵家)의 묘계이니, 우선 거두어 감추고 때를 살펴 움직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11 이참(莅斬) : 선전관(宣傳官)과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파견하여 죄수가 유배된 곳에서 참형(斬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순초(巡哨) : 돌아다니며 적의 동정이나 정세를 살핌.

하였다. 참장이 그럴듯하게 여겨 다시는 군사를 빌리는 일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답으로 장계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였다.

비록 권임(權任 임시직)에 있었지만, 정사가 매우 맑고 공평하여 의주의 기로(耆老)들이 지금껏 칭송하고 있다.

강변의 여러 읍(邑)을 거쳐 안주 목사 겸 방어사(安州牧使兼防禦使)로 이배(移拜)되었다.-날짜는 미상이다.-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하여 옷감 한 벌을 하사하고, 체차되자 읍민이 비석을 세워 덕을 칭송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 50세

· 2월 11일에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서 이괄(李适)을 경성의 안현(鞍峴)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처음 정월 14일에 문회(文晦)·이우(李佑) 등이 역적 이괄을 상변(上變)하였는데, 한명련(韓明璉) 및 이괄의 아들 전(梅), 명련의 아들 난(瀾)·윤(潤)의 이름이 모두 고변 가운데에 있었다. 22일에 선전관(宣傳官)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등이 이전과 한명련을 나포하러 왔다. 당시 이괄의 병력 12,000명 중에 항왜(降倭)<sup>13</sup> 130명이 있었다. 이괄이 바로 포진(布陣)하여 문을 열고 도사와 선전관 등을 참살하고, 이튿날 군사를 일으켜 반란하였다.

공이 마침 안주에 있었는데, 적에 관한 보고를 듣고 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달려갔다. 종사관(從事官) 김기종(金起宗)<sup>14</sup>이 말하기를,

---

13 항왜(降倭) : 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하여 귀화한 일본인을 말한다.

“안주 목사(安州牧使)는 중진(重鎭)이며, 또한 겸방어사(兼防禦使)입니다. 성지(城地)를 고수하여 적이 동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책무가 아무개에게 있는데, 지금 성을 버리고 왔으니, 군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원수(元帥)가 바로 잡아들여 죄를 물으려 하였다. 공이 검(劍)을 짚고 말하기를, “이 역적의 뜻은 경성(京城)으로 달려가는 데에 있으므로, 기필코 안주를 경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안주를 경유하더라도 (우리의) 군사가 적고 힘이 약하여 형세상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고립된 성을 고수하며 죽기보다는 부하로서 원수부(元帥府)의 명을 따르느니만 못할 것입니다.”<sup>15)</sup> 하였다. 원수가 말하기를, “네 말은 옳으나 적의 정세를 멀리서 헤아려서는 안 되고, 진(鎭)을 멋대로 떠나서도 안 된다. 급히 본 고을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리고 묻기를, “이 역적에게는 상·중·하의 세 가지 계책이 있다. 은자(銀子)와 인삼(人蔘)을 후하게 바쳐 모문룡(毛文龍)과 결탁하여 청천(淸川) 이복을 차지하고 여러 성을 통솔하여 일도(一道)를 호령함이 상책(上策)이고, 은밀히 오랑캐와 결탁하여 성세(聲勢)에 의지함이 중책(中策)이며, 셋길로 급히 달려 바로 경성으로 향함이 하책(下策)이다. 그대가 헤아리건대 어떠한 계책을 낼 것 같은가?”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기필코 하책을 낼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14 김기중(金起宗) : 1585~163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윤(仲胤), 호는 청하(聽荷)이다. 1618년(광해군10)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괄의 난 때 도원수 장만의 종사관으로서 무공을 세워 진무공신 2등으로 책훈되고 영해군(瀛海君)에 봉해졌다.

15 고립된……것입니다 : 원문의 ‘如其膠守孤城而死 不若聽部下調用’ 부분을 《大東野乘》〈續雜錄二〉의 趙慶男이 撰한 甲子 天啓四年仁祖二年條 내용 중 ‘與其膠守孤城而死 不若聽部下調用’을 인용하여 번역하였다.

순안(順安)에 이르러 적이 이미 개천(价川) 길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고 원수부에 보고하기를, “안주가 이미 적의 후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빈 성을 앉아서 지켜 적을 군부(君父)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막부(幕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니, 원수가 그 보고를 받아들였다. 정월 25일에 원수(元帥)가 평양에서 출병하였다. 이날 직성(直星)이 칠살(七殺)을 범하였는데, 논하는 자들이 병가(兵家)의 꺼리는 바라고 하여 곤란하게 여겼다. 공이 말하기를, “어찌 부모의 병을 듣고서 방위를 택하여 행하는 자가 있겠는가. 군사는 곧음으로써 사기가 왕성하거늘 어찌 기필코 고허(孤虛)나 배향(背向)의 설에 얽매이겠는가?” 하였다. 원수가 옳게 여겨 공을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삼고 여러 장수를 소속시켜 적을 추격하여 황주(黃州)의 신교(薪橋)에 이르렀다. 2월 2일에 적이 먼저 출병하였다. 관군 역시 진지를 떠나 평원(平原)에 주둔하여 진의 배열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을 때 적의 중영포수(中營砲手)가 한번 공포를 발사하고 나서 바로 우리 진으로 투항하고, 허전(許銓)과 송립(宋嶷) 역시 병마를 데리고 한꺼번에 귀순하였다. 관군이, 항졸(降卒)이 투항하러 오는 것을 보고, 적의 선봉이 진격해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마침내 흩어지고 또한 교전하다가 죽었는데, 공이 마침내 군사를 수습하였다.

원수가 김기종의 말을 받아들여 공과 남이흥(南以興) 공<sup>16</sup>에게 예전과 같은 직함을 띠고 입공자효(立功自效)<sup>17</sup>하게 하였다. 공이 또한

---

16 남이흥(南以興) : 1576~1627.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남유(南瑜)의 아들이다. 이괄(李适)의 난 때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정묘호란 때 안주성(安州城) 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자결하였다.

적을 막으며 과주의 혜음령(惠陰嶺)에 이르렀다. 그때 적이 이미 입성(入城)하였으므로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원수가 제장(諸將)을 모아 놓고 진격할 계책을 의론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제장(諸將)이 힘을 합쳐 적을 치지 못하여 적이 경성을 범하고, 군부(君父)가 피난하였으니, 죄는 만 번 죽어 합당합니다. 사태가 이미 급하므로 적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성패를 논할 것 없이 성 아래에서 일전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산(北山)을 먼저 점거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니, 관군이 안령(鞍嶺)을 점거하여 진을 친다면 그 형세가 당연히 도성을 굽어보며 압도할 것입니다. 도성 백성 중에 바라보는 자들이 원수의 대병이 이미 안령에 임한 것을 알면 그 형세에 기필코 함께 호응할 것이고, 또한 적이 불가불 출전하여 싸우면서 반드시 쳐다보고 공격할 것이니, 그 형편을 터득하여 진을 매우 견고하게 하면 적을 격파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수가 옳게 여겨 공과 남공에게 마침내 진격하여 안령에 진을 치도록 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때 적이 경복궁으로 들어가 점거하여 역적 이제(李璣)<sup>17</sup>를 추대하고, 충길(忠吉)을 대장으로 삼아 호위하였다.

2월 11일 아침에 적이 비로소 안령에 관군이 있는 것을 보고 군중에 영을 내려 식사를 일찍 준비하도록 하며 말하기를, “이것들을 갈겨

17 입공자효(立功自效) : 무슨 실수나 과오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을, 어떤 일이 있는 기회를 계기(契機)로 삼아 공을 세우는 데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제(李璣) : 선조(宣祖)의 서자(庶子)이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이들과 내통하여, 임금과 함께 공주(公州)로 피난 가는 도중에 일행을 빠져나와 이괄의 진중으로 도망갔다. 반란군이 서울에 입성하자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관군이 이기자 소천(昭川)으로 내려가 숨어 있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버리고 아침을 먹자.” 하고, 바로 성문을 열고 출병하여 묘시(卯時 오전5시~7시)부터 사시(巳時)까지 격전이 이어졌다. 적장 이양(李穰)이 탄환을 맞고서 떨어져 죽고, 한명련(韓明璉)은 화살을 맞고 퇴각하였다. 기타 적병은 진 앞에 고꾸라져 죽고 언덕에 추락하거나 냇물에 떨어져 죽은 자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다. 관군이 날뚝듯 추격하여, 형세가 건병(建甌)<sup>19</sup>과 같아, 일당십(一當十) 아님이 없었으므로, 적들이 목숨을 구하기에 겨를이 없어 여염으로 숨어들었다. 공이 군사를 독촉하여 추격해 들어가려 하자 남공이 저지하며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다행히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이에 이른 것이오. 하루를 지나지 않아 양 적(兩敵)의 머리가 이를 것이니, 끝까지 추격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우레에는 미처 귀를 가릴 틈도 없는 법, 이는 실로 급히 쳐서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오. 한명련과 이괄은 냇 나간 귀신같은 것들이거늘, 어느 겨를에 패배를 돌이켜 승리하겠소? 힘을 합쳐 쫓아가면 기필코 광통교(廣通橋)를 벗어나지 않고 체포할 수 있을 것이오.” 하였는데, 남공이 한사코 저지하였다. 그날 밤 이경(二鼓)에 적이 몰래 수구문(水口門)을 따라 달아났다. 공이 수십 기(騎)를 거느리고 경안교(慶安橋)까지 쫓아가자 적이 관군을 바라보고는 대병이 뒤에 있는가 하여 일시에 흩어졌다.

적의 군관 기익헌(奇益獻)·이수백(李守白) 등이 한명련·이괄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곧바로 행재소에 바치니, 인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원수(元帥) 이하 제장(諸將)이 모두 경성에 남아

---

19 건령(建甌) : 높은 지붕 위에서 병에 든 물을 쏟듯 유리한 정세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어가(御駕)를 맞이하였으나, 공은 바로 본진(本鎭)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공이 답하기를, “나는 서로(西路)의 군사를 거느린 신하로서 바로 반적(叛賊)을 주살하지 못하여 끝내 군부가 피난하고 적병을 입성(入城)케 하였으니, 그 죄가 큰데 어찌 감히 공이 있음을 자처하여 강가에서 어가를 맞이하겠는가? 마땅히 본진으로 물러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릴 따름이다.” 하였다.

- 2월 22일에 인조가 환도하여 공이 진(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성지(聖旨)를 내려 24일에 역마를 타고 오도록 부르니, 비로소 입조하였는데, 식자들이 옹게 여겼다. 백주(白洲) 이공(李公)<sup>20</sup>-이명한(李明漢)-이 <격적가(擊賊歌)>를 지어 찬미하였다.
- 3월 3일에 상감께서 인견(引見)함에 연안 부사(延安府使) 남이흥(南以興) 공과 함께 입대(入對)하였다. 상감께서 만나 조서를 내려 칭찬하고 술을 내렸다.
- 8일에 28인을 감훈(勘勳)<sup>21</sup>하여 공이 일등(一等) 제2인(第二人)에 처하였으며,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의 호(號)를 내리고
- 21일에 금남군(錦南君)으로 봉하였다.
- 7월 15일에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진질(進秩)<sup>22</sup>하고, 상(賞)을 더하는 교서(敎書)가 있었다.-살펴보건대 3월 21일에 봉군(封君)하고, 이때 품계를 이미 정헌대부로 가자하였는데, 이번에 교서를 내린 것이다.-

20 이공(李公) : 이명한(李明漢)으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아들이다.

21 감훈(勘勳) : 공훈(功勳)을 논정(論定)하는 것을 말한다.

22 진질(進秩) : 직질(職秩)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 공이 풍토와 맞지 아니하여 질병이 있었다. 감사(監司)가 보고하자 상감께서 특별히 약을 가져가 고치도록 내의(內醫)를 파견하였다.
- 8월 3일에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영변 대도호부사(平安道兵馬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에 배명(拜命)되자 공이 상소하여 고사(固辭)하였다.
- 12월에 안주(安州)의 횡탄(橫灘)에서 대조(大操)<sup>23</sup>를 거행하였다. 그때 본도 군병 및 첨방군(添防軍)<sup>24</sup>이 무려 1만여 명이였다. 조련을 마치고 군병 등의 각자 정장(呈狀)<sup>25</sup>이 있어 산처럼 쌓이고 해는 이미 기울었다. 공이 글에 능한 군관 및 영리(營吏) 등 십수 인(十數人)더러 앞에 줄지어 엎드려 읽고 고하게 하여 손수 재판하였다. 날이 아직 어둡기 전에 일시에 처리하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3) 51세

- 정월에 체직되어 경사로 돌아왔다. 공이 영(營)에 있을 때 불 오른 편이 불편하여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직되어 돌아가 성(城) 서편에 더부살이하였는데, 집안이 매우 황량하여 늘 빛으로 아침저녁을 이었다.
- 4월 17일의 회맹제(會盟祭) 및 연회에 공이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여 단지 반축(頒軸)한 교서(敎書)만 있다.

23 대조(大操) : 대규모 군사훈련을 말한다.

24 첨방군(添防軍) :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남도와 북도 출신의 군사로 나누어 세웠는데, 남도의 군사를 첨방군이라 한다. 즉 첨가하기 위하여 남도에서 온 군사라는 뜻이다.

25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청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병인년(1626, 인조4) 52세

- 훈봉공신(勳封功臣)으로서 경사에서 요양하였는데, 은사(恩賜)가 빈번하여 헤아릴 수 없었다.

정묘년(1627, 인조5) 53세

- 정월 13일 첫닭이 울 무렵 후금(建虜)이 의주(義州)를 침략하였다.
- 15일에 평안 병사 남이흥이 장계를 성첩(成貼)<sup>26</sup>하여 17일에 입달(入達)<sup>27</sup>하였다.

적이 의주의 수구문(水口門)으로 잠입하여 해가 뜰 무렵 의주를 함락하였는데, 부사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안주(安州)가 무너지자 병사(兵使) 남이흥이 광산의 능한산성(凌漢山城)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고, 평양·황주 양 진(兩鎭)이 차례로 무너지자 중외(中外)가 크게 떨었다.

- 26일에 인조께서 경사로부터 피난하여 양천(陽川)으로, 27일에 양천에서 통진(通津)으로, 28일에 통진에 머물다가, 29일에 통진에서 강도(江都)로 갔다.

그때 옥성(玉城) 장만(張晩) 공이 체찰사로서 장사(將士)와 군교(軍校)를 징발하였는데, 공이 병중에 가까스로 일어나 군전(軍前)으로 달려가 별장(別將)으로서 바야흐로 전진하며 적을 막을 계획을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이르기를, “지금 제장(諸將) 중에 재략이 뛰

---

26 성첩(成貼) : 문서에 수결(手決)을 두고 관인을 찍어서 마무리하는 것, 또는 완성된 문서를 말한다.

27 입달(入達) : 입계(入啓).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직접 구두(口頭)로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어난 이를 살피건대, 이미 시험하여 효험이 있기는 정모(鄭某)만 한  
 이가 없다. 마땅히 부원수로 삼아 서북관병(西北管兵)을 맡기고 삼  
 남(三南)의 근왕병(勤王兵)을 더해 주어 곤외(關外)<sup>28</sup>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장만과 더불어 진퇴를 논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  
 였다. 이여황(李汝璜)<sup>29</sup>이 비국의 뜻으로 25일에 올린 장계에 “지금  
 제장(諸將) 중에 재략이 뛰어난 이를 보건대, 이미 시험하여 효험이  
 있는 자는 정충신만 한 자가 없습니다. 비록 질병이 있기는 하지만,  
 자리를 보전하기에는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바로 별장(別將)으로서  
 체찰사(體察使)의 막하(幕下)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  
 는 충신을 부원수로 삼아 서북(西北)의 관병(管兵)을 맡겨 삼남(三  
 남)의 근왕병(勤王兵)을 붙여 주어 곤외(關外)를 전적으로 관장하  
 고 장만(張晩)이 체찰사로서 그 위에 처하여 더불어 진퇴를 논하도  
 록 하면 효험이 있을 듯합니다. 숙장(宿將)과 명신(名臣)이 서쪽 변  
 방에 많으나 불행하게도 모두 이미 무너져 현재 사람 중에 징벌(征  
 伐)에 관한 전권을 맡을 만한 자는 충신만 한 자가 없습니다. 만약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탄식이 있게 된다면 실로 매우 애석한  
 일이 될 것이기에 감히 이에 무릅쓰고 폄하합니다.” 하니, 인조께서

28 곤외(關外) : 성곽의 문지방 밖이라는 뜻으로, 외방(外方)을 가리킨다. 임금이 도  
 성 밖으로 장수를 떠나보낼 때 수레바퀴를 밀어 주면서 “성곽의 문지방 안은 과인이  
 처리할 터이니, 그 바깥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라.[關以內者 寡人制之 關以外者  
 將軍制之]”라고 당부하며 전권을 위임했던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29 이여황(李如璜) : 1590~1632.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계휘(季徽), 호는 용탄(龍  
 灘)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며,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딸이다. 1612년(광해군4)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황해  
 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윤허하였다.

27일 공의 장계(狀啓)에 “신이 필마로 종군하여 체찰사의 군중에 있다가 문득 부원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수하에는 3, 4대오(隊伍) 병력도 없는데, 적의 기세가 창궐하여 마구 들이닥쳐 하나같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체찰사는 이미 송도(松都) 길을 취하여 강도(江都)를 성원(聲援)하고, 신은 동쪽 길을 취하여 남북도 병력을 연결하여 대략 군세를 이루게 되면 동서가 협력하여 적을 칠 것입니다. 체찰사의 분부를 받들고 즉시 평산(平山)에서 신계(新溪) 길로 향하였습니다만, 신이 이르는 곳에 파발 편이 서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신의 거류(居留)와 군중(軍中) 소식을 입달(入達)하지 못할까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29일 입달하였다.

이에 공이 장만 공의 군중에서 명을 받아 수하(手下)에 약간의 병력만 거느리고 서해의 협읍(峽邑)인 토산(兔山)·신계(新溪)·서흥(瑞興) 등지로 이동하며 주둔하였다.<sup>30</sup> 또한 강원도 병력 1,200명으로 임진강(臨津江) 상류 6탄(六灘)을 분수(分守)-분담하여 수비함.- 하여 적세(賊勢)를 막도록 하였다. 서해의 병력과 함경남북도 병력을 다 모아도 오히려 5,000명이 되지 못하였다.-공이 거느린 병력은 겨우 500명이었다.-

· 2월 2일 유시(酉時)에 올린 공의 장계에, “적의 대진(大陣)에 관하여 혹은 ‘지금 중화(中和)에 주둔하고 있다.’ 하고, 혹은 ‘패강(溍江)

30 서해의……주둔하였다 : 원문의 ‘移住海西峽邑’을 《瑞石先生集卷十四》의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正憲大夫錦南君兼五衛都總府都總管八道副元帥贈崇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鄭公諡狀〉 내용 중에 ‘移駐海西峽邑’에 의거하여 고쳐 번역하였다.

을 도로 건너갔다.’ 하는데, 모두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어 아직 그 거류(去留)를 적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후금 군사가 중화에 이르러 이윽고 강화(講和)를 청하더니, 평산(平山)에 이르러 강화를 철회하였다. 그리하여 공은 끝내 교전하는 일이 없이 적의 뒤를 밟아 안주에 진주하였는데, 후금 군사가 오히려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었다. 공이 강홍립(姜弘立)<sup>31</sup>에게 편지를 보내 오랑캐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살인과 약탈을 금하여 맹세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때 우리 사람으로 후금에 잡혀갔다 도망쳐 온 자가 도로에 서로 이어졌는데, 공이 군량을 나눠 주어 죽음에서 구제하였다. 젓을 잃은 영아(嬰兒) 수십, 수백 명을 거두어 아울러 민간에서 기르도록 허가하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각기 쌀말이나 주어 그곳 수령더러 구제하게 하였다.

또한 승려들에게 평양에서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도록 하고, 안주(安州)는 본도 병사에게 매장하도록 하여 뚜렷이 알 수 있는 자는 별도로 묻어 주고, 그 나머지는 합하여 하나의 무덤을 만들게 하였다. 본도 감사와 함께 중영(中營)에 단을 쌓아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제사를 베풀어 회곡(會哭)하여 충혼을 위로하였다.

---

31 강홍립(姜弘立) : 1560~162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군신(君信), 호는 내촌(耐村)이다. 오도 도원수(五道都元帥)로 부원수 김경서(金景瑞)와 함께 1만 3천여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로 출정(出征)하여 1619년 명나라 제독(提督) 유정(劉綎)의 군과 합류하였으나 대패하자, 광해군의 비밀 지시에 따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 군에 투항하였다. 그 뒤 계속 억류되어 있다가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도(先導)로서 입국하여 화의(和議)를 주선하였다. 그 뒤에는 국내에 머물게 되었으나 역신으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하였다가 죽은 뒤에 복관(復官)되었다.

· 3월 일에 대가(大駕)가 환도하였다.

처음에 공이 서쪽 변방으로 나갈 적에 계곡(谿谷) 장 문충공(張文忠公)-장유(張維)-이 공을 교외에서 전송하였다. 공이 장공에게 말하기를, “이 오랑캐가 이번에 온 뜻은 협박하여 강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모름지기 강화하게 되면 바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였다. 장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공의 적을 간파함이 이렇듯 출중함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무진년(1628, 인조6) 54세

· 4월에 숙천(肅川)에 머물렀다. 공이 풍병으로 상소하여 상경하여 치료하기를 청하자 상감께서 명하기를, “올라와 제때 치료하고 가을에 돌아가라.” 하였다.

· 5월 4일에 숙천을 떠나 18일에 복명(復命)하였다. 상감께서 인견하여 모영(毛營)의 동정, 후금 정세의 성쇠, 서로(西路) 수령(守令)의 현부(賢否), 안주성지(安州城池)의 험이(險夷), 동방(冬防) 군병의 다소를 묻고 나서 술을 내리고 파하였다. 이로부터 때로 내관(內官)을 보내 문병하였다.

조정에 있는 제공(諸公) 중에 능천(綾川) 구인후(具仁厚) · 평성(平城) 신경진(申景禎)<sup>32</sup> · 동평(東平) 신경유(申景裕)<sup>33</sup> · 청운(靑雲)

32 신경진(申景禎) : 1575~1643.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군수(君受),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임진왜란 때의 무장 신립(申砮)의 아들이다.

33 신경유(申景裕) : 1581~1633. 신립의 아들로, 인조반정 뒤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동평군(東平君)에 봉해졌다. 호위대장(扈衛大將) 등을 역임했지만 방자한 행동과 탐욕 등으로 탄핵을 받았다.

- 심명세(沈命世)<sup>34</sup> · 춘성(春城) 남이웅(南以雄) 공과 이판(吏判) · 경기 감사가 서로 잇달아 찾아왔다.
- 6월 5일에 삼공(三公)을 찾아가 뵈었다. -영상(領相) 신흘(申欽), 좌상(左相) 오윤겸(吳允謙), 우상(右相) 김류(金瑬) 공. -
  - 8일에 이조 판서 조익(趙翼) · 병조 참판 남이공(南以恭) · 좌윤(左尹) 최명길(崔鳴吉)<sup>35</sup> ·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 공이, 11일에 참의 정문익(鄭文翼) · 호조 참판 및 완천군(完川君) 최내길(崔來吉)이 찾아왔다.
  - 12일에 기옹(畸翁) 정홍명(鄭弘溟)을 방문하고, 호조 참판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 18일에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을 찾아가 뵈었는데, 경기 감사 역시 자리에 있었다. -경기 감사는 바로 완성부원군 최명길이다. -
  - 7월 2일에 영상(領相) 신흘(申欽)의 상사(喪事)에 가서 조문하였다. -신상(申相)이 전월 29일 졸하였다. 공의 일기에 “사문(斯文)의 아픔을 어찌 감히 말로 할 수 있으랴.” 하였다. -
  - 7일에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쇄환(刷還)<sup>36</sup>하는 건으로 2품 이상으로서 상의할 일이 있었다. 공이 패(牌)를 받들고 대궐에 나아가 헌의(獻議)하였다. 그 헌의에 “천하의 일은 경도(經道)가 있고 권도

34 심명세(沈命世) : 1587~1632.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청운군(靑雲君)에 봉해졌으며,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였다.

35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고,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며 전란 후 피폐한 정국 안정에 힘썼다. 영의정 등을 지냈다.

36 쇄환(刷還) :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이 원 거주지를 이탈하였을 때, 이들을 찾아 원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權道)가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권도에 달려 있으니, 봉황성에 붙들려 있다가 의주에 구류된 사람 및 벽동(碧潼)에서 탈출해 온 호녀(胡女) 등을 박난영(朴蘭英)<sup>37</sup>에게 보내는 것이 권도에 합당할 듯하니, 상감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19일에 상감께서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안주(安州)의 동방(冬防)에 남군(南軍)을 쓰는 것이 편리한지 물었다. 공이 부원수로서 또한 입시(入侍)하여 의당 <주객지설(主客之說)>을 참고해야 한다고 간곡히 아뢰었다.
- 28일에 비변사 당상에 차임(差任)되었다.
- 8월 24일에 평안 감사와 전라 병사가 체직되어 돌아왔으므로 바로 찾아가 만났다.
- 9월 4일에 추탄(楸灘) 오 상국(吳相國)<sup>38</sup>-윤겸(允謙)-을 찾아뵙고, 금양위(錦陽尉)<sup>39</sup> 박미(朴瀾)를 방문하였다.
- 8일에 대사헌 장유(張維)가 찾아왔다.
- 13일에 회맹제(會盟祭) 및 음복연(飲福宴)에 참여하였다.
- 16일에 이돈시(李敦詩)-시백(時白)-를 방문하였다.-공의 자주(自註)에 이

37 박난영(朴蘭英) : 1619년(광해군11) 창성 부사(昌城府使)로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후금 정벌군에 참여하여 포로가 되어 있다가 정묘호란 때에 후금군의 선도로서 입국하여 석방되어 강화(江華)에서의 화의를 주선하였다.

38 오 상국(吳相國) : 오윤겸(吳允謙, 1559~1636)으로,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楸灘)이다. 1582년(선조15)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97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부교리, 승지, 강원도 관찰사,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지냈다. 인조반정 이후에 대사헌, 이조 판서, 예조 판서를 거쳐 삼정승을 지냈다.

39 금양위(錦陽尉) : 선조의 다섯째 딸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혼인한 박미(朴瀾, 1592~1645)이다. 뒤에 금양군으로 개봉(改封)되었다. 당대의 문장가로, 《분서집(汾西集)》이 있다.

르기를, “지기지우(知己之友)”라고 하였다.-

- 10월 17일에 금양위 박미·군섭(君涉) 고부천(高傅川)<sup>40</sup>과 기옹(畸翁)의 집에서 회동하였다. 취하여 금양이 다시 우리 집으로 왔는데, 경기 감사 최 완성(崔完城) 또한 찾아와 종일 이야기하다가 파하였다.
- 11월 1일에 상소하여 원수 및 비국당상직을 교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감께서 불허하였다.-비답에, “변보(邊報)가 비록 느긋하다 하나, 이때 원수의 직임에 대하여 결단코 체직을 불허한다. 응당 사직하지 말고 직임(織紵)을 살피라.” 하였다.-
- 13일에 다시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다. 상감께서 또 답하기를, “이때 이 직임은 경이 아니면 불가하다. 마땅히 고사하지 말고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12월 9일에 전라 병사의 편지와 빙(硯)·구현(具鉉) 등의 편지를 받아 보았다.-공의 자주(自註)에 “구인후가 이때 전라 병사가 되었는데, 지기지우(知己之友)이다. 빙이 배례하는 일로 가서 영(營)에 있다.” 하였다.-
- 12일에 김정육(金正堉)이 찾아오고, 19일에 능성(綾城) 구굉(具宏)<sup>41</sup>·금강(錦江) 이익(李楹)이-공의 자주(自註)에, “모두 지기(知己)”라고 하였다.- 찾아왔다. 이날 저녁에 빙이 병영으로 돌아갔다.

---

40 고부천(高傅川) : 1578~1636.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군섭(君涉), 호는 월봉(月峯)으로,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손자이다. 교서관 정자, 지제교, 사헌부 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41 구굉(具宏) : 1577~1642.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구사맹(具思孟)의 아들이자 원종(元宗)의 비(妃) 인현왕후(仁獻王后)의 오빠이다. 인조 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으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기사년(1629, 인조7) 55세

- 정월 초하루에 망궐례(望闕禮)<sup>42</sup>를 행하였다. 삼전(三殿)에 문안하고 나서 영상(領相)-추탄(楸灘)-좌상(左相)-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을 찾아가 뵈었다.
- 4일에는 해창군(海昌君) 윤방(尹昉)<sup>43</sup>이, 13일에는 병조 판서-이연평(李延平)<sup>44</sup>-· 윤 감사(尹監司)<sup>45</sup>-이지(履之)-· 조찬한(趙繼韓)<sup>46</sup>이 찾아오고, 21일에는 황해 감사가 왔다 갔다.
- 22일에 침구정사(針灸呈辭)<sup>47</sup>를 올렸다.
- 4월 29일에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에 배명(拜命)되었다.

42 망궐례(望闕禮) : 정월 초하루 동지 등에 임금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정부에 나아가 궐자패(闕字牌)를 모셔 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궐자패는 '闕' 자가 새겨진 패를 말하는 것으로, 궐패(闕牌)라고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국의 칙사(勅使)나 칙서(勅書)를 맞이할 때, 중국의 황제 등이 서거하였을 때 전각 안에 이를 설치하고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43 윤방(尹昉) : 1563~1640.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로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뒤에 영의정이 되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습봉(襲封)되었다.

44 이연평(李延平) : 이귀(李貴, 1557~1633)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이정화(李廷華)의 아들로,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 후 수습에 힘쓰고,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정사공신에 책록되었다.

45 윤 감사(尹監司) : 윤이지(尹履之, 1579~1668)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소(仲素), 호는 추봉(秋峯)이다. 1645년(인조23)에 평안 감사가 된 뒤 함경 감사를 거쳤으며, 이후 한성 판윤을 거쳐 형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추봉집(秋峯集)》이 있다.

46 조찬한(趙繼韓) : 1572~1631.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조양정(趙揚庭)의 아들이다. 영천 군수(榮川郡守) 시절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로 도독을 토벌하고, 형조 참의(刑曹參議)·선산 부사(善山府使) 등을 지냈다. 시부(詩賦)에 능하였다.

47 침구정사(針灸呈辭) : 관리가 신병을 치료하려고 침을 맞거나 뜸을 뜨기 위해 휴가를 청하는 것이다.

- 윤4월 14일에 도총부에서 출직(出直)하고 상소하여 직명을 교체해 주기를 청하였다. 상감께서 답하기를, “역도(逆徒)의 말이 지극히 흉패하여 경에게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 말은 딱히 가슴에 들 것이 못 된다. 의당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 5월에 오관산 기우제관(五冠山祈雨祭官)으로서 다녀왔다.-6일에 향(香)을 받고, 8일에 제(祭)를 행하고, 10일에 경성으로 돌아왔다.-
- 6월 11일에 소를 올려 원수의 직을 교체해 주기를 청하였다.-상감께서 비답(批答)하기를, “나의 뜻을 이미 밝혔으니,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 9월 22일 새벽에 어머니의 기제(忌祭)를 행하였다.
- 11월 15일에 옥성부원군 장만(張晩) 공의 상(喪)에 조문하고, 발인할 즈음에 제문을 지었다. 장례에 아들 빙(砵)을 보내고, 가서 만났다.
- 20일에 병으로 사직서를 올렸다. 상감께서 내의(內醫)를 보내 문병하고 약물을 내렸다. 또 땀감과 물고기 반찬을 내렸다.
- 12월 9일 세 번째 사직상소를 올리자 도총관의 직책만 체직하였다.
- 22일 병중에 출사(出仕)하였다.
- 26일 다시 도총관에 배명되었다.

경오년(1630, 인조8) 56세

- 정월 30일에 영상 오윤겸(吳允謙) 공을 찾아가 뵈었다.
- 2월 10일에 상감께서 술과 반찬을 내렸다.
- 3월 7일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sup>48</sup>을 찾아가 뵈었다.-공이 일기에 쓰기를, “산이 고요하고 땅이 후미진 곳에 봄기운 실로 짙었다. 잠깐 받들어 뵈니

속세의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소득이 있는 것 같다.” 하였다.-

- 4월 11일 장원서(掌苑署)에서 열리는 동갑계 모임에 달려가니, 주부(主簿) 조준도(趙遵道)가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갖춰 맞이하였다. 공과 참의 정광성(鄭廣成)·사성 유성증(兪省曾)·지평 신민일(申敏一)·찰방 정운(鄭運)이 모두 모여 종일 실컷 즐기다가 과하였다.
- 22일에 수군 부원수에 배명되었다.

애초 유흥조(劉興祚)와 그 아우 유흥치(劉興治)<sup>49</sup>가 오랑캐 진영에서 명나라 모문룡(毛文龍)의 진으로 투항하였다. 흥조가 영원(寧遠) 전투에 나가 전사하고, 흥치는 가도(椴島)에 있었는데, 유격장군(遊擊將軍) 진계성(陳繼盛)과 사이가 나빴다. 이에 이르러 항복한 오랑캐를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진계성 등을 공격하여 죽이고 섬에 있는 무리를 차지하였다.

보고를 받고 성상(聖上)의 결단이 확연하여 장차 군사를 일으켜 문죄하고자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묻기를, “누가 장수로 적임인가?” 하였다. 좌우가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미처 답을 못하자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혹시 신을 보내신다면 신이 청컨대 사양하지 않겠나이다.” 하였다. 상감께서 크게 기뻐하고, 이에 총융사(摠戎使) 완풍군 이서(李曙)<sup>50</sup> 공을 육군 대장으로 삼아 수륙병진(水陸竝

48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돈녕부 도정 김극효(金克孝)의 아들이며,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門人)이다. 병자호란 때 왕족을 호종하고 강화(江華)로 갔다가 강화성(江華城)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49 유흥치(劉興治) : ?~1631. 명나라 말기의 장수이다. 만주에서 가도로 도망와 유격장군 진계성(陳繼盛)을 죽이고, 한때 무리를 영솔하였으나 가도를 통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후금으로 투항을 시도하다가 부하 장도(張濤)와 심세괴(沈世魁) 등에게 피살되었다.

進)의 계책으로 삼는다고 명하였다.

- 30일에 판서 이홍주(李弘胄) · 대사간 이명한(李明漢)이 방문하였다.
- 5월 1일에 사조(辭朝)<sup>51</sup>하고 출사(出師)하였다.
- 2일에 마포(麻浦) 강가에 주둔하였다.
- 3일에 상감께서 명하여 선온(宣醞)을 내렸다.
- 5일에 평성(平城) · 완성(完城), 영해(瀛海) 김기종(金起宗), 대사간 이명한이 모두 와서 진송하였다.
- 6일에 강신(江神)에 제사를 올리고 배를 출발하여 바다로 내려갔다.
- 9일에 교동(喬桐) 앞바다에 이르렀다.
- 11일에 충청 수사 송영망(宋英望) · 경기 수사 유응형(柳應涇)을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으로 삼아 월곶 앞바다에서 수조(水操)를 행하였다.
- 22일에 연안(延安)에 도착하여 송영망이 중군(中軍) 이하 주사(舟師)를 대신 거느리고 전진하였다. 상감께서 공이 평소 병이 많은 것을 염려하고 해장(海瘴)에 상할까 걱정하여 특별히 하륙(下陸)하도록 하서(下書)하여 유시(諭示)하였다. 공이 명을 받들어 배에서 내려 육로로 나아가며 은율(殷栗)의 광암(廣巖)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23일에 광암에 도착하여 배에 오르자 황해 감사 · 병사 및 연해(沿

---

50 이서(李曙) : 1580~1637. 본관은 전주,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다. 1623년 장단 부사(長湍府使)로 있을 때 병력 700명을 동원하여 인조반정을 이루는 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51 사조(辭朝) :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출발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하는 것을 말한다.

海) 각 읍의 수령이 와서 모였다.

- 25일에 삼화(三和)의 광량(廣梁)에 정박하였다.
- 29일에 하륙하여 영유(永柔)로 가서 육군대장(陸軍大將)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 공을 만나 군사에 관한 일을 의론하고 돌아왔다.
- 6월 1일에 선전관 이함(李誠)이 표신(標信) 및 유지(有旨)<sup>52</sup>를 받고 군문에 도착하였다. 대개 총부(摠府)-바로 완풍군(完豐君)이다.-는 안주에 주둔하고, 주사(舟師)는 순안(順安)과 숙천(肅川) 사이로 돌아가 정박하여 기미에 대비하라는 명령이었다.
- 19일에 호남의 주사를 점열(點閱)하였다. 그때 전함(戰艦)이 모두 200여 척, 군병이 1만 1천 수백여 명이었다.
- 20일에 접반사(接伴使)<sup>53</sup> 나덕헌(羅德憲)<sup>54</sup>이 치보(馳報)하기를, “유홍치가 여순(旅順) 입구의 제 총병(第總兵)의 진(陣)에 있다.” 하였다.

---

52 유지(有旨) :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하는 것이나, 유지는 담당 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姓)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해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유지는 그 자체가 곧 왕명이고, 그 내용은 국가 기밀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의 전달 과정에서의 실착(失錯)은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53 접반사(接伴使) : 사신이 유숙하는 곳에 임시로 파견되어 사신을 맞아 접대하던 관원으로 정3품(正三品) 이상에서 임명한다.

54 나덕헌(羅德憲) : 1573~1640.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헌지(憲之), 호는 장암(壯巖)이다. 1603년(선조36)에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거쳐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안현전투(鞍峴戰鬪)에서 큰 공을 세워 진무 원종공신에 봉해졌고, 길주 목사(吉州牧使)·창성부사(昌城府使)·의주 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 22일에 삼부(三部)의 대장(大將)들과 망한대(望漢臺)에서 회동하여 군사(軍事)를 의논하였다.
- 선전관 이인달(李仁達)이 표신 및 유지를 받들고 왔다. 대개 흥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명이었다.
- 28일에 선전관 조상필(趙商弼)이 표신을 받들고 군문에 이르렀다. 대개 상감께서 해상의 장병을 걱정하여 어염(魚鹽)을 지급하라는 명이었다. 즉시 성상의 뜻을 삼군(三軍)에 포고(布告)하였다.
- 10월 7일에 황해 병사와 경기 수사더러 군병을 시열(試閱)하여 상을 주고, -입격(入格)한 133인에게 목면(木棉) 3동(三同) 13필을 차례로 나눠 주었다. - 주사(舟師)를 점시(點視)하도록 하였다.
- 25일에 나 접반(羅接伴)이 치보(馳報)하기를, “23일에 유흥치가 이미 섬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였다.
- 28일에 선전관 김광립(金光立)이 표신과 밀부(密符)를 받들고 군문에 이르렀는데, 대개 파병(罷兵)에 관한 일이었다.
- 8월 1일에 재차 교서를 내려 파병을 명하였다. - 선전관 민성준(閔成俊)이 와서 전했다. - 그 유지(有旨)에 “유흥치가 이미 섬으로 돌아왔으니,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토벌해야 하나,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가 이미 흠명(欽命)-황제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므로 선불리 무력을 가하기는 불가하다. 더군다나 여름에 군사를 일으켜 점차 가을이 다가오니, 갈포를 입은 군사들이 허다하여 또한 해상에 오래 머물기는 불가하다. 전에 하유(下諭)한 대로 속히 파병하고, 흥치에게 파병한다는 뜻으로 계첩(揭帖)<sup>55</sup>을 작성하여 보내되, 이에 말을 만들어 거행

---

55 계첩(揭帖) : 내어 걸어 붙이는 것이나 또는 그 문서(文書)를 말한다.



하라.” 하였다.-공의 계첩(揭帖)에, “그옥이 생각건대 해와 달이 비추는 바와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바와 모든 살리고 죽이고 폐하고 존치하는 위복(威福)의 권한이 응당 성천자(聖天子)로부터 나오니, 춘추에 이른바 대일통(大一統)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변방 소식을 듣건대, ‘섬 안에서 난이 일어나 진계성(陳繼盛) 이하 제장관(諸將官)이 모두 살해당하고 아울러 흠차관(欽差官)에 해가 미쳤는데, 족하(足下)께서 실로 주도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해 들은 소문이 흉흉하고 해괴하여, 모두 말하기를, ‘장차 명나라 조정을 배반하여 바로 등주(登州)를 범하고, 또한 몰래 군사를 보내 우리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나라 사람들 누구나 속으로 분해하며 죄를 성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조지(朝旨)를 받들어 과연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켰는데, 지난번에 득한 각부(閣部)의 자문(咨文) 및 유첩(諭帖)에 또한 기회를 보아 위무하거나 죽이지 않는 방도로 대우하여 시끄럽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조(聖朝)가 기필코 계성의 죽음을 못사람의 분노에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 포충(褒忠)의 은전이 마땅히 동기(同氣)에게 미친 것입니다. 어제 조명(朝命)으로 회군(回軍)을 명함이 있어 이에 막하(幕下)의 편비(褊裨)를 보내 자초지종의 곡절을 고합니다. 처음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본래 성천자를 위하여 토죄(討罪)하고자 한 것이지 사원(私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파병(罷兵) 역시 성천자의 뜻을 받든 바이지 사은(私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한마음으로 적개(敵愾)하여 변경이 안정되도록 힘쓴다면 본국의 행복일 뿐 아니라, 또한 족하(足下)의 행복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유흥치의 답서에 “불초(不肖)가 비록 독서를 하지 않았으나, 집안은 대대로 업유(業儒)이기에, 정훈(庭訓)을 실컷 들어 충효(忠孝)가 평소의 뜻으로, 하늘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한때 발길을 변경한 것은 기계가 팔면(八面)에 매설되어 머리를 살피고 끝을 밟으며, 배발을 피하고 외발을 피한 것이며, 돌아보건대 죄와 더불어 위로부터 명(命)을 받들 줄은 압니다. 그간의 곡절을 이웃 나라에 묻도록

할까 하였습니다만, 어찌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의 자연스러운 바를 알지 못하여 반드시 고명(高名)께서 밝혀 드높인 이후에 알았겠습니까? 조정이 어루만지고 품계를 더한 부총병(副總兵)이거늘,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아니고서야 어찌 필찰(筆札)로 업신여기며 능멸함이 이토록 극심하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귀국의 군주가 천조(天朝)의 신하를 대접함에 이러한 예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언사도 없었습니다. 무부(武夫)가 문자를 알지 못하여 이렇듯 그 정황을 바로 말하건대, 무인(武人)이라고 멸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였다.-

- 3일에 회군(回軍)하였다. 닳을 올리고 돛을 걸어 석도(席島)에 이르러 정박하고 황해 병사(黃海兵使) 신경인(申景禔)이 사퇴하였다.
- 4일에 아랑포(阿郎浦)에 이르러 정박하고 금사사(金沙寺)에 하숙(下宿)하였다.
- 5일에 작은 배에 올라 물줄기를 거슬러 용정(龍井)을 찾아갔다.-공의 일기에 “동으로 불대산(佛戴山)이 있는데, 천 봉우리가 수려함을 다투어 솟아 깎아지른 듯 하늘에 꽃혀 극히 기이한 절경이었다. 산 아래 외딴 언덕에 용정(龍井)이 있어 맑아 아길 만하며, 근원의 바닥을 가늠할 수 없었다. 사방으로 탁 트인 큰 언덕에는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 수정처럼 차가워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맑은 물이 시원하고 달아 한번 마시니 속세의 때가 씻겨 나갔다. 그곳 사인(士人)에게 물으니, ‘못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지금 100세를 넘긴 자가 5인이고, 80세에 이른 자는 감히 노인 계에 들 수 없다.’ 하였다. 마을이 매우 그윽하고 후미져 고금을 통하여 병화(兵火)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니, 실로 이는 신선의 지경이다. 기이하고 기이함 이여!” 하였다.-
- 10일에 공이 금사사에 있으면서 받든 유지에, “경은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바다에 처하여 장독(瘴毒)에 상하였는데, 이렇듯

가을바람에 배를 타고 돌아온다면 탈 없이 도달한다고 기약할 수 없다. 경은 육로를 따라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 12일에 연평도(延平島)에서 교동(喬桐)의 월곶(月串)으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 13일에 경기 수사 류응형(柳應洞) · 공칭 수사 송영망(宋英望) · 전라우도 수군우후 소혜(蘇蕙)가 각기 본도의 모든 선박을 거느리고 물러갔다. 공은 작은 배에 옮겨 타고 풍덕(豐德)의 해암(蟹巖)에 이르러 옥성부원군의 영연(靈筵)에 들러 배알하였다.
- 15일 아침에 서강(西江)의 마포(麻浦)에 정박하고 대궐에 나아가 복명하였다. 상감께서 내구마 1필을 하사하고, -공이 뜰에 내려가 사배(四拜)하고 받았다.- 16일에 또 술과 안주를 내렸다. 같은 날에 장령 유성증(兪省曾) · 교리 신계영(辛槩榮)이 방문하고, 19일에 조 판서가 조용히 방문하였다.
- 23일에 영상(領相)과 우상(右相)을 찾아가 배알하였다.
- 29일에 침구정사(針灸呈辭)를 올렸다.
- 9월 7일에 유흥치(劉興治)의 원한을 산 일로 차자(筴子)를 올려 원수(元帥)직을 교체하여 주기를 청하니, 상감께서 위로하고 타이르며 불허하였다.
- 29일에 무과 전시(武科殿試) 시관(試官)으로 시소(試所)에 나아갔다.
- 11월 28일에 영상-오공(吳公)- · 좌상(左相)-김공(金公)-을 찾아가 배알하였다. 비국당상(備局堂上)에 차임되었다.
- 12월 25일에 헌관(獻官)으로서 사직제(社稷祭)를 행하였다. 공이 광량(廣梁)에 있으면서 파병(罷兵) 날짜에 대하여 차자를 올렸다.

신미년(1631, 인조9) 57세

- 2월 3일에 아들 빙(碁)의 혼례를 치렀다.
- 3월 □일에 상감께서 서쪽 교외에서 칙사(勅使)를 맞이하는데, 공이 별운검(別雲劍)으로서 배종(陪從)하였다.
- 4월 28일에 도총관(都總管)에 배명되었다.
- 6월 9일에 사조(辭朝)하고 서관(西關)으로 달려갈 때 상감께서 인견하여 진송하였다.

3월에 유흥치(劉興治)가 가도(椴島)에 있는 명나라 군중을 겁박하여 오랑캐 소굴로 투항하려 하였다. 군중이 따르지 않자 흥치가 장관(將官) 및 남상(南商) 등을 대거 죽였다. 장관 심세괴(沈世魁) · 장도(張燾) 등이 군중을 다잡아 얼러 흥치 형제를 배고 향호(降胡)<sup>56</sup> 8백여 인을 모조리 죽였다. 이에 이르러 후금이 흥치가 피살된 것에 분개하여 2만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 여러 군현(郡縣)으로 침입하여 공언하기를, “배를 빌려 가도를 치겠다.”고 하므로, 공이 원수로서 가서 방비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이 적들이 청천강 서쪽 연해의 선척(船隻)을 모으고 있는가?”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청천강 서쪽에는 지금 남아 있는 선척이 없습니다. 적이 설령 찾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것으로 섬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랑캐의 계책이 장차 어디로 튀겠는가. 갑자기 우리의 경계를 침입할 것인가?”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적이 만약 출병하여 서쪽을 범하고 또한 동쪽을 침범한다면 그 계책이 후방을 견제하는 것이니, 크게 염

---

56 향호(降胡) : 도망해 온 오랑캐를 말한다.

려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서쪽을 범하지 않고 오롯이 동쪽을 주로  
 한다면 계책이 반드시 용만(龍灣)에 군사를 주둔하여 가도의 군사  
 가 해안에 오르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  
 를, “적이 선천(宣川)과 철산(鐵山) 사이에 주둔하여 가도를 도모하  
 고자 우리에게 배를 빌리려 한다면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존망이 비록 갈릴지라도 허락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감께서 옳게 여겼다. 공이 또 말하기를, “신이 비록 출전하지만,  
 수하(手下)에 원래 거느리는 군병이 없습니다. 적이 만약 깊이 들어  
 온다면 서쪽 관문에 수비할 수 있는 곳은 안주성(安州城) 하나가 있  
 을 뿐입니다. 병사(兵使)가 본도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수비할지  
 라도 그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울 것이니, 신 또한 마땅히 안주(安  
 州)로 들어가 수비하며 결단코 한번 싸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감  
 께서 말하기를, “경은 대장이거늘 어찌 일개 성으로 들어가 수비하  
 는 이치가 있겠는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 있으면서 응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상교(上教)인즉 옳습니  
 다. 다만 2, 3백의 포수를 가지고 서하(西下)에서 허둥대고, 본도 군  
 사가 모두 안주로 들어가고, 해서(海西)의 군사는 계속 황주(黃州)  
 를 지킨다면 먼 지방의 군사가 창졸간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안주에  
 서 만일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계  
 책은 신이 안주로 들어가 수비하며 병사를 호령하여 기필코 사수(死  
 守)하는 것만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사체  
 (事體)가 이렇듯 마땅치 아니한데 어찌 대장이 들어가 수비하는 일  
 이 있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고사(古事)는 우선  
 논할 것이 없고, 비록 명나라의 근래 일로 말하더라도 양호(楊鏞) ·

웅정필(熊廷弼)·표응태(表應泰)는 모두 경략(經略)으로서 요동으로 들어가 수비하였습니다. 비록 대장이지만, 어찌 홀로 성을 수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승지 이목(李穡)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쟁이 위급할 때는 사람이 모두 죽음을 피하는 법인데, 정 아무개는 홀로 강개하여 외로운 성을 사수(死守)하기를 청하니, 그 뜻이 매우 선하거늘 기필코 굳이 금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들어가 수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신이 지금 변방으로 나가면서 조정의 일을 비록 함부로 논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보장(保障)은 응당 강도(江都)를 제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불행하여 파천(播遷)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기필코 이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京畿)의 주사(舟師)가 너무 형편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사를 대대적으로 더욱 설비하여야 하나 기필코 수군을 충당하여 쓸 것까지는 없습니다. 경기 육군의 속오군(束伍軍)<sup>57</sup>이 이미 1만여 명에 이르니, 그 중의 정군(正軍)과 보인(保人)<sup>58</sup> 등을 주사에 배분하면 3, 40척의 누선(樓船)으로 강도의 형세를 웅장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감께서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였다.

날이 저물어 성을 나서 연서(延曙)에 주둔하고, 15일에 황주에 주둔

57 속오군(束伍軍) : 1594년(선조27)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서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뽑아서 조직한 군대로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조련할 때와 유사시에는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였다. 효종 때 북벌계획으로 강화되었으나 숙종 이후 폐지되었다.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58 보인(保人) : 병역에 복무하지 않고 보포(保布)를 바쳐 현역 군인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정한 장정을 말한다.

하였다. 당시에 적병이 들끓어 청천강 북쪽 안주가 심하게 고립되어 위태하였으므로 민심이 흉흉하였다. 공이 별장(別將) 장훈에게 도감(都監)<sup>59</sup>의 보군(步軍)을 거느리고 추격하도록 하고, 단지 원역(員役)<sup>60</sup> 및 약간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으로 달려 나갔다.-공이 경성에 서부터 도감(都監)의 병마 50명과 포수 400명을 거느렸다. 평안 병사 보고에, “달병(撻兵)<sup>61</sup>이 붙든 인명과 관선(官船) 10여 척이 선사포(宣沙浦)로 가서 정박하고, 9일 저녁 물에 명나라 배 20여 척이 바로 맞닥뜨려 포를 쏘아 달병 12명이 탄환을 맞아 죽고 소장(小將) 1인은 탄환을 맞아 머리가 깨졌다.” 하였다.-

· 18일에 안주(安州)로 달려 들어가 곧장 백상루(百祥樓)에 다다르자 순변사(巡邊使)<sup>62</sup> 유림(柳琳)이 영변 부사 이현달(李顯達) · 중군(中軍) 윤진경(尹進卿) · 개천 군수 임용현(任用賢) · 용강 현령 강진흔(姜晉昕) · 판관(判官) 이인달(李仁達) 등을 거느리고 영명(迎命)<sup>63</sup> 하였다.

· 19일에 오영군(五營軍)<sup>64</sup>을 점열(點閱)하였다. 부자 형제가 함께 군

59 도감(都監) :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아 보게 하도록 설치하는 임시 관사이다.

60 원역(員役) : ‘員’은 관원, ‘役’은 실무를 맡은 서리 등을 말한다.

61 달병(撻兵) : ‘달자(撻子)’, 즉 중국 서북 지방의 이민족인 달단(撻獯)을 지칭한다. 이 종족은 시대에 따라 달단(撻鞞) · 몽고(蒙古) 등으로 불렸으며 명대(明代)에는 달자로 불렸는데, 원(元)나라가 망한 뒤에 북방으로 달아나 흩어져 살며 명나라와 조선의 북방에서 자주 말쟁을 일으켰다. 우리 문헌에서는 주로 달적(撻賊)으로 표현되었다.

62 순변사(巡邊使) : 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순찰하기 위하여 왕명을 띠고 파견되던 특사이다.

63 영명(迎命) : 외관(外官)이 임지(任地)에서 어명(御命)을 맞이하던 예로, 곧 봉명사신(奉命使臣)을 맞이하던 예절을 말함.

64 오영군(五營軍) : 5영의 제도는 인조 때 시작된 것으로, 여러 도에 각각 전, 후, 좌,

중에 있는 자와 늙은 부모가 있는 독자로서 종군(從軍)한 자를 아울러 모두 돌려보냈다. 상감께서 교서를 내려 “군사를 증강하여 성(城)에 들여보내니, 경(卿)은 의당 성을 나가 응원하도록 하라.” 하였다.

- 20일에 장훈(張薰)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왔다.
- 27일에 상감께서 또 교서를 내려 “병사(兵使) 유림(柳琳)을 나포하여 보내고, 신임 병사(兵使)가 부임할 때까지 대신 수비하도록 명한다.”고 하였다. -이날 정탐인(偵探人)이 나아와 고하기를 “노병(虜兵)이 진격하여 압록강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 7월 16일에 신병사(新兵使) 이완(李浣)이 부임하였다.
- 28일에 또 유지(有旨)를 내려 “경이 오랫동안 안주에 머물면 전에 앓던 토질(土疾)의 재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변보(邊報)에, 조금 안정되어 본성(本城)이 무사하다고 하니, 물러나 순안(順安)과 숙천(肅川) 사이에 주둔하며 형세를 살펴 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8월 7일에 청천강을 건너 청천 서편 각 읍의 산성을 순심(巡審)하였다.
- 23일에 숙천으로 돌아와 산성의 형세로써 장계(狀啓)하였다.
- 9월 1일에 계림(鷄林) 이수일(李守一)<sup>65</sup> 공이 빙(砮)의 무과에 합격

---

우, 중앙에 총 다섯 진영을 설치하였는데, 평안도 오영의 경우, 전영은 숙천(肅川), 좌영은 덕천(德川), 중영은 중화(中和), 우영은 순천(順川), 후영은 함종(咸從)이다.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平安道》《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 혜안, 1999》

65 이수일(李守一) : 1554~1632.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계순(季純), 호는 은암(隱庵)이다. 1583년(선조16)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부원수를 겸하여 길마재에서 반란군을 무찔러 서울을 수복한 공으



한 일을 편지로 알려 왔다.

- 26일에 청천강 서편 각 읍의 산성 수축(修築)을 살피는 일로 숙천을 출발하여 청천강을 건너갔다.
- 29일에 검산(劍山)에 이르러 적소로 유림 공을 찾아갔다.
- 10월 15일에 안주(安州)로 돌아왔다.
- 19일에 아들 빙(砮)이 등과하여 경성에서 뵈러 왔다.
- 27일에 백상루(百祥樓)에서 경연을 베풀었다. 본도 병사 이완(李浣) · 본성 판관 이인달(李仁達) · 영변 부사 이현달(李顯達) · 희천 군수 한호(韓灑) · 개천 군수 임용현(任用賢) · 강동 현감 홍내범(洪乃範) · 덕천 군수 이원영(李元榮) · 순안 현령 유응시(柳應時) · 숙천 부사 맹효남(孟孝男) · 은산 현감 이영질(李英耆)이 모두 함께 하였다.
- 11월 12일에 철산(鐵山)의 사포(蛇浦)에 진주(進住)하였다. 그때 가도의 군병이 난을 일으켜 도독(都督) 황룡(黃龍)을 체포하였는데, 부총(副摠) 심세괴(沈世魁)<sup>66</sup>가 변호해 주자 황룡이 인수(印綬)를 세괴에게 전하였다. 세괴가 자칭 권서(權署)-직무 대행-라 큰소리치며 육지로 나와 쌀을 바 꾸 월동 준비를 하였으므로 청북(淸北)의 인

---

로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66 심세괴(沈世魁) : ?~1637. 명나라 요동도사(遼東都司) 모문룡(毛文龍)의 군대가 후금의 군대에 쫓긴 끝에 국경을 넘어 평안도 철산군 앞바다의 가도(槓島)에 주둔하게 되자, 1623년 명나라는 후일을 도모하려고 가도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고 모문룡을 그 도독으로 임명했다. 모문룡이 조정의 명에 따라 요동(遼東)에 출전했다가 실패하고 죽은 뒤, 가도로 도망한 그 잔당 사이에 누차 내분이 일어난 끝에 장사꾼 출신으로 그 딸이 모문룡의 첩이었던 심세괴가 도독이 되었다. 심세괴는 1637년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죽었다.

심이 흉흉하였다. 이에 공이 안주로부터 입방포수(入防砲手)를 거느리고 사포에 진주하여 방비할 계책을 세우고, 황룡·심세괴 두 장수와 유격 장괴(張魁)에게 글을 보내 위로하여 달랬다.

- 윤11월 3일에 돌이켜 안주(安州)에 도착하였다.
- 6일에 방백 민성징(閔聖徵)<sup>67</sup>· 집반 이명(李溟)<sup>68</sup>· 관향 박추(朴籜)· 평안 병사 이완(李浣)<sup>69</sup>이 찾아왔다.
- 10일에 병사 및 부중군(府中軍) 엄황(嚴愷)<sup>70</sup>과 출병하여 대대적으로 사냥을 하였다.
- 12월 20일에 안주에 머물러 야조(夜操)<sup>71</sup>하고, 29일에 주련야조(晝鍊夜操)하였다.

공이 안주에 있을 때인 6월에 상차(上箭)하여 청야(淸野)<sup>72</sup>하여 성을 수비하는 일과 둔전(屯田)을 널리 베푸는 계책을 논하고, 차관

---

67 민성징(閔聖徵) : 1582~164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사상(士尙), 호는 졸당(拙堂)·용추(用拙)이다.

68 이명(李溟) : 1570~164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연(子淵), 호는 구촌(龜村)이다. 인조 때 전라도·경기도·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뒤에는 다시 호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구촌유고(龜村遺稿)》가 있다.

69 이완(李浣) : 1602~1674.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본관은 경주(慶州), 시호는 정익(貞翼)이다.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우고, 상원 군수(祥原郡守)·숙천 부사(肅川府使) 등 외직과 어영대장(御營大將)·수어사(守禦使) 등 무관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70 엄황(嚴愷) : 1580~1653. 본관은 영월(寧越), 자는 명보(明甫)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한 후 함안 군수, 곤양 군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등을 지냈다.

71 야조(夜操) : 야간에 행하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72 청야(淸野) : 들판을 말끔히 청소한다는 뜻으로, 백성과 가축과 식량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일대를 텅 비게 함으로써 적군이 물자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差官)<sup>73</sup>을 오랑캐에 들여보내 이리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도록 청하였는데, 모두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8월에 또 차자를 올려 용만(龍灣)의 수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거듭 간하고, 우선 축성(築城)의 역(役)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시작이 상권(上卷)에 보인다.-

임신년(1632, 인조10) 58세

- 정월 3일, 안주에 머물며 새벽에 정조 하례(正朝賀禮)를 행하였다.
- 9일에 숙천(肅川)으로 옮겨 주둔하려는데, 향사(餉使) 박추(朴筵) · 병사(兵使) 이완(李浣)이 찾아왔다. 저녁에 숙천에 이르렀다. 이날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배명되었다. 이때 이완 공이 일 때문에 교체당한 까닭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으며, 부원수의 직은 감하(減下)<sup>74</sup>되었다.-당시 연평(延平) 이 충정공(李忠正公)이 들어왔을 때 접반사 이명(李溟)<sup>75</sup>의 말이 이완 공을 많이 헐뜯었고, 감사(監司) 또한 이 사실을 장계하여 끝내 교체된 것이다. 공이 일기에 기록하기를, “병사(兵使) 공이 비록 고속 출세를 하였으나, 명민하고 빙벽(氷壁) 같은 절조라 크게 진전이 있었다. 혹 조금이라도 세상 물정을 맞보았다면 실수 없는 명장이 되었으련만, 난초의 싹이 나오기도 전에 된서리가 먼저 내리니 애석하다.” 하였다.-
- 13일에 병마절도사에 제수하는 신명(新命)을 듣자마자 토질(土疾)

73 차관(差官) : 특별한 사무를 맡겨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을 말한다.

74 감하(減下) : 면직이나 겸직을 해제하는 등의 인사 행정을 말한다.

75 이명(李溟) : 1570~1648. 자는 자연(子淵), 호는 귀촌(龜村),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호조·병조·형조 참관을 역임하고 자헌대부에 올라 호조 판서로 임명되었는데, 물가를 조절하고 수지균형(收支均衡)을 잘 맞추었으므로 수년 내에 국고가 차고 넘쳐 밖에까지 쌓아 둘 정도였다.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 선조, 인조 이래로 제일인 자라 불리었다.

이 더치고, 또한 유림(儒林)의 배척 상소를 당하여 감히 군민(軍民) 위에 뻔뻔한 얼굴을 할 수 없어 더욱 쓸쓸히 해직을 청하였다.-소(疎)가 상권(上卷)에 보인다.-

- 19일에 상감께서 체직을 허락하였다. 공이 만성의 역(役)을 논하고 부터 청북(淸北) 사람 중에 원망하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때 임경업(林慶業)<sup>76</sup>이 방금 기복(起服)<sup>77</sup>하여 선천 방어사(宣川防禦使)가 되었다. 그가 서둘러 공을 대신하고자 암암리에 선비들을 부추겨, 양찬(糧饌)을 밀친 삼아 공을 배척하는 소(疎)를 올리게 하였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연명(聯名) 가운데에 뒤섞어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의 소(疏)에 “6월에 죽은 박인검(朴仁儉)이 오히려 9월의 소(疏)에 올라 있으니, 이는 귀신 역시 암암리에 (저를) 죽이려고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 감사(監司) 민성휘(閔聖徽)가 조명(朝命)을 받들어 득실을 밝혀 임경업이 마침내 심문을 당하였다.
- 21일에 상감께서 교서를 내려 제조사(除朝辭)<sup>78</sup>하고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이튿날 단기(單騎)로 전진하여 안주성 아래에서 소(疏)에 대한 비답(批答)을 기다렸다.

---

76 임경업(林慶業) : 1594~1646.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다. 친명반청(親明反淸) 사상이 투철한 무장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하였으며,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명나라와 협력하여 청을 공격하려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시호가 충민(忠愍)이다.

77 기복(起服) : 상중(喪中)에는 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국가의 필요로 상제의 몸으로 관직을 맡는 것을 말한다.

78 제조사(除朝辭) : 지방 관리의 임지 부임을 재촉하기 위해 특별히 왕에게 숙배(肅拜)하는 것을 면하여 줌을 말한다.

- 23일에 비로소 신경원(申景瑗)<sup>79</sup> 공이 공을 대신하여 병사가 되었던 소식을 들었다.
- 2월에 안주(安州)에 머물렀다.
- 16일 한식절(寒食節)이라 새벽에 본성(本城)의 정묘호란에 전사한 장병(丁卯戰亡將士)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 3월 18일에 다시 원수에 제수한다는 명이 있었다고 들었다.
- 27일에 신임 병사(兵使)가 영(營)으로 올라왔다.
- 30일에 청어당(聽漁堂)에 앉아 병사와 신기영(神奇營)의 병마를 점 열하였다.
- 4월 2일에 안주 남문 밖으로 나가 다시 원수에 임명하는 교유서(教諭書)를 공경히 맞이하였다.
- 10일에 덕안(德安)의 둔전을 차례로 살피고 박천(博川)에 이르렀다.
- 15일에 박천을 출발하여 장림(長林) 및 내외서양(內外西陽)의 송림(松林) 등 둔전(屯田)을 살피고 태천(泰川)에서 유숙하였다.
- 16일에 본현의 구룡산성(九龍山城)을 가서 살폈다.-공의 일기에 “좌우로 돌 병풍이 깎아 세운 듯 둘러싼 성문에서 안쪽으로 구룡연(九龍淵)이 있다. 아래로 층을 이룬 용연폭포(龍淵瀑布)가 있는데, 허공에 걸린 것이 1백여 척(尺)이나 되고, 연못 위로 바위 언덕에 잔도(棧道)가 있다. 이것이 그 성문(城門)으로 실로 한

---

79 신경원(申景瑗) : 1581~1641.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숙헌(叔獻), 이괄(李适)의 난 때 반군을 대파함으로써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으로 녹훈되고, 평녕군(平寧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 때 부원수로 맹산 철옹성(鐵瓮城)을 지키고 있다가 적의 북병에게 생포되자 수습 일 동안 단식으로 항거하였다.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패전의 죄로 멀리 귀양 갔다. 1638년(인조16)에 곧 석방되자, 몇몇 조신들이 석방시키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듬해 충유사 겸 포도대장이 되었다.

사내가 창을 메고 지키면 천 사람이 당할 수 없겠다.” 하였다.-

- 25일에 안주로 돌아가 머물렀다.
- 5월 12일에 명나라 사신 호운란(胡雲鸞)이 식량을 독촉하는 일로 그의 가정(家丁)을 부추겨 관향사(管餉使)<sup>80</sup> 박추(朴筵)를 옥보여 죄 줄로 목을 묶기에 이르렀으므로, 약간의 병력을 보내 소란을 일으킨 가정 3인을 붙잡아 평양으로 이송하여 가두었다.
- 13일에 유림(柳琳)<sup>81</sup> 공이 방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박천(博川)으로 가서 영접하였다.
- 15일에 유공과 고삐를 나란히 하여 청천강으로 돌아와 함께 작은 배에 올라 거슬러 칠불암(七佛庵)에 다다르자 병사·관향사 및 본주의 통관(通判)<sup>82</sup>이 모두 와서 회동하여 날이 저물어 파하였다.
- 6월 15일에 박천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 7월에 박천에 머물렀다.
- 5일, 왕대비-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가 전월 27일 승하하였는데, 이날 부음을 들었다. 관정(館庭)에 나아가 군수 이하 장사(將士)를

---

80 관향사(管餉使) : 조선 시대 때 국가의 비상시에 군량으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던 양곡인 관향미(管餉米)를 관리하던 관직으로, 인조 원년에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적들이 침입해 오는 데 대비하여 각 지방에 군량을 비축하고, 관향사를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81 유림(柳琳) : 1581~1643. 1603년(선조36) 무과에 급제한 이후 수군절도사·병마절도사·오위도총부 부총관·포도대장 등 내외의 요직을 거쳤다. 병자호란 때 적병을 추격하며 항전하였고 항복한 이후 다시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41년(인조19)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대를 요구하자 금주(錦州)로 출정하였으나, 명군과의 전투에 참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싸움으로써 청나라의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82 통관(通判) :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되어 정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관리를 말한다.

- 거느리고 망곡(望哭)하고, 11일 새벽에 성복(成服)을 행하였다.
- 8월에 박천(博川)에 머물렀다.
  - 18일에 박 관향(朴管餉)이 안주(安州)에서 필마(匹馬)로 와서 만났다.
  - 20일에 영변(寧邊)의 산성 수축하는 곳을 가서 살피고, 날이 저물어 고을에서 유숙하였다.
  - 26일에 박천으로 돌아갔다.
  - 29일에 박 관향이 장차 해서(海西)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송별하러 안주를 왕래하였다.
  - 9월에 박천에 머물렀다.
  - 18일에 장 유격(張遊擊)-장괴(魁)-이 석도(席島)에 있으면서 편지로 안부를 묻고, 봉주(鳳州)의 《강감(綱鑑)》<sup>83</sup> 1질을 보내왔다.
  - 10월 3일에 안주로 돌아가 머물렀다.
  - 4일에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의 발인에 임하여 새벽에 병사(兵使)와 관정에서 망곡하고, 6일에 대행의 하현궁(下玄宮)<sup>84</sup>에 맞추어 관정에 가서 곡하였다. 18일에 졸곡례(卒哭禮)를 행하였다.
  - 11월에 안주에 머물렀다.
  - 12월 6일에 병사와 함께 가서 약산(藥山)의 동수(冬守) 상황을 살피고, 8일에 안주로 돌아갔다.

계유년(1633, 인조11) 59세

- 정월 7일에 병사와 함께 주조(晝操)-주간 훈련-를 행하였다.

83 봉주(鳳洲)의 강감(綱鑑) : 봉주는 왕세정(王世貞)의 호이고, 《강감》은 그가 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재편집한 책명이다.

84 하현궁(下玄宮) : 임금이나 왕비의 관을 묘혈(墓穴)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 2월 2일에 체찰사(體察使)<sup>85</sup> 김시양(金時讓) 공이 안주에 이르렀다. 이날 밤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는데, 내용은, “청나라 사신이 요구한 증폐(增幣)를 불허하고 사신을 보내 절교를 알릴 것이다. 김대건(金大乾)을 사신으로 삼아 급히 청나라 조정으로 가서 절교를 고할 것이며, 팔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강도(江都)로 들어가 피하기로 의론을 이미 정하였다.”고 하였다.
- 3일에 김시양 공이 안주(安州)에 머물며 함께 조정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논하였다.
- 7일에 김대건이 국서(國書)를 가지고 안주에 들러 세폐(歲幣)<sup>86</sup>에 대하여 따르기 곤란함을 거듭 밝히며 절화(絶和)의 뜻을 보였다. 그 국서의 대략에 “폐방(弊邦)이 귀국과 더불어 강역(疆域)이 분명합니다. 귀국이 뜻밖에 군사를 일으켜 승승장구 깊숙이 침입함에 과인은 실로 당혹하여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국이 이미 강화하여 전쟁을 종식하고자 함에 심히 아름다운 뜻인지라 과인 또한 기꺼이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폐방의 천조(天朝)에 대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매우 중하거늘, 귀국이 우리더러 천조(天朝)를 저버리도록 요구한다면 차라리 나라가 어지러울지언정 단연코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사대교린(事大交隣)은 본래 그 도리가 있는 법, 귀국과 화(和)함은 교린(交隣)하는 바이며, 황조(皇朝)를 섬김은

---

85 체찰사(體察使) :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일반 군무를 맡아 보던 임시 벼슬로, 보통 재상이 겸임하였다.

86 세폐(歲幣) : 조선 시대에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을 말한다.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에 의하면, 세폐 방물로 면주(綿紬), 자리[席子], 피물(皮物), 백면지(白綿紙), 대소호지(大小好紙), 환도(環刀) 등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다.



사천(事天)하는 바입니다. 정묘년 3월 경오에 귀국의 대신 남목태(南木太)·대아한(大兒漢)과 백마와 흑우(黑牛)를 잡아 삼혈(敵血)<sup>87</sup>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이 아는 바일 뿐 아니라 또한 황천후토(皇天后土)가 감림(鑑臨)하였던 바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양국이 형제의 의를 맺어 춘추로 신사(信使)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과인의 구구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따르기 어려운 말을 한다면 이 어찌 처음에 맹세한 본래의 뜻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을 강박하기는 의리상 감히 아니할 바이며, 사람을 조르기는 완력으로 능히 아니할 바이거늘, 말씀하기를, ‘우리는 탄마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누가 믿겠습니까? 함께 약속을 정하여 본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태평을 누리기를 기약하였는데, 일찍이 7년이 못 되어 사단이 갑자기 변경되니, 구구한 만세의 생령(生靈)을 위한 계책이 장차 허사가 될 지경입니다. 형제간에 설혹 작은 불평이 있을지라도 정의(情義)의 중함이 오히려 있는 법, 그러기에 귀국의 마음이 비록 변하더라도 과인의 마음은 일찍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신을 보내 과인의 뜻을 고합니다.”라고 하였다.-묘당(廟堂)이 대건(大乾)을 깨우쳐 보내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가 본래 맹세를 어길 마음이 없거늘, 너희는 어이 의심하는가?’ 하면, 답하기를 ‘천조(天朝)는 부자(父子)의 나라이거늘, 너희가 우리에게 배를 빌려 주고 군사를 도우라 하는가. 금·은·궁각(弓角)은 본래 본국의 소산이 아니니, 그것이 기필코 불가능함을 알 터인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맹세를 저버리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하라. 저들이, ‘예단

87 삼혈(敵血) : 맹세할 때의 희생(犧牲)을 잡아 서로 그 피를 들이마셔 입술을 벌겍게 하고, 서약(誓約)을 꼭 지킨다는 단심(丹心)을 신(神)에게 맹세하는 일을 말한다.

(禮單)의 수량을 감한다면 너의 나라가 받아들일겠는가?’ 하면, 답하기를, ‘지금 성(城)을 수리하고 병기(兵器)를 수선하여 응변(應變)의 계책으로 삼거늘 어느 겨를에 다시 예단의 증감에 관한 일을 생각하겠는가?’ 하라.”라고 하였다.-

지난해 10월 오랑캐가 그들 대장 소도리(所道里)를 보내 세폐(歲幣)를 요구하고, 또한 드는 처소마다 잔치를 청하였다. 상감께서 비국제재(備局諸宰)를 불러 논의하니, 체찰사 김시양(金時讓) 공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오랑캐와 화친할 때는 세폐를 요구하지 않는 때가 없었음을 신이 일찍이 최명길(崔鳴吉) 등과 늘 말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함부로 이 같은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상감께서는 오랑캐가 세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할 것이라 여겨 그것이 알려질까 저어한 것이었다. 이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단지 세 곳에 잔치를 허락하자 소도리가 앙앙대며 떠났다. 그때 비국제재의 의론이 모두 같지 아니하였는데, 다만 총융사 이서(李曙)가 시양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조정에서 보낸 회답사(回答使) 신득연(申得淵)<sup>88</sup>이 심양(瀋陽)에 이르니, 예단을 받지 않고 사신을 접견하지도 않은 채 쫓아 보내며 다시 세폐를 요구하였는데, 하나같이 소도리가 와서 논하던 숫자와 같았다.-금 1백 냥·은 1천 냥, 각색면주(各色綿紬) 1천 필·저포(苧布) 1천 필, 청서피(靑黍皮) 1백 장·수달피 4백 장, 왜 장검(倭長劍) 20자루·단검(短劍) 20자

88 신득연(申得淵) : 1585~164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정오(靜吾), 호는 현포(玄圃)이다. 1610년(광해군2)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정언·형조정랑·도승지·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회답사(回答使)로 후금(後金)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세자시강원 빈객으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643년(인조21)에 그의 생질 이계(李桂)가 명(明)나라와 밀무역한 것을 알고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루, 천지차(天池茶) 2백 포, 잡목면(雜木綿) 1만 필, 용단석(龍丹席) 1장, 백지(白紙) 1천 권, 상화지(霜花紙) 1천 권, 단목(丹木) 1천 근, 각궁(角弓) 1백 쌍, 각색 채석(各色彩席) 1백 장, 호초(胡椒) 10두-

이에 이르러 다시 김대건을 보내며 이러한 서계(書契)가 있었으므로, 공이 김시양 공과 상의하여 우선 대건(大乾)의 행렬을 억류하고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우리나라가 오랑캐와는 강약이 같지 아니하고, 세력은 한(漢)·당(唐)도 면할 수 없었는바,<sup>89</sup> 먼저 그들의 환심을 잃는 것은 불가하니 응당 몇 자를 고쳐 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신을 멋대로 억류한 죄를 청하고, 다시 평양으로 달려가 명을 기다렸다.-소(疏)가 상권에 보인다.- 상감께서 소(疏)를 보고 진노하여 전교하기를, “김시양과 정충신(鄭忠信) 등이 그 목숨이 두려워 멋대로 사신을 억류하여 조정을 지휘하니, 이는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러한 사람을 참수하여 무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진 기강을 엄숙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시양 등을 효시(梟示)<sup>90</sup>할 것인지 속히 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비국계(備局啓)에 “전장에 임하여 그릇됨과 비할 만한 것이 아니니, 우선 잡아다 국문(鞫問)하여 죄를 정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오랑캐가 혹 동쪽을 침범할 계획을 전날에 정했다라도 오늘날 출병해 온다면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모두 혼단을 열었다 하여 허물을 군상(君上)에게

89 한·당(漢唐)도……없었는바 :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에서 북방 오랑캐와 화친을 맺고자 하여 예물과 황실의 여자를 오랑캐 나라에 시집보낸 일을 말한다.

90 효시(梟示)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못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돌릴 것이니, 첫 번째 불행이요.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여 마음이 이미 죽어 조금도 팔을 걷어붙일 뜻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불행이요. 막기 어려운 것이 인정으로 인심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 이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억지로 명하여 행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 국서(國書)를 속히 고쳐 보내되, 적인(敵人)의 화를 돋우는 병통이 없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 15일에 공과 김공이 평양에서 출발하여 일시에 명을 받고, 20일에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 27일에 원정(原情)<sup>91</sup>하고 나서 삭탈관작(削奪官爵)과 중도부처(中道付處)<sup>92</sup>를 아울러 명하였다. 김공은 영월(寧越)로 유배되고, 공은 당진(唐津)으로 유배됨에 김공과 서로 의금부 문밖에서 작별하고 나가 새 문밖 민가에 머물렀다.-21일 신임 원수(元帥) 김자점(金自點)<sup>93</sup>이 사조(辭朝)하고 출사(出師)할 적에 위의(威儀)를 성대하게 갖추고 큰 소리로 “이 적(賊)은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정충신(鄭忠信)의 신분은 싸우는 장수이니, 체찰사 김시양(金時讓)과는 책임에 차이가 있어 그 죄의 경중이 자별하거늘 아울러 부처(付處)의 명을 무릅쓰는 것은 법률상 이렇듯

91 원정(原情) : 사정을 물어서 진술케 하는 것을 말한다.

92 중도부처(中道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하나이다. 서울에서 변방까지의 사이에 중간쯤 되는 적절한 장소에 배소(配所)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다. 중도부처(中途付處)라고 쓰기도 한다.

93 김자점(金自點) : 1588~165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지(成之), 호는 낙서(洛西)이다.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워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효종이 즉위한 후 파직 당하자, 이에 양심을 품고 조선이 북벌(北伐)을 계획하고 있음을 청나라에 밀고하여 역모죄로 처형되었다.

부당합니다. 청컨대 정충신에 대한 부처의 명을 도로 거두어 관서(關西)의 변방에 충군(充軍)하소서.”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정충신 자신은 큰 공적이 있다. 그래서 참작하여 벌을 시행할 터이니 거둬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이날 공이 다시 들어와 금오문 밖에서 대명(待命)하였다.

- 29일 비망기(備忘記)에 “정충신이 오랫동안 옥중에 있어 전증(前症)이 재발하지 않을 리 없다. 우선 석방하여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배소(配所)로 가게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정충신이 죄가 없다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정죄(定罪)하여 발송한 후에 우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치가 있겠나이까? 청컨대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정충신은 몸에 중병(重病)이 있다. 우선 석방하도록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 3월 1일에 사헌부가 정계(停啓)<sup>94</sup>하였다.
- 3일에 공이 한강을 건너 적소(謫所)로 향하였다. 상감께서 별감을 보내 잘 가라 하고, 또한 약물을 내렸다.-공의 일기에, “한강수를 돌아보이여! 나도 모르게 열 걸음에 아홉 번이라. 임 그리는 마음 견딜 수 없음이여! 실로 유배객의 나라를 떠나는 심정 알겠도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용승한 은총에 감격하여 종일 눈물을 흘리며 가니, 양쪽 소매가 이미 다 젖었도다.” 하였다.-비로소 당진(唐津)에 도착하였다.-집의(執義) 박황(朴潢)<sup>95</sup>이 피혐(避嫌)<sup>96</sup>하였다. 대

94 정계(停啓) : 왕이 윤허할 때까지 논쟁하지 않고 중간에서 계(啓)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95 박황(朴潢) : 1597~1648.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덕우(德雨), 호는 나옹(儒翁)·나현(儒軒)이다. 병자호란 때 왕을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며 청나라가 화의를 반대한 척화신(斥和臣) 17인의 압송을 요구하자 강력히 버티어서 15인은 무사할 수 있었다. 소현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갔다가 돌아와 병조 판서, 대사헌 등을 지냈다.

개 우리에게 있어 자강(自強)의 세(勢)가 없는데 가벼이 적과 화친을 끊다니, 신(臣)은 그 계책이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초에 이러한 계책은 단연코 성상께서 묘당(廟堂)에 물어 계책을 정했어야 했다. 묘당의 대신들은 실로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응당 답전에서 득실을 극히 아뢰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예예” 하며 물러나고, 물러난 후에도 시비(是非)를 정하지 못하다가 김시양의 소(疏)를 보고 겉으로는 물리치기를 청하면서도 실은 그 계책을 찬동한 것이다. 엄지(嚴旨)가 한번 떨어지자 마침내 다시 말하기를 “참수하여 무리를 경계함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니, 하루 사이에 의율(擬律)<sup>97</sup>의 경중(輕重)이 어찌 그리 현격한 것인가? “화친할 만하면 화친하고, 끊을 만하면 끊으라.” 하여 불과 두 마디로 결단할 것이거늘, 애초에 일정한 계책 없이 성상께서 “옳다.” 하면 대신이 “옳다.” 하고 성상께서 “아니다.” 하면, 대신이 “아니다.”라고 한다. 성상께서 만일에 이치에 어긋난 거조가 있을지라도 대신이 그 역시 장차 따르고 어기지 않을 것이다.-

김대건이 오랑캐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서(國書)만 전하여 그에 대한 답서를 받아 왔다. 공이 적소(謫所)에서 성상의 은총을 생각하며 절구 1수를 읊었다.-시(詩)가 상권(上卷)에 보인다.-

- 4월 11일에 장연(長淵)으로 이배(移配)되었다. 사간원(司諫院)이 가율(加律)하여 변방으로 이배를 청하자 상감께서 부득이 재령(載寧)으로 이배를 명하였다가 다시 역병(疫病)이 도는 고을이라 하여 변경하여 장연으로 이배하였다.
- 12일에 당연(唐淵)에서 출발하여 17일에 한강을 건너 성 서편 외곽에 유숙하였다.

96 피혐(避嫌) :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관청에서 벼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97 의율(擬律) : 법률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24일에 장연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
- 5월 16일에 사면 소식을 들었다.-원종(元宗)<sup>98</sup>의 책봉(冊封)을 반포한 후에 사면한 것이다.- 그 후 방귀전리(放歸田里)<sup>99</sup>의 명이 있었다.
- 26일에 서울 집에 도착하자 이 참판(李參判)-명(溟)-과 금양위(錦陽尉)<sup>100</sup>가 방문하였다.
- 6월 1일에 완풍(完豐) · 능성(綾城)이 찾아왔다.
- 9일에 호우(湖右)-지금의 충청남도-로 가려고 강을 건너 지나가다가 우사(寓舍)에 들러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sup>101</sup>을 배알(拜謁)하였다.
- 13일에 서산(瑞山)의 별장에 도착하였다.-공의 일기에, “오두막에 머리를 부딪히고 부엌 연기가 집 안에 가득하여 하루도 견디기 곤란하여 큰 병이 날 지경이다.”라고 하였다.-
- 16일에 유익(劉翼)더러 땅을 살피게 하여 아마힐봉(阿摩詰峰) 밑에 집터를 잡았다.-터 뒀는 축문(祝文)이 상권에 보인다.-
- 17일에 망일암(望日庵)에 올라 피서하였다.-공의 일기에, “암자(庵子)가 대해(大海) · 삼각(三角) · 오관(五冠)과 마주하여 모두 눈 아래에 들어온다. 문을

98 원종(元宗) : 인조의 아버지 부(瑋)로, 인조반정을 계기로 대원군(大院君)에 추존되었다가 다시 많은 논란 끝에 1627년(인조5)에 왕으로 추존되었다.

99 방귀전리(放歸田里) : 유배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형벌로 관직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100 금양위(錦陽尉) : 박미(朴彌, 1592~1645)를 가리킨다. 박미는 선조(宣祖)의 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결혼하여 금양위에 봉해졌다. 이항복(李恒福)과 신희(申欽)에게 수학하고 장유(張維), 정홍명(鄭弘溟) 등과 교류하면서 문학에 치력하여 장유와 더불어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손꼽혔다. 문집으로 《분서집(汾西集)》 16권이 전하고 있다.

101 박동량(朴東亮) :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扈從)한 공신이다.

- 열고 화악(華岳)을 대하니, 대궐을 그리는 마음 한결 더한다.” 하였다.-
- 28일, 인목왕후의 소상(小祥)이라 일찍 일어나 망곡(望哭)하였다.
  - 7월 14일에 공이 감회가 일어 시 1수를 지었다.-시가 상권에 보인다.-
  - 22일에 호남에 가려고 병영 남문 밖에 유숙하였다.
  - 8월 5일에 김제(金堤)에 이르러 태수(太守) 정기옹(鄭畸翁)을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 7일에 광주(光州) 본가에 도착하였다. 공이 집을 떠난 지 14년 만에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공의 일기에, “처자식을 서로 대하니, 오히려 부끄러워 하는 기색이 있으며, 아이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니 서글프다.” 하였다.-
  - 9일에 선영(先壟)에 이르러 성묘하고 곡배(哭拜)하였다.
  - 15일에 추석절사(秋夕節祀)를 행하였다.
  - 23일에 대점(大岾)으로 가서 외조(外祖) 및 숙부(叔父)의 묘를 배알 하였다.
  - 27일에 선고(先考) 생일이라 새벽에 묘 앞에 가서 제사하였다.
  - 9월 2일에 선비(先妣) 생일이라 묘 앞에 가서 제사하였다.
  - 4일에 기마(起馬)<sup>102</sup>로 섬진강의 옛 거처를 찾아갔다.
  - 6일에 쌍계석문(雙溪石門)으로 들어가 차례로 지리산 여러 명승을 탐방하고 쌍계사에 묵었다.-청학봉(靑鶴峯)·완폭대(翫瀑臺)·불일(佛日)·옥소(玉簫)·영대(靈臺)·도사불(道士佛)·출등(出等)·지장암(地藏庵)을 두루 유람하였다.-
  - 7일에 산에서 나와 악양암(岳陽巖)에 들러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저녁에 저도(猪島) 집에 도착하였다.-공의 일기에, “매녀(梅女)가 죽은 지

---

102 기마(起馬) : 왕이 사신에게 내려 준 말을 가리킨다.



6년인데, 사내는 절을 잘하고 계집은 말을 잘하였다. 황천길을 추념하며 밤새 눈물을 흘려 섬진강 명승지가 온통 상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 9일에 죽은 여식(女息)의 무덤에 곡하였다.
- 22일 새벽에 대기제(大忌祭)를 행하였다.
- 27일에 진양에서 통제사 구인후(具仁厚) 공이 찾아와 나란히 잤다.
- 28일에 구공과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저취정사(猪嘴亭舍)에 올라 구경하고 밤이 되어 돌아와 이튿날 구공이 영(營)으로 돌아갔다.
- 10월 3일에 전라 감사가 두류(頭流)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고 공 또한 강을 거슬러 호암(虎巖)으로 가서 만났다. 다시 정자 아래에 이르러 갈렸다가 순천 부사 이현(李絃)과 전라 감사가 같이 왔다.
- 11일에 서울에 대한 묘연한 감회를 형상하여 절구 1수를 짓고, 15일에 또 읍시 1수를 지었다.-시 2수(首)가 상권에 보인다.-
- 16일에 진양 병사(晉陽兵使) 유무중(柳懋中)이 찾아왔다.
- 22일에 공이 작은 배에 올라 달밤에 상암(床巖)으로 가서 구경하고 곤양(昆陽)의 어촌에서 유숙하였다.
- 24일에 상암 안팎의 진기한 경치를 찾아보고 입암(立巖)에 들렀다가 배를 돌려 대암(臺巖)에 정박했다. 통제사 구공이 와서 회동하여 저녁에 덕면(德眠)의 촌가에서 유숙하였다.
- 25일에 구공과 같은 배를 타고 상암을 차례로 구경하고 또 인가에서 나란히 잤다.
- 26일에 구공과 헤어져 무촌(鶯村) 구현(具鉉)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곤양(昆陽)의 인가에 투숙하고, 이튿날 마침내 돌아갔다.
- 11월 7일에 저도(猪島)를 떠나 월포(月浦)의 집에 유숙하였다.
- 8일에 광양성에 있는 병사 성윤문(成允文)<sup>103</sup>의 정사(亭舍)에 올랐다.

- 10일에 송광사의 임경대(臨鏡臺)에 들렀다가
- 12일에 순천(順天)의 부유(富有) 나무로 갔다.
- 13일에 동북 현감 임담(林潭)<sup>104</sup>과 적벽(赤壁)을 찾아갔다. 바로 갑오년(1594, 선조27) 봄에 백사 상공(白沙相公)을 모시고 구경하던 곳이다. 이에 창평 재촌(載村)의 본가로 돌아왔다
- 16일에 죽곡(竹谷) 묘소를 살폈다.
- 22일에 일가를 거느리고 시조 경렬공(景烈公)의 묘를 수리하였다.
- 12월 2일에 새로 청어를 구하여 새벽에 일어나 선조의 묘에 천신(薦新)하였다.

갑술년(1634, 인조12) 60세

- 정월 초하루에 묘제를 행하였다.-5일 공의 일기에, “오랫동안 시골에 있어 서울 소식이 매우 막막하다. 왕의 근황을 들을 길이 없어 근심에 백발이 하나씩 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7일에 특명으로 서용(敍用)<sup>105</sup>되었다.

103 성윤문(成允文) :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진주 목사(晉州牧使), 평안도 병마절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겸 통제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兼統制使), 수원 부사 겸 방어사(水原府使兼防禦使)가 되었다가 곧 파직당했다.

104 임담(林潭) : 1596~1653.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재숙(載叔), 호는 청구(淸懼),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인조 때 지평(持平)·경상도 관찰사·충청도 관찰사·이조 참판·대사간·도승지(都承旨) 등을 지내고, 효종 때 우참찬(右參贊)·예조 판서·판의금 부사(判義禁府事) 등을 지냈다.

105 서용(敍用) : 죄를 지어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 8일 입춘에 시(詩)를 지었다.-시가 상권에 보인다.-
- 2월 7일에 길을 나서 서울로 향하였다.
- 11일에 김제(金堤)를 건너 군수 기옹(畸翁)을 만나 하루를 머물렀다.
- 20일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이조 판서와 호조 판서가 바로 찾아와 만났다.
- 21일에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자 상감께서 선온(宣醞)을 명하고, 27일 또 술과 안주를 하사하고, 28일 또 땀감을 하사하였다.
- 3월 5일에 내수사에서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 9일에 도총관에 배명되었다.
- 4월 1일에 능성(綾城)<sup>106</sup> · 능천(綾川)<sup>107</sup>이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다.
- 18일에 청풍(靑楓) 계곡에서 김 상공(金相公)<sup>108</sup>-상용(尙容)-을 배알하

106 능성(綾城) : 구굉(具宏, 1577~1642)으로, 본관은 능성, 자는 인보(仁甫), 호는 군산(群山),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인조의 어머니인 인현왕후(仁獻王后)의 오라비이다. 1608년(선조41)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 등을 지내다가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으며, 각조의 판서와 오위도총부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107 능천(綾川) : 구인후(具仁后, 1578~1658)로,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재(仲載), 호는 유포(柳浦)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03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 때 계획을 세운 공로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였으며, 1644년(인조22)에는 심기원(沈器遠)의 역모 사건을 적발하고 처리한 공으로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에 책록되고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좌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108 김 상공(金相公) : 김상용(金尙容, 1561~1637)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또는 풍계(楓溪) · 계옹(溪翁),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형으로, 1582년 진사가 되고 15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 승지, 대사간, 정주 목사, 도승지 등을 지냈으며, 인조반정 후에는 판돈녕부사로 기용되어 병조 · 예조 ·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정묘호

고, -공의 일기에 “한나절 동안 말씀을 받들었는데, 삼청선계(三清仙界)<sup>109</sup>에 들어간 것같이 가슴이 상쾌하였다.”라고 하였다. - 능성 · 능천 · 구백공(具伯鞏) · 이제부(李濟夫)와 함께 수촌(水村) 물가에 나가 노닐었는데, 술과 안주가 매우 성대하였다.

- 5월 21일에 능성 · 평성(平城)<sup>110</sup> · 능천, 이제부 · 구백공이 찾아왔다.
- 27일에 완풍부원군 이서(李曙)<sup>111</sup>를 찾아가 만났다.
- 6월 5일에 포도대장에 제수되었다.
- 29일에 병으로 도총관과 포도대장의 직에서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나, 상감께서 불허하였다.
- 7월 12일에 내섬시 제조에 배명되었다.
- 8월 24일에 아들 빙(砮)이 북부(北部)<sup>112</sup> 주부(主簿)에 제수되었다.

---

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공과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저서에 《선원유고》 등이 있다.

- 109 삼청선계(三清仙界) : 도교(道教)에서 신선이 산다는 옥청(玉淸) · 상청(上淸) · 태청(太淸)을 말한다.
- 110 평성(平城) : 신경진(申景禛, 1575~1643)으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군수(君受)이다. 1623년(인조1)에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에 훈련대장으로 어가를 호위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에 수하의 군사를 인솔하여 적의 선봉부대를 차단하였다. 형조 · 병조 판서 등을 지내고 1637년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1642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111 이서(李曙) : 1580~1637.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에 봉해지고 호조 판서에 보임되었다.
- 112 북부(北部) : 서울에 설치한 행정구역의 하나이다. 서울은 동부(東部) · 서부 · 남부(南部) · 북부 · 중부(中部)의 오부(五部)로 나누었다.

- 14일에 동문 밖으로 가서 부제학 김광현(金光炫)<sup>113</sup>의 유배 길을 위문하고, 김 상국(金相國)-상용(尙容)-을 위로하였다.
- 9월 6일에 아들 빙이 함흥에서 돌아왔다.
- 10월 3일에 경상도 절도사에 배명되었다. 이달에 영안위(永安尉)<sup>114</sup> · 금양위(錦陽尉), 백주(白洲) 이명한(明漢) · 우윤(右尹) 홍보(洪寶)<sup>115</sup>가 함께 와서 전별하였다.
- 11월 2일에 단목(丹木),<sup>116</sup> 후추(胡椒), 궁전(弓箭)<sup>117</sup>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4일에 상감께서 남관왕묘(南關王廟)<sup>118</sup>에 선운을 베풀었다. 공이 시한 수를 읊었다.-시가 상권(上卷)에 보인다.-

---

113 김광현(金光炫) : 1584~164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회여(晦汝), 호는 수북(水北)이다. 김상용(金尙容)의 아들로, 1612년(광해군4)에 생원, 진사 양과에 모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비판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인재로 뽑혀 연원도찰방(連源道察訪)에 제수되었다. 1625년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아버지 김상용이 순절하자, 홍주의 오촌동(鰲村洞)에 은거하였다. 전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시문집으로 《수북유고(水北遺稿)》가 전한다.

114 영안위(永安尉) : 정명공주의 남편인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봉호(封號)이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건중(建中), 호는 무하당(無何堂)이다. 정명공주에게 장가들어 영안위에 봉해졌다.

115 홍보(洪寶) : 1585~1643. 자는 여시(汝時), 호는 월봉(月峯), 본관은 풍산이다. 벼슬은 좌참찬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경헌(景軒)이다.

116 단목(丹木) : 동인도(東印度) 원산(原産)인 작은 상록 교목(常綠喬木)으로 목재는 활을 만드는 데에 쓰이고, 속의 붉은 부분은 붉은 물감과 한방(漢方)의 통경제(通經劑)로 쓰인다.

117 궁전(弓箭) : 활과 화살이다.

118 남관왕묘(南關王廟) :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이다. 1598년(선조31)에 명나라 장수 진인(陳寅)이 세웠으며 남대문 밖 도저동(桃楸洞) 산기슭에 있었다. 《국역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고편 경도》

- 14일에 인동(仁同)에 이르러 장여헌(張旅軒)<sup>119</sup>을 방문하고, 18일에 부임하였다.
- 24일에 계사 전망 제장·병·민 토인남녀(癸巳戰亡諸將兵民土人男女)의 묘에 제사를 올렸다.

을해년(1635, 인조13) 61세

- 정월 3일 새벽에 하례(賀禮)하였다.
- 5일에 향교에 나아가 알성(謁聖)<sup>120</sup>하였다.
- 3월 18일에 호남 방백 원두표(元斗杓)<sup>121</sup>와 지리산 쌍계사에서 만나 이튿날 쌍계를 지나 삼신교(三神橋)를 건너 신흥사(神興寺)에 들러 칠불암(七佛庵)에 올랐다가 저녁에 쌍계로 돌아왔다.
- 21일에 산에서 내려와 화개(花開) 다리에 이르러 원공과 갈렸다.
- 23일에 영(營)으로 돌아왔다. 이때 장계곡(張谿谷)-장유(張維)-이 서문을 쓴 백사 상공의 문집을 간행하여 세상에 반포하였다.
- 4월에 담화(痰火)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증상이 점점 더하였다.
- 5월 26일에 증세가 더욱 중하여 정신이 어지럽고 언어가 어그러졌다. 판관 박돈복(朴敦復)<sup>122</sup>을 시켜 제조(製疏)<sup>123</sup>하여-소(疏)가 상권

119 장여헌(張旅軒) : 장현광(張顯光)으로,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헌(旅軒),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학행으로 선조조와 광해조, 인조조에 걸쳐 누차 천거되었으나 거의 나가지 않았고, 나가더라도 곧장 사퇴하여 재야에서 학문 강학에 전념하였다.

120 알성(謁聖) : 공자의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121 원두표(元斗杓) : 1593~1664.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으며, 같은 공서(功西)였던 김자점(金自點)과의 정권 다툼으로 분당하여 원당(原黨)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좌의정(左議政) 등을 지냈다.

- (上卷)에 보인다.- 살아서 경사로 돌아가 의약을 가까이하여 훗날 보답할 길을 꾀할 수 있도록 청하니, 상감께서 체차를 허락하였다.
- 7월 4일 출발하여 신당리(神堂里) 인가에 머물며 더위가 물러가기를 잠시 기다렸다.
  - 9일에 어의(御衣) 박군(朴頤)이 상감의 명으로 약물을 가지고 살피러 왔다. 관대를 걸치고 섬돌에 올라가 절하고 맞이하였다.
  - 10일에 신당리에서 경성(京城)을 향해 출발하여 28일 충주(忠州)에 도착하여 목도(木道)를 거쳐
  - 8월 1일 낮에 한강에 정박하여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상감께서 즉시 별감(別監)을 보내 문병하고, 4일에 생선을 하사하였다.
  - 18일 상감께서 별감을 보내 문병하고, 생노루(生獐)·생꿩(生雉)·생선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10월 1일 생노루·생꿩·생선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16일 상감께서 별감을 보내 문병하고, 다시 생노루·생꿩·생선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11월 1일 상감께서 별감을 보내 문병하고, 또한 생노루·생꿩·생선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9일 한겨울 들어 증세가 날로 더욱 위중하였다.
  - 27일 담화(痰火)가 올라 내리지 아니하고,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며, 아득히 혼미하고 나른함이 전보다 더욱 중하였다.

122 박돈복(朴敦復) : 1584~1647. 예조 좌랑, 호조 좌랑, 병조 좌랑, 전라 도사, 진주 관관, 형조 정랑, 김해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23 제조(製疏) :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짓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병자년(1636, 인조14) 62세

- 봄에 도성에 유언비어가 성행하였다. 왜구가 장차 침략할 것이라 하여 놀라 피난하는 자가 있어 백성들이 모두 붓짐을 메거나 지고 서 있기에 이르렀다. 어떤 이가 공에게 와서 묻자, 공이 말하기를, “남쪽 왜놈들은 우리나라가 간청하더라도 기필코 오지 않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크게 걱정할 바는 북쪽 오랑캐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2월 17일에 청나라 사신 용골대(龍骨大) · 마부대(馬夫大) 등이 와서 고하기를, “칸(汗)이 이미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태청(太淸)이라 한다.”고 하였다. 과연 공의 말을 증험하였다.
- 29일에 관학 유생(館學儒生) 등이 상소하여 청나라 사신을 배어 대의(大義)를 밝히고,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여 척화(斥和)하고 군사를 정비하여 자강 진작하기를 청하였다.-이날 신경원(申景瑗)<sup>124</sup>이 부원수가 되고 유림(柳琳)<sup>125</sup>이 평안 병사가 되었다.-
- 3월에 사신을 청나라에 보내 화친(和親)을 단절한다고 고하였다. 공이 바야흐로 나른하여 병석에 누워 있다가 국서를 받고 일어나 절반도 못 보고 돌이켜 누우며 크게 탄식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올해에

---

124 신경원(申景瑗) : 1581~1641. 조선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의 무신이다. 영의정(領議政) 신경진(申景禎)의 종제(從弟)로, 이괄(李适)의 난 때 반군을 무찔러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평녕군(平寧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사도 부원수(四道副元帥)가 되어 항거했다.

125 유림(柳琳) : 1581~1643. 수군절도사 · 병마절도사 · 오위도총부 부총관 · 포도대장 등 내외의 요직을 거쳤다. 병자호란 때 적병을 추격하며 항전하였고 항복한 이후 다시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41년(인조19)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대를 요구하자, 금주(錦州)로 출정하였으나, 명군과의 전투에 참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싸움으로써 청나라의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결판날 것이다.” 하였다. 이로부터 병세가 더욱 심하였다.

- 4월 1일에 상감께서 생노루·생뽕·생선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24일에 내의(內醫)의 서계(書契)에 “독삼탕(獨參湯)이 기사회생에 가장 좋아 다른 하찮은 약재와 비교가 안 되나 계속하여 쓰기에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회생할 수 있다면 비록 온 나라의 힘을 다할지라도 역시 아끼지 아니할 바이거늘, 하물며 3, 4근 인삼이라. 그대는 이 같은 말을 말고 이 약을 계속 사용하여 기필코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 17일에 상감께서 타락죽(駝酪粥) 한 그릇을 하사하여 보내고, 해당 관서에 계속 보내도록 명하였다.
- 5월 4일에 반송방(盤松坊) 집에서 졸하니, 62세였다. 상감께서 내의 원 서계(書契)에서 부음을 듣고 전교하기를, “중신(重臣)이 졸서(卒逝)하였다. 해조(該曹)의 단자가 비록 아직 입계(入啓)<sup>126</sup>되지 않았지만, 경연(經筵)을 여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오늘 주강(晝講)은 정지하라.” 하였다. 이튿날 비망기를 내려 말하기를, “금남군 정충신이 세록지인(世祿之人)<sup>127</sup>은 아니지만, 왕실에 충성을 다하여 종묘 사직을 편케 하였다. 내 그 공적을 생각하여 일찍이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병이 피로 때문에 생겼으나 끝내 살려내지 못하였으니, 고굉(股肱)을 잃은 것처럼 내 심히 서글프다.” 하였다. 해조에 명하

126 입계(入啓) :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직접 구두(口頭)로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127 세록지인(世祿之人) : 대대로 이어받는 세습의 국록(國祿)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대대로 국록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등나라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하였다.

여 예장(禮葬)의 물건을 하나같이 횡간(橫看)<sup>128</sup>에 따라 즉시 제급(題給)<sup>129</sup>하도록 하고, 특별히 부의를 보내 부족한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왕의 동옷(襦衣)·도포(道袍) 각 한 벌을 내려 엄습하게 하였다.

- 6월에 예조 좌랑 임담(林潭)을 보내 치제(致祭)<sup>130</sup>하고, -제문이 본편에 보인다. - 충훈부(忠勳府) 역시 치전(致奠)<sup>131</sup>하였는데, 그 제문에 칭찬한 말이 매우 자세하였다. - 완성부원군 최명길의 글로 본편에 보인다. - 연양(延陽)<sup>132</sup>·능천(綾川)이 제문을 가지고 와서 제를 지냈으며, - 제문이 본편에 보인다. - 계곡(谿谷)·완성(完城)·기옹(畸翁)·창곡(蒼谷)이 현영(李顯榮)<sup>133</sup> 공이 모두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 시가 본편에 보인다. -
- 7월에 서산군 북쪽 마힐산 아래 지곡(智谷)의 갑좌경향(甲坐庚向)

128 횡간(橫看) : 조선조의 재정세출표(財政歲出表)이다. 국고 지출 사무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1년 동안의 지출 명세서로, 세조(世祖) 때 완비되었다. 이것을 일람표로 만들어 궤지(罪紙)에 횡(橫)으로 기재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횡간이라 한다.

129 제급(題給) : 관에서 내어줄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써서 주는 것을 말한다.

130 치제(致祭) : 임금이 공신(功臣)이나 학자가 죽었을 때 제물(祭物)과 제문(祭文)을 보내 제사 지내는 일을 이른다.

131 치전(致奠) : 제문과 제물을 가지고 조상(弔喪)하는 것이다.

132 연양(延陽) :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1581~1660)을 가리키는 바, 인조반정 때 주도 세력이었던 이귀(李貴)의 아들로 1650년(효종1) 우의정이 되고 2년 후 연경을 다녀와 영의정에 올랐다.

133 이현영(李顯榮) : 1573~1642.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경(重卿), 호는 창곡(蒼谷)·쌍산(雙山),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경기도 관찰사·대사헌·도승지·동지경연사·예조 판서·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인조20) 청나라 용골대(龍骨大)가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볼모로 삼아 심양(瀋陽)에 잡아놓고 조선 사신의 입국을 요구하자,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심양에 가서 한 달 동안 감금되었다가 돌아오던 중 평양에서 죽었다.

-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는데, 공이 일찍이 스스로 접지해 둔 곳이다.
- 공이 임종(臨終)에 자제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작은 공적이 이미 청사(靑史)에 올라 있다. 사후(死後)에 문자로 함부로 미화하여 시호(諡號)를 칭하여 비(碑)와 석물(石物)을 세우거나 기명(器皿)을 거두어 보관하지 말라.” 하였다.
  - 일찍이 여기저기서 빌려 근근이 조석(朝夕)을 이었다. 집안사람이 일러 말하기를, “관직에 있을 적에 전혀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 오늘날 고초가 있게 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허물입니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는 소관(小官)에 있을 적부터 오히려 관청의 작은 물건도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날 관직이 높고 녹이 후하거든 장물(贓物)<sup>134</sup>을 범하겠는가?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평생 독서를 좋아하여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역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재임(在任) 시에 친구인 평산(平山) 선약해(宣若海)<sup>135</sup>가 볼만한 책을 구하므로 공이 《소학(小學)》 1권을 보냈다. 선공이 놀라 말하기를, “어찌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가?” 하고, 그 책을 돌려 주었는데, 식자(識者)들이 모두 공을 옳다 하고 선(宣)을 비웃었다.

134 장물(贓物) :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官有物)을 사취(私取)하였을 경우와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가하는 율(律)이다. 이 죄를 받게 되면 그 아들과 손자에게는 의정부(議政府) · 육조(六曹) · 한성부(漢城府) · 사헌부(司憲府) · 개성부(開城府) · 승정원(承政院) · 장례원(掌隷院) · 사간원(司諫院) · 경연관(經筵官)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춘추관(春秋館) · 지제교(知製敎) · 종부시(宗簿寺) · 관찰사(觀察使) · 도사(都事) · 수령(守令) 등의 직책에 제수하지 않는다.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135 선약해(宣若海) : 1579~1643. 본관은 보성(寶城), 자는 백종(伯宗)이다. 비변사 낭청(備邊司郎廳), 평산 부사(平山 府使),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 일찍이 안현(鞍峴)의 역(役)에 포진(布陣)을 이미 마치고-갑자년(1624)에 있었던 일이다.- 투구에 기대어 얼핏 잠이 들었는데, 시조 경렬공(景烈公)-정지(鄭地)<sup>136</sup> 장군-이 장창(長槍)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왜구를 토벌할 적의 물건이다. 너 역시 이것으로 싸우라.” 하였다. 공이 무릎을 꿇고 받고 나서 깨어 보니 꿈이었다. 속으로 마침내 자부(自負)하였다.
- 정월 14일에 문회(文晦)<sup>137</sup> 등이 상변(上變)하였다.
- 21일에 역적 이괄(李适)이 왕사(王使)를 죽이고 군사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다.
- 22일에 이괄이 개천(价川)에서 서울로 향하였다.
- 25일에 원수(元帥)가 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29일에 원수가 평양에서 출발하여 적을 추적하였다.
- 2월 2일에 공이 남이흥(南以興) 공과 함께 황주(黃州)의薪橋에 이르러 적과 싸워 패하였다.
- 8일에 임진(臨津) 방어선이 무너지니, 밤에 상감께서 남쪽으로 피난하여

---

136 정지(鄭地) : 1347~1391. 초명은 준제(淮提), 본관은 나주(羅州),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왜구를 평정할 방책을 왕에게 올린 후, 순천(順天)·낙안(樂安)·광주(光州)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벼슬은 전라도 안무사(全羅道按撫使)·안주 도원수(安州都元帥)·양광전라경상도 도절제체찰사(楊廣全羅慶尙道都節制體察使) 등을 역임했다.

137 문회(文晦) : 1624년(인조2) 전임 교수(教授)의 신분으로 이우(李佑), 김광숙(金光肅)과 함께 윤인발(尹仁發) 등이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珪)을 추대하는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한 인물이다. 이에 기자현(奇自獻), 김원량(金元亮) 등 40여 명이 투옥되었으며, 곧이어 이괄(李适)의 난이 터지자 그 대부분이 처형되었다. 난이 평정된 뒤 진무 공신(振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가 되었다.

- 9일 동틀 무렵 상감께서 한강에서 배에 머물다가 아침에 양재(良才)에 이르고, 낮에 과천(果川)에 이르고, 밤중에 수원(水原)에 머물렀다. 이날 적이 서울에 들어왔다.
- 11일에 상감께서 직산(稷山)에 머물렀다. 이날 관군이 안현(鞍峴)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 12일에 상감께서 천안(天安)에 머물렀는데, 승전보[捷音]가 이르렀다.
- 22일에 상감께서 도성으로 돌아와 책훈(策勳)<sup>138</sup>하였다.-교서를 내려 반당(伴尙)<sup>139</sup> 10인 · 노비 13구(口) · 구사(丘史)<sup>140</sup> 7명, 전(田) 150결(結), 은 60냥,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였다.-
- 공이 차자(次子) 빙(碁)을 적장자(嫡長子)라는 뜻으로 예조에 정문(明文)하였는데, 입계(入啓)되어 윤허를 받았다.
- 공이 방귀전리(放歸田里)되어-계유년(1633)에 있던 일이다.- 서산(瑞山)의 별장으로 가서 자신이 마힐봉(摩詰峯) 아래 혈(穴) 하나를 점지하여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훗날 반드시 나를 이곳에 장사하라. 술객(術客)의 비평이 있더라도 삼가 흔들리지 말라.” 하였다.
- 공신들이 다투어 적가(賊家)의 전답과 노비를 차지하였으나, 공은 홀로 끝내 생각지 아니하였다. 옥성(玉城) 장만(張晩) 공이 들어가 상감께 아뢰기를, “공신 중에 오직 정충신은 하나도 소득이 없습니

138 책훈(策勳) :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을 찬양하여 훈작(勳爵)을 주는 일을 말한다.

139 반당(伴尙) : 조선 시대 종친 · 공신 · 당상관(堂上官)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이다.

140 구사(丘史) : 임금의 종친과 공신에게 특별히 딸려 준 관노비를 말한다.

다. 서산군에 있는 역적 이괄의 전답이 지금 충훈부(忠勳府)에 속했다고 하는데, 이를 절급(折給)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감께서 윤택하였다. 공의 서산 별장이 바로 이것이다.

· 공이 평생에 하는 일은 오로지 날마다 차기(筭記)<sup>141</sup>하는 것이었다. 또한 집에는 하나도 쓸 만한 물건이 없고, 서적이 서가에 꽂혀 있을 뿐이었다. 무진년(1628, 인조6)에 담 무너진 곳으로 도적이 들어와 소독이 없자 책 상자를 훔쳐 갔다. 정묘년(1627) 이전의 일기가 그 안에 있었는데, 끝내 분실되어 무진년 이후의 일기 1책(一冊)이 있을 뿐이다.

· 일찍이 자제더러 옥성(玉城) 장만(張晩) 공을 찾아가 문후하도록 하였는데, -병인년 초하루에 있던 일이다.- 자제가 말(馬)이 없다는 핑계로 마다하였다. 공이 정색하고 꾸짖기를, “내가 한미할 적에 출입을 때 양 도보로 하였다. 네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내뱉는고?” 하니, 자제가 황공하여 물러났다. 이 때문에 자제가 평시에 서울을 출입할 적에는 말을 타지 않았다.

· 공이 관청에서 퇴근하여 하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밥을 가져올 때 마다 어찌 그리 반찬을 많이 갖추느냐.” 하였다. 하인이 말하기를, “반찬이 너무 박하면 어찌 남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먹는 사람은 나요, 내가 능히 부끄럽지 않거늘 집에 있는 네가 어찌 부끄러울 게 있겠느냐? 다시는 이처럼 하지 말아라.” 하였다.

· 이웃집에 좋은 배나무가 있었다. 서너 가지가 공의 집 담장 안으로

---

141 차기(筭記) : 책을 읽어 얻은 것을 수시(隨時)로 적어 놓음. 또는 그 기록을 말한다.

뺨어 나와 바람에 떨어지거나 하면 반드시 그 집으로 던져 주게 하니, 이웃이 탄복하였다.

- 일찍이 뒷간에 가다가 새로 벗긴 개가죽이 길옆에 있는 것을 보고 추문(推問)하였는데, 사내중이 이웃집 개가 말에게 먹일 콩을 훔쳐 먹는 것을 미워하여 죽인 것이었다. 공이 자체더러 사내중을 붙잡아 개 주인집으로 가서 불기를 치게 하고, 개 값을 물어주자 이웃이 매우 감탄하였다.
- 대가(大駕)가 서쪽 교외로 거동할 때면, 공이 반드시 뜰에 내려가 부복하였다.
- 해마다 설날 아침에 반드시 백사(白沙) 상공(相公)의 가묘(家廟)에 가서 배알하였다.
- 능원대군(綾原大君)<sup>142</sup>이 공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능성(綾城)을 통하여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말하였다. 공이 움츠리며 말하기를, “왕자와 사귀는 것은 죄가 사율(死律)을 범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오늘날 장수의 임무를 띤 자임에랴?” 하고, 끝내 만나지 않았다.
- 공이 살던 반송방(盤松坊) 집은 하사받은 집이다. 일찍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군주께서 하사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에 더 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아라.” 하였다.

---

142 능원대군(綾原大君) : 1598~1656. 이름은 이보(李輔), 호는 담은당(湛恩堂)이다. 인조(仁祖)의 동생이자 선조의 손자로 11세 때 백부 의안군(義安君) 이성(李城)에게 입양, 능원군(綾原君)에 봉해졌고 1632년(인조10) 대군(大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

만  
운  
집

---

부  
록  
3  
권

---

攄  
錄  
抄  
錄  
詩  
狀  
謚  
狀  
장



## 시장 諡狀

### 시장

#### 諡狀

공의 휘(諱)는 충신(忠信), 자(字)는 가행(可行), 성은 정씨(鄭氏)이며, 계출(系出)은 금성(錦城)으로 후에 광주로 옮겨 살았다. 고려의 명장(名將) 경렬공(景烈公) 정지(鄭地)의 9대손이다. 증조 천행(荇行)은 임피 현령(臨陂縣令) 증 호조참의(贈戶曹參議), 조부 석주(錫柱)는 증 호조참판(贈戶曹參判), 부친 룬(倫)은 증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금천군(錦川君), 모친 이씨(李氏)는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으로 모두 공이 귀하게 되어 추은(推恩)된 것이다.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9)에 공을 낳았다. 공의 조부로부터 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졸(士卒)로 병영에 예속하였고, 공 또한 소서(小胥)<sup>1</sup>로서 광주에서 급사의 임무를 수행하며 병영에 천경(踐更)<sup>2</sup>하였다. 일찍이 노기(老妓)의 집에 더부살이하였다. 그가 공에게 병사(兵使)가 남긴 음식을 권하자 물리치며 먹지 않고 말하기를, “대장부가

1 소서(小胥) : 악관(樂官)의 이름이다.

2 천경(踐更) : 옛날 병역제도의 일종인데, 기간을 정하여 윤번제로 하는 것이다.

마땅히 병사가 되어 한 상의 음식을 누릴 것이거늘 어찌 그가 남긴 것을 먹겠는가?” 하였다. 공이 당시 소년이었는데, 지기(志氣)가 이미 이와 같았다.

임진년(1592, 선조25) 공의 나이 17세에 당시 왜구가 대거 침입하였다. 권 원수(權元帥)-권율(權慄)-가 광주 목사로서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는데, 공이 일찍이 권공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적을 정탐하기를 청하니, 권공이 놀라 저지하였다. 공이 청하여 마침내 3, 4인과 달려가 하나의 적을 사살하여 목을 베어 돌아오자 공이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사람을 모집하여 행조(行朝)<sup>3</sup>에 분문(奔問)<sup>4</sup>하러 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공이 강개하여 가기를 자청하여 장검(長劍)으로 적의 보루를 뚫고 용만(龍灣)에 도착하였다. 백사(白沙) 상국(相國)<sup>5</sup>-이항복(李恒福)-이 당시에 병조 판서로서 공의 영재(英才)를 단번에 알아보고 막하에 머물게 하여 《춘추(春秋)》와 《사기(史記)》를 가르쳤는데, 충명이 뛰어나 보면 바로 암송하여 얼마 안 되어 여지없이 통하였다.

3 행조(行朝) : 임금이 파천(播遷)하여 임시로 머무르던 곳을 가리킨다. 행재소(行在所)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선조가 피란하여 임시로 머물던 곳을 말한다.

4 분문(奔問) : 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서 문후(問候)하는 것을 말한다. 주(周)나라 양왕(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나라 시골 마을인 범(汜)에 머물면서 노(魯)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께서 도성 밖의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관수에게 문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天子蒙塵于外, 敢不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24年》

5 백사(白沙) 상국(相國)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이다. 인목대비의 서궁 유희와 서인(庶人) 강등에 반대하여 맞서다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적소(謫所)에서 운명하였다.

그해에 왕명으로 용만(龍灣 의주)에서 과거를 베풀었는데, 공이 무과에 올랐다. 선조께서 불러 보고 장유하고, 또한 말하기를, “나이가 아직 어리니, 조금 자라면 크게 등용할 것이다.” 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잇달아 부모상을 당하여 예로써 상을 마치고, 장만(張晩)<sup>6</sup> 공의 주청사(奏請使) 행렬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고, 장공이 함경 감사로 나가자 또한 따라가 성 쌓는 일을 감독하였다. 무신년(1608)에 비로소 조산 만호(造山萬戶)에 제수되고, 기유년(1609)에 불하 첨사(甫乙下僉使)에 승차하여 임기가 차서 체직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에 다시 포이 만호(包伊萬戶)에 제수되고, 이듬해 오윤겸(吳允謙) 공이 일본에 사신 가면서 계청(啓請)하여 함께 갔다.

광해가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하였을 때 허균(許筠)·김개(金開)·백대형(白大珩) 등이 선달그믐 나례(儺禮)를 틈타 대사(大事)를 벌이기로 모의하였다.<sup>7</sup> 공이 듣고 통탄하며 몸을 떨쳐 구인후(具仁厚)·이중로(李重老) 공과 밤에 가서 3적을 도록하려 하였으나, 마침 허균이 있지 아니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다.

백사 이공(李公)이 북청(北靑)으로 귀양 갈 때 공이 수행하여 험난한 여정을 도왔다. 그가 졸하자 손수 염습하여 정성을 다하여 관을 받들고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심제(心制)<sup>8</sup>를 지켰다.

---

6 장만(張晩) : 1566~1629.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8도 도원수로 평양에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여 진무 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저서에 《낙서집(洛西集)》이 있다.

7 인목대비(仁穆大妃)를……모의하였다 : 인목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한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의 일당인 허균(許筠), 김개(金開), 백대형(白大珩)이 1622년(광해군14) 선달 그믐날 귀신 쫓는 곳을 한다는 핑계로 이위경(李偉卿)과 함께 서궁인 경운궁으로 들어가 인목대비를 살해하려다 실패하였다.

경신년(1620, 광해군12)에 장만 공을 따라 체부(體府)<sup>9</sup>로 갔다. 조정이 공을 파견하여 건주(建州)<sup>10</sup>의 상황을 탐지하고자 하면서 모진(毛鎭)-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의 진영(鎭營)-에서 우리 사람이 저쪽으로 들어간 것을 알면 일이 잘못될까 저어하여 공더러 잠행(潛行)하도록 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신의 행렬이 자객(刺客)이나 간인(奸人)이 아님에야 이치상 자취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온 요동 지방에 어찌 한둘이라도 명나라를 생각하는 자의 무리가 소식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모장(毛將)이 그의 야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야흐로 심합니다. 만약 말을 꾸며 명나라의 이목(聽聞)에 잘못 전한다면, 증삼(曾參)의 모친이 소식이 세 번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북을 버리듯 할 것입니다.<sup>11</sup> 신을 보내는 상황을 급히 명나라 조정에 부주(敷奏)하고 모진에도 이계(移揭)하기를 청합니다. 일을 모름지기 명백하고 정대하게 하여야 훗날에 구설을 면할 것이니, 기필코 신에게 형체를 숨기고 가도록 하고자 한다면, 신이 비록 주륙(誅戮)을 당할지라도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정이 뜻을 꺾지 못하고, 마침내 요동 경략(遼東經略) 그리고

8 심제(心制) : 심상(心喪). 친척이 아니어서 상복은 입지 못하나 마음으로 깊이 애도하고 마치 복상하듯이 처신함을 이른다. 스승이나 친구의 상에 심제 삼 년을 행한다.

9 체부(體府) : 체찰부(體察府)의 준말로, 체찰사(體察使)가 군무(軍務)를 보던 곳을 말한다.

10 건주(建州) : 중국 만주(滿洲)의 길림(吉林) 지방의 옛 이름이다.

11 증삼(曾參)의……것입니다 :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의심한다는 말이다. 공자의 제자 증삼이 비(費) 땅에 있을 때 증삼과 동명이인이 살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살인을 했다고 전했다. 증삼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세 번 반복하여 듣자 마침내 베를 짜던 북을 던지고[投杼]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戰國策 卷4 秦策2》

모진에 문서로 통지하니, 식자들이 옳게 여겼다.

공이 건주(建州)로 들어가 여러 대추(大酋)<sup>12</sup>들과 말을 나눴는데, 대추들이 모두 공에게 탄복하였다. 공에게 묻기를, “너희 나라는 항상 우리를 도적이라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천하를 흠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니, 도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니, 여러 대추가 웃고 반박하지 못하였다. 이에 그 요령을 모두 얻어 돌아와 고하고, 또한 말하기를, “이는 장차 천하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어찌 우리나라의 걱정일 뿐이겠습니까?” 하였는데, 나중에 과연 들어맞았다.

장만(張晩) 공이 병조 판서가 되어 마침내 만포 첨사(滿浦僉使)<sup>13</sup>에 제수되자 수졸(戍卒)들이 덕을 칭송하였다. 임술년(1622, 광해군14)에 평안도 병마우후로 교체하여 제수되고,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仁祖)가 공에게 의주 부윤 정준(鄭遵)<sup>14</sup>을 이참(莅斬)<sup>15</sup>하라 명하고, 권영본부사(權領本府事)로 삼았다. 얼마 후 안주목사 겸 방어사(安州牧使兼防禦使) 직을 내리고, 치적(治行)으로 옷감 한 벌을 내렸다. 그 후에 읍민들이 비석에 새겨 추사(追思)하였다.

갑자년(1624) 정월에 부원수(副元帥) 이괄(李适)이 군사를 들어 모

---

12 대추(大酋) : 소수민족의 추장이나 외족(外族)의 수령이다.

13 첨사(僉使) :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어로 종3품(從三品)의 무관직이다.

14 정준(鄭遵) : 1580~162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행지(行之)이다.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으로 형 정조(鄭造)와 더불어 1613년(광해군5) 계축옥사 및 폐모론 등에 대북파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의 충신(寵臣)이었던 죄로 의주에서 주살(誅殺)되었다.

15 이참(莅斬) : 선전관(宣傳官)과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파견하여 죄수가 유배된 곳에서 참형(斬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하였다. 공이 변란을 듣고 바로 평양에 있는 원수(元帥)의 군영(軍營)으로 달려가자 원수 장만 공이 공에게 ‘성을 수비할 계책을 앓는다’고 하여 죄를 물으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적의 뜻은 경성(京城)으로 급히 달려가는 데에 있어 기필코 안주(安州)를 경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외로운 성을 융통성 없이 지키는 것이 달려와서 조용(調用)<sup>16</sup>됨만 못할 것 같아 달려왔습니다.” 하였다. 장공이 말하기를, “그러나 적정(敵情)을 멀리서 헤아릴 수는 없다. 본진(本鎭)을 멋대로 이탈하는 것은 불가하니, 급히 돌아가라.” 하고, 묻기를, “지금 적에게 3가지 계책이 있다. 모장(毛將)과 후하게 결탁하여 청천강 이복을 차지하는 것이 상책(上策)이고, 멀리 누르하치와 손잡고 그의 명성과 위세에 의지하는 것이 중책(中策)이고, 길을 물으며 달려 경성으로 바로 향하는 것이 하책(下策)이다. 그대 생각에 마땅히 어떤 계책을 낼 것 같은가?”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기필코 하책을 낼 것입니다.” 하였다. 순안(順安)으로 돌이켜 도착하여 적이 이미 개천(价川) 길로 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에게 보고하기를, “안주가 이미 적의 후방에 있습니다. 물러나 지키며 적더러 군부(君父)를 향하도록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부하(部下)로 돌아가 적을 쳤으면 합니다.” 하니, 원수가 그 보고를 옳게 여겼다. 비국(備局)의 포계(褒啓)<sup>17</sup>에 공과 남이흥(南以興) 공이 결사적으로 적을 친 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명할 것과 성공하거든 상을 논하기를 청하였다.

원수(元帥)가 출병하였다. 그날 직성(直星)이 칠살(七殺)<sup>18</sup>을 범하

16 조용(調用) : 관리를 골라서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포계(褒啓) : 포창(褒彰)하도록 상주하는 것을 말한다.



였는데, 어떤 사람이 병가(兵家)가 꺼리는 바라고 하여 곤란하게 여겼다. 공이 말하기를, “어찌 부모의 병을 구원하러 가는데 방위를 가려 행하는 자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군대란 명분이 바르면 사기가 왕성하거늘 어찌 고·허·왕·상(孤虛旺相)<sup>19</sup>의 설에 얽매이겠는가?” 하였다. 원수가 옳게 여겨 공을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삼고 남이흥 공을 계원대장(繼援大將)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였다.

이같은 공이 원수의 군영으로 달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홀연히 두려운 기색이 있었다. 또한 무리와 자주 정서제장(征西諸將)을 업신여겼는데, 단만 공에 대하여는 금(金)나라 왕 완안량(完顏亮)이 유신숙(劉信叔)을 꺼리듯 하였다고 한다. 아군이 적을 추격하여 황주의 신교(薪橋)에 이르러 아직 진(陣)을 배치하지 못하였을 무렵 항졸(降卒)이 투항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적의 선봉(先鋒)이 들이닥치는 것이라 여겨 진세(陣勢)가 경동하여 마침내 흩어졌다. 그러나 공이 바로 군사를 수습하여 크게 패하지 않았으므로 원수가 그전처럼 직을 맡겨 입공자효(立功自效)<sup>20</sup>하도록 하였다. 또 적을 추격하여 파주에 이르렀는데,

18 칠살(七殺) : 겁살(劫殺) · 모살(謀殺) · 고살(故殺) · 투구살(鬪毆殺) · 오살(誤殺) · 희살(戲殺) · 과실살(過失殺)을 말한다.

19 고(孤)·허(虛)·왕(旺)·상(相) : 고·허는 천간(天干), 즉 갑을을 일(日)로 하고, 지지(地支), 즉 자축을 진(辰)이라 하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고·허가 있게 된다. 초1일이 갑자일이면 그날에서 열흘까지는 술해일이 없으므로 술해일이 ‘고’가 되며, 진사일이 ‘허’가 된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史記》龜策傳). 왕·상(旺相)은 기운이성한 것을 이르는데 금왕(金旺)은 사·오·미·신·유(巳午未申酉)에 있고, 목왕(木旺)은 해·자·축·인·묘(亥子丑寅卯)에 있다(《孟子》公孫丑下篇注疏).

20 입공자효(立功自效) : 무슨 실수나 과오 같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 기회를 계기(契機)로 삼아 공을 세우는 데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적이 이미 경성(京城)을 점거하였다.

원수가 여러 장수를 모아 놓고 진군(進兵) 여부를 논의하였다. 공이 앞장서 책략을 건의하여 말하기를, “장수들이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지 못한 탓으로 적이 경성(京城)을 범하여 군부(君父)가 피란하였으니, 장수들의 죄는 만 번 죽어 합당하오. 지금 사태가 급박하니, 적을 구경만 할 수는 없소. 성패를 논할 것도 없이 일전(一戰)을 어찌 마다하겠소? 더군다나 방법에 ‘북산(北山)을 먼저 점거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니, 아군이 안령(鞍嶺)을 점거하여 진을 치고 도성을 굽어 압박한다면 도성 백성이 바라보고 반드시 귀정(歸正)을 생각할 것이요. 또한 형세상 적이 부득불 출전할 것이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탄 형국을 얻었으므로 적을 쳐부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요.” 하였다. 남공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정 아무개의 책략이 좋습니다. 청컨대 속히 결단합시다.” 하자, 원수가 마침내 그대로 따랐다.

공이 바로 말에 올라 먼저 출발하고 남공(南公)이 장수들과 더불어 이어서 갔다. 군사가 도중에 있을 때 원수가 공더러 신중(慎重)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공이 이에 그 명령과 반대로 무리에게 소리치기를, “원수께서 나더러 진군을 재촉하라 하신다.” 하고, 채찍을 휘둘러 달려 나갔으니, 그의 기경용결(機警勇決)<sup>21</sup>이 이와 같았다.

공이 경기(輕騎)를 미리 비산(萆山) 위의 안령으로 보내 봉졸(烽卒)을 붙잡아 평안화(平安火)<sup>22</sup>를 올려 적을 속이게 하였다. 공이 먼저

21 기경용결(機警勇決) : 기민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을 말한다.

22 평안화(平安火) : 변방에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는 봉화이다. 봉화는 평상시에 한 번, 적이 출현하면 두 번, 국경에 접근하면 세 번, 국경을 침범하면 네 번, 접전(接戰)하면 다섯 번을 올렸다.

고개 위에 이르러 싸움터로 가고, 장수들이 잇따라 이르러 마침내 포진하여 공의 영역이 두국(頭局)-군진의 선두이 되었다.

당시 장수들이 밤에 이르러 인마(人馬)가 떠들썩하였으나, 마침 동풍이 크게 일어 성안에 있던 적군이 막연히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적이 비로소 아군이 고개 위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바로 문을 열고 출병하여 산 가득히 개미 떼처럼 붙어 올라왔다. 적장 한명련(韓明璉)<sup>23</sup>을 전봉(前鋒)으로 삼아 이괄 자신이 독전(督戰)하며 우리 두국을 직접 공격하니, 화살과 탄환이 바람을 타고 비 오듯 쏟아졌다.

아군이 꼭대기에 처하여 모두 죽기로 싸우는데, 잠시 후에 바람이 홀연히 돌이켜 적이 있는 아래로 향하였다. 아군이 기세를 더욱 분발하여 묘시(卯時)부터 사시(巳時)까지 싸움에 더욱 힘을 다하였다. 적장 이양(李壤)이 탄환을 맞아 죽고, 명련은 화살을 맞아 퇴각하였으며, 적병 중에 진(陣) 앞에서 죽거나 골짜기에 추락한 자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아군이 떨 듯이 추격하여, 형세가 마치 건령(建甌)<sup>24</sup>과 같아, 일당 십(一當十) 아닌 자가 없었다. 이괄이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니, 이날이 갑자년 2월 11일이다.

이괄이 장차 성을 나와 달아날 것을 헤아려, 공이 동쪽 교외에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맞이하여 경안역(慶安驛) 다리에서 따라잡자 적의

23 한명련(韓明璉) : ?~1624.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공을 세워 오위장(五衛將)이 되었다. 이어 방어사(防禦使)를 거쳐 구성 순변사(龜城巡邊使)에 보임되었는데, 이듬해 이괄과 함께 반란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압송 중 이괄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각지의 관군을 패주시키고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길마재(鞍峴)의 싸움에서 선봉장으로 싸우다가 패배, 이괄과 함께 도주하던 중 이천(利川)에서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살해당하였다.

24 건령(建甌) : 옥상에서 물동이의 물을 쏟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을 말한다.

우리가 바라보고 마침내 흠어들었다. 이튿날 새벽 이괄과 한명련이 그의 부하들에게 참수되었다. 공이 원수를 따라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토벌 하면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무릇 17일 만에 적을 평정한 것이다.

상감께서 환궁하게 되자 장수들이 모두 경성에 머물러 어가(御駕)를 맞이하였으나, 공은 먼저 홀로 진(鎭)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가 묻자 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변방에서 군사를 거느린 신하로서 미친 도적을 즉시 잡지 못하여 군부를 피난케 하였으니, 신(臣)의 죄가 큰데, 어찌 감히 공이 있다고 자처하겠는가? 마땅히 본진으로 물러가 지키며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다.” 하였다.

상감께서 특명으로 일소(駙召)<sup>25</sup>함에 공이 비로소 조회에 나가니, 인견(引見)하여 장유(獎諭)하며 황금을 하사하고 술을 권하였다. 마침내 훈1등(勳一等)에 책정하고,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금남군(錦南君)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임소(任所)에 있을 때 병을 앓자 상감께서 내의(內醫)를 보내 약을 지어 살피도록 하였다. 얼마 후에 평안 절도사 겸 영변 대도호부사(平安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를 명하므로 공이 상소하여 곧이 사양하니, 상감께서 재지(才智)를 지녔다 하여 포장하고 우악한 비답(批答)으로 두텁게 권면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3)에 풍질(風疾) 때문에 체직되어 돌아가자 의원을 보내 문병하고, 물건을 내려 주는 일이 이어졌다. 맹부(盟府)<sup>26</sup>에서 오랫동안 병을 요양하였다.

25 일소(駙召) : 임금이 역마를 주어 지방 관원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26 맹부(盟府) : 옛날 공신에게 내린 맹약 문서 즉, 서사(誓辭)를 보관하던 관부(官府)인데, 여기서는 충훈부(忠勳府)를 가리킨다.

정묘호란에 장만 공이 체찰사로서 장사(將士)를 선발하였는데, 공을 별장(別將)으로 삼자 병을 무릅쓰고 종군하였다. 비국에서 말하기를, “제장 중에 재략이 출중하여, 이미 등용되어 효과가 있기는 정 아무개만한 자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원수로 삼아 서북의 군사를 붙이고, 삼남(三南)의 근왕병(勤王兵)을 더해 주어 곤외(關外)<sup>27</sup>를 전제(專制)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바로 군중에서 배명됨에 해서(海西)의 골짜기 읍으로 이주하여 군사를 나누어 임진(臨津) 등의 강여울을 수비하였다.

제도(諸道)의 군사가 아직 다 집결하기도 전에 적이 화해를 청하고 물러가므로 그 뒤를 밟아 안주(安州)에 진주(進駐)하였다. 우리 백성 중에 잡혀갔다가 도망쳐 온 자들이 도로에 이어졌다. 공이 마음을 다하여 구제하고, 버려진 짓먹이 수백 명을 살렸으며, 평양·안주의 병(兵)이나 민(民)으로 전란에 죽은 자를 묻어 주고 단을 쌓아 곡하며 제사를 지냈다.

무진년(1628, 인조6) 여름에 또한 풍질(風疾) 때문에 상경하여 치료하기를 청하자 허락하였다. 조정에 나아가자 인견(引見)하여 위로하고, 모진(毛鎭)의 움직임, 적정(敵情)의 허실 및 수령(將吏)의 능부(能否)·변방(邊防)의 여하(如何)를 묻고, 비국당상(備局堂上)에 제수하였다. 기사년(1629)에 겸 도총관(兼都摠管)이 되어 이로부터 여러 차례 배명되었다.

정묘년(1627) 변란 초에 공이 말하기를, “이들은 기필코 화의(和議)

---

27 곤외(關外) : 곤(關)은 도성의 문이다. 옛날에 출정하는 장수를 전송할 때 임금이 무릎을 꿇고 수레바퀴를 손수 밀면서 말하기를 “곤내(關內)는 과인이 다스릴 테니 곤외는 장군이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였다. 《史記 卷102 張釋之馮唐列傳》 도성문 밖 즉, 전장(戰場)을 뜻한다.

를 맺고 떠나려 할 것이다.” 하였다. 기사년(1629, 인조7)에 변신(邊臣)이 보고하기를, “모진(毛鎭)에 군사를 움직여 난을 꾸밀 형세가 있다.”라고 하였다. 공이 대책에, “그들이 기필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경오년(1630)에 이르러 오랑캐 군사의 대대(大隊)가 용만에 와서 주둔하고, 용골대가 수백 기(騎)를 거느리고 안주에 이르자 서관(西關)이 진동하였다. 공이 상주하기를, “저들이 대거 관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모진과 함께 소굴을 짓짚을까 저어하여 이러한 견제의 계(計)를 쓴 것이니, 달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공의 말과 같았다.

유흥치(劉興治)가 가도(椴島)<sup>28</sup>에서 난을 일으킴에 명을 받들어 장차 문죄(問罪)하려 할 즈음, 승평(昇平) 김 상국(金相國)<sup>29</sup>-김류(金瑬)-이 공을 보내도록 청하였다.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더러 하게 하시면 청컨대 왕을 위하여 선봉이 되겠나이다.” 하였다. 상감께서 기뻐하며 가상히 여겨 보내니, 공이 마침내 수군 1만여 인 및 훈련도감(訓練都監)과 어영청(御營廳)의 정예 전함 200척을 거느리고 순안(順安)과 숙천(肅川) 사이에서 무력시위를 하였다.

흥치의 무리 이영준(李英俊)이 우리 주사(舟師)가 매우 성대함을

28 가도(椴島) : 평안도 철산부(鐵山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1623년 명나라에서 모문룡(毛文龍)에게 도독(都督)직을 내리고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유격장군 진계성이 모문룡을 대신해서 그 무리를 이끌었다. 유흥치는 만주에서 가도로 도망왔는데 진계성과 뜻이 맞지 않자 1630년 진계성을 죽이고 가도를 차지하였다. 《국역 만기요람 군정편5 가도 시말(椴島始末)》

29 김 상국(金相國) : 김류(金瑬, 1571~1648)로,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반정의 공로로 병조 참관에 임명되고, 곧 병조 판서로 승진하여 대제학을 겸하는 동시에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졌다. 《潛谷遺稿 卷12 領議政昇平府院君贈諡文忠金公墓誌銘》

보고 놀라 엎어져 죽을 뻔하였는데, 가도 사람들이 이고 지고 서 있었다. 이윽고 홍치가 성의를 표하며 “칙령(勅令)을 받아 섬을 관리한다.” 칭하고, 손 각부(孫閣部)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하여 문서로 인정하므로 상감께서 마침내 회군을 명하였다.

공의 이러한 행의(行義)와 명성이 명나라에 알려져 홍치가 죽자, 병부(兵部)에서 자문(咨文)을 보내 포장(褒獎)하여 말하기를, “홍치가 반란하여 가도를 점거하였을 때, 그때 귀국의 일을 담당하는 신하가 충용(忠勇)으로 세력이 뻗어 나가는 것을 대처하지 않았던들 제(齊)·노(魯) 지역이 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미년(1631, 인조9)에 적병 2만 기(騎)가 청북(淸北)으로 침입하여 큰 소리로 떠벌리기를, “장차 배를 빌려 가도를 치겠다.”라고 하였다. 그 속내를 헤아리기 어려워 급히 공에게 명하여 방어하도록 하고, 공을 불러 계책을 묻자 공이 대답하기를, “저들이 출병하여 서쪽을 범하고 또 동쪽을 침범하면 뜻이 후방을 견제하는 데에 있으니, 이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서쪽을 범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쪽에 뜻을 둔다면 서문(西門)의 수비할 수 있는 곳은 안주성 하나가 있을 뿐이니, 신이 마땅히 들어가 수비하여 결사 항전할 것입니다. 만약 배를 빌려 섬을 친다고 하면 존망(存亡)이 비록 갈릴지라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드디어 안주로 달려가 부임하여 오영(五營)<sup>30</sup>의 군사를 모아 죽기로

30 오영(五營) : 오영의 제도는 인조(仁祖) 때 시작된 것으로, 여러 도에 각각 전, 후, 좌, 우, 중앙에 총 다섯 진영을 설치하였는데, 군사 수가 적은 도는 삼영(三營) 또는 사영(四營)을 두었고, 후대로 오면서 각 진영의 숫자는 가감되었다. 평안도 오영의 경우, 전영은 숙천(肅川), 좌영은 덕천(德川), 중영은 중화(中和), 우영은 순천(順川), 후영은 함중(咸從)이다.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平安道》《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 혜안, 1999》

싸우기를 격려하고, 또한 저쪽 사자(使者)를 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함부로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땅을 침입하니, 맹세를 크게 어긴 것이다. 더군다나 황 도독(黃都督)이 천조(天朝)의 명을 받들고 가도(假島)를 진수(鎭守)<sup>31</sup>하거늘 내 어찌 천조를 배반하고 배를 빌려 주어 공격을 돕겠는가?” 하였다. 저들 역시 대꾸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그해 겨울 가도(柯島)에서 공언하기를, “육지에 나가 곡식을 바껴 겨울을 날 것이다.” 하므로, 공이 철산(鐵山)의 사포에 진주하여 대비 하였다. 따라서 가도에 격문을 보내 따지고, 황룡(黃龍)·심세괴(沈世魁) 두 장군에게 서유(書諭)하였다. 섬의 무리가 이러한 까닭에 육지로 나오지 않았다.

공이 전후로 3차례 상차(上箭)하여 서변(西邊)에 관한 일을 논하여 열읍(列邑)에 산성을 쌓아 해상 방어를 갖추고 둔전을 설치하여 변란이 있으면 입보청야(入保淸野)<sup>32</sup>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또한 용만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하니, 식자(識者)들이 “변방을 수비하는 계책을 깊이 체득했다.”라고 일컬었다. 바야흐로 묘당에 내려 축성(築城)·둔전(屯田) 같은 것은 대략 시험하고, 추도(楸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을 이룩고 시작하다가 파하여 한인(漢人)이 들어와 양 섬에 처하여도 막을 수 없게 되자 묘당이 역시 후회하였다.

임신년(1632, 인조10)에 평안 병사에 배명(拜命)됨에 원수(元帥)를

31 진수(鎭守) : 군대를 주둔시켜 군사상 중요한 곳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32 입보청야(入保淸野) : 적이 침입해 오면 성(城)이나 보(堡)에 들어가[입보(入保)], 들관을 말끔히 청소한다[청야(淸野)]는 뜻으로, 평안도나 함길도의 경우, 가을과 겨울이 되면 으레 백성들을 입보하도록 하였다.



그만두었다. 임경업(林慶業)<sup>33</sup>이 공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사람을 부추겨 공을 소척(疏斥)하므로 공이 드디어 진정하여 병사를 그만두었다. 얼마 후에 다시 부원수로 발탁한다는 명을 받들었다.

계유년(1633, 인조11) 봄에 조정이 사신을 심양(瀋陽)으로 들여보내 세폐(歲幣)<sup>34</sup>를 허락할 수 없음을 거듭 말하여 화친을 단절할 뜻을 보이려 하였다. 당시 김시양(金時讓)<sup>35</sup> 공이 체찰사(體察使)로서 안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공과 김공이 논의하여 함께 진소(陳疏)하기를, “우리는 저들에 비해 강약(強弱)이 같지 아니하고, 세폐는 당·송(唐宋)도 면할 수 없었던 바입니다. 의당 간략하게 국서를 고쳐 변방에 트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신을 멋대로 억류한 죄를 청하니, 성상의 하교가 매우 엄중하였다. 묘당이 체포하여 치죄(治罪)하기를 청하자 윤희하고, 국서를 고쳐 짓도록 명하였다.

이미 심리가 시작되어, 공이 처음에 당진에 유배되자 사헌부에서 충군(充軍)<sup>36</sup>하기를 청하였다. 하교하기를, “정충신 자신은 대공(大

33 임경업(林慶業) : 1594~1646.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다. 무장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하였으며,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명나라와 협력하여 청을 공격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시호가 충민(忠愍)이다.

34 세폐(歲幣) : 매년 음력 10월에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이다.

35 김시양(金時讓) : 1581~1643.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시언(時言), 자는 자중(子中), 호는 하담(荷潭),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1626(인조4)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1627년에 평안도관찰사 겸 체찰부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 뒤 한성 판윤을 거쳐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청백리에 뽑혀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저서에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하담집》, 《부계기문(涪溪記聞)》 등이 있다.

36 충군(充軍)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군역(軍役)에 편입(編入)시키거나, 죄를 지은

功)이 있다. 그리하여 참작하여 벌을 시행한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고, 액정인(掖庭人)<sup>37</sup>을 보내 위로하고 악물을 내렸다. 사간원이 또 간하자 상감께서 해서(海西)로 이배(移配)를 명하였다가 장연(長淵)으로 개배(改配)하여 배소(配所)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못 되어 방귀전리(放歸田里)<sup>38</sup>하였다.

공이 고향을 떠난 지 14년 만에 비로소 광주 옛집으로 돌아가 선영에 곡하고 시조 묘를 손질하였다. 그때 필마와 거룻배로 두루 아름다운 산수를 찾으니, 사람들이 옛적의 원수(元戎)를 알지 못하였다. 장자(莊子)·노자(老子)를 읽으며 시를 읊어 회포를 붙였다. 시에

한밤 등불 아래 글 읽기에 맞들어	有味檢書孤燈夜
파릉 언덕에 범 사냥 관심 없도다	無心射虎灞陵原
짠한 건 가을이라 늙은 말 나대며	只憐老驥逢秋動
변방 향하여 나무 아래 슬피 울이여	樞下悲鳴向塞門

라는 구절이 있다.

공이 갑술년(1634, 인조12)에 특사 되니, 상경하여 사례하였다. 술을 내리고 거듭 술·고기·쌀·콩을 내리고, 포도대장 겸 내섬시 제조(捕盜大將兼內贍寺提調)에 제수하였다. 그해 겨울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에 배명되어 영(營)에 이르러 계사전망장사(癸巳戰亡將士)에 대

---

평민(平民)을 천역군(賤役軍)에 편입하던 일종의 형벌을 말한다.

37 액정인(掖庭人) :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인사이다.

38 방귀전리(放歸田里) : 벼슬을 삭탈(削奪)하고 제 고향으로 내리쫓음. 유배(流配)보다 한 등급 가벼운 형벌이다.

한 제사를 지냈다.

이듬해 여름에 병이 나 체직하여 돌아갔다. 상감께서 사람을 보내 문병하고, 찬물(饌物)을 내리기를 매월 으레 하였다. 병자년에 병이 더욱 심해지니 내의가 진찰하고 말하기를, “마땅히 삼(蔘)을 복용해야 하는데, 계속하여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하기를, “경을 고칠 수만 있다면 실로 아까울 것이 없거늘 하물며 몇 근의 삼이라.” 하였다.

당시 도성에 흥흥하게 왜구가 장차 이를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공이 말하기를, “남쪽 왜구는 기필코 오지 않을 것이다. 크게 걱정할 바는 북쪽 오랑캐에 있을 터인데!”라고 하였다. 조정의 의론이 절화(絶和)<sup>39</sup>에 이르렀다. 공이 바야흐로 위독한 가운데 크게 한숨지며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存亡)이 올해에 결판날 것이다.” 하고는 병이 끝내 더하여 5월 4일 집에서 세상을 마치니, 향년 61세였다.

부음을 알리자 왕께서 장차 열릴 경연(經筵)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금남군 정충신이 세록신(世祿臣)<sup>40</sup>은 아니지만, 왕실에 충성을 다하여 종사를 편케 하였다. 내 그 공을 생각하여 일찍이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병 때문에 녹초가 되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니, 내 마음이 고굉(股肱)을 잃은 것처럼 애석하다.” 하고, 해조(該曹)더러 예장(禮葬)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관(中官)을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고, 어복(御服)을 벗어 주어 수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예관(禮官)이 격례(格例)대로 치조(致弔)<sup>41</sup>하여 7월에 서산군 북쪽 마힐산 경향원

39 절화(絶和) : 화친관계를 끊는 것을 말한다.

40 세록신(世祿臣) : 세록지신(世祿之臣)의 준말로, 대대로 왕실(王室)을 섬기는 신하를 말한다.

(庚向原)에 장사하였다.

임종에 자제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재주 없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원수(元戎)의 자리를 차지하여 끝내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다. 갑자년(1624, 인조2)의 작은 공로 같은 것은 본래 국사에 있으니, 삼가 문자로 포장하고 미화하여 비석을 세우거나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 것이며, 예장(禮葬)을 아울러 말도록 하여라.” 하였다.

배(配) 허씨(許氏)는 소생이 없고, 후배(後配) 양씨(梁氏)가 3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반(礮)·빙(砮)·민(礮)인데, 공이 빙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빙이 무과(武科)에 올라 행 부사(行府使)이며, 금평군(錦平君)으로 습봉(襲封)<sup>42</sup>하였다.

공은 작달막하고 날래며 눈동자가 셋별 같고 용의가 단아하며 재주와 식견이 민달(敏達)하고 담론이 쏠쏠하여 듣는 이가 지루함을 잊었다. 집안에서 조행(操行)이 매우 뛰어나 조상을 받드는 일에 독실하고, 상제(喪祭)에 정성을 다하며, 새로운 물건은 반드시 천신(薦新)<sup>43</sup>한 후에 맛보았다. 그가 도성(都城) 서편 집에 있을 때 대가(大駕)가 서쪽 교외로 나올 때면 반드시 뜰에 내려가 부복(俯伏)하였다.

벼슬에 있을 때는 좋은 음식으로 자신을 윤택하게 아니하고, 집에 있을 때는 매우 가난하여 때로는 빛을 면하지 못하였다. 장복(章服)<sup>44</sup>이

41 치조(致用) : 임금이 승지 등을 보내 죽은 신하를 조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2 습봉(襲封) : 국가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은 공신(功臣)이라 하여 군(君)을 봉하게 되었는데, 그 공신의 장손으로 벼슬이 종2품(從二品) 이상에 승관되면 그 조상의 군(君)을 습봉(襲封)하는 법이다.

43 천신(薦新) : 새로 농사지은 과일이나 곡식을 먼저 사직이나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아니면 비단옷을 입지 아니하고, 두 가지 고기반찬을 먹지 아니하였다.

여러 공신이 다투어 역적 집안의 전토(田土)를 청하였는데, 공은 홀로 말을 하지 않자 장만 공이 청하여 비로소 하사를 받았다. 하사받은 집이 도성 안에 있어 장공의 집과 가까웠다. 이사할 때 매우 낮고 비좁았으나 죽을 때까지 서까래 하나도 더하지 아니하였다. 이웃에 좋은 배나무가 있었다. 가지가 담을 넘어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마다 던져 돌려주게 하였다.

백사(白沙) 상공(相公)을 받들었다. 그가 세상을 뜨자 정성과 예를 더욱 돈독히 하였으며, 설날이면 반드시 사당에 배알(拜謁)하고,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에 참여하여 그의 자제 및 지친을 기다렸다. 장만(張晩) 공을 섬겨 역시 백사 상공에 버금으로 하였다.

무장(武將) 중에 구능성(具綾城)·능천(綾川) 같은 이가 가장 상선(上善)으로 지기(知己)가 되고, 남의춘(南宜春)-이흥(以興)-과는 처음에 틈이 있었으나, 함께 적을 토벌하면서 이광필(李光弼)과 곽자의(郭子儀)<sup>45</sup>처럼 서로 권면하여 마침내 환연히 뜻이 맞았다. 의춘이 죽자 당에 올라 모친을 뵈었고, 별미(別味)를 얻으면 반드시 보냈다. 젊어서 백사 상공 문하의 여러 명사와 두루 사귀어 장계곡(張谿谷)·이연양(李延陽)·최완성(崔完城)·정 학사(鄭學士)-홍명(弘溟)-와 더욱 더불어

44 장복(章服) : 고대 예복의 하나로, 일월(日月), 성신(星辰) 등의 도안이 그려져 있다. 천자(天子)는 12장(章)의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품등에 따라 9장, 7장, 5장, 3장 순으로 내려간다.

45 이광필(李光弼)과 곽자의(郭子儀) : 곽자의(697~781)와 이광필(708~764)은 모두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을 평정하는 데 활약한 당나라 장수들로, 그 공을 인정받아 각각 분양왕(汾陽王)과 임회왕(臨淮王)에 봉해졌다. 《新唐書 卷136 李光弼列傳, 卷137 郭子儀列傳》

어 막역하였다.

명성이 자자하게 되어서는 당대의 큰선비들이 사모하고 좋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서로 방문하며 사람을 지위로 차별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매우 엄격하였다. 왕자 중에 공의 사람 됨을 사모하여 한번 만나기를 바라는 이가 있었는데, 공이 움츠리며 말하기를, “왕자와 사귀면 그 형률(刑律)이 있다. 더군다나 몸이 장수의 직임에 처한 자임에야?” 하고, 끝내 만나지 아니하였다.

성품이 독서를 좋아하였다. 그가 건주(建州)에 들어갔을 때 누르하치가 공을 시험하려고 방 하나에 유폐(幽閉)하여 굶기자 공이 오히려 밤새 독서를 낭랑하게 하였는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었다. 평소 도서(圖書)를 좌우에 하여 서생(書生)처럼 순순하였다. 상소(章奏)를 간당 적확하게 하였으며, 시문(詩文)은 속어로 짓지 아니하였는데, 남아 있는 원고가 없다. 행사(行事)에 그때마다 기록하여 권질(卷帙)을 이루었으나, 또한 허다히 흩어졌다.

《금판(金版)》·《육도(六叢)》와 무릇 제병가(諸兵家)의 유(流)를 본디 전문한 바이며, 미루어 감석(甘石)·감여(堪輿)·복서(卜筮)·성명(星命)·예술(藝術)에 관한 책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백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검(劍)을 버리고 책을 가까이한다면 일세(一世)의 고사(高士)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이 공을 애도하는 글에, “청명한 기상은 태허(太虛)와 합하고, 단묘(端妙)한 자태는 화도(畫圖)에 머물도다. 청빈한 지조로 옷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좌마(左馬)<sup>46</sup>의 글로 홀로 옛사람을 좇도다.” 하였으니, 명공(名公)들이 칭찬한 바와 추중(推重)한 바가 이와 같았다.

공이 어렸을 때 난리에 소매를 떨쳐 예봉(銳鋒)이 드러나고, 이미 출사(出仕)하여 왕사(王事)에 종사하면서, 서관(西關)·북새(北塞)의, 산천의 험조(險阻)에 관하여 모두 대략이나마 그 형세를 겪어 보았다. 남으로 일본에 들어가고, 북으로 사막을 달리기에 이르러 이국의 정태(情態)를 탐지하여 꿰뚫고, 여러 계책을 참조하여 임기응변하고 담략을 종횡으로 하였다. 김시양 공이 삼국(三國)의 책사(策士)에 비유하고, 장계곡은 적에 대처하기를 잘하는 점에 탄복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 이괄의 변란에 충의를 분발하여 먼저 오르기를 결단하여 큰 도적을 섬멸하고 나라의 운명을 회복하였으므로 나라에서 마침내 제월(齊鉞)<sup>47</sup>을 내렸다. 변방을 방비하며 출입한 지 7년에 피로와 병이 함께 이르러 별세함에 운음(綸音)이 슬펐으니, 성주께서 신하를 알았음이어!

대략 공의 평생을 논하자면, 진중(行間)에서 몸을 떨침은 적무양(狄武襄)<sup>48</sup> 같고, 구란(寇亂)을 신속히 소탕함은 이서평(李西平)<sup>49</sup> 같고, 물러나 자랑하지 아니함은 풍장군(馮將軍)<sup>50</sup> 같고, 학문이 열려 더함은

46 좌마(左馬)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저자 좌구명(左丘明)과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을 말한다.

47 제월(齊鉞) : 새로 장수를 임명하여 전쟁터로 보낼 때 왕이 수여하는 부월(斧鉞)을 말한다.

48 적무양(狄武襄) : 송(宋)나라 명장 적청(狄青)의 시호이다. 인종(仁宗) 때 광원주(廣原州)의 야만족인 농지고(農智高)를 평정하고 돌아와 추밀사(樞密使)를 제수받았다. 《宋史 卷290 狄青列傳》

49 이서평(李西平) : 당 덕종(唐德宗) 때 주자(朱泚)의 난을 평정한 이성(李晟)을 가리킨다. 그가 장안(長安)을 수복하여 봉천(奉天)으로 피신했던 덕종을 다시 돌아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평군왕(西平郡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50 풍장군(馮將軍) : 풍당(馮唐)으로, 한나라 때의 명신(名臣)이다. 문제(文帝) 때에

여자명(呂子明)<sup>51</sup> 같고, 진탕(陳湯)<sup>52</sup>이 오랑캐의 일을 익히던 지혜를 지녔으며, 조빈(曹彬)<sup>53</sup>이 도서를 신던 엄치를 지녔었다. 변방을 수비할 규모를 계획함에는 역시 맹공(孟珙)<sup>54</sup>이 강한(江漢)을 진무하고, 여개(余玠)<sup>55</sup>가 서촉(西蜀)을 막듯 하였거늘, 애석하다, 그 지업(志業)

---

늙은 나이로 거기 도위(車騎都尉)를 지내고, 경제(景帝) 때 초상(楚相)이 되었다가 면직(免職)되었으며,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현량(賢良)으로 선발하였으나, 그때 나이가 90이 넘는 상태라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이 고사에 따라 연로한 신하가 자신의 노쇠함을 비유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 51 여자명(呂子明) : 여몽(呂蒙, 178~219)으로, 중국 후한 말 손권 휘하의 장군으로 자는 자명(子明)이며 예주 여남군 부피현(富陂縣) 사람이다. 우가 지키던 형주를 손에 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 52 진탕(陳湯) : 자는 자공(子公), 시호는 장(壯)이다. 한 원제(漢元帝) 때 서역 부교위(西域副校尉)에 임명되어 서역에서 위명(威名)을 떨치던 질지선우(郅至單于)를 강거(康居)에서 잡아 죽여 서역을 평정한 공으로 관내후(關內侯)에 봉(封)해진 사람이다. 《한서(漢書)》 권70 부상정감진단전(傅常鄭甘陳段傳).
- 53 조빈(曹彬) : 자는 국화(國華), 시호는 무혜(武惠)이다. 둘 때 부모가 장난감을 주니 왼손엔 방패·창, 오른손엔 조두(俎豆)에 도장 하나를 가질 뿐 여타는 보지 않으므로 모두 특이하게 여겼다. 촉(蜀) 토벌 때 다른 장수는 성을 도륙(屠戮)하였지만, 빈은 영만 내려 진압했고, 다른 장수는 자녀, 옥백(玉帛) 등을 차지하였지만 빈은 도서(圖書)와 의복만을 가졌다. 벼슬이 검교 태사(檢校太師)와 겸시중(兼侍中)에 올랐다.
- 54 맹공(孟珙) : 1195~1246, 중국 남송(南宋)의 장수로, 자는 박옥(璞玉), 호는 무암거사(無庵居士)이다. 아버지 맹종정(孟宗政)과 함께 조양에서 금(金)나라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이후 충순군(忠順軍)을 이끌고 경서병마감할(京西兵馬鈐轄)에 올랐다. 1233년에 몽고군과 함께 채주(蔡州)에서 금나라 애종(哀宗)을 포위하고 다음 해에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금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몽고군을 공격하여 양양(襄陽), 번성(樊城) 등지를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영무군 절도사(寧武軍節度使)와 사천선무사 겸 기주지주(四川宣撫使兼夔州知州) 등을 역임하고 한동군후(漢東郡侯)에 봉해졌으며, 형양(荊襄)에 진을 치고 중원을 회복하는 일을 임무로 삼았다.
- 55 여개(余玠) : 남송(南宋) 사람으로 자는 의부(義夫)이다. 1242년 병부시랑 사천안무제치사(兵部侍郎四川安撫制置使)가 되어 촉(蜀)을 다스리는 10년 동안 각종 폐단을 개혁하였으며,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둔전을 실시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등 전비를 확충하여 여러 차례 몽고군의 침입을 물리쳤다. 《宋史 卷416 余玠列傳》



을 능히 연구할 수 없음이여! 아, 천명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갑자년(1624, 인조2)에 난을 평정하고부터 올해에 간지(干支)가 일주하여 다시 돌아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성상께서 공의 공적을 추념하여 유사(有司)더러 그 후의 일을 수록하고, 역명지전(易名之典)<sup>56</sup>을 거행토록 명하였다. 이에 공의 기상(旂常)<sup>57</sup>의 위대한 공적이 더욱 영원토록 빛나리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유수(留守) 이선(李選)<sup>58</sup> 공이 기록한 공의 유사(遺事)가 매우 자상하였다. 이에 분명히 드러난 것을 들어 위와 같이 논찬(論纂)하여 태상시(太常寺)<sup>59</sup>의 논의에 대비하였다.

승정 기원후 갑자년(1684, 숙종10) 12월 일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신(奮忠效義炳幾協謀保社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sup>60</sup>가 삼가 찬하다.

---

56 역명지전(易名之典) : 시호(諡號)를 내리는 의식(儀式)으로 시호는 정2품 이상을 지낸 인물의 사후(死後)에 생존 시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여 국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새로운 호(號)를 말한다. 절혜지전(節惠之典)이라고도 한다.

57 기상(旂常) : 교룡(蛟龍)과 일월(日月)을 새긴 천자의 깃발인데,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였다.

58 이선(李選) : 1632~1692. 본관 전주(全州),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 시호는 정간(正簡)이다. 송시열의 문인이고 예조 참판과 이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59 태상시(太常寺) : 봉상시(奉常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와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는 곳이다.

60 김만기(金萬基) : 1633~1687. 조선 효종(孝宗) 때부터 숙종(肅宗)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숙종의 국구(國舅)로, 김만중(金萬重)의 형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를 지내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 척록 摭錄

### 《해동명신록》의 대략

#### 海東名臣錄略

정 장군(鄭將軍)은 본래 광주의 지인(知印)<sup>61</sup>이었는데, 뛰어난게 영리하여 권울(權慄) 원수(元帥)가 목사일 때에 특별히 아꼈다. 임진왜란 당시 17세였다. 목사가 승차(陞差)하여 본도 관찰사가 되어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하게 되자 충신(忠信)이 따라갔다. 관찰사가 일찍이 군사를 보내 적진을 정탐하게 하였다. 충신이 함께 가기를 청하므로 공이 놀라 말하기를, “너 어린것이 가서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하였다. 충신이 굳이 청하므로 마침내 보냈다. 달려가 적진에 이르니, 적은 이미 물러간 뒤였다. 충신이 촌가를 두루 살펴보니, 깨진 독이 떨어져 있었다. 충신이 장난삼아 맞히자 독 안에 병든 왜병이 숨어 있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 마침내 목을 베어 깃대에 매달고 돌아오니, 권공(權公)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그 후 행조(行朝)<sup>62</sup>에 장계를 보내려 하였는데, 그때 적병이 서로(西

61 지인(知印) : 지방관의 관인(官印)을 보관하고 날인의 일을 맡던 토관직(土官職)이다.

62 행조(行朝) : 임금이 파천(播遷)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을 가리키며, 행재소(行在所)라고도 한다. 당시 선조는 용만(龍灣), 즉 의주(義州)에 피난해 있었다.

路)에 미어져 사람들이 기꺼이 가려고 아니하였다. 오로지 충신이 가기를 청하여 낮으로 앞드리고 밤으로 가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의주(義州)에 전달하였다. 마침 행조에서 과거를 실시하는 기회를 만나 마침내 등과(登科)하였다.

권공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백사(白沙) 이상(李相)-항복(恒福)-이 또한 아껴 항상 좌우에 두고, 자를 “가행(可行)”이라 지어 주고 추천하여 발탁되었다. 끝내 명장이 되어 만포 첨사, 평안(平安)·경상(慶尙) 양도 병사가 되고, 인조 초년에 부원수가 되어 역적 이괄(李适)을 토평(討平)하여 진무(振武)의 원훈(元勳)에 책록되고 금남군(錦南君)으로 봉해졌다.

## 백사가 순찰사 장만에게 보낸 편지의 대략

白沙與張巡察晚書略

병판(兵判)이 발탁하여 등용할 뜻이 있음을 알고, 정충신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등용하지 말고, 오직 영감(令監) 휘하에 몸을 의탁하여 진퇴[行止]를 편히 하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홀연히 조산 만호(造山萬戶)가 되어 함부로 멀리 가니, 매우 고민입니다. 이미 축성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니, 이로써 계체(啓遞)<sup>63</sup>할 수는 없겠지요?

위인(爲人)의 국량(局量)이 협소하긴 하지만, 재기(才氣)와 의기(義氣)는 모두 아낄 만합니다. 그 의기로 못 호반(虎班) 사이에 노닐기 보다는 오히려 장보(章甫)로서 월(越)나라에 가서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로 옳을 것입니다. 검을 버리고 책을 가까이하여 일세(一世)의 고사(高士)가 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아쉽습니다.

---

63 계체(啓遞) : 임금께 아뢰어 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청흥군<sup>64</sup> 비문의 대략 조경<sup>65</sup>

青興君碑文略 趙綱

무오년(1618, 광해군10)에 소인배들이 광해군을 중용하여 인목대비를 유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허균(許筠)·김개(金闔)·백대형(白大珩)이 또 앞잡이가 되어 서궁(西宮)을 엿보다가 선달 그믐밤 나례(儼禮)를 틈타 큰일을 벌이기로 모의하니, 귀가 있는 자라면 듣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공이 능천(綾川) 구인후(具仁厚)·금남(錦南) 정충신(鄭忠信)에게 일러 말하기를, “삼강(三綱)이 끊어졌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어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듣건대, 충신(忠信)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죽기로 결단하여 이 3적(三賊)을 마구 죽여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한다면, 어찌 모후(母后)의 1일의 화를 막는 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사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서로 삼혈(敵血)<sup>66</sup>하여 맹세하고 날짜를 기약하여 3적을 도륙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허균 등이 저절로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공의 광복(匡復)에 대한 뜻이 실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64 청흥군(青興君) : 이중로(李重老, 1577~1624)의 봉호이다. 본관은 청해(青海), 자는 진지(鎭之), 호는 송계거사(松溪居士)이다. 개국 공신 이지란(李之蘭)의 후손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과 훈련도감낭청을 지내고, 1621년(광해군13)에 이천 부사(伊川府使)가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 장단 부사 이서(李曙) 등과 함께 장졸을 모아 참여하였으므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었고 청흥군에 봉해졌다.

65 조경(趙綱) : 1586~166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이다. 벼슬이 대제학,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저술로 《용주집》이 있다.

66 삼혈(敵血) : 옛날에 맹세할 때 짐승의 피를 입가에 바르던 것에서 나온 말로, 서로 굳게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 〈과적론〉의 대략 하담<sup>67</sup>

破賊論略 荷潭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경성(京城)에 변고가 있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구원하여야 한다고 하며, 수하(手下) 중에 날랜 자를 나누어 보내 장수들을 소집하였다. 정주 목사(定州牧使) 정호서(丁好恕)<sup>68</sup>가 이상(異狀)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심부름꾼을 베고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장만(張晩)에게 나아갔다. 안주 목사 겸 방어사(安州牧使兼防禦使) 정충신은 숙천 부사 정문익(鄭文翼)에게 안주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장만에게 가서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장만이 그 성을 버린 책임을 물어 장차 죄주려다가 용서하였는데, 마침내 이괄을 주벌(誅伐)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내 일찍이 조용히 물어 말하기를, “공이 이괄의 모반을 듣고 성을 버리고 피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다. 충신이 말하기를, “나와 이괄이 형제처럼 교유한 것을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문회(文晦)<sup>69</sup> 등의 고변한 바가 되었으

67 하담(荷潭) : 김시양(金時讓, 1581~1643)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시언(時言), 자는 자중(子中), 호는 하담,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평안도관찰사 겸 체찰부사, 병조 판서, 한성 판윤,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1636년(인조14) 청백리에 뽑혀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저서에 《하담과적록(荷潭破賊錄)》, 《하담집》, 《부계기문(涪溪記聞)》 등이 있다.

68 정호서(丁好恕) : 1572~1647.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사추(士推)이다. 병조 좌랑, 정언, 해운 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정주 목사(定州牧使)로 재직 당시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진압에 나서 그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였다. 이후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 황해 병사로서 성을 버린 죄로 영일(迎日)에 유배되었으나, 그 후로도 태안 군수(泰安郡守)와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지냈다.

69 문회(文晦) : 1624년에 이우(李佑)·김광숙(金光肅)과 함께 윤인발(尹仁發) 등이

나, 다행히 성상의 은혜로 나문(拿問)<sup>70</sup>을 면하였습니다. 이괄이 모반하고 나는 영변 근처에 있어 처지가 남의 의심을 살 만한데, 나의 본마음을 백일하에 스스로 밝힐 수 없었습니다. 성을 버리고 피한 것은 나의 본심을 밝혀 사람들이 스스로 믿도록 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괄을 이극고 주벌하고 나서 장만이 서쪽에서 온 장수들을 당부하여 대가(大駕)가 경성으로 돌아오거든 한강에서 맞이하자 하였는데, 충신 홀로 돌아가겠다고 이시발(李時發)<sup>71</sup>에게 하직을 고하였다. 시발이 말하기를, “장수들이 모두 머무는데, 공 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충신이 말하기를, “충신은 서로(西路)의 군사를 거느리는 신하로서 반적(叛賊)을 바로 주살하지 못하여 대가가 피난하고 반군을 입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죄가 큰데 어찌 감히 스스로 공이 있는 양 강가에서 어가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본진(本鎭)으로 물러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조정으로 돌아와 충신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성지(聖旨)를 내려 불렀으니, 그의 명민(明敏)함이 이와 같았다.

---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추대하는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였다. 이에 기자헌(奇自獻)·김원량(金元亮) 등 40여 명이 투옥되었으며, 곧 이괄(李适)의 난이 터지자 그 대부분이 처형당하였다.

70 나문(拿問) :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71 이시발(李時發) : 1569~1626.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양구(養久), 호는 벽오(碧梧) 또는 후영어은(後穎漁隱)이다.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다. 폐모론에 반대하여 사직했다가, 1619년(광해군11) 광해군의 특명으로 오도찬획사(五道贊畫使)에 임명되어 이듬해 평안도로 가서 민폐를 고치고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충족시켰다. 인조반정 후 형조 판서 등을 거쳐 삼남도 검찰사(三南道檢察使)가 되어 남한산성의 역사(役事)를 감독하였다.

## 월사<sup>72</sup>가 섬진강 그림에 쓴 글

月沙書蟾江圖

무오년(1618, 광해군10) 봄에 내가 백사(白沙) 등 제공(諸公)과 탄핵을 당하여 유배의 명(命)이 조석으로 내려와 백사가 먼저 북청(北靑)으로 유배되고, 나는 아직 유배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었다. 일찍이 정충신 공에게 섬진강이 살만 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침 그가 백사 상공을 수행하여 북청에 있었다. 내가 상공에게 편지를 보내 정공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 주인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이루어지기도 전에 백사가 황천에 객이 되고, 나는 아직 진토(塵土)에 허덕이고, 정공은 서쪽 변방에 떨어져 있었다.

임술년(1622) 가을 빈막(摺幕)에서 나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일컫는 것이 모두 섬진강이었다. 마침 이 화사(李畫師)를 만났는데, 그 경치를 그려 내게 보여 주었다. 아, 강산은 공물(公物)이거늘 뉘 주인이고, 뉘 손님이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이겠는가. 내가 날마다 이를 마주하게 된다면 종소문(宗少文)의 와유(臥遊)<sup>73</sup>함과 같은 것이거늘, 어찌 풀을 치고 집을 지어 궤안(几案) 간의 물건으로

72 월사(月沙) :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호이다. 자는 성징(聖徵), 본관은延安(延安)이다. 1590년(선조23)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관직은 병조 판서, 예조 판서,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월사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73 종소문(宗少文)의 와유(臥遊) : 종소문은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중병(宗炳, 375~443)으로, 소문은 그의 자이다. 그는 늙어서 병이 들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젊은 시절 전국 각지의 명산을 유람하면서 본 산수를 벽에 그려 놓고 보고 즐겼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의 자는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 등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와유'에서 비롯됐다. 《宋書 卷 93 宗炳列傳》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마침내 율시(律詩) 한 수를 기록한다.

듣건대 그대 늘 섬진강 경치 말하며  
날 불러 상담에 함께 살자 했으렸다  
나 끝내 못 이루고 이제 늙었거니  
그대 어느 날에 돌아가려 하는고  
뭍은 빛 짙은 색은 시로 표현 곤란하고  
수려한 산 흐르는 물 그림이 못 하도다  
빗속 대와 내 긴 돛 눈앞에 삼삼하여  
종일 누워 유람하니 역시 내 집이로다

聞君每說蟾江勝  
邀我湘潭共卜居  
我竟未成今老矣  
君於何日得歸歟  
淡粧濃抹詩難狀  
競秀爭流畫不如  
雨竹煙帆森在眼  
臥遊終日亦吾廬

## 《계곡만필》<sup>74</sup>의 대략

谿谷謾筆略

정묘년(1627, 인조5)에 오랑캐에 관한 첩보가 비로소 이르자 금남(錦南) 정충신(鄭忠信)이 체찰사 장만(張晩) 공을 따라 출발하였다. 내가 교외에서 전송하며 길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공이 말하기를, 이 오랑캐가 지금 침략해 온 것은 뜻이 험박하여 강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강화를 하게 되면 바로 물러갈 것이다.” 하였다.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나중에 끝내 그의 말과 같았으니, 정공이 오랑캐의 정세를 익히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

74 계곡(谿谷) : 장유(張維, 1587~1683)의 호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다른 호는 묵소(默所)이다. 1609년(광해군1) 증강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 《계곡집》, 《계곡만필》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판서 김휘<sup>75</sup>가 들은 것을 기록한 것

金判書記聞 徽

선인(先人)이 말씀하기를, “정금남(鄭錦南)이 비록 대장의 기량을 지녔는지는 모르겠다만, 채주와 식견으로 논한다면 삼국 시대에 있었어도 필연코 책사(策士) 고양(高驤)에 못지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추중(推重)함이 이와 같았다.

---

75 김 판서(金判書) : 김휘(金徽, 1607~1677)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돈미(敦美), 호는 사휴정(四休亭)·만은(晚隱)이다.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의 아들이다. 1642년(인조20)에 급제하여, 효종과 현종 때 이조와 삼사의 청현직을 거치고 충청도·경상도·황해도 등의 관찰사를 지냈으며, 숙종 때 대사헌을 지냈다.

# 월사가 섬진강 그림에 쓴 시

月沙題蟾江圖詩

듣건대 그대 늘 섬진강 경치 말하며  
날 불러 상담에 함께 살자 했으렸다  
나 끝내 못 이루고 이제 늙었거니  
그대는 어느 날 돌아가려 하시고  
묵은 빛 짙은 색은 시로 표현 곤란하고  
수려한 산 흐르는 물 그림이 못하도다  
빗속 대와 내 낚시 돛 눈앞에 삼삼하여  
종일 누워 유람하니 또한 내 집이로다

聞君每說蟾江勝  
邀我湘潭共卜居  
我竟未成今老矣  
君於何日得歸歟  
淡粧濃抹詩難狀  
競秀爭流畫不如  
雨竹煙帆森在眼  
臥遊終日亦吾廬

〈격적가〉 백주<sup>76</sup>

擊賊歌 白洲

서관 서편에 명장이 있으니	西關之西有名將
남극성 이남의 무등 인이라	南斗以南無等人
장년에 난세 만나 부절 잡고	壯年持節值時危
남아로 몸보다 큰 담력 지녔도다	男兒有膽大於身
이만 명 미친 적이 도성을 에워싸니	二萬狂賊擁城關
일조에 먼지 쓸듯 신속히 치웠도다	一朝迅掃如掃塵
공 이루고 자처 앓기 인간에 어려운바	功成不居人所難
청천강에 표연히 깃발을 돌렸도다	飄然返節清江濱
대가가 환도하여 공을 급히 부르니	大駕還都急召公
안개꽃 춘삼월에 대궐에 조회로다	煙花三月朝紫宸
자리 앞에 술 내리며 황금을 뿌리시고	席前賜酒散黃金
일등 훈에 삼 공신을 책록케 하였도다	命錄一等三功臣
첫째에 장 원수요 다음에 공이거니	其一元戎其二公
한 시대의 예우가 비할 데 없었도다	一時禮遇無比倫
마안봉 꼭대기 백 길의 돌에다가	馬鞍峯頭百丈石
대서특필하여 천추에 고하도다	大書特書詔千春
애쓴 공의 이 맘으로 서쪽으로 오랑캐를 치고	勛公此心西擊胡
연후에 첫 잔 올리는 삼한 백성이로다	然後初奠三韓民

76 백주(白洲) : 이명한(李明漢, 1595~1646)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주,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이괄의 난 때 왕을 공주로 호종하여 팔도에 보내는 교서를 작성하였다. 벼슬은 예조 판서와 공조 판서를 지냈다. 성리학에 밝았고,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 저서에 《백주집》이 있다.

## 천파<sup>77</sup>의 사첩

天坡謝帖

공이 병으로 신안관(新安館)에 있으면서 계행시(戒行詩)를 지어 천파에게 주자 천파가 차운(次韻)하여 사례한 것이다.

노닐 땐 경계하여 못에 임하듯	遊方持戒遽臨淵
충고 또한 정금남께 의지하도다	警策還憑鄭老賢
이 몸 길게 골몰함 심히 부끄럽거늘	深愧此生長汨沒
숙원 놓쳐 실수하게 누가 하시고	誰教宿計失高騫
보이는 곳 큰 바다에 하늘 끝없고	望中溟渤天無極
병중의 작별에 눈물 절로 흐르도다	病裏分携淚自懸
알겠거니 나 떠나면 그대 건강하여	知我歸時君已健
온갖 꽃 앞에 피리 소리 난만할 줄을	笙歌爛漫百花前

---

77 천파(天坡) : 오숙(吳翮, 1592~1634)의 호이다. 광해군 때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가 인조반정 이후에 정언·지평으로 옮겨서 풍기를 바로잡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이후 경상도·황해도의 관찰사 등 내외의 많은 직을 역임하였으며, 명나라 사신 황손무(黃孫武)의 접반사로 가도(假島)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송도(松都)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천파집》이 있다.

# 천파가 생각을 부치다

天坡寄思

공이 부원수로서 안주에 주둔할 때 천파가 부쳐 준 시이다.

이를 적마다 창황한 날	每到蒼黃日
보니 그대 홀로 관문을 나서도다	看君獨出關
정기가 살수에 펄럭이고	旌旗臨薩水
봉수는 용만에 접하도다	烽燧接龍灣
부곡에선 전날의 수령 부르고	部曲徵前令
운산에선 옛적의 얼굴 알리라	雲山識舊顏
요즘 오랑캐 멀어졌다 들었거니	近聞胡騎遠
풍악 울리며 언제쯤 돌아가려오	笳鼓幾時還

## 천파가 생각을 부치다

天坡寄思

공이 평안 절도사로서 영변에 머물 때 천파가 부쳐 준 시이다.

모두 천은에 보답하고자	摠爲酬天眷
몸을 잊고 떠나 멀리 노닐도다	忘身判遠遊
아기 <sup>78</sup> 로 북진을 순찰하고	牙旗按北鎮
옥절 <sup>79</sup> 로 남루에 영솔하도다	玉節領南樓
시절의 차례는 방초를 놀라게 하고	時序驚芳草
이별의 회포에 백발이 세려 하도다	離懷欲白頭
소식을 수졸에 의지하는데	音書憑戍卒
물가에 돌아온 기러기 울도다	回雁候汀洲

78 아기(牙旗) : 대장(大將)이 군사를 지휘할 적에 가지고 다니는 깃발이다.

79 옥절(玉節) : 지방관으로 나갈 때 지니고 가는 옥으로 만든 부절(符節)을 말한다. 《주례(周禮)》〈지관사도(地官司徒)〉에 “방국을 지키는 자는 옥절을 사용하고, 도비를 지키는 자는 각절을 사용한다.[守邦國者用玉節, 守都鄙者用角節.]”라고 하였다.



## 천파가 작별하면서 주다

天坡贈別

공이 원수로서 남쪽으로 돌아갈 때, 천파가 기옹(畸翁)의 시에 차운하여 작별할 때 주었다.

기린각의 초상화에 실로 검은 머리

麟閣圖形政黑頭

중흥의 훈업으로 청구를 울렸도다

中興勳業動青邱

열두 조목 금성방략<sup>80</sup> 끝없거니

無端十二金城略

전원에서 마음껏 노닐지로다

辦得田間恣意遊

80 금성방략(金城方略)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에 서방(西方)의 강족(羌族)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조충국(趙充國)을 보내어 평정하게 하니, 조충국이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군사(軍事)는 멀리서 예측할 수 없으니 신이 금성(金城)에 도착한 뒤에 방략(方略)을 그림으로 그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漢書 卷69 趙充國傳》 여기서 연유하여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방략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 백주가 이별할 때 주다

白洲贈別

공이 진양(晉陽)에 출진할 때 백주가 병중에 읊어 작별하다.

기린각에 훈업 제일인이여  
이제는 머리가 반백이로다  
종래에는 청천강 물 실컷 마시고  
이제부터 연곡의 봄 즐겨 보리라  
도입한 곳 강산은 절제를 따르고  
새로이 연 벽루에 정신 더하리라  
평생 부질없이 황학루를 치렀더니  
이별에 돌아보니 병든 몸 우습도다

勳業麒麟第一人  
至今髮鬢半成銀  
從來厭飲清川水  
此去耽看燕谷春  
到處江山歸節制  
新開壁壘倍精神  
平生謾擬槌黃鶴  
離別推敲笑病身

## 현주<sup>81</sup>가 작별하며 주다

玄洲贈別

공이 경상우병사에 부임할 때 현주가 드린 시이다.

우뚝한 진양부를	額額晉陽府
그대가 보장함이어	君其保障哉
임강에 빼어난 경치 있고	臨江有勝地
축석에 높은 보루 섰도다	矗石起高壘
연침에 맑은 향 감돌고	燕寢清香擁
수루에 좋은 달 뜨도다	戍樓好月來
알거니 부절을 오래 잡고서	應知按節久
서변의 먼지를 재워 왔음을	西塞淨塵埃

---

**81** 현주(玄洲) : 이소한(李昭漢, 1598~1645)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도장(道章), 호는 현주이다. 1612년(광해군4)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1년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충원 현감(忠原縣監), 진주 목사(晉州牧使), 병조 참지, 예조 참의, 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1642년(인조20)에 세자시강원 우부빈객 겸 동지중추부사로서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호종하였고, 1644년에 귀국하여 형조참판 겸 비변사 유사 당상이 되었다. 저서로는 《현주집(玄洲集)》이 있다.

# 기옹이 작별하며 주다

崎翁贈別

공이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을 때 기옹이 드린 시이다.

장군이 큰 칼끝에 꿈 파하고서

將軍夢罷大刀頭

필마로 남녘 고향 달려가도다

匹馬南馳返首邱

조정의 방략으로 적을 막길 바랐더니

長願廟謨終制敵

물가에 낚시하는 한가한 몸 되었도다

任渠漁釣作閑遊

## 안현가<sup>82</sup>

### 鞍峴歌

안현봉의 승전비문으로, 삼연 김창흠<sup>83</sup>이 지었다.

정금남은 진정한 영웅으로서	鄭錦南眞英雄
풍모가 만인 중에 빼어났도다	骨聳精緊萬人中
기상이 분명하기 주의봉 <sup>84</sup> 이요	氣候分明朱義封
흉금은 침정하기 왕사공 <sup>85</sup> 이라	胸襟沈靜王司空
또한 춘추 성벽으로 경위가 있고	亦有春秋癘經緯
육도삼략으로 평생에 통했도다	六韜三略通平生
평생 이오성 <sup>86</sup> 께 인정받고	平生知遇李鰲城

82 안현가(鞍峴歌) : 원문에 오착(誤錯)이 많아 원작자(原作者) 김창흠(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 권9의 〈안현가〉를 취하여 번역하였다.

83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 1653~172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익(子益),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이며, 김수항(金壽恒)의 셋째 아들이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저서에 《삼연집》, 《심양일기(瀋陽日記)》 등이 있다.

84 주의봉(朱義封) : 삼국시대 오(吳)나라 장수 주연(朱然)으로, 자는 의봉(義封)이며 본성은 시(施)였다. 《심경부주(心經附註)》 권1의 잠수복의장(潛雖伏矣章)에서 주희가 말하기를 “삼국시대 주연은 종일토록 삼가고 조심하여 마치 행진하여 대열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하니, 학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 마음을 항상 방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85 왕사공(王司空) : 왕창(王昶, ?~259)은 중국 삼국 시대 위(衛)나라의 정치가이자 장수이며, 자는 문서(文舒)이다. 위의 법률제도가 가혹하고 조잡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고쳐 선왕의 유풍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대의 제도에 의지하고, 당시 정무와 부합하는 것들로 《치론》 20여 편을 저술했다. 또, 병서에서 기책과 정공법의 운용에 관해 서술하여 상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키백과》 참고.

86 이오성(李鰲城)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

한때 장옥성 <sup>87</sup> 을 섬겼도다	一時服事張玉城
관서의 독부가 허술하여	關西督府載草草
보루를 반만 고쳐 훈련 못 했도다	半繕營壘未練兵
사나운 장수가 거사를 급히 하니	蜂目將軍舉事速
졸개가 날쌔게 조정을 경시했도다	卒銳已久輕朝廷
만기를 멀리 몰아 먼지가 하늘 덮고	長驅萬騎蔽天塵
선봉에는 친한 졸개 수천 인이라	前茅青衣數千人
살수의 저탄이 일시에 무너지고	薩水豬灘一時潰
백관은 맨발로 왕과 피신했도다	百官跣足千乘奔
원수가 곁에 있어 손을 놓을 뿐	元戎在左但袖手
왕은 적 앞에 아군은 뒤에 있었도다	王在賊前我在後
장군이 이에 응양 <sup>88</sup> 을 시험하고	將軍於此試鷹揚
좌로 끌고 우로 끄는 남이흥이라	左提右挈南以興
북산 점거를 선창하여 결단하고	決機先唱據北山

상(子常),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 봉호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고려의 대학자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으로 부친은 참찬 이몽량(李夢亮)이고, 장인은 권율(權慄)이다. 1580년(선조13) 알성시 문과에 급제한 뒤, 이조 좌랑, 우승지, 이조참판, 대제학, 병조 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백사집》 등이 있다.

87 장옥성(張玉城) : 옥성군(玉城君) 장만(張晩, 1566~1629)을 이른다. 본관은 인동(仁洞),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1589년(선조 22)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91년에는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검열·전생시(典牲寺) 주부를 역임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여 진무(振武)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옥성(玉城)부원군에 봉해졌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통진(通津)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낙서집》이 있다.

88 응양(鷹揚) : 새매가 높이 날듯이 위무(威武)를 떨치는 것을 말한다.

아기 <sup>89</sup> 를 높이 구름 속에 숨겼도다	牙旗高盾雲以間
벌떼 개미 떼가 만 궁노를 쏘아댄 데	蜂攢蟻集仰萬弩
서쪽에서 바람 불어 천노 <sup>90</sup> 를 도왔도다	風自西來鼓天怒
한성 거리거리 기와가 진동하고	漢城千街屋瓦震
먹구름 삼면에 모래바람 춤췄도다	黑雲三面飄沙舞
어지러운 포 아래 적이 남지 않자	亂砲之下賊無餘
곤룡포로 화천 가에 피를 감쌌도다	龍衣裹血禾川滸
개선가 소리에 종거 <sup>91</sup> 가 완전하니	凱歌淵淵鍾簾完
왕께서 천천히 금강 건너왔도다	翠華徐渡錦水還
길가에 포복한 서인의 복색이여	道左匍匐庶人服
공은 높고 마음 작아 왕이 탄식했도다	功高心小王乃歎
한강 물 띠처럼 악려에 느슨하고	漢水如帶鼎岳礪
백마의 붉은 피 동반에 올랐도다	白馬朱血登銅盤
돈의문 남쪽에다 홍살문 세우고	敦義門南畫戟豎
철권 <sup>92</sup> 을 소장하여 집에 끼쳤도다	鐵券所藏遺棟宇

89 아기(牙旗) : 아정(牙旌) 또는 아문기(牙門旗)라고도 불린다. 상아로 만든 큰 깃발인데 대장군의 의장(儀仗)으로 쓰인다.

90 천노(天怒) : 임금의 노여움.

91 종거(鍾簾) : 종거는 종묘에 설치하는 악기(樂器)이다. 당나라 장수 이성(李晟)이 주자(朱泚)의 반란을 평정하여 수도를 수복한 뒤에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에 “종거가 놀라지 않고 종묘의 모양이 전과 같습니다.〔鍾簾不驚，廟貌如故〕”라는 구절이 있다. 종지(鍾簾)를 원작자 김창흡(金昌翕)의 ‘三淵集卷之九 鞍峴歌’에 근거하여 종거(鍾簾)로 고쳐 번역하였다.

92 철권(鐵券) : 옛날 제왕이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철제의 계권(契券)으로, 대대로 면죄(免罪)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증서이다. 단사(丹砂)로 맹세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단서철권(丹書鐵券)이라고도 한다. 《한서(漢書)》 권1하 <고제기

공이 산하에 있어 사라질 수 없지만  
 집은 여관처럼 주인 몇 번 바뀌었던고  
 눈 속에 말 타고 작은 선비 갔건마는  
 집 앞 안현은 오히려 우뚝하도다  
 이제껏 나라가 산 건 이 고개 때문이니  
 장군이 없었던들 나라 어이 되었으랴  
 근래에 등주 내주에 전운이 있거니  
 북 울리며 이목·염파<sup>93</sup> 생각하도다  
 병가의 승리에는 기책을 귀히 하니  
 어이 분분하게 성 쌓기를 많이 하랴  
 생각건대 공의 위대 그럴 길 없었으나  
 기둥에 기대 마침내 안현가를 지었노라

功在山河不可泯  
 屋如傳舍幾易主  
 雪天鞍馬小儒過  
 軒前鞍峴猶嵯峩  
 到今國活賴此峴  
 不有將軍國如何  
 近者登萊有風色  
 擊鼓興思在牧頗  
 兵家制勝費用奇  
 焉用紛紛築城多  
 思公英偉不可作  
 倚柱遂作鞍峴歌

---

하(高帝紀下)에 “공신들과 부절을 가르고 맹세한 뒤 철계(鐵契)에 붉게 써서 금궤(金匱)와 석실(石室)에 싸서 종묘에 보관하였다.” 하였다.

- 93 이목(李牧)과 염파(廉頗) : 전국 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명장(名將)이다. 한 문제(漢文帝)가 일찍이 풍당(馮唐)으로부터 염파와 이목의 뛰어난에 대하여 듣고 “아, 나는 다만 염파, 이목과 때가 맞지 않아서 그들을 장수로 삼지 못하였구나. 그런 사람을 장수로 삼는다면 어찌 흉노를 걱정하리오. [嗟乎! 吾獨不得廉頗李牧時爲吾將. 吾豈憂匈奴哉?]” 하였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 만운집 발 晩雲集跋

### 발 跋

아, 나의 5대조 금남군(錦南君)의 사직을 붙들어 지킨 훈공과 처세의 행적이 어찌 국사에 실려 있을 뿐이겠는가? 고금의 제현(諸賢)이 편찬한 글 중에 또한 많이 찬양하였으니, 미약한 후손이 감히 말할 바가 아니다.

선조들이 원고를 보존하지 못하고, 또한 일기를 멸실하였는데, 마침 유수(留守) 이선(李選) 공이 유사(遺事)를 수록한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 공이 논찬한 바가 있어 우리 집에 전해지게 되었으나, 문호가 빈한한 관계로 간행하지 못하여 실로 이에 후손들의 한탄과 식자들의 개탄이 있었다.

문흥(文興)이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고 곡성 현감이 되어 마침 약간의 재물을 마련하고, 또한 초산(楚山) 사람의 활자를 빌리게 되어 인출(印出)하는 일이 이제 겨우 끝났다. 우리 가문에 전술(傳述)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장차 후세에 보고 느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숭정 기원후 기묘년(1759, 영조35) 7월 13일에 5대손 곡성 현감 문흥(文興)이 감읍(感泣)하여 삼가 발문을 짓는다.

## 발 跋

우리 경렬공(景烈公)<sup>94</sup> 부군(府君)이 충성을 다하며, 강상(綱常)을 부지하며, 인(仁)을 쌓고 의(義)를 축적하였다. 9대를 내려가 금남공(錦南公)을 얻었으니, 실로 선대의 영광이요 후대의 영광이다.

갑자년(1624, 인조2) 이괄(李适)의 변란에 임금의 수레가 남쪽으로 피난하고 관군은 서쪽에서 무너졌다. 이때 그 형세는 순식간[一吸一瞥]으로도 그 급박함을 비유할 수 없고, 누란지위(累卵之危)<sup>95</sup>로도 그 위태함을 비유할 수 없었다. 안현(鞍峴)의 한 차례 대첩(大捷)으로 종묘와 사직을 다시 일으켰으니, 공의 위대한 공렬(功烈)은 더붙어 겨를 자가 없어 풍장군(馮將軍)의 대수(大樹)<sup>96</sup>보다도 또한 높았다. 이는 백대(百代) 후에 사람들 입에 전파함에 작은 것은 큰 것에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에 장계를 받들고 갔던 행적, 경신년(1620, 광해군12)의 오랑캐 정세에 대한 선견지명, 정묘호란에 병든

---

94 경렬공(景烈公) : 경렬은 정지(鄭地, 1347~1391)의 시호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왜구를 평정할 방책을 왕에게 올린 후, 순천(順天)·낙안(樂安)·광주(光州)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벼슬은 전라도 안무사(全羅道按撫使)·안주 도원수(安州都元帥)·양광전라경상도 도절제체찰사(楊廣全羅慶尙道都節制體察使) 등을 역임했다.

95 누란지위(累卵之危) : 계란이 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96 풍장군(馮將軍)의 대수(大樹) : 한나라 광무제(光武帝) 때의 장군인 풍이(馮異)는 사람됨이 겸손하여 길을 가다가 다른 장군을 만나면 항상 한쪽 옆으로 피하였으며, 휴식을 취할 때 다른 장수들은 서로 모여 전공(戰功)에 대해 떠들어 대었으나 풍이만은 항상 큰 나무(大樹) 아래로 가 쉬고 있었다. 이에 군사들이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 부르면서 좋아하였다. 《太平御覽 卷423》

몸으로 용감하게 달려간 일, 경오년(1630, 인조8)에 유흥치가 복죄(伏罪)하던 일은 세상에 혹 상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은 유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몸이 전장(戎馬)의 즈음이나 병사(兵使)의 위치에 처하여 독서를 하거나 문장을 지을 겨를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시와 문장이 또한 어떻게 전문가를 능가하여 옛 선인에 빠져들었는가?

아, 하늘이 이미 난을 막기 위하여 공을 냈으니, 어찌 재주인들 부여하지 아니하며, 어찌 능력인들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랴? 문장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충의(忠義)의 담략(膽略)과 기무(機務)의 치밀함이 응대할 적에 번번이 드러났다. <통군정(統軍亭)> 시 한 수는 무목(武穆) 악비(岳飛)가 자암(紫巖)에서 준 것<sup>97</sup>과 충무(忠武) 이순신(李舜臣)이 한산도에서 지은 것<sup>98</sup>과 어찌나 똑같으며, 군무(軍務)를 논한 두 차자(筭子)는 이 충정(李忠定)<sup>99</sup>의 모병(募兵)에 관한 논의와 충 선무(種宣撫)의 수어(守禦)에 관한 소(疏)<sup>100</sup>와 어찌나 똑같은지!

무릇 지금 동방 사람들이 밖에 드러난 대공(大功)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안에 쌓인 충지(忠智)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문집을 간행함은 실로 이 세상을 위하여 다행이다.

---

97 무목(武穆) 악비(岳飛)가……것 : 전거(典據)를 찾지 못하였다.

98 이순신(李舜臣)이……것 : 이순신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라고 읊었다.

99 이 충정(李忠定) : 남송의 명상(名相) 이강(李綱, 1083~1140)이다. 충정은 그의 시호이고 자는 백기(伯紀), 호는 양계(梁溪)이다. 휘종(徽宗) 정화(政和) 2년(1112) 진사시에 급제하고, 남송 고종(高宗) 때 재상이 되었으나 금나라에 대한 항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100 이 충정(李忠定)의……소(疏) : 전거를 찾지 못하였다.

갑오년(1894) 3월 중한(中澣)에 경렬공 16대손 봉현(鳳鉉)이 삼가  
쓰다.

원문  
原文



## 晚雲集序

竊嘗疑夫錦南常有，而無錦南時，不爲錦南歟？抑錦南不常有，而天將降大亂，必生如錦南使之撥亂歟？常有而不爲錦南，時也；不常有而必生錦南，亦時也。時乎！吾復奚疑？宣·仁之際，國家多亂，右文百年，恬嬉日久。宋用世卿、漢用南陽，雖有衛、霍，將老死蒼頭。一朝有警，肉食何謀？公初以光州給事，起爲時用。運籌如張良、出計如陳平，時以人望輕之不用，致僨無如其言，始重之用，無不驗。且有蕭相國，知韓信兵權在手，而賊适之變，適在其時，拒轍之螳螂，不料黃雀在後。長安士女，復覩漢官威儀，中興元功。公不得辭而待罪安州，馮大樹又何高也？建不世之大功，不爲無人，而此一着，惟公而已。雖使壬丁之間忌功大臣，將不得加手於公，吁盛矣！嗚呼！公何時讀書，明睿所照、眼耳所過，炯與心通。詩文疏筭，往復書牘，雖專門大家，莫之先也。始知應時而生者，齒角固兼與也。此集之行，讀者宜自知之，而見機應變，奇謀長策，亦可托此而傳矣。嗚呼！蹄跡交中，識者之憂歎久矣。以公睿算，應有先見，願起九原一問之。遺集將重刊，鄭君季老，致諸宗之意，問其序次，因俾弁其卷端，略書所感于中者如此。且諗之曰：“公自號晚雲，功成身退。願從赤松之意，約綽可見。而以公所抱，優能辦此。但亂根未祛，無暇請命耳。願以晚雲，名其卷以白其志事。”歲甲午仲春，幸州奇字萬 謹書。

## 晚雲集舊序

余自髫髻時，東國知有鄭錦南。去年冬，公後孫道彥，以公遺稿，屬余序之。得其若干篇而讀之，余乃掩卷而喟然曰：“天之生公，豈無意也哉？”惜乎！其深慮遠謀，不得用于當世也。世之識公者，皆稱甲子之功。夫先據北山，乃公一謀之奇。後人至今稱之，徒以公能破國賊，建不世之功。嗚呼！豈此識公者哉？當公受鉞西塞，建奴以歲幣起釁，將有東吞之意。朝廷未覺其謀，遣使絕和。公聞之，歎曰：“此速禍之術也。”上疏論其失計，竟以此獲罪。丙子春，京城訛言島夷且至。公曰：“島夷不來。國家大憂，惟女真耳。”其冬，虜大舉入寇。果如公言，公之料敵，何其神也！昔唐德宗，盟吐蕃于平涼，廷臣皆賀，太尉李晟獨曰：“和好必不成，中國爲犬羊所侮。”德宗不聽其言，終至劫盟。公主和、晟斥和，古今人可謂不同，而其備諳虜情，爲國家深慮遠謀，公與古人，未嘗不同也。方今蒙、真相攻，已得可乘之機，朝廷不廢玉帛，猶恐生亂。余嘗謂北伐，可收漁人之功。聞者皆以爲狂。余不敢自信，而使公聞余之言，必有奇論，公已九泉，不可作也。夫公之奇功偉烈，百世不滅，而余獨不稱者，非謂公功不足稱也。其明見遠識，余將追思而深慕也。世之人，徒識公甲子之功，而不知癸酉之疏，尤見公爲國之忠也。朱泚之難，天不生李西平，唐室必亡，其收復長安之功，可謂震耀千古。今余慨然深歎於平涼之盟以爲，德宗不用西平之謀，唐之所以不振也。公之深慮遠謀，視西平尤奇，國家不用其言，終有漢南



之辱。及其變生，雖思其人，何可及哉？此余之不稱公功，而深恨其言不得用于當世也。雖然，公之和虜，不欲自我召禍，如使公見城下之盟，不惜一死，以明大義。若以和議疑公，則非所以識公也。使後人讀公之文，必有以識吾今日之論也。遂書余言于卷後，以俟世之識鄭錦南者焉。崇禎紀元後壬子季冬，原城元景夏序。



---

挽雲集

---

卷一

---

詩



# 詩

## 船遊

一葉舟輕薄，隨風任去留。若將浮世比，安穩似唐虞。

## 佛巖寺有吟【丁巳】

南寺鍾鳴晝已曛，宿禽飛急遡歸雲。山中自有情人約，時復開窓望洞門。

## 題亡妾鏡

十年白鼎備辛艱，情意寧論婦妾間。半夜驚魂招不得，不堪和淚對孤鸞。

## 以副元帥到灣上，得見崔完城書【戊辰正月】

鼓鼙聲裏又新春，誰念黃龍塞上人。賴有平生崔學士，隔年書札到

江濱。

### 駐安州賀正【壬申】

宵柝催更曙色殘，賀班唯是兩三官。天涯此日風飛雪，猶念丹墀翠輦寒。

### 夢中，領大兵掃平虜庭【正是春暮也。覺後，喜賦一絕，以記吉徵。】

雨洗輕塵綠滿街，凱歌齊唱萬人諧。千官祝罷山呼慶，環佩丁丁下玉階。

### 夢題尹文肅碑

千秋陳跡鳥飛間，文肅殘碑碧蘚斑。可笑玉門班定遠，幾多辛苦乞生還？

### 雨雪【二月】

清明節後三朝雨，爭道今秋大有年。爲報慇懃民部長，早教人力各

歸田。

### 苦雨【六月】

人言鳩喚雨將休，極目南天雲未收。萬古蒼天今已老，弗聞人語況聞鳩。

### 戲贈李質夫【十一月】

更樓吹角客愁繁，病榻殘燈夜色寒。誰料平生李處士？薛公門下是馮驩。

### 謫唐津有感【癸酉三月】

天恩如海得全生，編管唐城近漢城。半夜月明春雁北，戀君悲淚却沾纓。

### 避暑望日菴，謝李都事杭來訪【同年六月】

六月蒸炎大地焚，多君匹馬訪山門。連床盡日無塵語，却恨蟬聲一

樹喧。

### 讀老子有感【同月】

道本無爲豈有名？可將身退待功成。百年擾擾終何事？晚向槐亭一夢驚。

### 登望日庵北望

欲爲排悶上危樓，望裏金天落照流。山外白雲雲外水，長安不見更添愁。

### 雨後逢秋【七月】

碧樹蟬聲擾客愁，雨餘山色忽新秋。蓬萊渺渺蒼波闊，天外終南一點愁。

### 讀南華經有感

技係勞形晚悟嗟，三機靜處是流波。翛然獨立眞吾事，其奈君恩刻



骨何？

### 蟾江有吟【十月】

日把江樓無事酒，如何衣帶漸寬圍。長安北望三千里，秋盡湖西雁亦稀。

又

萬死全骸歸故園，今生何以答君恩。橋西舊宅桑榆晚，水北新村橘柚繁。

有味檢書孤燭夜，無心射虎灞陵原。只憐老驥逢秋動，櫪下悲鳴向塞門。

### 立春大雪【甲戌正月】

田家占歲瑞徵多，雪後千村萬樹花。舊日征西老大帥，焚香閒坐讀南華。

### 赴慶尙左兵營，宣醞于南關王廟，感恩【甲戌十一月】

南郊雪日內醞香，行路榮看引滿長。稽首拜天揮感淚，丹心默自誓

關王。

### 古站，憶元虞候守身

薊北人何遠，江南路正漫。相分纔數夕，回望已千山。別恨逢秋切，危魂入夢殘。涼風起玉塞，却念病中顏。

### 遊利城侍中臺

臺號何年始，茫茫不可求。白沙松十里，滄海月千秋。目極天窮界，身遊地盡頭。神仙如不妄，便是一丹丘。

### 登統軍亭

日暮山光暝，城歌閣影移。江寒龍蟄早，野闊鶴歸遲。薊北音書斷，遼陽鼓角悲。百年惟涕淚，萬事獨登危。

### 安州土豪李昌業，來示閩方伯聖徵韻，要和，走筆以贈【壬申正月】

野闊開千畝，江深護一村。有人成小築，無客對清樽。獨樂非關道，

多錢不爲門。羨君隨意足，世事尙堪論。

### 次閩上舍希顏韻〔同月〕

海內無堅壘，君今不定家。逢人心更苦，爲客路還賒。詩愛唐音盛，歌憐楚曲多。空看射斗劍，何處見張華？

又

春早征西幕，東風入涕危。二年爲客日，千里戀君時。夜壘驚聞柝，官場厭見旗。相逢俱白首，各喜舊吟詩。

### 次博川館壁上韻〔同年七月〕

積雨今朝霽，蟬聲咽晚林。庭梧秋氣早，牙帳客愁深。西嶺烽初至，南樓角更吟。片雲何意緒，猶復弄晴陰

### 遊七寶山

千巖萬壑碧層層，鬼斧神斤斲削能。蕙草自經春雨馥，石峯爭竝夏雲興。臺新好象濃真氣，寺古開心見佛燈。可笑十年戎馬客，仙山今日蕩塵膺。

## 送奏請副使吳肅明赴皇都【甲子七月】

藩封消息隔天淵，專奏須憑使价賢。一節千年吳季子，孤槎八月漢張騫。雲沈鶴野氛陰重，海接萊山暮景懸。多難足堪傷此別，況兼衰病死生前。

## 挽宜春君妾

夫死於君妾死夫，一家全節世真無。廣陵南畔留雙塚，千古行人起悵吁。

## 挽人

人生有死無生可，聞說驚心不說宜。正字官高諸幼長，到看榮處摠堪悲。

## 挽尹同知吁

離亂朋交盡，君今又隔泉。牙絃從此絕，陳榻爲誰懸。蠻海三秋別，京樓半日筵。仍成生死訣，老淚灑江邊。

---

挽雲集

---

卷二

---

筭 疏



## 疏

### 奉使虜庭，請奏聞天朝移咨毛鎮疏【辛酉○在滿浦時。】

伏以建虜射天，至僭年號，既以荐食上國。又欲東吠，或要信使相聘，或請關上開市，試我掉闔，無所不用其極。迺者天兵失律，退舍頗遠，既不能賴上國之援。又不爲羈縻之計，則出於無策。聖慮所在，亦出於此。不知臣無狀，以臣爲虜庭之使，臣唯當聞命卽行，夙夜匪懈，以舒目前之急而已。至於廊廟之事，非使人之所知。然而嫠婦不恤其緯，惟宗周是憂。臣亦豈無區區犬馬之誠？竊念天下事，言之則一致，而有疑信不同者存，宋富民之築墻，是也。今臣之行，既非刺客姦人，理難匿跡。全遼一地，豈無一二思漢者，走漏消息，以及於毛將也。卽今文龍壓在吾境，日以不稱其所欲，望我方深。若變幻其辭說，傳誤於中朝聽聞，則以不專之心，聽忌者之說，必智其子而疑隣翁，參母之杼，不待三至而投也。今臣到彼，若以國家之靈，伊虜能降心而相聽也。臣先言其終始不可背天朝之義，勉以親仁善隣之道，或激或說，低昂辭說，隨機應變，務得其歡心，如其狼怒加暴於臣身，臣益激忠義之氣。若將爲天朝計者，而使聖上至誠事天之忠貞，終若日月之昭揭者。此臣區區報答之萬一。伏願聖明亟將送臣偵探之意，一邊敷奏天朝；一邊移揭於毛文龍。事須有光明正大，無一毫遺悔，以免他日天朝頰舌焉。臣亦知廟堂成算必不出此，而竊見贊臣以有旨事意，行會於臣者曰：“毛將若知鄭忠信入往之事，或不無阻梗生事之

患。卿其十分祕機，潛形而送。”臣之愚慮，不能無疑於心，乃敢冒陳危懇。君不言於毛將，而必欲以臣潛形而送，則臣雖萬被誅戮，終不敢奉命焉。臣不勝伏質引頸以待斧鉞之至，謹昧死以聞。

### 辭平安兵使疏【甲子八月】

伏以臣前後蒙恩，天地罔量，寤寐感激，報答無路。常思一任驅使，不避艱險，鞠躬盡瘁，死而後已。不幸水土不服，重得痼疾，肌血焦乾，觀者變容。然而一縷未絕之前，不敢乞退一步，只從監司討暇調治，以待溘然自盡之日。監司臣李尙吉，愍臣如此，具上病狀，轉瀆天聽，至遣內醫以盡心救療爲教。臣益自感泣，東望拭涕，恐涓露未效，抱恨泉壤。不意今者，節度新命，又及於臣身，驚惶震越，罔知攸措。臣之病不能荷負重寄，已不暇論。竊以本道事勢言之，自經逆亂之後，人心潰裂、氣像蕭索、軍伍無形，不相統屬。加以因亂減戍，邊無見卒，而虜情叵測，顯然有伺河水之意，大小搖搖，無所終薄。此時，雖以位望素著、智慮超絕者當之，亦難收拾整頓以保疆事之無虞。況如臣庸駑萬不近似者乎？且臣本出寒微，不壓重望，猝然仗鉞，一軍皆驚，其何能鎮服軍情，號令一道乎？凡稟受類萬不同。技能有長短、局量有大小，使臣受一徧師，聽大將節制，或乘機出戰，或堅守一隅，則是臣之小可，而至若專制闕外，援枹登壇，指揮三軍，則決非臣所堪。易戒負乘、詩刺不稱，臣何敢不自量，冒據，以至於他日僨事辱國而後，止哉？臣雖感遇，願竭微誠，思所以克副萬一，以臣地望才力，方臣所授，是責



尪羸，負重超險，不唯臣蹒跚顛陪，相識者亦已寒心矣。伏以聖明天地父母俯察微悃，亟許鑄改。使臣得免代斲血指，則臣當猶在道內，暫就閑地，靜意調病，若以餘波復得生道，亦當從事於元戎幕府，聽其調用，庶盡心力，終始圖報。此臣區區之至願。臣危悚懇迫，干冒宸嚴，不勝屏懼之至。謹昧死以聞。【上答曰：“卿有才，有智，奴首雖來，猶可以談笑當之，卿宜勿辭，益加盡心察職。”】

### 爲張玉城辨謗疏【丙寅○與南公以興聯名。】

伏以臣功微賞鉅，福過災生，疾病爲殃。半身不遂，廢伏一年，恩賜便蕃，感激鴻私，祇自流涕。已而至於陳賀，問安之班，一未從諸臣之後，自餘他事，不復隨人數自處矣。第於病伏中，竊聞有昌寧縣監趙稷，封進一疏。原疏雖未下，道路已傳其大槩矣。其中一款：卽論體臣張晚事也。或云“將身以避，縱賊入城，與伊賊無異”；或云“論功不均，將士痛歎”；或云“退臥碧蹄，有若爲賊繼援者”；或云“若非老將奮義先登，國事未可知也”，指擬慘切，無所不至云。詳其主意，似乎專罪帥臣扶上老將者，而與奪謬妄，不覺自陷於誣罔之地也。邦運不幸，逆豎起於藩閩。當此之時，一國精銳，盡入賊手，雖以元戎陣下留兵，不過數千，衆寡強弱，已懸絕矣。變甚倉猝，人甚驚擾，方其出兵也，或以日犯七殺，爲兵家所忌，帥臣慨然卽決曰：“師直爲壯，豈有赴難應急，擇方而行者乎？”激礪諸將，語切忠憤，莫不收淚以聽。出兵三日，遇賊於黃州境。緣臣無狀，官軍失利，猶以殺獲相當貸之，仍領兵如舊，收拾散亡之餘。已後賊一日，臣卽取麒麟路，

躡賊後，張晚取平山路，以爲犄角之勢。時副元帥臣李守一，駐在瑞興，而無帶兵，張晚卽割部下兵一千餘，與之同進前路，不料馬灘陣沒，臨津棄守。此時衆心危懼，搖若懸旌，帥臣益奮忠義，激勉士卒，坡州途上，會諸將議軍事，臣南以興、臣邊滄、臣申景瑗、臣柳孝傑、臣金完及臣忠信，卽赴軍前，共聽約誓。及是日未星，進據鞍嶺，帥臣亦隨而進，在陳後，號令如臂使指焉。翌日，賊驅兵大出，敢抗王師，方戰之始也。副元帥臣李守一，亦自嶺下進陣西支，以助軍勢，帥臣張晚，先遣軍官申東，持劍督陳；繼遣從事官臣金起宗，察其功罪，幸賴宗社威靈，賊乃就殲。其時事，只此而已。以在陣後號令之帥臣，“爲退臥碧蹄”，“不曾見奮義先登者”，指爲老將，見聞各異，好惡隨之。夫言貴實，捨實何稱？萬目所在，不足多辨。臣以前部大將，一軍之事，臣實與焉。濫蒙渥宥，捨罪而錄功，功則列於第二，罪則獨歸於上將，臣何敢以名不在疏中，晏然默默而已也？若當其罪，臣宜首受。伏願聖明亟正臣罪，免致人言，不勝幸甚。臣無任俯伏惶恐待罪之至。謹昧死以聞。【上答曰：“省疏具悉。爲將訴冤，分義之所當爲；被誣欲辨，人情之所不已也。但振武功勞，朝野無不識之，自上旣以深燭，怪妄之言於張大功，何傷之有？區區相較，不如置而不言之爲愈也。且此時瀆擾，亦涉過濫，卿等并爲安心，勿煩。】

### 辭副元帥疏【戊辰五月】

伏以臣病風蹇滯，不敢行役，已是聖明之所燭。聞變之日，臣輿疾從軍，非爲有一毫筋力以補涓埃，只緣當時事機，不圖復有今日。

臣感激國恩，寧欲朝就道而夕死，效萬一填海微誠。以臣疾病，至今得保縷命，猶在行間，實臣夢寐所不期者，而惟是聖恩所賜耳。臣帥師以來，一未能折馘執俘，大負簡命，久遭嚴誅，天殃先及。自春開，所患宿疾復劇，手脚痿躄，蹶然委席，已近三箇月。精神已脫，無復有人事，對人酬言，觀者改容。屬有通關許市，諸道之已罷，唯臣一介行李，獨在邊垣。亦無所事。臣聞“人窮反本復始，疾痛倦極，必呼天地父母”，今臣奄奄，朝暮且盡，乃敢大聲疾呼。伏願聖明天地父母，憐臣病劇將死，許臣以生渡淇水，復近京師，濟之以醫藥，得須臾母死，則區區犬馬之誠，期益盡於餘年。危惊懇迫，干冒宸嚴，臣不勝屏營隕越之至。謹昧死以聞。【上答曰：“觀卿上疏，‘以病，請上京調理矣’。今姑上來，及時調治，待秋還下去，未爲不可。茲遣宣傳官，持標信密符下去，卿其知悉有旨。”】

### 辭元帥及備局堂上疏【十一月】

伏以臣因亂之使，猥膺專鉞，絲毫未效，徒積罪戾，聖恩如天，生入脩門，寤寐感泣，不知死所。自西而還，擬以陳情待罪，乞遞職名，旋因虜書悖慢，邊聲甚聳，迹嫌辭難，悶默不敢，以至于今日。幸而事出機宜，虜亦效順，邊無警急。且撤冬防。今日之計，只出於轉粟賑饑，修設山砦；羈縻虜書，毋激狼怒，休民養士，待時而動而已。至於收拾燼餘，慎保疆場，特其本道之能事，臣之元帥，只見其疣贅。揆以事體，允宜遞罷，日後有軍事，須議其人矣。仍竊惟臣之忝叨備局堂上，極是猥濫。而惟以副元帥之號，與聞邊籌，

黽勉隨參，已經三箇月。屬今玄威凜冽，斗覺冬深。臣所患夙疾復劇，手脚麻痺，緩不收經，疾凝心竅，精神恍惚，如坐舟本而旋運，有時不覺昏僕于地，種種危戾，顯有再中之漸，門庭出入，咫尺猶艱，尋常公務，末由趨進。伏願聖明天地父母，俯諒臣危懇，許遞臣備局堂上及副元帥，俾以三冬靜伏調治。終始恩造，得須臾母死，則他日東西驅使，庶盡犬馬微誠。緣臣病劇，干冒宸嚴，不勝屏營隕越之至。謹昧死以聞。【上答曰：“省疏，具悉卿懇。邊報雖緩，此時元帥之任，決不可遞罷，宜勿辭察職。”】

## 辭副元帥疏

伏以臣猥膺元戎，萬不近似，再陳微懇，乞遞職名。而及承溫旨，聖諭丁寧，感激流涕，更不敢辭，黽勉虛帶，又至半年餘。竊念臣倉卒之使，單騎受命。及至還京，亦一介行李，非有建牙開府，規畫邊籌者。其遞不遞，猶在京師。倘不幸邊陲有事，又責以軍士，臣當聞命即行，死生以之，只盡寸草微誠而已。屬今邊兵已撤，國無門庭之寇，久帶虛銜，適足爲凶徒之借資。聖恩如天，雖貸而不問，臣之情事，亦甚戚戚無措。伏願聖明天地父母，俯諒臣至懇，許遞副元帥之任，以全公私，不勝幸甚。危悚懇迫，三冒宸嚴，臣無任惶懼隕越之至。謹昧死以聞。【上答曰：“省疏，具悉卿懇。予意已諭，卿勿固辭。”】

### 辭副元帥疏【庚午九月】

伏以臣得見劉興治所答於臣者，許多凶悖之說，有不忍見。如其兩席椒島之事，已有夏尙進、陳琮等竝入島中，此爲明證。不足多辨，而至若昌城之殺死，義州之撥兒，安州溺船，順天之拘囚，未免其口藉之資。而其所致怨懷毒者，專任於聲罪討叛，一大款耳。臣旣與彼爲怨耦仇匹，勢不可相容，臣待罪戎行。非必爲在京料理者。倘邊陲有事，職當前驅，執鞭馳弭，而與怨同憂，禍必先及於臣身。臣自見其回書，卽擬上章乞骸，而顧念興治受職一節，不至十分明白。如孤如鬼，情迹難測。且嫌跡涉辭難，姑息悶默，以至於今日。迺者，竊見李見賚來揭辭中，臣名又出浪藉，其未嘗須臾忘怨於臣，亦可見矣。且聞“任道奄自登州將回”，若得準請來，則興治氣像，復益張矣。臣於此時，尤所難容：“伏願聖明俯諒臣危迫之狀，許遞臣副元帥之任，以全公私，不勝幸甚。取進止。【上答曰：“省筭具悉。彼雖懷怨，決不可因此辭遞。且無可慮之事，安心察任。”】

### 辭平安兵使疏【壬申正月】

伏以臣六月飲水，嚴寒暴露，加以再傷於安州水土，病勢劇，未及罷防，退肅寧，以爲一日之調治矣。臣病伏中，竊見邸報，以爲臣平安兵使者，一見政目，則心魂驚越，罔知攸措。竊念拜命之辱，有事卽行者，非以臣才氣力，有所一毫可堪而然也。只爲臣最承恩遇，天地罔量，生無以爲報，但願僵臥於道上，一死於君命而後已。

前年出師，請以入守安州，而聖教不許，柳琳之代，該司又爲之首擬，而聖意猶惜之。臣益自感泣，私心竊幸之曰：“安州，是吾傷鼇之地，而有聖上在，吾其免土疾之經斃。”對人矜罷，輒復揮涕矣。不意今者，節度新命，竟及於臣身，臣爲聖上，以拚一死，死於水土，有不足暇念。而顧惟臣一自妄論灣城之役，大見斥於本道，或以爲割棄清北；或以爲猜功劍山，群疏疊起，擬議慘切。至有六月身死之朴仁儉，猶上九月之疏，是鬼亦陰誅，臣之眇少一身，亦何以能堪。清西列邑，各築山城，以保遺民，本來臣見得，庚午八月之筭，已陣管見，雖其外人之不知，伏想聖鑑則已徹之矣。臣早擬封疏，陳情乞免。猶念臣分外之寵，不但優渥於臣身，臣豚犬之雛，濫竊科第。曲念臣家貧遠征，至賜內需之資以寵之，父子相携，日夜涕泣，死不知其所，惟期碎身填海、斫首補天耳。時當信使入遼不還，繼有島亂，未靖西路。危機遽如許，臣於此時，不屑去已，癡聾度日，不復以廉恥自況，被人嗤點，亦已久矣。意有以冰泮解嚴，無甚緊情，則或望有恩召之下，心如土牛，萬打不動，以至于今日之頑然矣。臣一朝移闕本道，則其間事勢：非如副元帥有事則來，無事則還，不相干於僞名疏生之比。今若冒恥強顏，從它笑罵，則自喪威聲，以慢軍心，終必債事而止矣。此外又有節節難便者，非特一二。伏願聖明天地父母，俯諒臣危迫難堪之狀，特下還收臣節度使之命，以全公私，不勝幸甚。危悚懇迫，言不知裁。且念安州事務，一日猶急，臣不暇容下旨之待，經先拜疏，益增惶懼濫越之至。

## 與體察聯名疏【癸酉○體察金公時讓製。】

伏以臣等俱以無狀，待罪闕外。古人所謂介冑之士，言戰而已，不當於和字上掉舌。而當此邊疆事急，國家安危，係於呼吸之時，不容心有所懷，含默不言，以負我聖明。故敢陳蠡管之見，伏願聖明試垂察焉。竊念曾奴恐喝言辭，雖極凶悖，其意似專在於欲準取所定之數而已。此是驕虜常態，漢后、唐宗所不較者。其曰：借船助兵之說，不過設爲是辭，使我辭其難而取其易。不然則如申得淵言也。何以曰：“欲準此數。”則留置禮單，而隨後備來乎？今之聲罪絕和，出於不計成敗，寧以國斃，則臣等姑不敢容議。若有姑示絕和之意，使彼懼而從之之意，則虜雖仁義不足，兇狡有餘，豈爲此言所動得哉？設或得動謀國之道，恐不宜行此危計。如此之計，是一將之用奇，只可行兩陣交鋒之際也。目今西糧，頭會而計之，不支二萬兵半年之食。使虜聲言渝盟，欲來不來，待我師老糧匱而始來，則未知何以應之。況一國繹騷，農夫拋鋤、舟師亦動，無食自潰之患，在所必至。雖使賊來就殲，國勢將自此不支矣。譬如氣弱之人，盡力相鬪，縱得一勝，元氣萎荼，不得復起，亦理之常。況未必然者乎？臣時讓前日之筭，乃是有備無患之意，慮其賊必來也。贏糧躍馬，固敵是求，不幸而近之，臣等竊危之。若非好大喜功之時，豈有召敵之理乎？孫武所言：“百戰百勝，非計之善者。全國爲上、全軍次之。”豈非今日之所當留念者乎？此非臣等受鉞在外，畏賊徒怯之言也。凡天下之事，快意則必有後悔，他事可悔，此事獨不悔也。金大乾所持國書，略改其語，善爲措辭，如黃金非土產者外，姑從其意，試觀其所答，然後絕之未晚也。朝廷之意，實出於絕和，

則大乾之行，亦不必若是其汲汲也。遼宋之勢，宋重而遼輕，猶有增幣之舉，韓琦、富弼等，專主遣使報聘之議，國家賴以爲安，後世不以爲非。況今日之事乎？姑以利害言之，一年用兵之費，豈至於數年禮單而已乎？自申得淵出來之後，此路之民，到處呼訴，自願計口出布，以充萬匹之數，民情所在，亦可戚也。臣等姑留金大乾於灣上，以待朝廷處分。就使臣等所見謬妄，不能感回天聽，而猶可及送於三月初一日開市之前。故使義州小譯，先報回答使入來之意於虜中。臣等固知檀留使价之誅，罪合萬死，席藁伏地，恭俟斧鉞。臣等不勝惶恐屏營隕越之至。

#### 乞遞總管及捕盜大將疏【甲戌六月】

伏以臣今月二十八日，在關中，卒患痰厥頭痛。又兼中暑，症勢極重，扶曳還家，昏不省事，日向危劇。詔使在館，連有舉動。臣病勢一二日之內，恐難差復，臣切悶迫。臣兼帶總管及捕盜大將，并許遞改，以全調治，不勝幸甚。病勢危劇，干冒宸嚴，不勝惶懼屏營隕越之至。

#### 慶尙道右兵使時 乞生還京師疏【乙亥五月○判官代製。】

伏以臣自四月，前症復作，初謂痰厥頭痛。又發於氣血俱虛之後，曾莫之治也。及到本月，危重之勢，日加一日，而猶冀其少愈，不



敢言病。至于十五日，痰火益盛，窒塞膈上，怔忡恹恹、心神昏亂，欲言而不能言；視物而不見其形。委頓床席，尸寢終日，呼吸不通，朝夕難保，只是未入地之鬼耳。臣之一死，有不暇念，而軍政重事，亦甚疏虛，臣尤不勝悶慮。伏願聖明天地父母，憐察垂死，亟遞臣職。臣或不至中路溘然，則生還京師，得以醫藥，庶有圖報之路。臣病已至十分地頭，倩草辭章，已失危懇，恐不足以感動天聽。然其言不外假，而由危迫之至情，則聖明或有以洞燭之矣。臣不勝屏營隕越之至。

## 筭

### 論軍務筭【庚午八月○在廣梁時。】

伏以臣猥以無狀，待罪專鉞，四年于茲，前後辱命，蔑效涓埃，臣罪萬隕，何敢言事？然而顧名思分，荷負不淺，每一念至，忽然忘生。竊念丁卯之變，虜不敢深入，受盟而退者，非吾兵力有以能制其命。只緣狂奴意在射天，政如逐麋之狗不狼顧，乘我羈縻，反以我牽掣耳。彼既肆然驕騫，振驚皇城，未聞有赫然斯怒。干戈戚揚，忽然棄關捲甲而還，凶謀所在，固未可測。盜賊群居，無終日之計。若不收拾餘騎，再肆于關，必不寂寥，遼左甘送殘年。此政失馬之家，修廢之秋。一自變生以來，宵旰之憂，盡減內膳，絕意芬華、苦心修省，上天默感，下眷于東，仍年大稔，西戍已蘇。理宜不憚征繕，以戒不虞，不可一向媵嬰，徒事撫摩爲也。粵自從海朝京，急於格卒之難辨。且謂以毛將開鎮東江，海防無虞，如宣沙、老江、廣梁諸鎮：竝皆撤罷，一帶海門，出入無禁。椒·席兩島：久作漢人之所據，馬圉已空、船材且盡。向使海鎮仍存，豈至於恣意作害，至此之甚也？廣梁一鎮：西衝外海、東接沮水，一極形勢之地，本鎮水軍，移屬爲鹽營所役者，亦不下數百餘名云。城郭、公廨，宛然依舊，及此時復設，則功役或能一分省費，海防無虞，不獨今日爲然也。早晚椴島撤廻，則遺丁逃卒，散處諸島，異時沿海之虞，必有甚於向日海浪之患矣。椒·席兩島：介於大海之中，與白翎，形

勢遙連。席島則泉甘土沃，正堪人居。許沙一堡，僻在內岸，無甚控扼。若移城於席島，陞號擇人，許令廣募流民，免稅懇耕，一如當初白翎之爲，則海傍居民，視此島爲第一避兵地，必樂趨矣。兩西遺民，一經兵火，驚魂未定，搖若懸旌，皆願各築山城，以爲父母妻子所，其情戚矣、其願至矣。如龍岡之多米，使三和合築；咸從之鷹巖，甌山合築，則亦一形勝地。如永柔之魚波，使肅川合築；慈山之慈母·順川·殷山合守；寧邊之藥山·博川·熙川合守；昌城之青山·雲山·朔州合守；嘉山之曉城·龜城合守；定州之慈聖·郭山合築；宣川之劍山·鐵山合築；義州之白馬·龍川合築，以守則政當虜衝，形勢俱爲奇絕。無事則出耕；有事則入保，千里清野，四無所掠，則不敢肆意深入。因願起役，令順民心，功不倍矣。安州一城，爲西門一都會。幸賴申景瑗竭心殫力，大加改築，屹然難犯。唯其東城之外，烽燧壓臨，最可忌。若於六十步之外，因勢起築，作爲羅城，高建將臺，挾設武庫，大將居其所而號令，則政爲扼項拊背之勢耳。且因瘡痍之餘，難於廚供兩辦，便革判官，節度大將，奔走於頓差接應，大損威名，揆以事體，不亦傷乎？抑又不幸，前路有變，節度使領兵出戰，則本城句管無人。借使客將，臨亂入守，豈能倉卒鎮服民心，得其死力乎？以此以彼，判官尤宜復設。寧邊爲二百年開府之地：人民之衆，城池之廣，甲於一道，正與安州控對，信作唇齒之勢。如使望稱節度使者，擇授本任，一如北道之會寧舊例，則臨急可有備矣。至於黃海道：則殷栗之九月、載寧之長壽、海州之首陽、瑞興之古邑、平山之東城，已成完壁，固無所事。近與本道兵使申景禔，久處一陣，語及本城事，輒復嘖嘖，意甚無賴。蓋其本城城郭，次第崩壞，東北二面，碎城低甚，外無

砲樓，難制蟻附之患也。臣之妄想，幸而今冬如無急警，姑停安·黃兩城之冬防，程功計物，畚鍤預俱，稍待春開日長，以五營之兵，一時赴役，則不過兩箇月而畢。至於安州，則功減二分餘矣。然後命一上將，開府中黃之間，畀以重權，使之悉心料理，等棄兩西，專事防胡，則六道晏然，民樂漁樵，豈不逾於邊烽一舉，八路俱騷，荷擔而立者哉？如許布置大計，非臣所敢容議。而然猶嫠婦不恤其緯，惟宗周是憂，則臣亦豈無區區犬馬之誠，乃敢冒進妄見？不勝惶恐隕越之至。敢進止。上答曰：“省筭具悉。筭陳之事，誠有所見，令廟堂議處焉。”

### 又論軍務筭【辛未六月】

伏以臣聞‘強國戰智；弱國圖存。居高者，自處不可以不安；履危者，任杖不可以不固。竊惟當今之勢，政宜於圖存固杖之秋也。國家不幸，一自虜據遼上，門庭便對，意有所至，朝發夕到，清川之西、淇水之南，未有定也。不啻若秦，魏之急，而兵後兩西蕩殘已極，議欲大發兵屯守，則邑無儲糧，餉道不繼，自來悠悠姑息，以至于今日之寂寥者，出於無計也。竊念此奴之先試於東、而後事於西者，政出於燕人慕容翰所謂‘欲向于西，必須先事於高麗，以致議後者。是也。彼既肆然驕騫，入犯中朝，猶未大肆焉。狼心未悔，何嘗一日忘南牧而窺易水耶？及今有萬餘之兵，潛渡鴨水。聲言襲島，借船於我，一步不渡大定江，搶取民船，綜泊於鐵山西岸者。此豈真有意於切島者也？抑無乃兵欲于西，而掣吾東者耶？但有黃都督

龍，適及於此際，略有折馘執俘之獻，其欲固意留東江者，適售其謀，恐自此西民，且苦兵矣。然而以時推之，虜之渝盟，尙有一關嶺耳。臣竊聞，‘朝廷方且大調三南兵，陸續入來，以爲諸城之外援。’兵未至而虜將退矣。及今兩西酷經兵火，邑無見糧。假使兵至，餉道何以繼之耶？且念此奴，鐵騎憑陵，長於野戰。雖有累萬援兵，亦何能交兵原野，戰而後求勝耶？只宜嬰城固守，靜而待之耳。新安程驥嘗於九邊議曰：“虜自火節也先之後，益輕中國，往往深入，風雨飄忽，動輒數萬。我能依險結營，不爲衝突擾亂，卽爲萬全，敢爲其堂堂一戰乎？”此言深知禦虜之長策也。近來袁都帥崇煥，以一時英妙之才，堅守寧遠，累折虜衝，及其退歸，戒卒而不出城。關上重兵，坐觀寧遠之圍，亦不敢跬左足出關門一步而救之。此豈非知彼知己，不强其所不能者耶。以天下累萬精兵，尙不能爲外援。況我以疲兵數千，敢望解圍城之急耶？置重兵堅守、簡精騎外援，雖是兵家之常事，以吾形勢料之，則只歸於虛聲假勢，無甚利益於其間。臣之妄意以爲，調發三南兵，每年每道，只調二千五百。京畿，江原竝二千五百。咸鏡南道及巡營并二千五百。作爲五番，添以京營兵五百，合計三千。期以每年三月初一日，入守安州，至月初一日，放還。勿論有警無警，歲以爲常，則五年一守，亦非爲諸道之苦矣。至於冬春四朔，則專用本道兵七千，添以監營兵二千，準九千之數，則兵使手下，亦有若干兵，足可以冬防，而不患兵寡矣。安·黃兩城，悉力堅守，兩道遺民，竝許入保，山城千里，清野以待之，則不幾乎先爲不可勝，以待敵之至者歟？三南大兵，如未出境，猶可以及止之，只調二千五百，入爲安州之守，恐爲便益矣。此去清川·大定兩江之間二十餘里地，有良田數千頃，而素稱沃土。如

用二千丁夫，五六日之役，足能以大築堤堰，歲可得萬斛之穀。安州之兵，有事則入守、無事則出耕。亦出於古人且守且耕之意也。仍令臣勿出安州，責以專意酬應，則死無所辭。且接金差，察言觀色，外雖陽順，內頗有憾恨之意，其所望似在乎差官入送。既與修盟結和，則犬羊何足責？亦令廟堂，悉意講究，勿論文武，極擇能言之士，火急入送，開陳利害，以息狼怒，亦出權宜緩兵之道也。臣以一介微賤，濫蒙恩遇，蔑效涓埃，徒以葵藿寸心，受命於危亂之際，不勝區區犬馬之誠。渴陳危懇，亦甚濫越之至。

### 又論軍務劄〔八月〕

伏以臣庸無知識，視聽迷當，妄論灣城入守之難，大見斥於本道，攻臣之疏，攘臂而起。臣唯當噤口結舌，不敢復言事，然而謬膺專鉞，受命出疆，則其事體與局外傍觀者不同，亦何傷各言其志也？即今本道之必欲收復灣城者，實出於鞏固藩籬，以安堂輿之至意，事理之當然，孰有逾於此乎？第惟料以事勢，有苦苦難便者，非但一二矣。謀在衆、斷在獨，惟聖明之裁擇焉。竊念經營築事者，必先慮事：分財用、平板幹、稱畚鍤、程土物、略基址、具糗糧、度有司，量功名日，不愆于素。蓋葦艾獵之城沂者，是也。不然而以一時之見，率爾起役，則終歸於一篲之虧，而多見其敗也。臣辛酉、壬戌之間，以本道虞候，入守灣城，忝預軍籌。臣病後神耗，雖不能得其商略，而或有一二可記者，本城周回二千二百六十餘步，砲樓十三，城門五，倉穀九萬斛，而實食米五萬。至於大砲，則除

十三砲樓，四大門上下層隨面排設者外，又有四百九十四垛，間垛而架焉。千丈之城，萬人守之。言其戰卒，則客兵七千，本兵七千贏。且有宣·鐵·龍三邑之疊入。言其守將，則府尹之外，有巡邊使焉、防禦使焉。又有臣焉。至今追憶其當時兵將器械之盛，不覺痛惜而氣塞焉。以如許兵械之盛，猶患其城卑，賊臣明璉，每主西城一面加築之議，府尹鄭遵難於起役，苟度時月。防禦使臣柳斐病其矮甚，內實女牆，而補其高。此特一時之備，而非久遠計。丁卯之變，賊潤，果導賊踰西而入。蓋深知本城形勢之故也。今欲修築灣城，大舉入守，則城郭砲樓、曲城垛堞，體城崩夷毀頽之可改者外，本城之上，亦復當加築一二丈，使賊有截然不可犯之勢。然後始可與言守，計其功役，則須用五千丁夫，五六箇月役矣。今若只繕修其舊時殘城敗堞，而謂之完功云。則不幾乎揠苗而助其長者乎？隔江對壘，備其四時之緩急，須有恒防萬餘兵，萬兵一年之食，須畜五萬斛米。灣城入守，則昌城又不可不守。賊若知灣城之有備，自堵牆、靈陽、寬奠、咧咧，泊於灘、渡於汀，則昌又急於灣，二路緩急，不可岐而看。然則守昌之卒，亦不下三千。三千兵一年食，必須用一萬四千四百米矣。此正兵家所謂無所不備，則無所不寡者也。是以臣每主安·黃兩城，悉力守之。一路郡邑，各保山砦之論。是緣知吾兵衆事力，不能遍及而能全之故耳。國家如欲必守昌義，則須令先治兵機，一如是而備，足可矣。不然而動於一時慷慨之論，不自量而徒務空城，其不近乎置薪而築蒲城曰：“寇讎之保。又何慎焉云者乎？”況今奴酋大領兵甲，已向于西，置伏鳳凰間，以俟我動靜，此正實實虛虛，靜而待之之秋。而今乃以五六百疲兵困卒，浪役於灣城一水隔，勞歌杖杜，引惹狼顧之疑，以招移兵之患，有何

利焉？伏願聖明宵旰之餘，揣摩事勢，如不能大調兵糧，悉賊而守，則暫且停止，以俟時焉。臣區區過慮，不憚人言，乃敢冒陳愚見，不勝危悚激切之至。



挽雲集

卷三

書

祭文

祝文



# 書

## 與任遊擊書【戊辰正月】

日者，虜使過境，急報臺前戒行。諾以領避。臺下兵丁不自慎，浪走道上，撞遇胡兵，不惟不自免：十五人之命，復被殘害。又言大人兵孤駐近，臨死亂言，引惹禍端，追悔曷已？寡君以俺不能善護顏行，拿命已下，金吾使朝夕當來。敢此來別。仍有腹心。纔見二胡騎飛奔電馳而過鴨江。其隱情可想，倘是招兵護還之計。去春蛇浦之變，指日可期。鷺鳥欲擊，先斂其翼；淵魚欲動，必潛其鱗。大人亦知兵家奇計，何不捲還零從于島，以待春暖水生，相機而動也？蛇浦地窮海水冰，尙咫尺不能聚大兵之援。今日之患，不啻雲臺之急。智者，覩於未形，見機不作。殃必及之，幸大人不以疏遠聽之。既爲地主，義與人殊，竊爲大人憂之。

## 上黃督府【龍】書【辛未十一月】

島亂未已，至驚顏行隔海，消息難真。不佞奉寡君之命，來鎮鐵山，蓋爲老爺也。望洋憤切，寸心欲折，幸而天心悔禍，鴻福猶降，難不日而旋定，檠戟依舊，曷勝懼忭？信牌檄催軍需事，至於此，何敢少遲？謹以牌意，移會餉臣。茲專价，兼伸慰賀之意。且慮有軍

擾之餘，餼牢缺乏，謹以大米十包，仰備一日之薪水。謹此不宣。

### 上黃督府書〔閏十一月〕

水路一梗，得便猶遲，前後有書，俱未見，有辱復瞻戀光塵，徒增兢懼。竊念老爺控制東江，柴戟重新，大小事宜，當有以一視。此奴狡甚，用謀多方，必欲交亂兩國，以伺漁人之收，想老爺思之熟矣。小邦力弱，既與彼講好，時有信使之往來，亦老爺之燭矣。方有虜使入境，覘我釁正，宜靜而待之，不可設餌以啓戎心。今見鐵山塘報，有島中群馬，出牧於山邑。是有水草之艱，而及今耳目多事，有一不虞，以開兩國之釁，則以老爺圖存弱國之義，亦豈無悔？伏願老爺特可念之，收還馬群，俾免邊境之虞，則豈但西民之幸？亦良驥可惜，無任祈懇之至。謹此不宣。

### 上黃督府書

不以遐賤，曲賜問遺，拜書登嘉，感懼交深。寡君乏使，不佞敢干戎命。勞師水濱，不能濟危難於咫尺，尚慮罪戾之不克，其敢當獎美？尤增戰兢。以老爺潛機澤水，猶能奮翼，芟除群凶，旋復舊章，此固聖天子嘉賞之不暇。雖自列之懇至，亦奚以哉？第念盜入帷幔，亦韓魏公之所不誠？一片孤島，矧多反覆。願老爺恒加戒心，毋使鼾睡，更容榻外呶則幸矣。係情幕府，自不爲陳外，敢布腹心，

亦知濫越。肅復不宣。

### 與張遊擊【魁】書【同月】

近來彼此，浮言百出，難以參母之智，不能免投杼。略以行從，來到鐵山，第看之虛實，幸而天心悔禍，督府老爺，旋節依舊。此皆如大人夙抱忠心者，臨危效力處，不勝欣賀之至。茲承辱惠書，益得島情備詳，尤切感嘉。謹以來意，備啓國王，大人之賜，亦多矣。謹此不宣。

### 與沈副總【世魁】書

島亂未已，復有廢置督帥之變。雖以小邦，君臣上下，莫不痛心疾首，遑遑無所底定。若非老大人一心忠義，冒白刃捨生，解紛釋難，督府大老爺片時性命，何能得保今日耶？然而其廢與殺，相去一寸，誰謂一片孤島，竟作群不佞之窟耶？以大人重厚，必不能一日安寢食，而危如履冰耳。近來出陸漢人百口，固辭皆言，‘島兵不日將出陸，窺覷小邦。’一傳再傳。市虎三成，雖以參母，不能免投杼而走。不佞亦疑信未定，即來于宣、鐵間，試看虛實。此皆貴島人好生傳播，以動遠近之聽聞。今日之計，莫如竝撤出陸漢人而回島，勿許彼此相混，片時乾淨，戒島衆而鎮鮮民也。未知大人，亦有意於此耶否？如非老丈素秉忠心，敢布腹心？無任祈懇之至，萬萬都付劉旗下口伸。謹此不宣。

## 與沈副總書【壬申四月】

勤問鼎至開緘，感慰，不佞有何所抱？蒙大人眷重至此，反增慙視之至。每想大人赤心憂國，濟活島衆，艱乏之狀，令人不覺愍然改容。寡君憂念島急，既有繼日之餉，此何以盡救涸轍之急？然小邦爲天朝勤念則亦已盡矣。方對張秀才明傳，因憶故友鬚眉，自不覺愴然涕零。便回太忙，草復不盡。只希雅量萬福。

## 與沈總府書

不以疏賤，存注日新，不佞何以得台府視同骨肉，至此之眷眷耶？每承一書，便忘分賤，藹然情激。日者安州之變，雖無下問，本欲一陳始末，洞辨而無遺憾焉。況承下問，敢不一一？凡私吾人而主先入，乃是世間常情，而獨台府迥出人私之外，不作疾言遽色，號差明白的當之。金都司，先問於布政、又及於總兵、若不佞其臨事，慎重周詳之意，藹然可掬。此所以十數年間，鎮東江，遍得鮮、漢之情，而益使吾民，歌詠之不忘。竊惟其日之事，管餉未見，胡遊府於城外，論其貨價而不應之。遊府少出房外，使四箇家人，置管餉于密室中，先以鐵索加其頸勒要之，管餉憤其怯迫，誓死而不應，則又頸以弔索，及至加索，則其死不死，間不容髮，管餉命在須臾之間。不遑於外事，本不干於刀兵之政，申總兵以本城之主，急於結纓之救，至若動兵卒。不佞以元戎，得專主約，亦何預於總兵？不佞聞餉使之急，先修名帖，送一小譯于胡遊府，言其事不當如是，

蓋先禮而後難也。多小兵丁，圍抱其家，彎弓注矢，驅逐我人，使聲問不通。乃有劍傷我人之甚，則漢人先事兵矣。事至於此，不以兵卒，無以解圍兵之急，而救管餉於斯須。安州約束所定，以登臺放砲，吹招隊喇叭，則兵馬被樹釋臺下。此時事急，不可家招而戶令之，因舊約令之，果有騎卒齊至。即令百餘人抄送於圍兵處，以救餉使。至於李千總逢春事，與胡游府少異。整夫馬厚接而送，其所帶家丁之不分玉石者，亦令解放，給馬以送。其時事只此，而無毫演約耳。何知李千總，不以實明告于台府，以眩彼此是非耶？若以其日之事論罪，唯不佞一人當之。幸 台府，曲加 鑑亮焉。

#### 與沈副總書【丁卯元朝】

膠牙一樸，忽覺三朝，愁聞塞曲，但見春盤，想旅懷同之。所幸，乾坤改律，新慶隨春，北闕貢膺，萬國遼塞，已遠舊封，簫韶九奏，百蠻蹁躑。不佞與台府，惟是太平餘，携鏡之霜毛耳。謹以不腆，聊申 賀儀。

#### 答沈總府書【九月】

國有內艱，君祖母棄壺儀，痛迫臣僚，不遑賀節。眷問先至，珍貺交錯，延慕光塵盛德益深。乃念江北大歎、虜兵新敗，倏焉秋盡。冬防政令可念，未知台府籌如何？義在同憂，幸惠良規。

## 與姜弘立書【三月】

金國諸將，既與之設誓，告天約和而退，自朝廷申飭鎮兵諸將，如遇金兵，戒勿相殺。故俺提兵在後，已於新溪地，遇青旗金國兵，不會交戈。金兵收略牛馬，我人馳入金陣中，奪一銀飾白馬而回，即差譯舌，送還其陣上。金將喜謝之，即以二馬賞其譯，譯官辭而不受，自我堅守盟好，於此，亦可見矣。黃海海郡，入去金兵，縱意殺掠，厥刑白馬，誓天之義，安在哉？令監擔當和議，舌退數萬金兵，一國大小生靈，孰不感德？即後金兵不遵主將約束，殺掠至此，自我豈不知以萬報萬、以好報好？皇天在上，盟墨未乾，人雖負我，我何負人？願令善爲之辭，多少被掠人口，竝令刷還，毋負誓天之意，則急難之中，益可見爲國丹心。千萬切希切希。謹此不宣。

## 答崔完城書

春回塞門，瞻慕益切。伏承撥上書，此其新年消息，倍覺驚慰。忠信，三年枕戈，舊疾彌劇。比來神思十分耗盡，目前事功，猶復茫然。況其敵情之如陰耶？欲動則實未知其必來；欲靜則中外騷然，道路負戴，有若瞽者立於衆會之中，茫不知東西所之也。惟念，此虜勞兵萬里，大困而歸，意沮犯闕。阻隣西撻，遼左素荒，本不產布貨。食雖自謀，衣則不得不仰賴於我國，猶恐其庫又兒之講幣，爲準所胡之來。汲汲隱然弛張，微示其凶情，其意似是專在乎歲幣之增。以其於投邊之書，有若如去人所言，則‘不妨進人云’者，亦



可見矣。回答之至聒水，彼已知其禮物之不如所胡之所講矣。必欲構釁而東犯，則何必停其物，而請使臣之獨往也？於此其意，亦一小變。但念其意甚盛，恐回答不能停，當而還此後，必有一番之往復，未知復有如富鄭公之使乎者耶？若以講隣之道言之，南倭北狄，有何間焉？所胡之所講，其能如贈倭之一半耶？台監之竭力不幾乎溺跌者乎？伏呵伏呵。敵情則難知，惟當有備而待，吾豈不思？臨急欲請多兵，則兵非服氣殫霞者，必將求食安州。竭一國之所儲，只不過一萬兵三月食。至於清西各砦，則猶不給數百兵之三月食。方有出武之分防，而列城爭報請糧，未知餉臣果有蕭相國之手段否也？是以曾年費思料理，只請三千兵，爲安州屯守計者，蓋知吾事力之如何故耳。至於安州，則雖不添他兵，與本道之卒合守，如不至羅雀掘鼠之急，則吾可以堅守勿失。故終始閉口，靜而待之。如有領相大老爺語復及此，幸以此報之如何？

### 答崔完城書

昨於賤豚之來，伏承書；今日宣傳之行，又承書。不料海上消息，隔日而回，一再披翫，不勝感喜之至。此間水陸路之議，如許岐出，病昏之人，未得一適之見，悶鬱無堪。今承有旨內事意，與卽今島中所見有異，不得不具辭啓稟，語言雖晦，微意則台可燭矣。終始含默，不出一言救世，是豈不佞平生心跡？末路危機，間不容髮，而廟堂之上，猶且袖手，遠責於闕外，其亦傷哉！然敬再拜甘受。今此回啓，未知台監能出一言而救之否？

## 與崔完城書

前上書，想有以開覽。今曉得見回答軍官，又見回書，其意果不出歲幣之增，非必欲東來者耳。一年二幣，既降於一度，則其意望甚急，而猶恐其不得見施江頭送餞。故縱我俘婦，潛漏其祕情，爲若以向我者然，其意專於增幣，亦可見矣。台監其亦竊識之否？觀其回答日記草，亦可知矣。自古講虜猶難，雖以富鄭公之英略，僅得以增幣而回，則今日萬匹之布，比於五十萬，幾何料吾事力氣勢？有一毫可能以當此奴否？弱臂喜張，無益於縮瓜之閑，幸台監勿言於大言，更入思量，如何？曾難極力彌縫，猶未免豚蹄之祝豐，其不絕于淳之縷乎？前日所胡之過安州，極豐其餼牢，一以滿城軍容微示之。此亦王德用大，門於郊下以示。其賊欲不來，而自我激之，則亦非計之得者。未知台監終始有意否？覽後付丙，幸甚。

## 李總府完豐書

昨於盧山制邊，修上書，募入延府。伏承下書縷縷，量暗合賊料，頓覺心開。鐵山路先置陸兵事，西伯之見，亦如此，不待其所往覆而已，自料之伏幸。但其意必欲盡除出陸，漢人無事攬撓軍機，此事則似難爲之矣。忠信，今日往海州，明日向長淵助里浦船所，企待畿湖諸船之過長山，馳往安岳船會處。自此乘船，直到平安之三和，邀見監司，相議進兵一節，使關西船先發，截斷北路後，大兵分路，一陣，向島南監軍衙門前，一陣，向蛇浦前，定計耳。陸路之

兵，竝留於安州，約與平監待舟師到三和之日，陸兵截龍鐵路爲當，使道，亦以此意，祕議於平監，如何？冒雨舟行，舊疾復作，精神恍恍，如在霧中，書不盡意。柳汝溫時未來到，必及於海淵間矣。京砲竝令催送於安岳舟師處，如何？餘在別條之答。

### 上總府書

昨日再覆書，想已登徹。淫霖鬱此，滿船舟卒，愁寂度日，憫憫。料其虜之差行，亦必阻滯於定、宣之間，以北之報，絕無得聞，悶悶。師期退定之計，昨已驛上否？既承合符之驗，必待使道馳啓傳令以後，下官，亦欲馳啓矣。事機適會如此，漸至淹滯，悶鬱之情，想同之耳。爲欲親聽分付，擇一伶俐小校，馳候幕府，幸一一下示如何？

### 上總府書

昨與今日，有書有報，必未登徹。興治還島，似是分明，而出於張大秋之道聽，亦非島中的報發船如何？況興治纔還島中，則驚疑未定，必着脚未固。且遲遲數日。且過流頭雨，十八九間，定欲舉帆，未知使道之意，如何？若以爲遲之，則十六發船爲計，而但六七日，俱犯七殺，是以爲嫌。自此進船道路既已圖形以上，想已入目擊中矣。以廣梁爲稍遠，則前進老江爲計，而只以島近，機事太露爲慮耳，龍胡過江，不得不待，使道以爲如何？

## 上總府書

今朝已上書矣。有旨一樣來到，未知使道何以馳啓，方甚悶鬱。鄙意則在馳報中，幸賜一言可否，立等立等。

## 上總府書

昨日會議之勝算何定。盡日瞻企，不勝眼寒之至。湖船無事，昨昏到泊，軍容益壯，可情。師老島中之報，數日來無別樣耶？今明曉間，下示必至，苦待苦待。

## 上總府書

去夜亥時，宣傳官奉標信來到。伏想使道前，亦一樣來矣。此是特出於備忘，則聖意專在於興治還島，杳然難期。使道恒慮師老之歎，政可符矣。奈何奈何？且使道一進之後，往來漢人之耳目，尤難掩，姑止之如何？濃雲密布，雨意欲狂，一念舟事，不勝焦然。

## 上總府書

苦患暑痢，症勢極重，蹶然委席，今已十數日，候問猶阻，益增病懷。

不審此時，使道痔患氣體若何？伏慕伏慕。軍中疾癘大起，死亡日繼，慘怛無堪。島偵探不過羅伴馳啓中糟粕，而別無新奇之聞，欲往來出入，覘得其所作爲耳。詳聞崔應天之言，則“北峯火藥庫，藏儲比他所尤多，守庫之人，潛欲偷賣，論價則百斤直銀十七兩，若多送銀子，可以一半買來，其餘并其人燒火，似不難云”。而朝廷方禁與彼買賣，亦難輕犯，使道何以則辦得此計也。謹專賤校，問候。

### 答總府書

伏承十八日二更書，伏想使道對燭不寐，憂勤忘夜。示誨勤切，有踰骨肉，隻字片言，令人感骨，古今將相，寧有如此而不成事者乎？畿湖之船，昨日已回長山申，今晚，或可到期會地，一日待之，令人焦肝。進兵獐子島事，及承示教，洞然覺悟，始知忠信不及使道者矣。至獐子、至鹿島，隨其賊縱而止耳。人之提醒喚起晝，固不當如是耶？遙想屈膝敬再拜椒席兩島事，幸一一依命，其間從容處之。使夏·陳兩將，拾在取義，感激報效者，忠信，亦不多謀焉。伏呵伏呵。鐵山報，有云“十三日，劉賊向西”。李接伴之私書於平監者，“出於十六日”。以此見之，則十三西往者，不幾乎給我者？使道已至晴川，鉤得島情者，必已密矣。湖南十五船，既期以二十五於喬桐，此船進退，在妙算中一節。非奉命出疆者，所可論啓，惟使道之啓姑徐之，稍觀椴島事機，如何？然賤見，每不及使道，惟在高明酌妥而處之如何耳。檄草竝臆上，入島後處置。淺思不過如使道之芻狗，而其間或正或霸，隨機而應之耳，別錄所論耶？是椴島事，

賤生所思，不外乎使道之見，則其所方略，不過如斯而已，不復別答符驗，謹留錦囊中耳。風眩益苦，倩筆，不盡。

## 答總府書

即於松和道上，因賤校之還。伏承十五日食後書，行行字字，無非妙思，不覺慰豁。關西舟師十隻，果似零星。到三和約會之地，然後一依分付，更添他船，略成島北兩路伏兵之用。是計，陳武晟雖慣於舟師，是一老沙工，伏兵之用，似非其宜。必欲得李浣，意甚不淺。使有用之將，用於無事之地，可惜。天下之事，不如意者如此，奈何？本道舟師，則兵使甚詳料理，自上道船，暗藏於長淵之助里，使下道船，暗藏於安岳，其船都會處，定於殷栗之廣巖。此則入是之後，詳知用船處，而改之矣。關西都會處，已定於三和之廣梁，此則無進退矣。趙堅，是忠信兵間養育者，幸厚資，送於廣梁，以爲忠信帶去之用，千萬切祝。鐵·郭下陸之報，似不然矣。此奴進退，終不出獐子島矣。京湖之船，今日霧開風定，若及時回串，則可及於軍前，且椒島出來四十之船，亦當過數日而來。必行先事之計，則亦不可徑出椒島之外，使賊遠望而逃遁，姑遲其波船之來，先獵而後進大師，亦或一計矣。大小凡事，千里咫尺，伏幸伏幸。方在馬上，草此，不盡。

## 答總府書

憂多不能寐，對燭到三更，忽承使道書，足寬片時愁耳。島中事，亦知其大槩，伏幸伏幸。京畿船，今夕盡到之；公清船，某坐船外，無一隻來到。蓋昨日未及回串故耳。忠信則坐船已到，不待湖船，而明曉趁潮發船，先往廣梁計之。船行遲滯，不緣改船事。所敗二船，皆棄置於登山。公清一船，見敗，即日改造，只因天不借便風，而淹滯矣。愁水復愁風，長干之歌，到此益知其真景象耳。及到廣梁，得書尤便，幸甚幸甚。使肅川弛縱之間，有若古人之奇計，益見使道之多小機關，喜甚。雙島奪糧事，或似近之耳。

## 答總府書

昨日今日，連承初二日書。龍胡之歸，有何別生罅端？不過滿其欲而歸。但到灣上，數日淹留，機察島中之事，稍待離灣之報，直擣可也。而淹一日之留，則費一日之資，使道必欲拙速者，爲此耳。但椒島前洋潮淺，水落則露出巖嶼，八日，定是上弦，是可慮也。然六七日之期會，初生遲延，一依傳令之意，初七日，出船，德島待風，計料，到島後，府別將李慶禎所帶軍人派送陸路事，當依命耳。重患寒疾，倩筆，不一。

## 答總府書

一日再承書，不勝感慰之至。送來邊報，細悉，彼此事情，如見指掌間。初七日，定爲發船，德島待風，未知天假便風否也。自此以後，海路遼闊，奉承軍務，恐不如意，伏悶伏悶。痛勢猶苦，不能一一。

## 答總府書

每承書時，頓覺心開。龍胡之忽渡晴川，似是見動於囚漢之密言，恐我發兵專爲圖彼之怯，及到灣上，必至準充其欲而歸矣。然則留灣遲速，亦未可期。使道所見，已及於此，算無遺策，節節可想。元是初七八，乃是弦時，榎島前海，水落石露，用此樓船，似有不便者，方以爲慮。若退定於旬後潮生之後，可以容船。且知灣上事機，以此以彼，俱無所欠，千萬幸甚。二十七日，所封狀啓回下，時未來到。來則敢遲一刻爲報。使道離永柔之日，亦望趁卽下示，如何？

## 答總府書

伏承初四日亥時書：“進泊島中事，旣稟朝廷，則初七日發船，庶可停止。”此是昨日書中之意也。如有必乘之機，何待仲男之回？惟在使道詳探灣上事機、興治消息，相機而動而已。草疏下示，感喜，



今日，始爲待罪耳。若非使道封送本稿，幾不免盲瞽，思之益感。但啓草中，直爲分付於海帥云者，未詳使道主意，鬱甚。

### 答總府書

去夜，修答書，曉後，又承封傳各報，伏喜。劉五，是興治耶？大秋告目，已言還島。萬良尙云“在旅順”，未如何者爲信報耶？若使鐵倅，持略干酒饌，往見於所謂劉五船，借辭聞君之還，謹修地主之義，第試其真否，如何？想使道已料之無餘蘊矣。來報，謹還。

### 答總府書

伏承初六日書。伏想進兵事，不必待仲男之回。而但聞朴蘭英邀見平山之語，有同事之請。此間朝廷處置，亦必來到，且待之如何？唯在使道商量進退而已

### 答總府書

賤价夜回，伏承下覆書。滿紙縷縷，無非兵間劇談，令人感動。“龍胡若已過鳳凰城，自此進兵，何待仲男之回。”忠信之所慮，亦不外乎使道之見。以此馳啓，定奪，千萬幸甚。往覆之際，自遲數日差

過耳。流頭雨水之日，天亦開霽，正好借風。惟在使道以吾兩人所料相符，措辭馳啓，如何？萬萬，都是曾所往覆者，不爲逐件以答。

### 答總府書

卽承初七日出下覆書。伏審行間，氣體萬福。伏慰待罪事。原疏雖未下，既見下送謄草，何敢一日晏然而已也？不得不略辭待罪矣。有抱羞忍恥之語，忠信之不及度量中多矣。悔之奈何？平監報中朴蘭英所帶胡譯金奉山所告，‘欲捉漢人，則拒而不聽。今欲攻島，必生大事。云云’等語，未詳其首末，此何等語意耶？幸後便詳示之，如何？數夜狂風大雨，舟楫幸得無事。此皆使道至誠勤念之致，伏幸伏幸。陰雲尙險，雨意未霽，恐流頭之前，未見開霽，極可悶也。卽見黃監之報，“湖南之船，初四自末島駕風，午後風逆，尙未過延坪。”此船回泊，亦未易期，可悶。八千七百員役軍兵所支之糧，只給本月晦日而盡。須有及時運到者，可繼七月，而餉使被拿，句管無人，事事不幸矣。憫憫無涯。

### 答總府書

書去書來，百里咫尺，恍似隔窓聽笑語，益增黯然之懷。備局關，昨晚到此。此是使道狀啓中回下矣。忠信，只送到付牒而已。進船處只老江，而稍可以密邇椴島，機形太露。故昨於啓草，槩陳其所

思，報草必已登徹。罷兵二字，無乃使道憾憤時事之意耶？湖南船，數日間當得回串，雖欲啓停，已不可得，姑且待之，如何？伏見趙疏批答，寧不快哉？吾輩所恃者，只吾聖明，後患何慮？進兵海路及到彼下營處，圖形而上一件，送覽台前，幸入思如何？

### 答總府書

一日二書，足當承晤，喜可知也。料理椴島，使道之計已盡。而備局之關如此，猶今之計，姑且靜以待之。是忠信前日狀啓中：“質已亡矣，郢斤無所施者。”此也。龍胡過鳳城云者，非有得灣報而云也。意以謂離灣翌日，必過鳳城，其跡稍遠，不能與島衆，相結連之謂也。椴島遊魂，自顧之不暇，恐無意於鐵山取糧，而事變無常，使道之慮，亦甚周詳矣。潛送一隊步卒，入保據劍山城上。遠見椴船之來，設機。入守鐵倉，亦或一計。敖倉置兵，古人亦已試矣。切詳啓草，所論節節中理，有若鈺鋒利鏃，遇窾即透，令人不覺屈膝。但慮湖南舟師，不日將到廣梁，此後進退，亦何以爲之耶？此可慮也。論推托二字，大非忠信自疑而示之者。凡答下書，隨意信筆，寫出一點赤悃？而猶未免台疑。是緣吾非節俠，若使田光當之，必已芻矣。人固未易知，知人亦難，尙何望焉？以不佞之素心於台監者，尙有一膜子，交相隔焉。信乎交際之難，伏呵。李院所報中‘興治在茅摠陣下’云者，未知持敬從何得聞耶？面報即時下示，切仰。

## 答平安監司金時讓書

昨日督送舟師，來宿延安。伏承台書，喜甚披霧。椴島事機，近將如何？一入海島之後，西報漠難接，殊覺鬱鬱。南船雖來，不若本道海卒之熟諳道路。須以李浣、陳武晟等，領本道舟師，在安戎間，待大軍到三和，先發截節獐子路。又以陸兵擺置岸上，待舟師出海，放砲喊聲，以示水陸竝進之勢，似當。摠府何必親渡晴川，本道兵使未堪此事耶？此賊本授奴酋密計，其意只在竊據島中，以斷我通登之路，恐興治必不北走胡中耳。大兵一入島中之後，治賊若退據獐子，則是天朝地方，似難進兵。到此地頭，進退極難，此以爲慮也。師到三和之日，乞須忘勞，暫過論事，如何？本道兵船布置之事，漠然無聞，幸船兵器械多小，一一暗錄示之，如何？今日，往海州；明日，到長淵船所都會，待吾船過長山，轉向安岳都會，自此乘船，直取三和伏計。凡有本道事情，連續示之，如何？

## 與鄭畸翁書

一步下江干，飄然有出塵意，足堪瞻羨，第隔里相望。縱未能朝夕承教，尙有蘿菟之依。忽此琴書稍遠，不能無黯黯之懷。少瘳病間，即可趨候。姑此不備。

**寄碣兒**【庚午○以副帥駐廣梁，時碣往兵營，以病留。】

自汝之去今已十數日。初謂必被兵，相情挽未易回來。今已多日，必有書來，而亦無信書，百慮俱生，急送柳萬戶問汝消息耳。聞科舉已判於來月二十八。歸京亦急，須來母使余朝夕倚門而望也。餘不多及。

**寄碣兒**【癸酉八月】

秋雨泛濫，想構屋之計，亦差池耳。國男傳書。此是別後消息，倍覺慰喜。去家十四年，始得歸來，故山墓木，已成樛矣，宿草新阡，萬事一長慟，到家二日，來泊墓下。時未出一步地，蓋爲不忍離此故耳。南州農事頗念。民間亦無愁歎之聲，還家猶是客者，亦安眠耳。來月初，欲及頭流青鶴洞。楓樹才酣、銀唇未瘦，縱遊石門，仍到蟾江舊棲。二十二日，諱忌。晦間，還到竹谷爲計。武男直現於昌平，故貸罪而送，汝可善視之，勿致呵噓。支石姪女輩，方大來悲喜之餘，語甚擾擾。不復一一。

**寄碣兒**【甲戌八月○公入直總府，時碣以北伯軍官，辭去。】

繼巖來傳汝分田以前消息。何幸！汝妻，自昨二更始產事，終夜終朝煩痛，極有難產之色，此時用慮，如何？今日巳時，無恙生男。

落地之初，形如數朔兒，極其長大，以此之故難產耳。此是一家大慶，不念汝艱關行色。須安心好去，勿慮家中事。餘喜極之餘，心不定，草此，不具，語甚擾擾。不復一一。

### 寄碓兒【甲戌閏八月】

道上無恙否？汝妻二十九日巳時，無事解產，得男子。汝又除職，信知今秋爲吾一家之福，慶幸慶幸。但未知巡相卽送否也。如其許還，則亦可道上從容出來，無使奴馬顛踏可也。不具。

### 寄碓兒【甲戌八月】

臨行慙慙，不能一語以送，此甚耿耿。汝若更不近酒云，無所可慮。須固志勿變，益戒杯觴，毋貽老父之念。凡係方伯之所命，亦勿固執，如或有大段不當處，則從容和顏色，論卞之，亦可。塞外遠客中，汝多病，十分慎惜，勿近女色，亦可也。奴僕須愛惜，善遇之。永興·德源書持去乎？關外早寒，好去之。

### 寄碓兒【乙亥】

昨日，得見汝今十四日書，知以淑儀擇入事，多有悶遑之意。爲慮，

因此又不得下來，尤可悶也。山所石物，擇日於來十二日。苦待汝下來，使之看事矣。不來。皆虛矣。恨恨。見汝妻書：“飢坐度日。”云。差木三疋送之，以掬善兒飢啼耳。營中，亦空。且因沙相集開刊，物力已蕩然，營中亦十分艱甚耳。且因無間私用，一尺。亦係近贓，何可強犯乎？坐想汝渾家飢坐，而不得掬，亦無爲人父之義，恨恨奈何？我病大勢，雖差久痛，元氣大敗，平復甚遲，老境事可憐。汝妹自昨還爲大痛，少無生道，心甚憫憫。

### 寄礫兒【乙亥】

卽見初一日書，知好樣，爲慰。我初不知感寒，謂以常患痰厥，趁不和解，以至於此，至今不快苦苦。然既知其病，治之以方，自當漸見差路，不復致慮耳。大禮已定，則汝決不可輕發，須過後，從容來之，可也。大谷石物，亦既完耳。但表石，必須來造於谷城境，此事未易耳。金判書宅藥材送之，須卽親納受答以送。汝妹時未死耳。乾柿一貼、貫目四冬音送之。李兵使賻物將發，汝書卽來，須將直送于公州，故停之。

### 寄礫兒【乙亥】

昨日，得見正月十九日書，快知善兒好消息，不覺喜甚。我自去月初，復患前症，一如去年正月時所患之症。此是痰眩，方伏枕苦哉！

汝之來觀事勢，必須過陵幸後，當從容晉州地病父歸見，呈辭可也。推考公緘，至今不得見，何不往問於憲府，從速處置耶？汝妹來在此城其奴家而病勢十分無生道，可憐可憐。石物事，在上大谷鄭海男家後石品，極好，自其處造作，運入極便。近十分多事，明間，將有書，不具。



## 祭文

### 祭玉城府院君張公文

維崇禎二年歲次己巳月日，錦南君鄭忠信，謹以清酌脯果，敬祭于故玉城府院君張公之靈。嗚呼慟哉！天之生亂也，必出英雄俊傑之士。蕩平寇亂，以安宗社之頓危。公之誕降也，已應星斗之夢。及自釋褐登朝，累歷華顯。出鎮藩閩，所至留愛，兩湖西北，碑龜屢負。至于甲子，克清大亂，神宇再復。豈非有兆應之先者耶？至若蓋世勳名，太史氏已載筆，非小子所敢稱揚萬一者。惟忠信，自壬寅朝天，謬蒙恩遇，北役西征，執鞭弭而周旋，二十年之間，未嘗一日離壇越之下，知公之生平出處立心行事者，莫如忠信也。內推孝悌敦睦，外而撫愛將吏士卒，遇必以誠信，一視無間，人人皆謂公之知己也。時尚艱虞，外憂方殷，人皆屬望，唯倚公若長城，天不愁遺，一疾不起，嗚呼慟哉！訃聞之日，陌弔巷哭，行路慘怛，舉以爲張公不起，國將奈何云，則可見云亡殄悴之痛。輿人至情，至于忠信之往來號哭者，非獨一羊曇而已。忠信買屋城西，爲近門屏，遇事蒙塞，必相質焉。車馬薪水，必相資焉。慙懃懇曲，視若家人父子，往來中宵，討盡肝膽，語及時事，必慨然興嗟。眷眷憂世，一心愛君，說盡飽更，艱虞有時，不覺鷄鳴，而罷每吟，人生待足何時足，未老得閑方是閒之句。況吾宦成名立，不歸何爲，已於梨湖，爲終焉之所，今春決欲退歸。忠信以邊虞未靜，求退差早，勸止之。

豈料昊天不弔，遽見今日，嗚呼慟哉！不昧者魂靈其知乎？自此音容邈矣，報德何階？入門升堂，未聞警咳，顧瞻增哀，涕自凝眶。一杯爲辭，泉路冥冥，洩哀于哭，哭不成聲。嗚呼慟哉！尙饗。

## 祝文

### 瑞山莊舍開基時祝

維崇禎六年歲次癸酉月日，錦南君鄭忠信，代以子礪，齋沐潔誠，謹以村醪脯醢，敢告于智谷面阿摩詰峯下香埋里司土之神。惟忠信，妄陳邊情，重觸天怒，囚繫圓扉，禍將不測，主恩如天，猶記勦勞，得保以首領，放歸田里。仍念不似，代斲專鉞，上不能尊主庇民，以寧疆宇；下不能斂跡乞退，以安愚分，虛名奔走，涓露無效。天道惡滿而忌盈，迷而不返，安得無災？往者已矣。不遠而復、過而能悔，合將知止，敢不謀所以終焉之地，以送餘年耶？本地幸有恩賜田數頃，此可爲暮年漁樵之所。吾生，亦有涯矣。卜吉今朝，始爲誅茅，山多美材、海饒珍鱗，地僻村深，氛塵不到，泉甘土沃、水碧沙明，一丘湖山，豈非神明有所祕而待吾來者耶？從茲以往，神與人相依，歲時伏臘，斗酒相娛，歌詠於斯，永世福利，則賴神之惠多矣。物雖不腆，惟誠是亨，尙饗。

### 告阿摩詰國祀神文

維崇禎六年歲次癸酉月日，錦南君鄭忠信，謹以行伴李葉，敢告于阿摩詰國祀之神。惟我有罪，放歸田里，出門無所歸，幸有恩賜田

數頃，在神祀之下。卜吉今朝，始焉誅茅，隨力所及，構屋數間，以爲棲身之地。惟神最靈，願言默佑。蘋蘩茗苳，可薦神明，一杯香飯，誠則有餘。尙饗。

挽雲集

附錄  
卷一

教書

御製文

祭文

挽詩



# 教書

## 教書

賜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鄭忠信，賞加。

**教書**【天啓丁酉，封錦南君：七月，進秩正憲大夫。】

王若曰：“據北山勝，允賴敵愾之忠，有大樹功。誕舉陞資之典，光膺寵命，永肩乃心。惟卿將材山西，人英湖右。粵自壬辰之歲，志在請縷，早事兵甲之間，身都是膽，三十年效勞王室。二千石作牧雄州，曩值逆豎逞兇。蓋緣邦運丁否，變起漁陽之倉卒，智不及謀，勢異黃池之弄兵，惡既盈貫，望風自潰，初謂河北無人，決策前驅，幸賴軍中有范。言念諸將克捷，寔由一鼓先登，苟非鞍嶺摧鋒，曷致蒿街懸首，歡騰錦水？不日以還，禮卒瓊籩，七廟重妥。素知出類拔萃，果能徇國忘身。何代賊臣無之，斯爲甚者，微爾，人盡非矣，亦云殆哉！褒元功以紀常，宜二品之增秩，金章紫綬，盟府之座殊隆；玉節熊幡，西關之寄且重。班雖踰於曳履，任何妨於佩符？茲加卿正憲大夫，職如故。於戲！名數攸加，勳勞是答，須思富貴之難保；恐懼祿位之彌高。聘乎淄澠，勿替枕戈之志，衛其藜藿，益振在山之威。故茲教示，想宜知悉。【四月病未參會盟祭，只頒軸。】

## 教書

王若曰：“逆醜干紀，疇克扞我于艱？忠臣奮庸，乃見敵王所愾，既勞勩之著，詎無錫賚之加？惟卿豪膽盤虹，剛腸嚼鐵，衛將軍之立門戶，向必世澤是資；祖士雅之翼邦家，粵自幼時自許。昔值奔鯨之患，政當舞象之年，乃應募於勤王，遂策功於宣武，兜鈴變化之妙，劃然雷厲風飛，兵刃崎嶇之衝，幾許夜行晝伏？利器已別於盤錯，盛名始振於華夷，自是而折節讀書，實感於曠世知己。忠臣可行於蠻貊，敢憚勞苦其身。鈴略已洞於胸襟，適功名之會。精英稟山岳之秀，豪傑爲社稷而生。逮兇徒之稱兵，慘兵禍之逼闕，如入無人之境，誰敢當鋒？幸賴如虎之臣，終效獻捷。國事稟乎如髮，忠忱可以徹天。尺劍奮揮，日星爲之動色。咫尺無却，士卒奮不顧身。偉然稀世之功！曾不崇朝之頃。茲敘爵於二品之列，乃甄才於衆人之中。簡自先朝，將以需乎大用。寄崇連帥，豈曰稱其殊勞？顧今隱憂之深，尙在賊平之後。隱然在山之勢！應折虜衝。確乎體國之忠！足厲士氣。當勉未爲之事業，益思無負於國家。仍節制於鴻勳，等威斯參。煥圖畫於麟閣，光寵彌昭。屬茲論功之日，庸示報勞之常。肆策勳爲振武功臣一等，圖形垂後，超三階爵。其父母妻子，亦超三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婿超三階。仍賜伴佾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五十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功烈敢忘於褒揚。已被鍾鼎之勒，祿位無期於驕侈，可保山河之盟。惟君臣慶會之甚庶！上下恩義之共勉。煥發大號，遍示群工，故茲教示，想宜知悉。



## 御製文

### 仁祖朝賜祭文

維崇禎歲次丙子六月□日，國王遣臣禮曹佐郎林潭，諭祭于錦南君鄭忠信之靈。惟靈！介冑之英，干城之器。身不及膽，智能了事。受知賢相，發跡邊鄙。屬予嗣服，擊臣稱兵，卿時佐幕，率旅從征，掃蕩凶徒，功在社稷。分闕西門，克壯鎖鑰，首尾十年，夷險一節，籌畫勞心，水土成疾。間遭顛沛。忠義彌堅。授鉞炎方。昔疾未痊。邦家不幸。大樹遽折。丹青寂寞。白羽零落。撫念勳庸。予懷惻怛。邊虞比殷。轉切思良。不昧者神。欽此舊章。間遭顛沛，忠義彌堅。授鉞炎方，昔疾未痊，邦家不幸，大樹遽折，丹青寂寞，白羽零落。撫念勳庸，予懷惻怛。邊虞比殷，轉切思良。不昧者神，欽此舊章。

## 祭文

### 忠勳府致祭文

維崇禎九年歲次丙子六月□日，忠勳府，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錦南君鄭公之靈。惟靈，山河毓秀，辰宿降精。名將之裔，克遵厥聲。屬當否運，島夷猖狂，弱齡慷慨，奮義勤王。受知賢相，待以國士。翦拂霜蹄，一舉千里。發軔邊堡，佐幕節鎮。聘辯虜庭，英聲益振。邦運再昌，事多蒼黃。允藉忠膽，威振邊疆。逆孽猖亂，虺毒潛吹，訛言誑誘，衆情咸疑，公獨炳幾。誓死不貳，投身帥幕，以明素志，奮袂趕賊。爲士卒先，衆寡雖殊，厲節采堅，決策進兵。兵賊不意，非公之勇，疇克辦此，芟夷大憝。收復神京，宗社再寧，分茅裂土，八座秩隆，丹書鐵券，以獎元功。贊謀帷幄，最被恩榮。三佩虎符，再闢柳營。干城之託，獨爲第一。積勞行間，晚嬰痼疾。憂軫九重，問遣相望，內醫臨視，藥物甚良。庶見良已，再膺闔鉞，云胡不淑，遽至今日！胡塵未掃，大樹先秋。英靈何許，泉路孔脩。清明之器，合於太虛。端妙之姿，留在畫圖。永槩之操，衣不掩身。左馬之文，獨追古人。不死者名，難謀者天。典隆隱卒，恩及重泉。海山迢迢，靈車將發，義重同盟，倍增切怛。幽明永訣，設祭陳詞，靈若有知，庶幾格斯。嗚呼尙饗。

## 延陽君致祭文

維崇禎九年歲次丙子六月□日，延陽君李時白，謹以酒果，致祭于亡友錦南君鄭公之靈。惟靈，忠義之姿，精剛之質，激昂慷慨，實自天出。昔歲壬辰，東方不祿，海寇匪茹，蹂躪八域，鸞輿草莽，社稷幾屋！公時在南，年始十六。咄咄長懷，望西而哭。男兒此時，當死主辱，自出軍前，募義許國。寧夷之樂？惟病之急，千里懷書，或行而伏，跋涉艱關，凡幾日月！行朝致命，公髮惟束，先王見公，愍公繭足。俄觀武材，亦獲大捷。三京既收，宗祧復復，公隨翠華，言返于洛。人皆謂公，當受重擢，鼎湖弓劍，忽遺一夕。遭時陽九，非命之薄。逮際清時，重被委屬，安市之城，□分虎竹。明年甲子，變生肘腋，大駕南巡，宗社汲汲。公遂率兵，來屬帥幕。張公得公，如得一敵。干戈萬旂，乃當前局，逼蹤躡後，追迫城北，挺身大駝，鞍嶺之據，師期直北，彼孽寧恤。一響砲聲，醜類雲撤。終然大逐，戮殲殲适，遂令宗國，奠安盤石。知公有志，竟成功業。銘動彝鼎，畫像麟閣。炳烈精忠，孰與齊躡？不佞平生，慕公之德。厥初逢公，我先生宅。公亦愛我，謂可相託。三十餘年，情深契密，人言弟兄，我心骨肉。庶幾相保，共赴緩急。豈料瞽盲，二豎構疾。皇天不憖，奪我斯速？吁嗟彼蒼！我恨何極。西關有壘，誰作鎖鑰；南畿多虞，孰爲籌畫！以公思公，不獨私悞。湖西之右，海山之麓，數仞高岡，乃公幽室。公今去矣，公返何日。椒漿一杯，哀此片幅。來哭公筵，茲焉永訣。嗚呼哀哉。尙饗。

## 綾川君致祭文

維崇禎九年歲次丙子六月□日，綾川君具仁厚，敢昭告于錦南君鄭公之靈。惟靈，雙魚間氣，九鯉真精。神傳黃石，瑞應日星。身餘七尺，胸藏萬甲。迹混行間，世侮胯下，蕭何獨奇，長以高價。北關西塞，專轄數州。蒼鷹掃苛，白馬興謠。重興翌載，擊臣扇亂，惡極長蛇，謀凶傑犬。敢率不逞，梟獍犯闕。國事蒼黃，廟貌顛倒。三巴行色，翠華草草。維時我公，屬隸帥府，挺身獨當，卒殲凶醜。豁妖澄祲，迎鑾錦岳，再造邦家，一介忠勇。樹績旂常，銘功彝鼎。赫世勳名，孰出公右？嗟余同病，分義有素，許以死生，又結婚媾，兩家交契，其利斷金。夷險平生，共貞一心。豈料我公，竟有斯疾？實天生德，雖痛勿藥？鬪蟻沈綿，終至不起。天胡不憖，速奪如此。金湯已失，鎖鑰誰寄？期公朝暮，樹節南紀，相逢弊館，繼以一夕，玉堂金匱，請教兵略。誰期此日，丹旌先飛。掩淚迎紼，夢耶非耶？人生到此，天道寧論。國有恤典，寵祀芳芬。不諒菲薄，敢慰哀魂，不昧者存，庶幾來歆。嗚呼哀哉！尙饗。

## 挽詩

### 崔完城【鳴吉】

麗朝副帥家聲遠，當代元功寵典新。年紀尙強憑妙略，匈奴未滅失斯人。御袍爲祿君恩重，擔石無儲後嗣貧。千古精神應不泯，鞍峯突兀插秋旻。

### 李完豐【曙】

湖海英豪出，鴻功社稷存。雪山三掌重，麟閣一身尊。君寵哀榮極，家聲後嗣蕃。淒涼朋舊意，何處可招魂？

### 具綾城【宏】

嗟君意氣堪傾許，袞袞風埃白髮侵。戎馬功名儒士行，死生忠孝丈夫心。長身寂寞埋泉壤，往跡微茫隔古今。日暮江南芳草綠，鷓鴣聲裏水雲深。

### 張新豐【雜】

瑞石鍾靈秀，英才出等夷。遷喬刷勁翮，附驥軼高馳。獨達韜鈴祕，皆稱短少姿。曾充絕域使，贏得遠人知。大盜窺丹極，妖星隕玉墀。公能掃醜孽，一戰復京師。帶礪勳盟重，旌旄望實宜。酬恩期盡瘁，嬰疾遽長辭。寂寞清霜闕，蕭條大樹萎。凶奴幾日滅？精爽萬人思。塚與祈連竝，名應汗簡垂。不知麟閣上，誰繼卽圖詞。

### 李延陽【時白】

昔我錦南友，今朝逝安適。妙年投筆志，名終耀麟閣。位躋元戎亞，家業轉薄落。騏驎展餘才，如向天奪速。賜葬知異渥，斂衣自宸極。黽勉恭朝命，行行從所役。徒切望廬懷，依依想所歷。今還無髣髴，唯餘翰墨跡。邈彼瑞陵路，哀哀一長哭。此哭豈獨私，西謁方埃隙。

### 李知事【顯英】

淮陰一遇蕭相國，始知天下無雙士。自從結髮擢行伍，精悍英明誰得似。南走釜山西虜窟，敵情了了方寸裏。無何狂賊稔凶計，辟易安戎老刺史。相持千里失期會，翠華蒼黃渡漢水。妙算先據北山高，俯視凶徒如穴蟻。掃清氛祲不崇朝，園陵喜氣半天紫。整頓乾坤是誰力？克讓元功亦盛事。山河盟罷膺推轂，報答鴻私期一死。凶奴

未滅失名將，勒石燕然嗟已矣。紫泥崇終錦袍新，地下忠魂應刻髓。  
塞上鼙鼓倘警秋，九原茫茫寧可起。

### 金右尹【大德】

自古英雄寧有種，從知國士擅無雙。爭瞻八路副元帥，獨擁三軍大將幢。  
郊壘誓令妖祲豁，沙場擬見左賢降。堪嗟一疾緣憂憤，氣作山河壯我邦。

間氣堂堂獨出群，曾隨元帥掃凶氛。書傳黃石持長算，形入雲臺樹大勳。  
十載干戈勞戰伐，一身南北盡忠勤。凶奴未滅英雄逝，謾像祈連數尺墳。

敦詩說禮久聞風，一見英姿慰我衷。緩帶輕裘惟鎮靜，丹心白髮只精忠。  
襟期晚托腰間劍，音信時憑塞上鴻。交道敢言趨舍異，承凶不覺慟無窮。

### 俞司成【省曾】

堂堂意氣聳人看，文武全才自弱冠。渭北聲名推管轄，安西風望屬登壇。  
繪形麟閣功無比，展略榆關力已殫。佇見煙塵清海徼，忽聞邦國失屏翰。  
君王歎息三軍泣，部曲淒涼大樹殘。義忝同庚愆執紼，玉城回首淚洑瀾。

### 鄭畸翁【弘溟】

墮地桑蓬志四方，登壇檠戟領戎行。孤忠奮袂能安社，暮境沈痾久在床。麟閣畫圖餘颯爽，龍驤墟壘望荒涼。平生許與如公少，暗結長悲寫短章。

### 鄭參議【廣成】

憶昔壬辰看亂離，幼年奔問效揚奇。敦時說禮堪元帥，平賊收京荷聖私。西塞枕戈身半老，南州緩帶病初危。平生白羽今零落，誰識同庚不盡悲。

### 鄭太和

早年忠勇起蓬蒿，晚歲恩榮擁節旄。曾賴出奇扶社稷，共嗟臨亂失英豪。悲涼晝照麒麟閣，寂寞胸藏虎豹韜。千載海東名不朽，炳然青史記勳勞。

一見忘年不我遺，結交如水貴相知。臨戎西塞傳書札，分闕南州惜別離。洛下更逢青眼日，枕邊唯對白眉時。三更積雨迷湖路，哭送丹旌獨抱悲。



## 羅萬甲

國之門早受知，終教不世樹勳奇。平生元凱春秋癖，精悍司空短小姿。旌節西南邊塞靜，哀榮存沒聖恩垂。富城松柏長隣近，他日從遊地下期。

## 申察訪【易子】

昭代副元帥，英才冠武臣。勳勞輸社稷，神彩畫麒麟。異域和親絕，中原戰伐頻。長城忽有圯，哀悼結重宸。去年松亭會，遽然一夢驚。勳名在畫閣，遺堞掃長城。雨暗將軍樹，天空細柳營。平生數掬淚，江上灑丹旌。



---

挽雲集

---

附錄卷一

---

年譜 世系



# 世系

## 晚雲先生世系

九代祖諱地。【高麗名將，三道節制體察使，諡景烈。】

八代祖諱耕。【本朝登第，資憲大夫，行七道監司。】

七代祖諱種。【文科，通政大夫、濟州牧使，至參判，一等原從功臣，諡良讓。】

六代祖諱鋤。【文科，通政大夫，以翰林乞郡爲咸平縣監，養親以盡誠孝。】

五代祖諱穫。【通政大夫，務安縣監。】

五代祖妣光山金氏，江界府使湔女。

高祖考諱元宗。【文科，通訓大夫，弘文館校理。】

高祖妣新平宋氏，持平碩耆女。

曾祖考諱荐。【贈通政大夫、戶曹參議，行通訓大夫，臨陂縣令。】

曾祖妣羅州吳氏，贈淑夫人。

祖考諱錫柱。【贈嘉善大夫、戶曹參判。】

祖妣光山金氏，贈嘉善，同知中樞府事夏鼎女。

考諱倫。【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崇政大夫、判中樞府事錦川君。】

妣永川李氏，贈貞敬夫人，禦侮將軍仁祚女。

## 年譜

### 晚雲先生年譜

贈崇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行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正憲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兼八道副元帥、錦南君、謚忠武，鄭公諱忠信，字可行，自號晚雲。自參判公，至公，三世以正兵，爲兵營鎮撫，公下番則又爲本州知印。

萬曆三年乙亥十二月二十九日子時，公生於光州故卿校洞。【丙子立春，已入於二十七日，故以丙子行。】及長，短小精悍，目如曙星。公少入番兵營，嘗館老妓家，一日，老妓苞裹，兵使宴餘物以饋之，公却而不食曰：“大丈夫當自爲兵使，以食方丈之饌，何以食人頷下物乎？”

壬辰，公年十七。時倭寇大入，權元帥慄以光牧，起兵討賊。公自請偵探，率數人以往，則倭陣已捲去，而只有一覆囊，公疑其中，試持滿射之，果有一病倭，中箭而倒。遂斬首而還，人莫不奇之。權公又將募人，以本道討倭事情，狀聞行朝。時，倭奴充斥八路，道途不通，人皆畏避，無有應募者。公獨挺身請行，晝伏夜行，跋涉數千里，始達龍灣。白沙李相公，以兵判招見，與語大奇之。遂留幕下，仍授以《左》·《國》·《史記》等諸書，公聰明絕人，過目輒成誦，白沙歎賞。宣廟命設科灣上，以慰本道，及扈從諸臣，公乃登武科丙科。宣廟，一日謂李相曰：“鄭某之才，已聞卿言，後日卿須率來。李相，遂與公入對，宣廟獎諭曰：“年尙少，竣稍壯，

可大用也。”終不見之。○公所居盤松坊第，乃賜第也。嘗戒子弟曰：“君賜也。汝等，其勿增勿失。”

丁酉，公丁憂，三年啜粥，幾至失明。

壬寅冬，隨奏請副使張公晚，赴燕。

丁未秋，從北伯張公晚，赴咸興幕下，監築府城。

戊申冬，除造山萬戶，翌年正月初六日，到任。

己酉十一月二十五日，陞甫乙下鎮僉使，同月三十日，到任，壬子六月，瓜遞。

甲寅，見朝廷昏亂，有遜世意，卜築光陽之蟾江西。

乙卯，除包伊萬戶。

丁巳，以通信使軍官，赴日本。時，楸灘吳相國允謙爲上使，辟公自包伊，啓請帶去，五月，離京師，七月，乘船，十一月，還京。時，群小縱與光海，錮廢大妃。筠、開、大珩等謀，因除夕難行大事。公與具綾川仁厚、李青興重老，謀乘夜縱殺三賊以舒禍，適筠不在，計不售，撫劍而歸。俄而筠等謀發覺，伏誅。

戊午正月，隨白沙李相于北青謫所。五月，李相卒，公治喪，奉櫬還抱川，八月，定葬，心喪三年。【有日記】庚申正月，以褊裨隨體察張公晚於西關。二月，朝廷將遣公，偵探虜中，移咨經略。且有旨體府，令公預爲治裝。四月二十四日，隨體使還到松都，十一月，除昌洲僉使，陞堂上。辛酉二月，除滿浦僉使。時，三南簽入防軍，不服風土，癘疾大熾，出幕江邊者，幾至百餘人。公大索城中釜鼎，列于江邊而作豆粥，各其幕下親自臨饋，悉皆吐熱，無一人死者。不但本鎮耆老至今稱說，三南之人，亦皆頌德。以朝命將奉使虜庭，上疏請奏聞。十月十九日，自虜穴還渡義州鴨綠江，到龍川，入見

毛副摠文龍，陳賊情。

壬戌三月，除平安道兵馬左虞侯，以行副司猛除授。

癸亥三月，公在灣上。時，仁祖反正，命公莅斬府尹鄭遵，權領本府事。四月，接待皇朝易參將。仍點軍兵，朝命專管天將、金人兩間，竝臨機策應。公往見易參將于金剛山下，行裝淒涼，軍兵疲困，所見亦可惻然。彼曰：“湯鳳巡哨之賊，其數不多，近欲借兵襲取。”公答：“以近來奸臣當國，生民倒懸，新復之初，必須休民鍊兵，姑待明年，協同天朝大兵，蕩覆遼穴，何可以千鈞之弩，爲一鼯鼠而發也？虛而實，實而虛，兵家妙計，不如姑爲斂藏，觀時以動也。”參將以爲然，不復提起借兵之事，以此問答，具狀馳啓。雖在權任，政甚情平，義州耆老，至今稱道。巡歷江邊諸邑，移拜安州牧使兼防禦使。月日未詳，以治理有表裏之賜，及遞，邑民立石頌德。

甲子二月十一日，以前部大將，大破适賊於京城之鞍峴。初正月十四日，文晦、李佑等上變，賊适·明璉，及适子梅、明璉子瀾·潤，皆在告中。二十二日，宣傳官、禁府都事等，以拿梅，明璉下來。時，适兵萬二千數，降倭一百三十，适卽布陣開門，斬殺都事，宣傳官等，乃以翌日舉兵反，公方在安州，聞賊報，棄城馳赴平壤。從事官金起宗曰：“安州乃重鎮，且兼防禦使，固守城地，使賊不敢東，其責在於某，而今棄城而來，難免軍律。”元帥卽拿入，將欲罪之。公杖劍而對曰：“此賊意在疾趨京城，必不由安州，設由安州，兵孤力弱，勢難抵當，如其膠守孤城而死，不若聽部下調用。”元帥曰：“汝言則是矣。然賊情不可遙度，鎮所不可擅離，其急還本州。”仍問：“此賊有上中下三策：以銀參厚結毛將，據有清川以北，部署諸城，號令一道，上策也；陰結奴酋，倚仗聲勢，中策也；間道疾



趨，直向京城，下策也。以君料之，當出何策？”公曰：“必出下策，無疑矣。”到順安，聞賊已向价川路，報帥府曰：“安州已在賊後，此時不可坐守空城，以賊遺君父，願還幕府。”元帥可其報。

正月二十五日，元帥自平壤出兵。是日直星犯七殺，議者以兵家所忌爲難。公曰：“豈有聞父母之病，擇方而行者乎？帥直爲壯，何必拘於孤虛背向之說乎？”元帥然之，以公爲前部大將，諸將屬焉。追賊至黃州之薪橋。

二月初二日，賊先出兵。官軍亦離柵，軍於平原，排陣未畢，賊之中營砲手，一番虛放之後，卽投我陣，許銓、宋豈，亦帶馬兵，一時歸正。官軍望見，降卒來投，以爲賊鋒進逼，遂潰散，亦頗陣亡，公遂收兵。元帥用金起宗之言，使公及南公以興，領職如舊，立功自效。公又捍賊，到坡州之惠陰嶺。時，賊已入城，大駕南遷。元帥會諸將，議進勦。公曰：“諸將不能戮力討賊，賊犯京城，君父播越，罪合萬誅。事已急矣，不可玩寇，無論成敗，城下一戰，烏可已也？況先據北山者勝，官軍據鞍嶺而陣，則其勢當俯壓都城，都民之觀望者，若知元帥大兵已臨鞍嶺，其勢必當同應。且賊不可不出戰，戰必仰攻，得其形便，陣脚甚固，則破賊必矣。”元帥是之。公與南公，遂進陣鞍嶺，日已昏黑。時，賊入據景福宮，推戴逆琨，以忠吉爲大將衛護。

十一日朝，賊始見嶺上有官軍，令軍中早辦行廚，曰：“翦此朝食。”卽開門出兵，自卯至巳，酣戰不已。賊將李壤逢丸墮死，明璉中箭退却，其他賊兵之委死陣前，墜崖落澗者，不可記。官軍踴躍追擊，勢若建瓴，無不一當十，賊救死不暇，竄入閭家。公欲督兵追入，南公止之曰：“今日之事，幸賴天佑，得至於此，不出一日，兩賊之頭可致，不必窮追。”公曰：“疾雷不及掩耳，此正急擊勿失之

機。若韓·李褫魄之鬼，奚暇轉敗爲勝？若一力追及，則必不過廣通橋而就捕耳。”南公力止之。其夜二鼓，賊潛從水口門而遁。公率數十騎，追及於慶安橋，賊望見官軍，疑有大兵在後，一時潰散。賊軍官奇益獻·李守白等，斬韓·李兩賊頭，直獻行在所。仁祖回鑾，元帥以下諸將，皆留京城以迎駕，公即歸本鎮。人問其故，公曰：“俺以西路將兵之臣，不能即誅叛賊，終使君父播越而逆兵入城，其罪大矣，何敢自居以有功，迎駕于江上？退歸本鎮，以俟朝廷處分耳。”

二十二日，仁祖還都，聞公歸鎮，特下聖旨，二十四日，以駙騎召之，始入朝，識者趨之。白洲李公，爲述擊賊歌以美之。三月初三日，上引見之。與延安府使南公以興同入對，上面加獎諭，又賜酒。初八日，勸勳凡二十八人，公居一等第二人。賜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之號。二十一日，封錦南君。七月十五日，進秩正憲大夫，有賞加教書。【按三月二十一日，封君時，階級已加正憲，而至是始下教書】公不服水土有疾，監司狀聞，上特遣內醫，持藥以救。

八月初三日，拜平安道兵馬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公上疏固辭。十二月，大操于安州之橫灘。時，本道軍兵，及添防軍，凡萬餘名，操陣旣訖，軍兵等，各有呈狀，其積如山，日已昃矣。公使能文軍官，及營吏等十數人，列伏于前，使讀而告之，手自裁判，一時便空，而日未昏黑，人皆歎服。

乙丑正月，遞歸京師。公在營，頰中右邊不仁，言語不通。因此解職，歸寓城西，家甚荒涼，常稱貸以繼朝夕。四月十七日，會盟祭及宴，公病未進參，只有頒軸其教書。丙寅，以勳封養病京師，恩賜便蕃，至不可數。

丁卯正月十三日，鷄初鳴，建虜入寇義州。十五日，平安兵使南以興狀啓 成貼，十七日，入達。賊潛入義州水口門，日出時陷義州，府使去處知不得，安州敗沒，兵使南以興自焚死凌漢，平壤·黃州兩鎮，次第潰散，中外大震。二十六日，仁廟自京出狩，次陽川，二十七日，自陽川，次通津，二十八日，留通津，二十九日，自通津，次江都。時，玉城張公晚，以體察使，方調將士軍校，公力疾起，赴軍前以別將，方前進爲禦賊計。備局以謂，‘目今諸將中才略過人，已試有效，無如鄭某，宜爲副元帥，付以西北管兵，添與三南勤王之兵，使之專管關外，而與張晚商確進退。’（二十五日）李如璜以備局意狀啓：“目今諸將中才略過人，已試有效者，無如鄭忠信。雖有疾病，不至委頓，故方以別將，隨體臣幕下。臣等之意，欲以忠信爲副元帥，付以西北管兵，添與三南勤王之兵，使之專管關外，而張晚以體臣處其上，與之商確進退，則庶有效矣。宿將名臣，多在西鄙，不幸皆已敗沒，見在之人，可委專征者，無如忠信。若有用不盡才之歎，實爲可惜之甚，敢此冒稟。”仁廟允之。

二十七日，公狀啓：“臣匹馬從軍，在體臣軍中，忽承副元帥之命，手下無數隊之兵，賊勢之猖獗豕突，一至於此，體臣旣取松都路，以爲聲援江都；臣則取東路，以爲接着南北道兵，略成軍勢，東西協勦事。承體臣分付，卽日自平山，發向新溪路。臣之到處，無撥便相聯，臣之去留 軍中消息，恐未得達，極爲悶慮事。

二十九日，入達。於是，公自張公軍中受命，只率手下若干兵，移住海西峽邑兔山·新溪·瑞興等地。且以江原兵一千二百名，分守臨津以上六灘，以遏賊勢。海西兵，暨咸鏡南北兵畢會，猶不滿五千，公所帶兵，僅五百餘名。二月初二日酉時，公狀啓：“賊之大

陣，或云時屯中和；或云還渡淇江，多不得其實，未的其去留云。”虜兵到中和，已請成，及至平山，乃講和撤回。以故公終無交鋒之事，仍尾賊進駐安州，虜兵猶行搶掠。公貽書姜弘立，諭令虜將禁其殺掠，毋負信誓。時，我人之被虜逃還者，相續道路。公分給軍糧，以救其死。且收得失乳嬰兒，幾累十百口，並許民間鞠養，其無願者，各給米斗，使其守令賑救。且令僧徒，掩埋平壤死亡人。安州則令本道兵使掩埋，而其表表可認者，別爲埋置，其餘則合成一塚。與本道監司爲壇於中營，率諸將設祭，會哭以慰忠魂。三月日，大駕還都。初公西出也，谿谷張文忠，送公之郊外，公謂張公曰：“此虜今來，意在資和，須得和即去耳，”張公不以爲然，及其事過，始乃歎服公之善於料敵如此云。

戊辰四月，留駐肅川。公以風病上疏，乞上京調治。上命上來，及時調治，待秋還去。五月初四日，離肅川，十八日，復命。上引見，問以毛營動靜、虜情盛衰，西路守令賢否、安州城池險夷、冬防軍兵多小，因饋酒而罷。自此，時遣內醫問病，在朝諸公綾川具公仁厚·平城申公景禎·東平申公景裕·青雲沈公命世·春城南公以雄，吏判·畿伯，相繼來訪。

六月初五日，往拜三公。【領相申公欽，左相吳公允謙，右相金公瑬。】初八日，吏判、南參判以恭、崔左尹鳴吉、完豐李公曙，十一日，鄭參議文翼、戶參，及完川君崔來吉來訪。十二日，往訪鄭崎翁弘溟，仍謝戶參。十八日，往拜玉城府院君，畿伯，亦在座畿伯，即完城也。七月初二日，往弔申領相喪。【申相卒於前月二十九日。公書於日記曰：“斯文之痛，何可驕言云。”】初七日，以逃還人刷還事，有二品以上收議之舉。公承牌詣闕獻議。其議曰：“天下之事，有經有權。今日之

事，既在於權，則鳳凰城被捉義州拘留人，及碧潼出來胡女等，送付於朴蘭英，似合權宜，伏惟上裁。”十九日，上引見備局堂上，問：“安州冬防，用南軍便否？”公以副元帥，亦入待，極陳宜參用主客之說。二十八日，差備邊司堂上。八月二十四日，西伯、湖闔遞還，即往見。九月初四日，往拜楸灘相國，仍訪錦陽尉。初八日，張都憲維來見。十三日，參會盟祭，及飲福宴。十六日，訪李敦詩時白。【公自註云“知己之友。”】十月十七日，與錦陽尉、高君涉傅川，會于崎翁家。醉後，錦陽又來弊舍。畿伯崔完城，亦來訪，盡日相話而罷。

十一月初一日，上疏乞遞元帥，及備局堂上。上不許。其批答曰：“邊報雖緩，此時元帥之任，決不許遞，宜勿辭察職。”十三日，再疏乞遞。上又答曰：“此時此任，非卿不可，宜勿固辭，以副予意。”十二月初九日，得見湖闔書，及砮兒、具鉉等書。【公自註“具仁厚，時爲全羅兵使，乃知己之友也。砮以拜事，往在營下云。”】十二日，金正堉來見。十九日，具綾城宏、李錦江楹【公自註“皆知己。”】來訪。是日夕，砮還兵營。

己巳正月初一日，行望闕禮。問安三殿後，往拜領楸灘、左昇平相。初四日，尹海昌，十三日兵判延平、尹監司履之、趙纘韓來訪。二十一日，海伯來辭。二十二日，針灸呈辭。四月二十九日，拜五衛都摠府都摠管。閏四月十四日，自摠府出直，上疏乞遞職名。上答曰：“逆徒之言，殊極兇悖，可謂卿有厄矣。其言不足介懷，宜勿辭，安心行公。”

五月，以五冠山祈雨祭官，往返。初六日，受香。初八日，行祭，初十日，還京。六月十一日，陳疏乞遞元帥。上答曰：“予意已諭，卿勿固辭。”九月二十二日，曉行先考妣忌祭。十一月十五日，哭玉城府院君張公喪，將鞫，有祭文。及葬，遣子砮往會，二十日，以病呈辭，上

命遣內醫，問病賜藥物。又賜柴炭魚膳。十二月初九日，三度呈辭。只遞總管。二十二日，身病出仕。二十六日，更拜都總管。

庚午正月三十日，往拜領相吳公。二月初十日，上賜酒饌。三月初七日，往拜金仙源尙容。【公自書日記曰：山淨地僻，春意正濃，片時奉晤，却忘塵慮，及其還家，如有所得。”云】四月十一日，往赴同庚契會於掌苑署，趙主簿遵道，盛備酒饌，以邀公，及鄭參議廣成、俞司成省曾、申持平敏一、鄭察訪沄，皆會焉。終日盡歡而罷。

二十二日，拜水軍副元帥。初劉興祚，與其弟興治，自胡中亡歸毛鎮，興祚赴寧遠戰歿，興治在島中，與陳繼盛不協。至是率降胡作亂，攻殺繼盛等，據有島衆。報聞，聖斷赫然，將興帥問罪，引見備局堂上。問曰：“誰可將者？”左右難其人，未及對。公進曰：“聖上若或以臣可遣，則臣請無辭。”上大悅。於是，有是命：以摠戎使完豐李公暉，爲陸軍大將，以爲水陸竝進之計”。三十日，李判書弘胄、李大司諫明漢來訪。

五月初一日，辭朝出師。初二日，次麻浦江頭。初三日，上命宣醞。初五日，平城、完城、瀛海金起宗、李大司諫明漢，皆來餞。初六日，祭江神，發船下海。初九日，到喬桐前洋。十一日，以忠清水使宋英望、京畿水使柳應洄，爲左右翼，遂水操于月申前洋。二十二日，到延安，以宋英望代領中軍以下舟師，前進。上念，公素多病，恐傷海瘴，特下書，諭以下陸。公承命下船，就陸路，期會於殷栗之廣巖。二十三日，到廣巖乘船，黃海監兵使，及沿海各邑守令，皆來會。二十五日，進泊三和之廣梁。二十九日，下陸，往見陸軍大將完豐李公于禾柔，議兵事而還。

六月初一日，宣傳官李誠，奉標信及有旨，到軍門。蓋摠府【卽

完豐也】留駐安州，舟師回泊順肅間，以待事機也。十九日，點閱湖南舟師。時，戰艦凡二百餘艘，軍兵凡一萬一千累百餘名。二十日，接伴使羅德憲馳報“興治在旅順口第總兵陣下。”二十二日，與三部大將，會於望漢臺議軍事。宣傳官李仁達，奉標信及有旨來。蓋興治時未還，命勿輕動也。二十八日，宣傳官趙商弼，奉標信來到軍門。蓋上軫念海上將士，命給魚鹽。卽以聖意布告三軍。

十月初七日，使黃海兵使、京畿水使，試閱軍兵，行賞八格，一百三十三人，以木綿三同十三疋，次第分給，點視舟師。二十五日，羅接伴馳報：“二十三日，興治已還島中。”二十八日，宣傳官金光立，奉標信·密符，到軍門。蓋罷兵事也。

八月初一日，再下書，命罷兵。宣傳官閔成俊來傳，其有旨曰：“劉興治已爲還島，似當進兵致討，而眞僞間，渠已受欽命爲言，不可容易加兵。況夏月興師，漸逼高秋，許多衣葛之卒，亦不可久留海上。依前下諭，急速罷兵。且劉興治處，以罷兵之意，揭帖成送，依此措辭舉行。”

【公揭帖曰：“竊謂日月所照、霜露所墜，凡生殺廢置，威福之權，當自聖天子出，春秋所謂大一統也。一朝忽得，邊耗說：“稱島中亂作，陳繼盛以下諸將官，皆被殺害。并及欽差，而足下實專輒之。”傳聞洵駭，皆言：“將叛天朝、直犯登州。且有潛師東搶之計。”云。國中大小，莫不心痛膽怒，思欲成罪致討，茲承朝旨，果興問罪之師。頃得閣部咨文，及諭帖，亦有相機慰撫，或待以不死，毋致紛紜等語。是則聖朝必以繼盛之死，爲由於衆怒，而褒忠之典，當及於同氣矣。昨有朝命，許令班師，茲遣幕下編裨，告以終始曲折。蓋始之興師，本欲爲聖天子討罪，非有私怨也。今之罷兵，亦所以奉承聖天子之意，非有私恩也。自今以後，但當同心敵愾，務令邊境寧謐，則不惟本國之幸，亦足下之幸也。其後興治答書曰：“不

肖雖未讀書，家世業儒，頗聞庭訓，忠孝素志，惟有天知。然而變轍一時，蓋爲機埋八面，料頭履尾、避梨嫌菘，顧知與罪聽命于上，其中與曲可使問於隣國了，豈不知禮樂征伐之所自然，必竦高明昭揭，而後知之哉？朝廷安撫加秩副摠兵，有非亂臣賊子，奈何筆札侮慢，囂凌至于此極？蓋自祖宗朝以迄於茲，聞貴國之君，待天朝之臣，不惟無是禮，亦且無是言耳。介曹武夫不知文字，直道其情如此，幸不藐視武弁。”】

初三日，回軍。舉碇揚帆，到泊席島，黃海兵使申景禋辭退。初四日，泊阿郎浦，下宿金沙寺。初五日，乘小舸泝流，往尋龍井。【公日記曰：東有佛戴山，千峯競秀，峻削挿空，極是奇絕處。山下獨阜，有龍井，澄澈可愛，其源無底。四透大阜，潭流湧出，冷如水井，人不敢近，潭水清甘，一飲便滌塵穢。問其士人，則近潭居人，至今過百歲者五，至於八十壽者，不敢入老人契云。村甚幽僻，歷古今，未見兵火，真是神仙境，異哉異哉！】

初十日，公在金沙寺，承有旨曰：“卿以有病之人，久處海中，傷於瘴毒，如此秋風，若乘船回還，則其無恙得達，不可必也。卿其從陸路上來。十二日，自延平，回泊喬桐之月串。十三日，京畿水使柳應澗、公清水使宋英望、全羅右水虞侯蘇蕙，各率本道諸船，辭退。公移乘小艇，到豐德之蟹巖，歷拜玉城府院君靈筵。十五日，朝到泊西江麻浦。詣闕復命。上賜內廐馬一匹。【公下庭四拜而受之】翌日，又賜酒饌。同日，兪掌令省曾、辛校理榮榮來訪。十九日，戶判從容來訪。二十三日，往拜領·右相。二十九日，針灸呈辭。

九月初七日，以劉興治懷怨事，上筭乞遞元帥，上慰諭不許。二十九日，以武科殿試試官，赴試所。十一月二十八日，往拜領相【吳公】、左相【金公】。差備局堂上。十二月十五日，以獻官，行社稷祭。公在廣梁罷兵日上筭。



辛未二月初三日，子碻行婚禮。三月日，上迎勅西郊，公以別雲劍陪從。四月二十八日，拜都摠管。六月初九日，辭朝，馳赴西關，上引見而送之。三月，劉興治劫島衆，將投奴穴，島衆不從，興治大殺將官及南商等，將官沈世魁·張燾等，約勒島衆，斬興治兄弟，盡殲降胡八百餘人。至是，奴胡憤興治被殺，領二萬騎，渡江入清北諸郡，聲言‘借船攻蝦島’。公以元帥，往備禦。上曰：“此賊收拾清川以西沿海船隻 如何？”公對曰：“清川以西，時無見存船隻，賊雖搜得，豈能以此攻島也？”上曰：“然則虜計將安出，而猝入我境乎？”公對曰：“賊若出兵西犯，而又侵于東，則其計似是掣後，不足深慮；若不西犯，而專主于東，則計必留兵灣上，不許島兵上岸也。”上曰：“賊若留屯宣·鐵間，欲圖蝦島，借船於我，則將奈何？”公對曰：“存亡雖判，不可許也。”上然之。公又曰：“臣雖出戰，手下元無所帶軍兵，賊若深入，則西門可守之地，只有安州一城。兵使雖領本道兵入守，其勢亦甚孤危。臣亦當入守安州，以決一戰矣。”上曰：“卿是大將，豈有入守一城之理？勿爲入城，在外應援可也。”公對曰：“上教則然矣。只以數哨砲手，遑遽西下；而本道之兵，盡入安州；海西之兵，繼守黃州，則遠道之兵，倉卒間未及來到，而安州萬一事，有不虞，誠不可說。今計，莫若臣入守安州，號令兵使，期以死守。”上曰：“事體不當如是，豈有大將而入守乎？”公對曰：“古事姑置勿論，雖以天朝近事言之，楊鎬、熊廷弼、表應泰，皆以經略，入守遼東。雖大將，何可獨不守城乎？”承旨李榮進曰：“兵戈危急之際，人皆避死，而鄭某獨慷慨，請死守孤城，其志甚善，向必牢禁？”上曰：“雖然，不可入也。”公又曰：“臣今出塞，朝廷之事，雖不敢論，然我國保障，當以江都爲第一，萬一不幸，有

播遷之舉，則必以此地爲歸。但京畿舟師，尤甚無形，宜大加設備舟師，不必當用水軍，京畿陸軍東伍，已至萬餘。其中正軍保人等，分排於舟師，則三四十樓船，足以壯固江都之形勢矣。”上命議於廟堂。日晚出城，次延曙，十五日，次黃州。時賊兵充斥，清北安州甚孤危，人情洵懼。公使別將張曠，領都監步軍追及，只帶員役，及若干騎兵，馳進前路。【公自京，帶都監兵馬五十名，砲手四百名，平兵報報健兵 捉名官船十餘隻 進泊宣沙浦 初九日夕水唐缸二十餘隻 直衝放砲 健兵十二名 中丸死 一小將中丸頭破】

十八日，馳入安州，直抵百祥樓。巡邊使柳琳，率寧邊府使李顯達、中軍尹進卿、价川郡守任用賢、龍岡縣令姜晉昕、判官李仁達等，迎命。十九日，點閱五營軍，父子兄弟俱在軍中者；有老親而獨子從軍者，竝皆放還。上下書曰：“添兵入城，卿宜出城應援。”二十日，張曠領兵入來。二十七日。上又下書：“兵使柳琳拿來，新兵使到任間，命代守。”是日，偵探人進告：“虜兵進到鴨江。”七月十六日，新兵使李浣到任。

二十八日，又有旨曰：“卿久留安州，則前患土疾，必未免復發。今邊報稍安，本城無事，退住順肅間，觀勢策應。”八月初七日，渡清川江，巡審清川以西各邑山城。二十三日，還到肅川，以山城形勢狀啓。九月初一日，鷄林李公書報于礮中武科。二十六日，以清西各邑山城修築看審事，發肅川，渡清川江。二十九日，到劍山，訪柳公琳於謫所。十月十五日，還到安州 十九日，子礮登科，自京來觀。二十七日，設慶宴於百祥樓，本道兵使李浣、本城判官李仁達、寧邊府使李顯達、熙川郡守韓灝、价川郡守任用賢、江東縣監洪乃範、德川郡守李元榮、順安縣令柳應時、肅川府使孟孝

男、殷山縣監李英耄，皆與焉。

十一月十二日，進住鐵山之蛇浦。時，椴島軍兵作亂，拿綁都督黃龍，副摠沈世魁，救解之。黃龍以其印傳于世魁，世魁自稱權署，揚言出陸易米，以爲過冬。清北人情洶洶，於是公領安州入防砲手進住蛇浦，以爲備禦計。且移書黃·沈兩將，及張遊擊魁，慰諭之。

閏十一月初三日，還到安州。初六日，閔方伯聖徵、李接伴溟、朴管餉籩、平兵李浣來見。初十日，與兵使及府中軍嚴愷，出兵大獵。十二月二十日，留安州夜操。二十九日，晝鍊夜操，公在安州。六月，上筭論清野守城，廣設屯田之策。且請入送差官於虜中，以息狼怒。皆蒙採施。八月，又進筭申諭龍灣難守之狀，請姑停築城之役。【創見於上卷】

壬申正月初三日，留安州，曉行正朝賀禮。初九日，將移住肅川，朴餉使籩、李兵使浣來見，夕抵肅川。是日，拜平安道兵馬節度使。時李公浣，以事見遞。故有是命，而副元帥則減下。【時延平李忠正公入，接伴使李溟之言多短李公。監司又以事狀啓，終見遞。公書於日記曰：“兵使公雖驟陞，明敏冰操，大有步趣。倘少假之喫了世間事，亦不失爲名將，而蘭芽未茁：嚴霜先下，惜哉！”】十三日，聞知兵闕新命，卽以土疾轉劇。且被疏儒所斥，不敢強顏於軍民之上，轉疏乞解。【疏見於上卷】

十九日，上乃許遞。公自論灣城之役，清北之人，頗有怨者。時林慶業方起服，爲宣川防禦使，迫欲代公，陰嗾士子等，資以糧饌，上疏斥公，而至以已死之人，混書於聯名之中。故公疏中，有至有六月身死之朴仁儉，猶上九月之疏，是鬼亦陰誅云云。監司閔聖徽承朝命，查覈得實，慶業乃聽勸。二十一日，上下書命除朝辭赴任。翌日，單騎前進安州城下，以待疏批。二十三日，始聞申公

景瑗代公爲兵使。

二月，留駐安州。十六日，寒食節，曉祭本城丁卯戰亡將士。三月十八日，聞有還除元帥之命。二十七日，新兵使上營。三十日，坐聽漁堂，與兵使點閱神奇營兵馬。四月初二日，出安州南門外，祇迎復拜元帥教諭書。初十日，歷審德安屯田，到博川。十五日，發博川，往審長林及內外西陽松林等屯田，宿泰川。十六日，往審本縣九龍山城。【公日記曰：左右石屏，削立回抱，自城門戶內，有九龍淵。下有層龍淵瀑布，掛於半空者百餘尺。淵之上石崖，有棧路，此其城門，政是一夫荷戟，千人莫當者云。】

二十五日，還住安州。五月十二日，唐差胡雲鸞，以催糧事，嗾其家丁，詬辱管餉使朴筵，至於繫頸，送略干兵，捕捉作挈家丁三人，移囚平壤。十三日，聞柳公琳蒙放，前往博川迎見。十五日，與柳公竝轡，還到清川江，共乘小舸，泝迫七佛庵。兵使管餉使及本州通判，皆來會，終日而罷。六月十五日，移駐博川。七月，留住博川。初五日，王大妣以前月二十七日昇遐。是日，聞訃，卽於館庭，率郡守以下將士，望哭。

十一日，曉行成服。八月，留住博川。十八日，朴管餉自安州匹馬來見。二十日，往看寧邊山城修築處，暮宿府中。二十六日，還博川。二十九日，聞朴管餉將往海西爲敘別，往返安州。九月，留駐博川。十八日，張遊擊魁在席島，以書相問，且遺鳳州綱鑑一帙。十月初三日，還住安州。初四日，卽大行發軔，曉與兵使望哭館庭。初六日，大行下玄宮，時往哭館庭。十八日，行卒哭禮。十一月，留住安州。十二月初六日，與兵使往審藥山冬守形止。初八日，還安州。

癸酉正月初七日，與兵使晝操。二月初二日，體察使金公時讓來到

安州。是夜，備局關文來到：不許胡差增幣，遣使告絕，金大乾爲使，急往奴營告絕，徵八路兵，入避江都議已定云。初三日，體府留安州，共論廟謨失宜。初七日，金大乾持國書過安州。蓋更申歲幣之難從，以示絕和之意。其國書，略曰：“弊邦與貴國疆域有截，往在丁卯，貴國不意興兵，長驅深入，孤實惑之，未曉其故。然貴國既欲講好息兵，甚是美意。故孤亦喜而許之矣。弊邦之於天朝，君臣分義甚重，貴國要我負天朝者，則寧以國弊，斷不敢從。事大交隣，自有其道。和貴國者，所以交隣也；事皇朝者，所以事天也。丁卯三月庚午，與貴國大臣南木太大兒，宰白馬黑牛，敵血爲誓。此不但兩國所知，亦皇天后土之所鑑臨也。自茲以後，我兩國結爲兄弟，春秋信使往來。如貴國不諒孤區區之意，又發難從之言，此豈當初立誓之本意乎？強人以義所不敢，責人以力所不能，曰：‘我無他心’。其誰信之？共定約誓，本期永世勿替，共享太平，曾未七年，事端遽變，區區爲萬世生靈之計，將歸虛地。兄弟之間，設或微有不平，情義之重猶在。故貴國之心，雖變；孤之心，未嘗少變也。茲遣使臣，申告孤意云。”【廟堂教送大乾曰：“彼若曰：‘我本無渝盟之心、爾國何以致疑云。’則答曰：‘天朝即父子之國，乃發借船助兵之言，金銀弓角，非本國所產，知其必不能爲，而如是爲言者，非渝盟之心而何哉？’彼若曰：‘禮單量減，則爾國許之乎？’云。則答曰：‘方修城繕甲，以爲應變之計，何暇更思禮單增減之事哉？’”】

上年十月，虜遣其大將所道里，要歲幣。且請入處宴享。上召備局諸宰議之。體使金公時讓曰：“自古與虜和，無無歲幣之時。臣嘗與崔鳴吉等每言之，果有此請。”上曰：“勿輕爲如此言。”蓋上意虜不知有歲幣，恐其聞之也。仍不從其言，只許三處宴享，所道里怏怏而去。時備局諸宰議皆不同，獨摠戎使李曙，是時讓之言。朝廷遣回答

使申得淵，至瀋陽，不受禮單，不見使臣而黜送，更要歲幣，一如所道里來講之數。【金一百兩、銀一千兩，各色綿紬一千疋、苧布一千疋，青黍皮二百張、水獺皮四百張，倭長劍二十柄、短劍二十柄，天池茶二百包，雜木綿一萬疋，龍丹席一張，白紙一千卷、霜花紙一千卷，丹木二百斤，弓角一百雙，各色彩席一百張，胡椒十斗】至是，又遣大乾有此書契。公與金公時讓相議，姑留大乾之行，而聯名上疏以爲：“我國之於虜，強弱大不同，歲幣卽漢，唐所不免，不可先失其歡心，宜略改措語。”仍請擅留使价之罪，又馳到平壤待命。【疏見於上卷】上覽疏震怒，傳曰：“金時讓、鄭忠信等，恐其喪元，擅留使臣，指揮朝廷，此前所未有之事也。如此之人，若不斬首警衆，則無以震肅頹綱，金時讓等臬示當否，急速議啓。”備局啓曰：“非如臨陣失誤之比，姑先拿鞠定罪，似或宜當。”上依啓，仍傳曰：“虜賊雖或東搶之計已定於前日，今若出來，則人皆以爲自皆開釁，而歸咎於君上：一不幸也；人皆危懼，其心已死，小無扼腕之志：此二不幸也；難遏者人情，而人心不從：此三不幸也。有此三不幸，而強令行之，實爲不可。國書從速改撰以送，俾無敵人生怒之患，可也。”十五日，公與金公發於平壤，一時就命。二十日，入金吾。二十七日，原情後竝命削奪官爵，中道付處，金公配寧越、公配唐津，與金公相別於金吾門外，出舍於新門外民家。【二十一日，新元帥金自點辭朝出師，盛張威儀，揚言此賊易與耳。】憲府啓曰：“鄭忠信身爲戰將，則與金時讓之爲體使，責任有間，厥罪輕重自別，而竝蒙付處之命，法不當如是，請鄭忠信還收付處之命，西路極邊充軍云。”上曰：“鄭忠信身有大功。故參酌施罰，更勿煩論。”是日，公還入金吾門外，待命。二十九日，備忘記：“鄭忠信，久在獄中，前症不無復發之理。姑令放送，使之自其家出往配所。”憲府啓曰：“鄭忠信無罪則

已，豈有定罪，發送之後，姑令還家之理乎？請還收放送之命。”上曰：“鄭忠信，身有重病。姑令放釋，似無所妨矣。”三月初一日，憲府停啓。初三日，公渡漢水，向謫所。上送別監，教以好去。且賜藥物。【公日記曰：“回瞻漢水，不覺十步九回，戀闕之懷，殆不可堪，信知遷客去國之情也。”又曰：“感激恩遇，盡日流涕而行，兩袖已盡濕矣。”】始到唐津。【執義朴漢避嫌。大槩在我無自強之勢，而輕與賊絕和，臣實未知其計之爲得。然當初此計，斷自聖衷疇咨廟堂而定計焉。廟堂大臣苟有意見不合，則當於榻前，極陳得失可也。而唯唯而退，既退之後，是非靡定，及見金時讓之疏，則外爲請推，而實贊其計，嚴旨一下，則乃反曰：“斬首警衆，未爲不可。”一日之內，擬律之輕重，何其太懸絕耶？可和則和之、可絕則絕之：“不過兩言而決矣。初無定計。聖上曰：“是。”大臣曰：“是。”聖上曰：“非。”大臣曰：“非。”設令，聖上萬一有乖理之舉，大臣其亦將順而無違乎？”】金大乾不得入虜穴，只傳國書，得其答書而來。公於謫中感念聖眷，賦一絕。【詩見上卷】

四月十一日，移配于長淵。諫院請加律，移配邊遠，上不得已命移載寧。又以病鄉改之，乃配長淵。十二日，離唐淵。十七日，渡漢水，宿城西外。二十四日，到長淵配所。五月十六日，聞赦。【元宗冊封頒飭後赦也。】後有放歸田里之命。二十六日，到京家。李參判溟、錦陽尉卽來訪。六月初一日，完豐、綾城來訪。初九日，將往湖右，渡江，歷拜錦溪君於寓舍。十三日，到瑞山莊。【公日記曰：“矮屋打頭，竈煙滿室，一日難堪，殆成大病。”】十六日，使劉翼相地，卜家基於阿摩誌峯下。【開基祝文，見於上卷】十七日，登望日庵，避暑。【日記曰：“庵對大海，三角、五冠，皆入眼底。開戶便對華岳，益增戀闕之心。”】二十八日，乃仁穆王后小祥，早起望哭。七月十四日，公感懷有一詩。【詩見上卷】二十二日，將往湖南，宿兵營南門外。

八月初五日，到金堤，訪太守鄭畸翁，不遇。初七日，到光州本家。公離家十四年，始得還歸。【公日記曰：“妻孥相對，猶有羞愧之色，兒童不能相識，可悲云。”】

初九日，到先壟，展掃哭拜。十五日，行秋夕節祀。二十三日，往大帖，謁外祖及諸叔墓。二十七日，先考初度，曉進墓前行祭。

九月初二日，先妣初度，上墓行祭。初四日，起馬，爲尋蟾江舊棲。初六日，入雙溪石門，歷探智異諸勝，宿雙溪寺。【遍遊青鶴峯，翫瀑臺，佛日，玉簫，靈臺，道士佛，出等，地藏庵】初七日，出山過岳陽巖，乘船順流，夕到豬家。【公日記曰：“梅女亡已過六年，男能拜、女能語。悼念泉下，終夜流涕，蟾江佳境，盡爲傷心之地云。”】初九日，哭亡女墓。二十二日，曉行大忌祭。二十七日，統制使具公仁厚自晉陽來訪聯枕。二十八日，與具公乘舟，泝江登豬嘴亭舍，翫賞，乘夜而還。翌日，具公還營。十月初三日，湖伯自頭流船下蟾江，公亦泝江，往逆於虎巖，還到亭下，分袂，李順天袷與湖伯同來。十一日，京國杳然，感念，象絕賦一絕。十五日，又賦一律。【兩詩 見於上卷】十六日，晉陽兵使柳懋中來訪。二十二日，公乘小艇 帶月而往 賞床巖 宿昆陽之漁村。二十四日，尋床內外眞境，過立巖回棹，移泊臺巖，統制具公來會，夕宿德眠村家。二十五日，與具公同舟，歷覽床巖。又聯枕於人家。二十六日，與具公分手，將還鷺村具鉉家 投宿昆陽人家，翌日，乃還。

十一月初七日，離豬島出，宿月浦家。初八日，登光陽城成兵使允文亭舍。初十日，入松廣寺臨鏡臺。十二日，往順天富有津邊。十三日，與同福縣監林潭，共訪赤壁，卽甲午春，陪沙相遊賞地也。仍還昌平載村本家。十六日，省竹谷墓所。二十二日，率宗人，修



始祖景烈公墓。十二月初二日，新得碧魚，曉起行薦于先壟。

甲戌正月初一日，行墓祭。【初五日，公日記曰：“久臥田中，京信甚阻。玉樓寢膳，莫由得聞。白髮緣愁，箇箇長者。正爲此也。”】初七日，特命敘用。初八日，立春。有詩。【詩見上卷】二月初七日，起程向洛。十一日，渡金堤 見主倅崎翁 留一日。二十日，還京家。吏判、戶判即來見。二十一日，詣闕謝恩。上即命宣醞。二十七日，又賜酒饌。二十八日，又賜燒木。三月初五日，自內司別賜米豆。初九日，拜都摠管。四月初一日，綾城、綾川持酒來慰。十八日，拜金相於青楓溪，【公日記曰：“半日奉話，如入三清仙界，胸中灑然。”】與綾城、綾川、具伯鞏、李濟夫出遊水村溪畔，酒殽甚盛。五月二十一日，綾城、平城、綾川、李濟夫、具伯鞏來訪。二十七日，往見完豐。六月初五日，除捕盜大將。二十九日，以病，乞遞摠管及捕盜大將，上不許。七月十二日，拜內瞻提調。八月二十四日，子礪除北部主簿。十四日，往東門外，問金副學光炫竄謫之行，仍慰金相國。

九月初六日，子礪還自咸興。十月初三日，拜慶尙道節度使。是月，永安尉、錦陽尉、李白洲明漢、洪右尹贊皆來餞。十一月初二日，賜丹木，胡椒，弓箭等物。初四日，宣醞于南關王廟。公賦一詩。【詩見上卷】十四日，到仁同，訪張旅軒。十八日，上任。二十四日，祭癸巳戰亡諸將兵民土人男女之墓。

乙亥正月初三日，曉行賀禮。初五日，詣鄉校，謁聖。三月十八日，與湖南元方伯斗杓，會於智異之雙溪寺，翌日，由雙溪渡三神橋，入神興寺，上七佛庵，夕還雙溪。二十一日，下山到花開橋，與元公分路。二十三日，還營。是時，開刊白沙相公文集，張谿谷序之，以行於世。四月，痰火昇降之症漸劇。五月二十六日，症勢

益重，精神憤亂、言語倒錯，使判官朴敦複製疏，【疏，見於上卷】乞生還京師，得近醫藥，庶有他日圖報之路。上許遞。

七月初四日，出次神堂里人家，以稍待暑退也。初九日，御醫朴頴，以上命，持藥物來視，公拖冠帶，上階拜迎。初十日，自神堂里發向京城。二十八日，到忠州，由木道而行。八月初一日，午泊漢江，乘昏還家。上即遣別監，問病初四日，賜生鮮。十八日，上遣別監，問病賜生獐、生雉等物。十月初一日，賜生獐、生雉、生鮮等物。十六日，上遣別監，問病，且賜生獐、生雉、生鮮等物。十一月初一日，上遣別監，問病，且賜生獐、生雉、生鮮等物。初九日，自入深冬，症勢日加危重。二十七日，痰火昇不下，言語不通，沈迷委頓，比前加重。

丙子春，都下訛言盛行，以爲倭寇將至，至有驚動避亂者，民皆荷擔而立。或來問於公，公曰：“南倭則雖自我國懇請，亦必不來。今日我之所大憂者，其在於北虜乎！”二月十七日，胡差龍骨大·馬夫大等來告：“汗已陞皇帝位，國號太清。”果驗公言。二十九日，館學儒生等上疏，請斬虜使，以明大義。兩司合啓斥和修兵，以振作自強。【是日，申景瑗爲副元帥、柳琳爲平安兵使】三月，送使虜中，告絕和親。公方委頓，床席，得國書，起覽未半，還臥太息曰：“國家存亡，判於今年矣。”自此病勢益增。

四月初一日，上賜生獐、生雉、生鮮等物。二十四日，內醫書啓：“獨蔘湯最能起死回生，而非如他賤材，連用未安云。”上教曰：“可以回生，則雖竭一國之力，亦所不惜。況數斤人蔘乎？爾其勿爲如此之言，此藥連續用之，期於必瘳。”十七日，上賜送酪粥一器，仍命該司連續以送。五月初四日，卒于盤松坊第，壽六十一。上因

內醫書 啓 聞訃，傳曰：“重臣卒逝，該曹單子，雖未入 啓，開筵未安，今日晝講停。”翌日，下備忘記曰：“錦南君鄭忠信，非世祿之人，而盡忠王室，以安 宗社。予念其功，未嘗暫忘，病生勞瘁，終至不救，予甚悼惜，如失股肱。”其令該曹，禮葬之物，一依橫看，趁即題給。別爲致賻，俾無不足之幣。且 賜御襦衣·道袍各一襲，以爲斂襲。六月，遣禮曹佐郎林壇，致祭。【祭文，見於本篇。】勳府，亦致奠，其祭文稱道甚備。【崔完城文也。見於本篇。】延陽、綾川皆操文來祭。【祭文，見於本篇。】谿谷、完城、畸翁、蒼谷李公顯榮，皆有詩以挽。【詩，見於本篇。】

七月，禮葬于瑞山郡北摩詰山下智谷甲坐庚向之原，公嘗所自卜之地也。公臨終，語子弟曰：“余之微功，已載於青史。死後，慎勿以文字，溢美請諡，立碑石物，藏器皿。”○嘗東西稱貸，僅繼朝夕。家人謂曰：“在官時，全不念家事，致有今日艱楚，是誰之咎也？”公曰：“余自在小官，猶不取官中一物。況今官高祿厚，乃犯賊律乎？更勿爲如此言。”○平生好讀書，雖在兵間，亦手不釋卷。友人宣平山若海在任時，爲求可觀書。公以小學一帙送之，宣公駭之曰：“何乃小兒畜我？”還其書，識者咸是公而笑宣。嘗鞍峴之役，布陳旣畢，【在於甲子】倚胄假寐，始祖景烈公授以長槍曰：“是吾討倭時物也。汝亦以此而戰。”公跪而受之，俄而覺之，乃夢也。心中遂自負焉。正月十四日，文晦等上變。二十一日 适賊殺王人，舉兵叛。二十二日，适從价川向京師。二十五日，元帥起兵平壤。二十九日，元帥發平壤追賊。二月初二日，公與南公以興，到黃州薪橋，與賊戰失利。初八日，臨津失守。夜，上南狩，初九日，上次漢江舟中，朝到良才、午到果川，夜半，次水原。是日，賊入京城。

十一日，上次稷山。是日，官軍破賊於鞍峴。十二日，上次天安捷音至。二十二日，上還都策勳。【下教書，仍賜伴僮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五十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公以次子礪嫡長之意呈，禮曹入啓，乃蒙允。○公放歸田里，在於癸酉往瑞山莊，自卜一穴於摩詰峯下，戒子弟曰：“他日必葬我於此，雖有術人雌黃，慎勿動焉。”○諸功臣爭占賊家田畝，奴婢，公獨終不爲意。玉城張公，入白於上：“功臣中，惟鄭忠信一無所得，聞賊佔田畝之在瑞山郡者，今屬勳府云。請以此折給。”上允之。蓋公之瑞山莊卽此也。○公於平生所爲事，輒逐日筭記。且家無一長物，惟有書籍插架。戊辰年間，因墻壞盜入，而無所得，乃偷去其書篋。故丁卯以前日記，在其中，遂失之，只有戊辰以後日記一冊。○嘗使子弟往候張玉城，【在於丙寅元朝】子弟辭以無馬。公正色責之曰：“余微時出入，每以徒步，汝何敢出此言耶？”子弟惶恐而去。以故子弟常時洛中出入，不得騎馬。○公自公退，謂家人曰：“傳食時，何其多備饌品乎？”家人曰：“饌品太薄，則豈不取羞傍人乎？”公曰：“食之者吾，而吾能不羞，在家之汝，何羞之有？其更勿如此。”○隣家有好梨數枝，壓出公家墻內，如或因風墜落，則必命還擲其家，隣人歎服。○嘗如廁，見新脫狗皮在道側，推問之，乃蒼頭惡隣家狗偷食馬太而殺之也。公使子弟，押其蒼頭，往答於狗主家，仍給其狗價，隣家極感歎。○每值大駕西郊，舉動之時，公必下庭伏地，俟過去，乃起。○每歲元朝，必往謁白沙相公家廟。○綾原大君慕公之爲人，因綾城，道意願一相見。公悚然曰：“交結王子，罪犯死律。況今方帶將任者乎？”

挽雲集

附錄卷三

摭錄 謚狀



## 諡狀

### 諡狀

公諱忠信，字可行，姓鄭氏，系出錦城，後徙光州。高麗名將景烈公地之九代孫也。曾祖荐行，臨陂縣令，贈戶曹參議。祖錫柱，贈戶曹參判。父倫，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崇政大夫，判中樞府事，錦川君。母李氏，贈貞敬夫人。皆以公貴推恩。以萬曆丙子，生公。自公祖父至公，皆爲士伍隸兵營，而公又以小胥，給事本州，其踐更兵營也。嘗寓老妓家，饋公以兵使餽餘，却不食曰：“大丈夫當爲兵使，享方丈饌，何可食其餘？”公時童稚，志氣已如此。壬辰，公年十七，時倭寇大入。權元帥慄以光牧起兵討賊，公嘗在權公左右。一日，請偵賊。權公呵止之。固請，遂與數人馳往，射殺一賊，斬其首以歸。權公大奇之。募人奔聞行朝，莫有應者，公慷慨請行，杖劍穿賊壘，達龍灣。白沙李相國時長本兵，一見知公英才，留置幕下，授以左、馬，聰悟絕人，過目輒成誦，未幾，貫穿靡遺。是歲，命設科灣上。公登武科，宣廟召見獎諭。且曰：“年尙少，稍長可大用。”丁酉，連遭內外艱，以禮終喪。從張公晚奏請使之行，入燕。張公按北關，又從往董築城之役。戊申，始除造山萬戶，己酉，陞甫乙下僉使，及瓜遞。乙卯，又除包伊萬戶，其明年，吳公允謙使日本，啓請與俱。當光海錮西宮，筠、開、大珩等謀因讎，行大事。公聞而痛惋奮身，與具公仁厚、李公重老，乘夜往，欲縱殺三

賊，適筠不在，計不售。白沙李公之竄北青也，公隨行，間關扶護。及其卒，手自襲斂，盡誠信奉歸葬，持心制。庚申，從張公於體府。朝廷欲遣公探建州情形，而恐毛鎮知我人入彼，則事有得失，使公潛行。公上疏言：“今臣之行，非刺客奸人，理難匿跡，全遼地方，豈無一二思漢者之走漏消息？毛將以不稱其慾，望我方深。若變幻辭說，以誤中朝聽聞，則參母之杼，不待三至而投矣。請亟將遣臣事狀，敷奏天朝，且移揭毛鎮。事須明白正大，可免他日頰舌也，必欲臣潛形而往，臣雖被誅戮，不敢奉命。”朝廷不能奪，乃移咨揭于經略及毛鎮，識者韙之。公入建州，與諸大酋言，諸大酋皆服公，問公曰：“爾國每謂我爲賊，何也？”公曰：“爾曹以盜竊天下爲心，非賊而何？”諸酋笑而不能難。乃盡得其要領以歸告，且曰：“是將爲天下患，豈獨我國之憂也？”後果驗。張公爲本兵，遂擢除滿浦僉使，戍卒頌其德。壬戌，遞授平安道兵馬虞候。癸亥，仁祖命公，莅斬義州府尹鄭遵，仍權領本府事，俄拜安州牧使兼防禦使。以治行，賜表裏。其後，邑民勒石追思焉。甲子正月，副帥适舉兵反。公聞變，卽馳赴元帥軍於平壤，元帥張公將罪公不爲城守計。公曰：“賊意在疾趨京城，必不由安州，且膠守孤城，不若來聽調用，故來爾。”張公曰：“然，賊情不可遙度。本鎮不可擅離，其急還。”因問曰：“今賊有三策：厚結毛將，據有清川以北，上策也；陰連建酋，倚其聲勢，中策也；問道疾趨，直向京城，下策也。以君料之當出何策？公曰：“必出下策。”還到順安，聞賊已向价川路，報元帥曰：“安州已在賊後，不可退守以賊遺君父，願還部下以擊賊。”元帥可其報。備局褒啓：“公暨南公以興，決死討賊。”請施賞命，及成功論賞。元帥出兵。是日直星犯七殺，或以兵家所忌難之。公曰：“豈有



赴救父母之病，而擇方而行者？況師直爲壯，奚拘於孤虛王相之說？”元帥然之，以公爲前部大將，南公爲繼援大將，領兵以進。适聞公赴元帥軍，恤然有懼色。且與其徒，數征西諸將輕侮之，而獨於公，若金亮之憚劉信叔云。我軍追賊，至黃州之薪橋，排陣未畢，望見降卒之來投者，謂賊鋒遽逼，陣勢驚動遂潰，公卽收兵，得不大敗。元帥使公領職如舊，立功自效。又追賊到坡州，時賊已據京城。元帥會諸將，議進兵當否。公首建策曰：“諸將不能戮力討賊，賊犯京輦，君父播越，諸將之罪合萬殞。今事已棘矣，不可玩寇。成敗非所論，一戰烏可已也。況兵法：‘先據北山者勝。’我軍若據鞍嶺而陣，俯壓都城，則都民望見，必思歸正，且其勢，賊不得不出戰，而我乘高得形便，破賊必矣。南公曰：‘今日之事，鄭某策之善，願速決。’元帥遂從之。公卽上馬先發，南公與諸將繼之。軍在道，元帥令公欲持重，公乃反其令，呼于衆曰：‘元帥令我促進兵矣。’揚鞭疾馳以進，其機警勇決如此。公預遣輕騎草山上鞍嶺，獲烽卒，使舉平安火，以誑賊。公先到嶺上，行戰地，諸將鱗次至，遂布陣公所領爲頭局。時諸將夜到，人馬喧嘶，而適東風大起，賊在城，漠然不知。翌日朝，賊始見我軍鎮嶺上，卽開門出兵，漫山蟻附以上。賊將明璉爲前鋒，适自督戰直攻我頭局，矢丸乘風如雨。我軍處絕頂，皆殊死戰，俄而風忽反，賊在下風。我軍氣益奮，自卯至巳，戰益力，賊將李壤中丸死；明璉中箭而却，賊兵之死陣前墜澗谷者，不可數。我軍踴躍追擊，勢若建瓴，無不一當十者。适走入城，是日，甲子二月十一日也。公算适將出城走，可伏兵東郊以邀，追及於慶安驛橋，賊衆望見，遂潰散。翌曉，适、明璉爲其下所斬。自公從元帥起兵討賊，至是凡十七日而賊平。上回鑾，諸將皆駐京

城以迎駕，公先獨歸鎮。人有問者，公曰：“吾以邊上將兵之臣，不能亟翦狂賊，使君父蒙塵，臣罪大矣，何敢以有功自居？惟當退守本鎮，以俟朝命。”上特命駟召，公始入朝。引見獎諭，賜金饋酒，遂策勳一等，賜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之號，封錦南君，是年秋，進秩正憲，在任所有疾遣內醫，劑藥以視。俄而，拜平安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公上疏固辭。上褒以有才有智，優批敦勉。乙丑，以風疾遞歸，醫問賜賚絡繹。養病盟府久之。丁卯之亂，張公以體使調將士，公爲別將，力疾從征。備局言諸將之才略過人，已試有效，無如鄭某，宜爲副元帥，付以西北兵、添與三南勤王兵，使專制關外。”於是卽軍中拜命，移住海西峽邑，分兵守臨津等江灘。諸道兵未畢集，而敵人請成退歸，乃尾其後，進往安州。我人被虜逃歸者顛連道路，公盡心贖給之，活嬰兒遺棄者累百，掩埋平壤、安州兵民之死於兵者，爲壇哭祭之。戊辰夏，又以風疾，乞上京調治，許之。造朝引見勞問。且詢毛鎮動靜、敵情虛實及將吏能否、邊防如何？除備局堂上。己巳，兼都摠管，自此累拜焉。丁卯變初，公言：“此必欲得和以去。”己巳，邊臣報：“毛鎮有動兵構亂形。”公策：“其必不然。”至庚午敵兵大隊來屯灣上，龍胡率數百騎到安州，西關振動。公奏：“彼必大舉入關中，恐我與毛鎮擣巢穴，爲此牽掣之計，必無他憂。”皆如公言。劉興治之作亂島中也，將命將問罪，昇平金相國請遣公。公進曰：“如以爲可使臣，請爲王前驅。”上大悅，嘉獎以遣之，公遂將水軍萬餘人及兩局精銳戰艦二百艘，耀兵順肅之間，興治之黨李英俊者，見我舟帥甚盛，驚怖仆地幾死，島中荷擔以立。已而興治送款稱：“受勅領島。”孫閣部亦咨：“許寬宥。”上遂命班師。公之是行義聲聞于中華，及興治死，兵部移咨褒之曰：

“興治叛據椴島，向非貴國當事之臣忠勇以滋蔓，齊魯之境，幾不乾淨云。”辛未，敵兵二萬騎入清北，聲言：“將借船攻椴島。”其情叵測，急命公禦之，召公問計，對曰：“彼若出兵西犯，而又侵于東，則意在掣後，不是深慮；若不西犯而專意於東，則西門可守之地，只有安州一城，臣當入守以決死戰。若借船攻島，存亡雖判，不可許也。”遂馳赴安州，聚五營兵，激勵以死戰。且見彼使而責之曰：“無端領兵入我地，大違誓盟，況黃都督奉天朝命，鎮椴島，我豈背天朝借船助攻乎？”彼亦無以應，俄而撤兵而退。是冬，椴島揚言：“出陸易粟以過冬。”公進駐鐵山之蛇浦以備之，乃馳檄責島，且書諭黃沈兩將，島衆以故不出陸。公前後三上笏，論西邊事宜，請築列邑山城，勅海防，設屯田，有變則入保清野，且言龍灣之不可守，識者以謂深得守邊之策。將下廟堂，如築城屯田，略見採試，而椴島設鎮，既始而旋罷，及漢人入處兩島而莫能制也，廟堂亦悔之。壬申，拜平安兵使，解元帥。林慶業覬代公，嗾人疏斥公，公遂陳情免。俄而復膺元帥之命。癸酉春，朝廷遣使入瀋將申言歲之不可許，以示絕和意。時金公時讓以體使駐安州，公與金公議共陳疏言：“我之於彼，強弱不同，歲幣，唐宋所不免。宜略改國書，無致邊釁。”仍請擅留使臣之罪。上教甚嚴，廟堂請速治，允之，仍命改撰國書。公既就理，初配唐津。憲府請充軍，教曰：“鄭忠信身有大功，故參酌施罰，更勿煩論。”遣掖庭人慰諭公，且賜藥物。諫院又爭之，上命移海西，改配長淵，到配未一月，放歸田里。公離鄉十四年，始歸光州舊莊，哭掃先壟，修治始祖墓。時以匹馬輕紉，遍訪佳山水，人不知其舊時元戎也。讀莊、老哦詩，以寓懷。詩有，有味檢書孤燈夜，無心射虎灞陵原。只憐老驥逢秋動，櫪下悲鳴向塞門。之句。

甲戌，特敘，上京謝命。宣醞，仍賜酒肉米豆，授捕盜大將兼內瞻寺提調。是冬，拜慶尙右兵使，到營，祭癸巳戰亡將士。明年夏。疾作遞歸。上遣人問疾，賜饌物，月以爲例。丙子，疾益加，內醫診視言：“當服蓼，而難於繼用。”上曰：“如可療此卿，固無所惜，況數斤蓼乎？”時都下洵洵言：“倭寇將至。”公曰：“南寇必不來，所大憂者，其在北虜乎！”及廷議絕和，公方困篤，聞而太息曰：“國家存亡，決於今年矣。”病遂添，以五月初四日，卒于第，壽六十一。訃聞，將開筵命停，教曰：“錦南君鄭忠信，非世祿臣，而盡忠王室，以安宗社，予念其功，未嘗暫忘，病緣盡瘁，終不起，予念悼惜，如失股肱。”其令該曹禮葬之。又遣中官護喪，解御服以祔之，禮官致弔如例。七月，葬于瑞山郡北摩詰山庚向原。臨終謂諸子曰：“余以非才，久叨元戎，終無報效，是余自以爲罪者。若甲子微勞，自有國乘，慎勿以文字，鋪張虛美，立碑、請諡、禮葬竝已之。”配許氏，無后。後配梁氏，三男二女：男礪·礪·礪，公命礪承祀。礪登武科，行府使，襲封錦平君。公短少精悍，目若曙星，容儀端雅、才識敏達、談論纒纒，聽者忘倦。內行甚修，篤於奉先，喪祭盡誠慤，新物必薦後食。其在城西第，值大駕出西郊，則必俯伏于庭。居官不以脂膏自潤，家居貧甚，時不免稱貸，非章服，不衣錦，食不重肉。諸功臣爭請逆家田土，公獨不言，張公爲請，始得賜，賜第在城中，爲近張公居，移居，甚湫隘而終身不增一椽。隣有好梨，枝過牆，實墜地，輒令擲還。其事白沙相，逮其沒，誠禮益篤，元正，必拜廟；忌日，必與祭，待其子弟若至親。事張公，亦亞於白沙相。武將如具綾城·綾川，最相善爲知己。南宜春初有隙，及共討賊，則如李、郭之相勉，遂懽然相得，宜春沒，陞堂拜母，得異味必遺。少

遍交白沙相門下諸名士：張谿谷、李延陽暨崔完城、鄭學士弘溟，與之莫逆。及其令譽之藹鬱也，則一時魁彥，無不慕悅，相造請，不以人地爲間，然於其所自守甚嚴。有王子慕公爲人，願一見，公悚然曰：“交結王子，有其律，況身居將任者乎？”終不見。性好讀書，其入建州，奴酋欲試公，幽之一室以餓之。公猶達夜讀書琅然，乃左氏傳也。平居，左右圖書，恂恂若書生。爲章奏，簡當的確；詩文，不作膚俗語，而不存稿。行事，輒笥記成卷帙，亦多散帙。金版、六弋，凡諸兵家者流，固所專門。而推以至於甘石、堪輿、卜筮，星命、藝術之書，莫不旁通焉。白沙嘗曰：“此人若投劍挾冊，優於一世高士。”完城誅公之文曰：“清明之氣，合於太虛；端妙之姿，留在畫圖，冰檠之操，衣不掩身，左馬之文，獨追古人。”其爲名公之所賞譽推重如此。公童丕遇亂，投袂鋒穎卽見，旣出而從王事，西關北塞，山川險阻，舉皆歷略其形勢。以至南入日域、北走沙漠，異國情態，探刺揣摩、燭照數計，而暨乎臨機運籌、膽略縱橫。金公時讓，比之三國策士。張谿谷，服其善於料敵焉。遭值甲子之變，奮發忠義，決策先登，以之殲巨寇，恢國步。遂授齊鉞，綢繆邊圉，出入七年，勞悴備至，其沒也，綸音惻怛，聖主知臣哉！槩公平生而論之：其奮身行間，似狄武襄；迅掃寇亂，同李西平；謙退不伐，類馮將軍；學文開益，如呂子明，有陳湯習虜事之智；有曹彬載圖書之廉，至其守邊規模措畫：亦猶孟珙之鎮江漢；余玠之捍西蜀，而惜乎！其志業之未能究焉。嗚呼！天歟人歟？自甲子戡亂至今歲，干支周而復回矣。於是，我聖上追念公功，爰命有司，收錄其後，且舉易名之典。肆惟公之旂常偉績，益將炳耀於無窮矣，猗歟盛哉！留守李公選所錄公遺事甚詳密，茲摭其較著者，論纂如

右，以備太常之議云爾。崇禎紀元後甲子十二月日，奮忠效義炳幾協謀保社功臣、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金萬基謹撰。

## 摭錄

### 海東名臣錄略

鄭將軍，本光州，知印。穎悟出衆，權元帥爲牧使時，絕愛幸之，壬辰之亂，年十七。牧使陞爲本道方伯，起兵勤王，忠信從之。方伯嘗送兵，偵探于賊陣，忠信請同往。公之曰：“汝小兒往將何爲？”忠信固請，遂遣之，馳到賊陣，則賊已退去。忠信周視村家，有破甕倒覆。忠信戲而射之，甕中有病倭隱伏，中箭而死，遂斬其首，懸於旗竿而來，權公大奇之。其後，欲送狀啓于行朝，則時賊兵彌滿西路，人莫肯去，獨忠信請行，晝伏夜行，踰山越海，得達義州，適值行朝設科，遂登科。權公既沒，白沙李相亦愛之，常置左右，字曰可行。推薦拔擢。終爲名將，爲滿浦僉使、平安·慶尙兩道兵使，仁祖初年，爲副元帥，討平賊适，錄振武元勳，封錦南君。

### 白沙與張巡察晚書略

鄭忠信，知兵判，有拔用之意，來言於我，“願勿見用，唯托身令之麾下，以便其行止。”今忽爲造山萬戶，無端遠適，極可悶憐。旣當築城之役，未可以此啓遞耶？爲人局量雖小，才氣義氣俱可惜。以

其義氣，遊於衆武之中；政猶以章甫適越，屢遭其顛沛，固其宜也。若投劍挾冊。不害爲一世之高士。而猶不信吾言，惜哉！

### 青興君碑文略【趙綱】

戊午時，群小縱與光海，銅廢大妃已久。筠、開、大珩，又爲佞鬼，肆倪西宮，謀因除夕儻行大事，有耳者莫不聞。公謂具綾川仁厚、鄭錦南忠信曰：“三綱絕矣，國不亡何待？吾聞忠信不避死，庶幾吾等決一死，縱殺此三賊，惟力所及，奚止擰母后一日禍，社稷庶有賴哉！”遂相與歃血，約日屠三賊，會筠等自發覺伏誅。公匡復之志，實權輿於此也。

### 破賊論略【荷潭】

适之反也，稱“京城有變，領兵入援”。分遣手下精勇者，召諸將。定州牧使丁好恕文晦覺其有異，斬其使，領兵詣張晚；安州牧使兼防禦使鄭忠信，令肅川府使鄭文翼，守安州而自詣張晚，請從行。晚責其棄城，將罪而赦之，竟誅适，立大勳。余嘗從容問曰：“公聞适叛，棄城而遁，何也？”忠信曰：“吾與李适交若兄弟，國人皆知。吾亦爲文晦等所告，幸蒙上恩，得免拿問。适叛而我在寧邊近，地爲人所疑，則我之素心，無以自白於天日之下，棄城而遁者：明吾本心，而人自信之也。适既誅，張晚飭西來諸將，俟大駕還京，迎拜



於江上，而忠信獨歸來，辭於李時發，時發曰：“諸將皆留，公不可獨歸。”忠信曰：“忠信以西路將兵之臣，不能即誅叛賊，使大駕播越，而逆兵入城，其罪大矣何敢自若有功者，迎駕於江上？退歸本鎮，以俟朝廷處分耳。”上還朝，聞忠信還歸，特下聖旨，召之，其明敏，如此。

### 月沙書蟾江圖

戊午春，余與白沙諸公，同被白簡，竄命朝夕下，白沙先謫北，余未定歸骨地。曾聞鄭公忠信說蟾江可居，時隨沙相在北，余移書沙相，請送鄭公爲主人計，未成而白沙爲泉下人；余尙乾沒塵土；鄭公落於西塞。壬戌秋，迎我於擯幕，話間歎賞，皆蟾江也。適遇李畫師，圖其勝示余，噫，江山公物，孰爲主、孰爲賓，孰爲眞、孰爲假？使余日日對此，可當宗少文臥遊，豈必誅茅卜居，爲几案間物耶？遂書一律。聞君每說蟾江勝，邀我湘潭共卜居。我竟未成今老矣，君於何日得歸歟。淡粧濃抹詩難狀，競秀爭流畫不如。雨竹煙帆森在眼，臥遊終日亦吾廬。

### 谿谷謾筆略

丁卯，虜報始至，鄭錦南忠信從體察張公西出。余送之郊外，斑荊而語，鄭曰：“此虜今來，意在贛和，須得和即去耳。”余時意謂不

然，後竟如其言，蓋鄭公習知虜情故也。

### 金判書記聞【徽】

先人言，鄭錦南雖未知有大將器量，而若論才識則雖在三國之時，必不在策士高驤之下，其爲推重如此云。

### 月沙題蟾江圖詩

聞君每說蟾江勝，邀我湘潭共卜居。我竟未成今老矣，君於何日得歸歟。淡粧濃抹詩難狀，競秀爭流畫不如。雨竹煙帆森在眼，臥遊終日亦吾廬。

### 擊賊歌【白洲】

西關之西有名將，南斗以南無等人。壯年持節值時危，男兒有膽大於身。二萬狂賊擁城闕，一朝迅掃如掃塵。功成不居人所難，飄然返節清江濱。大駕還都急召公，煙花三月朝紫宸。席前賜酒散黃金，命錄一等三功臣。其一元戎其二公，一時禮遇無比倫。馬鞍峯頭百丈石，大書特書詔千春。勛公此心西擊胡，然後初奠三韓民。

**天坡謝帖**【公病在新安館，作戒行詩，贈天坡，天坡次韻以謝。】

遊方持戒遽臨淵，警策還憑鄭老賢。深愧此生長汨沒，誰教宿計失高騫。望中溟渤天無極，病裏分携淚自懸。知我歸時君已健，笙歌爛漫百花前。

**天坡寄思**【公以副元帥駐安州時，天坡寄詩。】

每到蒼黃日，看君獨出關。旌旗臨薩水，烽燧接龍灣。部曲徵前令，雲山識舊顏。近聞胡騎遠，笳鼓幾時還。

**天坡寄思**【公以平安節度住寧邊時，天坡寄詩。】

摠爲酬天眷，忘身判遠遊。牙旗按北鎮，玉節領南樓。時序驚芳草，離懷欲白頭。音書憑戍卒，回雁候汀洲。

**天坡贈別**【公以元帥南還時，天坡次畸翁韻，以贈別。】

麟閣圖形政黑頭，中興勳業動青邱。無端十二金城略，辦得田間恣意遊。

**白洲贈別**【公出鎮晉陽時 白洲病吟奉別。】

勳業麒麟第一人，至今髮鬢半成銀。從來厭飲清川水，此去耽看燕谷春。到處江山歸節制，新開壁壘倍精神。平生謾擬搥黃鶴，離別推敲笑病身。

**玄洲贈別**【公赴慶尚右閩時，玄洲贈詩。】

領額晉陽府，君其保障哉！臨江有勝地，矗石起高壘。燕寢清香擁，戍樓好月來。應知按節久，西塞淨塵埃。

**畸翁贈別**【公放歸田里時，畸翁贈詩。】

將軍夢罷大刀頭，匹馬南馳返首邱。長願廟謨終制敵。任渠漁釣作閑遊。

**鞍峴歌**【鞍峴勝戰碑文○三淵】

鄭錦南眞英雄，骨聳精緊萬人中。氣候分明朱義封，胸襟沈靜王司空。亦有春秋癖，經緯六韜三略通。平生知遇李鰲城，一時服事張玉城。關西督府載草草，半繕營壘未鍊兵。蜂目將軍舉事速，卒銳

久已輕朝廷。長驅萬騎蔽天塵，前茅青衣數千人。薩水豬灘一勢潰，百官跣足千乘奔。元戎左次但袖手，王在賊前我在後。將軍於此試鷹騰，左提右挈南以興。決機先唱據北山，牙旗高插雲之間。蜂攢蟻集仰萬弩，風自西來鼓天怒。漢城千街屋瓦震，弼雲三面飄沙舞。亂砲之下賊無餘，龍衣裹血禾川滸。凱鼓淵淵鐘簾完，翠華徐渡錦水還。道左匍匐庶人服，功高心小王乃嘆。漢水如帶鼎岳礪，白馬朱血登銅盤。敦義門南畫戟豎，鐵券所藏遺棟宇。功在山河不可泯，屋如傳舍幾易主。雪天鞍馬小儒過，軒前鞍峴猶嗟哉。到今國活賴此峴，不有將軍國如何。近者登萊有風色，鼙鼓興思在牧頗。兵家制勝貴用奇，焉用紛紛築城多。思公英偉不可作，倚柱遂作鞍峴歌。

## 晚雲集跋

### 跋【鄭文興】

噫，我五代祖錦南君扶社勳勞、處世行蹟，豈獨載於國史而已哉？古今諸賢所撰書中，亦多揄揚，則非孱孫之所敢稱道者也。先祖不存稿本，且失日記，適有留守李公收錄遺事。故光城金公有所論纂，傳在我家，而門戶零替，不得剗削，實是後裔之憾恨；抑有識者之慨惋。文興猥蒙聖恩，待罪谷城縣，適得若干財，且貰楚山人活字，印出之役，今纔告訖，不啻有吾門傳述之美；亦將爲來世觀感之資云爾。崇禎紀元後己卯七月十三日 五代孫谷城縣監文興 感泣謹跋

### 跋【鄭鳳鉉】

我景烈，盡忠扶綱、積仁累義，九傳而得錦南公，實光前而耀後矣。蓋甲子之變，鑾輿南幸、官軍西潰，于斯時也，其勢也一吸一瞥，不足以喻其急；累卵重棋，不足以喻其危，而鞍峴一捷，宗社再造，其豐功偉烈，莫之與京，而馮將軍之大樹，抑又高矣。是則播在百世之下輿人之口，而凡其小者，爲大所掩。故壬辰之奉啓間行；庚申之先見虜情；丁卯之興疾勇赴；庚午之興治服罪，世或莫之詳也。公自幼至老，置身於戎馬之際、闔鉞之間，讀書綴文，認無其暇。

而詩若文，又何其駕軼專門而浸淫古先也？嗚呼！天既爲弭亂而生公，則何才不稟、而何能不與也？非惟文章之爲然，忠義之膽、機務之密，應口輒露焉。統軍亭一詩，一何似岳武穆紫巖之贈，李忠武閑山之作；論軍務兩筭，一何似李忠定募兵之議，种宣撫守禦之疏也！凡今東土之人，不惟慕著外之大功，而有以窺內積之忠智，則是集之行，實爲斯世之幸也。闕逢敦牂之歲春三月中澣，景烈公十六代孫鳳鉉，謹書。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8

만운집 挽雲集

인쇄\_2022년 9월 10일

발행\_2022년 9월 20일

옮긴이\_노병덕

발행인\_천득염

발행처\_(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_062-603-9600      팩스\_062-941-6705

홈페이지\_<http://hiks.or.kr>

편집제작\_흐름([www.heureum.com](http://www.heureum.com))

비매품

ISBN 979-11-90608-36-7 94910

979-11-90608-28-2 (세트)